

몽골의  
역사

Mongolyn Tüükh



동북아시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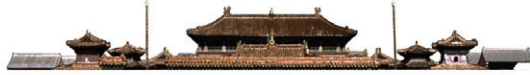
Mongolyn Tüükh II · III

Copyright©2005, 2006 by Ts. Gantulga et.al.  
All right reserved.

Korean Translation Copyright©2009 by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 책의 한국어판 저작권은 ADMON사와 독점 계약한  
'동북아역사재단' 이 소유합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 몽골의 역사

Mongolyn  
Tüükh

강릉가 외 지음 | 김장구·이평래 옮김

동북아역사재단  
500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책을내며

‘몽골’ 하면 한국인에게는 태어나면서 찍혀 나오는 ‘몽고반점’으로 부터 친숙하게 다가옵니다. 한국인을 포함한 몽골족계통을 영어로 ‘몽골로이드(mongoloid)’라고 하듯, 우리와 몽골인은 같은 인종으로서 갖는 친밀감도 있습니다. 이처럼 인종적 친근성과 함께 몽골은 생각하기조차도 싫은 고려시기의 수차례에 걸친 침입과 지배라는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80여 년간의 지배로 양국 사이에 문화교류가 많이 이루어져서 고려에는 몽고풍이, 몽고에는 고려양이 유행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전해오는 한국의 전통 혼례복장이나 만두, 설렁탕 등의 몽고풍은 몽골과의 관련에서 나온 역사적 유품인 것입니다.

요즘은 많은 몽골인들이 유학, 취업, 무역 등의 목적으로 한국을 찾고, 또 많은 한국인들이 사업상의 목적이나 우리에게 없는 자연의 모습과 거기서 살고 있는 몽골인의 모습을 보기 위해 몽골을 찾습니다.

이러한 몽골이 우리 한국인에게 또 다시 친숙하게 다가온 계기 중의 하나는 중국의 역사왜곡에 대하여 같은 입장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몽골의 역사와 교육에 대한 우리의 이해수준은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동북아역사재단에서는 우선 몽골 역사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몽골이 그들의 역사를 어떻게 서술하여 학



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중국의 역사왜곡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현재 몽골국 중등교육에서 사용되고 있는 ‘국사’ 교과서를 번역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몽골에서는 이 책의 상권 고중세사를 8학년 과정에서 배우며, 하권 몽골 근현대사는 9학년 과정에서 배웁니다. 이 두 권의 교과서를 일종의 ‘몽골통사’ 형식으로 소개하기 위해 한 권으로 묶어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몽골 학생을 대상으로 집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어떤 부분은 너무 소략하고 어떤 부분은 지나치게 상세하게 서술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칭기스 칸과 몽골제국에만 치우친 우리의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의 지배 시기 몽골과 20세기 초 몽골의 독립과정에 대한 몽골인의 역사인식을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오늘날 몽골의 역사교육과 자국사 인식의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몽골과 중앙아시아 유목민에 대해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자신의 시각과 몽골인의 시각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에 간행하는 『몽골의 역사』는 2008년에 재단에서 기획한 것으로, 몽골 역사교과서를 충실하게 번역해준 이평래 교수와 김장구 박사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 책의 출판을 계기로 양국 간의 이해가 증진되고 중국의 역사왜곡에 대처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우리 학계의 학문적 역량이 저희 동북아역사재단을 통하여 한층 높아지고, 재단의 연구 및 번역의 성과가 널리 알려지기를 기원합니다.

2009년 5월 14일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김응덕



## 해제

중앙유라시아의 역사와 문화 전반에 걸친 개설서는 이미 몇 권이 우리말로 출간되었다. 그러나 대부분 영어나 일본어로 집필된 책을 번역한 것이다. 그 중에 몽골 통사는 아직 출간되지 않았으며, 특히 몽골학자가 서술한 역사서는 없는 형편이다. 이 책은 몽골국의 국사교육을 알 수 있는 중등교육과정에 사용되고 있는 ‘몽골사’ 교과서이다.

몽골 학생들을 상대로 서술한 책이라 외국인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눈에 띄는 것이 사실이다. 70여 년에 걸쳐 사회주의를 겪고, 민주화된 지 20년도 채 되지 않은 몽골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유목민과 몽골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몇 가지 내용을 보태려고 한다.

먼저 주로 정주민의 시각에서 일방적으로 이해해왔던 유목민의 모습을 어떻게 균형적으로 볼 것인지, 중앙유라시아 유목민의 역사를 왜 알아야 하는지 등의 문제를 언급하겠다. 특히 중국인의 시각에서 바라본 흉노의 왜곡된 역사상을 예로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다. 이어서 이 책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번역의 원칙과 예외 등을 언급하도록 하겠다.

우리는 세계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 주로 정주 농경민의 역사, 그 중



에서 유럽과 중국의 역사에 대해 깊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다른 지역과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며,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았다. 특히 세계사를 동양과 서양의 역사로 나누어 이해하려 했기 때문에 중앙유라시아의 역사세계는 늘 관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가끔 세계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유목민들은 정주세계를 위협하는 ‘야만인’의 모습으로만 묘사되었다. 이러한 단편적이고 잘못된 인식은 유목민과 그들의 역사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로막는 장애가 되었다.

유목민이 세계사에 남긴 흔적은 아주 다양하다. 그 중에서 몇 가지 예만 들어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 첫째, 흉노의 서천(西遷)은 유라시아의 역사를 크게 변화시켰다. 중국 왕조와 장기간에 걸친 항쟁으로 인해 쇠약해지고 분열된 흉노의 일부 세력이 서쪽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 이후 4세기 중반에 동유럽 초원에는 훈족(the Huns)이라 불리는 유목민족이 등장했다. 이들은 흉노의 서진 과정에서 새롭게 형성된 조직이라고 본다. 그 후에 일어난 훈족의 활약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둘째, 몽골 고원을 중심으로 제국을 형성했던 투르크인(Türk, 突厥)의 서진(西進)으로 인한 중앙아시아의 투르크화 현상이다. 이로 인해 중앙아시아는 현재의 모습을 갖게 되었다. 이후 투르크인들이 이슬람을



받아들이면서 중앙아시아는 다시 이슬람화라는 중요한 과정을 겪게 되고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셋째, 몇 차례에 걸친 몽골의 서정(西征)으로 인한 유라시아의 통합 현상이다. 어떤 이는 몽골인이 진정한 의미에서 최초의 ‘세계사’를 창조하였다고도 하며, 이 시기를 ‘몽골 시대’라고도 부른다. 아울러 ‘몽골의 투르크화’와 ‘투르크의 몽골화’가 동시에 진행 되기 시작했다.

중앙유라시아의 인문지리 범위는 동(東)으로는 흥안령 산맥에서 서(西)로는 헝가리의 판노니아 평원까지 이어지는 초원과 사막과 오아시스 지대, 남(南)으로는 티베트 고원에서 북(北)으로 시베리아 남부 삼림 지대를 포함하는 아주 광대한 역사세계이다. 그리고 초원의 유목민 세계는 사막과 오아시스의 농경민과 대상들의 세계와 정주 농경민의 세계와 밀접한 교류와 항쟁을 통해 세계사의 흐름에 깊은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

유목민의 탄생 이전에도 중앙유라시아에는 독특한 문명이 존재하고 있었다. 중앙유라시아 각지에서 발견되는 고고학 발굴은 그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구석기와 신석기 문화 뿐 아니라 청동기 문화유적은 그들의 문화 수준을 단적으로 나타낸다. 세계사적으로 보면, 유목문명은 극히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다. 유목민의 탄생은 기원전 2000년대에



서 기원전 1000년대로 넘어오면서 발생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들은 정주민의 역사서에 스키타이, 사르마트, 용적(戎狄), 호(胡) 등으로 기록되었다. 정주민 역사가들은 한결같이 유목민들이 이동식 주거(게르, 마차)를 사용하고, 양, 말, 소, 낙타, 산양, 염소 등을 사육하며, 기마(騎馬)에 아주 능했다고 적었다. 정주 역사가들의 기록은 유목민의 역사를 재구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비록 그 기록이 일방적일지라도 말이다. 왜냐하면, 유목민이 자신의 문자와 기록을 갖게 되는 것은 투르크인에 이르러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후에도 정주 역사가들의 기록은 여전히 유효하다. 유목민들이 남긴 기록은 투르크, 위구르, 탕구트, 거란, 여진, 몽골, 만주 문자 등으로 남아 있다.

역사상 등장했던 유목민은 크게 네 계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인도·이란계통으로 스키타이, 사르마트, 월지(月氏)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둘째, 투르크 계통으로 용적(戎狄), 호(胡), 흉노(匈奴), 투르크[突厥], 위구르[回鶻] 등이다. 셋째, 몽골계통으로 선비(鮮卑), 유연(柔然), 거란(契丹), 몽골[蒙古] 등이다. 넷째, 퉁구스 계통으로 숙신(肅慎), 읍루(挹婁), 말갈(靺鞨), 여진(女眞), 만주(滿洲)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이들은 명확하게 구별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예를 들면 흉노의 계통에 관한 논쟁이 그것이다.



흉노에 대한 중국 역사가들의 이해는 후대 투르크와 몽골 계통의 유목민에 대한 정주민의 인식의 전범(典範)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살펴 보도록 하겠다. 중국을 비롯한 정주민들의 눈에 비친 흉노(匈奴)는 ‘흉칙한 노예’일 뿐이었다. 그런데 흉노제국의 역사를 연구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그들 스스로 기록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흉노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문자기록은 대부분 이웃 정주세계인 중국이 남긴 것이다. 따라서 한국, 중국, 일본 동아시아 삼국은 주로 한문으로 된 역사기록을 통해 흉노에 대한 일방적인 이해를 할 수 밖에 없었다. 더군다나 그 기록은 대부분 흉노의 부정적인 면만을 강조한 것으로 올바른 흉노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지금까지 진행된 흉노 연구를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자.

#### 역사문헌을 통한 연구

흉노연구의 초기단계에서는 주로 중국의 역사 기록을 통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삼국에서 뿐만 아니라, 러시아를 포함한 서양학계의 연구도 기본적으로 동일한 상황이었다. 문헌기록을 통한 연구는 흉노인과 흉노제국에 대한 많은 기본적인 사실들을 밝혀낼 수 있었다. 그러나 흉노와 적대관계에 있던 정주민들이 남긴 기록이기 때문



에, 중국 중심의 역사인식에서 생겨난 흉노에 대한 부정적이며 편견에 사로잡힌 서술이 많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일부 연구는 흉노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에서만 가치를 갖게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었다.

#### 고고학 발굴을 통한 연구

흉노 역사를 복원하는 데 다행스러운 것은, 비록 흉노인들이 문자기록을 남기지 않았지만 보다 정확하고 생생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많은 고고학 유물과 유적을 남겨 놓은 것이다. 따라서 흉노제국의 실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고자 한다면, 역사기록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고고학 발굴을 통해 얻어지는 유적과 유물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연구가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중앙아시아의 유목민들이 탄생한 요람이자 활동의 중심무대였던 몽골은 고고학연구의 최적지이다. 이러한 사실은 지금까지 진행된 고고학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세계의 많은 역사학, 지리학, 고고학, 언어학자들이 중앙아시아와 몽골을 답사하고 연구한 훌륭한 학술성적을 출판하였다. 이어서 사회주의시기에도 몽골은 소련을 비롯한 헝가리, 동독,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등



과 근대적인 학문 방법으로 공동 발굴조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에는 러시아, 미국, 일본, 중국, 터키,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한국 등 많은 나라들과 국제적인 공동협력을 통한 고고학 발굴과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또한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

특히, 그 중에서 흉노 고고학 발굴조사는 몽골-프랑스, 몽골-러시아, 몽골-한국의 공동발굴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외에도 몽골국에서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인 주목할 만한 공동연구는 몽골-독일 공동 카라코룸 발굴과 1990년대 몽골-일본 공동 '고르반 골' 프로젝트, 2000년대 '아브라가' 유적 발굴, 몽골-터키 공동 투르크유적 발굴 등이 있다. 이러한 몽골의 국제적인 협력연구는 중앙아시아 역사 연구에 좋은 선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

흉노 고고학은, 정주민이 남긴 기록이 말해주지 않는 유목민의 참된 모습을 알 수 있는 지름길이다. 코즐로프의 발굴로 유명한 노용 울(노인 울라) 흉노 고분군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몽골은 사회주의시기에 독자적으로 또 소련과 공동으로 많은 고고학 발굴을 시행하였다. 최근에는 중국에서도 북방지대의 고고학 발굴을 통해 유목문명과 흉노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비교적 문헌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고학 연구도 일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역사고고학 연구



는 서양에서도 일부 진행되고 있다.

최근 흉노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몽골과 한국의 공동 발굴조사이다. 2002년 공동발굴 5주년을 기념하여 특별전을 열었으며, 공동 발굴 10주년을 맞아 2007년 한국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된 흉노 심포지엄은 그동안의 발굴과정과 조사성과 등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아울러 흉노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외국학자들도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흉노연구의 국제적인 연구동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의 고구려연구재단(현 동북아역사재단)에서도 내몽고 중남부의 오르도스 청동기와 문화에 대한 연구서를 발행하였다. 1990년대 이후 한국에서는 흉노를 비롯한 중앙아시아 유목민에 대한 연구가 아주 활발하고 주목받는 분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흉노연구와 더불어 알타이지역의 고고학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 새로운 연구 성과와 방향

1990년대 이후 흉노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기존의 정주민의 시각이나 중국 중심의 인식에서 벗어난 성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아울러 역사학 연구에서도 흉노의 입장에서 기존의 사료를 재해석하려는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발 더 나아가 흉노를 '유목국가의 원형'으



로 파악하고 이후 유목국가와의 상관성을 강조하는 연구 성과도 발표되었다. 그리고 기존의 고정관념을 타파하려는 연구도 출판되었는데, 즉 고고학 발굴유물을 미술사적 시각으로 해석하여 흉노의 미술양식이 중국 북부지역까지 광범위하게 영향력을 미쳤음을 논증한 우수한 연구 성과도 발표되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흐름은 기존에도 일부 연구되었던 흉노의 서방과의 문화교류에 대한 연구이다.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삼국은 오랫동안 흉노문화가 중국 것보다 뒤떨어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아울러 흉노 역사세계에 우수한 중국문화가 광범위하게 보급되었을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배경은 정주민의 문화가 유목민의 그것보다 우수하다는 고정관념이 있었던 것이다. 흉노 고분에서 발굴된 유물은 중국 제품뿐만 아니라 멀리 그리스 기원의 '그리핀(Griffin) 도상' 카펫도 함께 출토되었으며, 최근 발굴에서는 서방에서 직수입된 것으로 보이는 은제원반이 출토되어 흉노의 활발한 대외 교류의 모습을 증명해 주고 있다.

또 다른 하나의 흥미로운 연구는 '만리장성(萬里長城)'을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려는 시도이다. 우리는 만리장성이 유목민의 침입을 막기 위한 방어물이라고만 생각했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면 역대 중국 왕조



들은 초원 내부로 깊숙이 들어와 만리장성을 쌓음으로써 끊임없이 영토 확장을 시도했다고도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중앙아시아의 초원에서 유목을 위주로 활동하면서 세계사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고 또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했던 흉노인과 흉노제국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많은 학문적 성과를 이룩했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 비하면 아직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아전인수 격의 연구는 지양되어야 하며,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연구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극히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는 교조적인 연구는 흉노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역사왜곡으로 이어질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몽골과 중앙유라시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한국의 일반 독자가 읽을 수 있는 책은 그리 많지 않다. 그나마도 특정한 시기와 인물에 지극히 편중되어 있으며, 대부분 정주 농경국가 출신의 학자들의 서술이라는 한계가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물론 기록을 많이 남긴 사람들이 정주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목민들도 기록을 전혀 남기지 않은 것은 아니다. 투르크·위구르어, 몽골어, 만주어, 티베트어 등으로 기록된 그들의 역사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이 남아 있다. 다만 익숙하지 않았을 뿐이다. 중앙유라시아 사람들에게 대



해서 그나마 우리들이 알게 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통로는 대부분 한문(중국어)과 일본어, 영어로 된 책을 통해서였다.

그러면 그들은 스스로 무엇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가?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문에 익숙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암호 같은 유목민의 언어와 문자는 더 큰 혼란과 어렵다는 인식만 심어줄 위험성이 크다. 관심 있는 이들조차도 전공자들이 각기 서로 다른 발음과 전사 방법으로 번역해 놓은 것이 같은 단어인지 다른 뜻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현재 몽골국(Mongol Uls)에서 사용되고 있는 ‘몽골사’ 교과서이다. 몽골의 교육제도는 초중등 교육과정이 11년제로 운영되고 있다. ‘몽골사 개관 I’은 5학년 과정에서, ‘몽골사 II(고·중세권)’는 8학년 과정에서, ‘몽골사 III(근·현대권)’은 9학년 과정에서 배운다. 그래서 5학년에서 ‘몽골사 개관 I’을 배워 기초를 쌓고 나서 8~9학년에서 심화과정을 통해 ‘몽골사 II(고·중세권)’, ‘몽골사 III(근·현대권)’을 배우면 몽골 통사를 전체적으로 알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 책을 번역한 것은 1992년 몽골국이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민주주의 자유경제 체제로 이행하고 나서 2005~2006년에 새롭게 발행한



역사교과서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1992년 이후에도 몇 년 간은 사회주의 시절에 발간된 예전의 교과서를 한시적으로 사용했다. 이제는 몇 나라 남지 않았지만, 사회주의 체제에서 역사서술은 국가의 통제를 받으며 이루어진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사회주의 ‘몽골 인민공화국’은 특히 소련의 영향을 받아 독자적인 역사 연구와 서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예를 들면, 칭기스 칸에 대한 평가가 대표적이다. 칭기스 칸은 몽골민족의 위대한 영웅이 아니라 러시아를 침략한 야만스런 군사 지도자에 불과하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소련학계의 공식적인 견해였기 때문에 몽골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 교과서의 전체적인 서술에 대한 의견과 이 교과서의 번역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겠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국사’ 교과서가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인 국수주의적인 서술이 지나치지도 않으며, 오히려 상당히 객관적인 서술을 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몽골 계통이 아닌 투르크 계통의 유목민에 대해서도 사실 위주로 일관되게 서술하였다. 이 교과서의 장점을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몽골 학자들이 독자적으로 서술한 체계적인 국사 교과서로 우리가 보아왔던 중국과 일본, 서구 학자들과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유목 문명 속의 인간과 가축, 자연 등을 흥미롭게 그려내고 있다. 아울러 몽골



유목민과 유목문명에 대한 자부심과 장단점을 균형적으로 서술하였다.

둘째, 몽골 계통 민족을 위주로 서술하되, 몽골 계통 이외의 유목민의 경우에도 비교적 객관적으로 서술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정주문화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유목민의 경제 특성상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며 서술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주국가가 실시한 지속적인 유목민 분열정책은 공포의 대상으로 인식하였다.

넷째, 몽골 역사교과서에는 한문이 한 글자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것도 사실이지만, 중국 옆에 있으면서 한문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으며 독자적인 문화를 유지했다는 사실이 한편 놀랍기도 하다. 역자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일부 용어를 한문 또는 라틴 문자로 표기하거나 전사하였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지만 부족하고 잘못 서술한 부분 또한 있다. 참고로 보충 의견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다.

첫째, 몽골 땅에 인류가 살았던 80만 년 전 선사시대 이후의 모든 사람을 몽골민족의 직접 조상으로 이해하고 서술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오늘날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서술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그 나라의 영토 안에 살았던 그리고 살고 있는 모든 민족의 현재의 역사와



과거의 역사까지도 자국사로 간주하는 이해방식이다.

둘째, 농경과 수공업, 상업의 발달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물론 농경과 수공업이 발달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소규모였던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유목민의 경제생활과 유목국가의 성립에는 정주지대를 통한 재화의 유입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을 역사에서 잘 알 수 있다.

셋째, 흉노에서 거란 시대까지의 역사 서술이 대단히 취약하다.

넷째, 단순한 추정에 의한 서술이 몇 군데 눈에 띈다. 예를 들면 흉노가 먼저 십이간지(十二干支)를 사용했으며 중국에 전파했다는 주장 등이다. 물론 모든 것이 중국에서 먼저 창조된 것은 아니지만, 흉노에서 먼저 사용했다는 명확한 증거와 논리적인 서술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다섯째, 칭기스 칸과 몽골제국에 대해서도 균형 잡힌 서술을 했으나 지나치게 분량이 많다. 물론 다른 시대보다 비교적 기록이 풍부하고 연구가 활발한 점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몽골제국 시대보다 기록이 더 많은 ‘만주(청) 지배하의 몽골’에 대한 서술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분량이 많다.

여섯째, ‘몽골(원)의 일본 침략’은 간단하게나마 언급되었지만 ‘고려 침략’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 이유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역사적 사실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객관적으로 서술할 필요가 있다.



이어서 번역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과 번역의 원칙에 대해 간단하게  
나마 언급하려 한다.

먼저, 어려웠던 점은 유목 문화 및 유목민의 정신세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부적절한 번역이나 오역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점 독자 여러분의 관대한 이해를 구하고 싶다. 몽골어 역사 용어는 독자들이 이해하기에 버거운 지도 모르고, 쉽사리 한자용어로 대체할 경우 중국문화의 영향이 크게 부각될 위험이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문제를 해결할 만능열쇠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번역의 원칙에 대해 말한다면, 한자 용어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병기하고 가급적 한글 위주의 번역을 시도했다. 몽골 용어를 발음하는 대로 표기할 경우 원칙적으로 처음 단어에만 라틴 전사를 괄호 안에 같이 표기하였다. 이 같은 원칙에 따라 표기하였으나 관례상 익숙한 경우는 예외를 두기도 했다. 따라서 앞에서 필자가 지적했던 잘못을 되풀이하고 독자들은 더 큰 혼란과 어렵다는 인식을 갖게 될지도 모른다. 이 점에 대해 깊은 이해를 구하며 앞으로 전공자들이 몽골어 번역의 원칙을 세우기 위해 서로 노력하기를 바라며 글을 줄인다.

역자

## 일러두기

1. 이 책은 현재 몽골 중등학교 8학년과 9학년 교과 과정에서 사용하는 『Mongolyn Tüükh』 II(고·중세권)와 III(근·현대권)을 번역하여 한권으로 펴낸 것이다.
2. 몽골어 표기는 국립국어원 외래어 표기법 원칙에 따랐으나, 일부 표기는 현지발음과 외래어 표기법과의 차이가 커서 현지발음에 맞췄다.  
예) 칭기즈 칸 → 칭기스 칸
3. 이 책의 사진과 지도는 원서의 자료 상태가 양호하지 않아 역자들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활용하거나 새로 제작하였다.
4. 이 책에서 인용된 원서들의 출판지는 울란바토르가 아닌 경우에 한해서만 표기하였다.



## 차례

해제 · 7

### 제1장 선사 시대의 몽골

01. 자연과 인간 · 29
02. 몽골 영토에 살았던 고대인들 · 33
03. 씨족제도 · 37
04. 부족, 부족 연합의 발생 · 41
05. 몽골 : 인류 문화의 고대 중심지 · 45

### 제2장 몽골 영토상의 고대 국가들

01. 몽골땅에 세워진 고대 국가들 · 53
02. 정치 조직, 통치 규범 · 62
03. 경제, 사회, 문화 생활 · 67
04. 몽골의 고대 국가와 세계 · 75

### 제3장 6~12세기의 몽골인

01. 몽골인의 기원과 명칭 · 83
02. 투르크 계통 민족 지배기의 몽골인(6~10세기) · 87
03. 몽골인의 새로운 형성(10~11세기) · 92
04. 소칸국들(11~12세기) · 95
05. 경제, 사회, 문화 생활 · 100



## 제4장 대몽골국

01. 대몽골국의 성립 · 107
02. 대몽골국의 정책 · 115
03. 칭기스 칸의 대외 정책 · 122
04. 천 년의 역사 위인, 칭기스 칸 · 128
05. 칭기스 칸 이후의 대몽골국 · 133

## 제5장 몽골 제국

01. 몽골 제국의 구성 · 143
02. 몽골(원) 제국(1271~1368) · 147
03. 몽골 제국과 세계 · 153
04. 몽골 제국의 붕괴 · 158
05. 13~14세기 몽골의 경제와 문화 · 161

## 제6장 14~17세기의 몽골

01. 정치적 분열 · 175
02. 분열 시기 몽골의 정책 · 178
03. 몽골 불교의 흥성 · 184
04. 14~17세기 몽골의 생활과 문화 · 188

## 제7장 만주(청) 지배 시기의 몽골

01. 만주(청)의 지배를 받게 된 몽골인 · 195
02. 만주(청) 통치하의 몽골 · 214
03. 17~20세기 초의 몽골 문화 · 228



## 제8장 몽골의 부흥 초기

01. 1911년 혁명 · 241
02. 몽골의 운명과 독립의 가치 · 258
03. 1921년 혁명 · 273

## 제9장 몽골인민공화국의 민족·민주 개혁과 실책

01. 입헌군주제의 몽골(1921~1924) · 287
02. 인민공화정부의 수립과 발전(1924~1928) · 299
03. 몽골국 발전 노선의 실책 · 308
04. 몽골 경제와 문화의 발전 · 320

## 제10장 몽골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 건설 시도

01. 몽골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 건설 목표와 시행(1939~1959) · 333
02. 사회주의 건설 완료 목표와 시행(1960~1989) · 369

## 제11장 현재의 몽골

01. 민주화 운동 · 393
02. 정치 개혁과 민주적 정치 제도의 형성 · 399
03. 시장경제로의 전환 · 410
04. 정신과 사회 부문의 변화 · 418
05. 몽골국 외교 정책의 변화 · 425

- 용어설명 · 430  
찾아보기 · 437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제1장

# 선사 시대의 몽골



다간 벨의 사슴돌

중앙아시아의 고원에는 80만 년 전부터 인류가 살았다. 그들은 호모 에렉투스(*Homo erectus*) 단계에서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인류 생활에 필요한 많은 것을 새롭게 창조하였다. 고대인들은 석기 시대부터 창, 활과 화살, 금속제 칼, 도끼, 화살촉까지 다양한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주로 사냥을 하던 고대인들은 목축, 농경, 수공업 등 생활의 다양한 분야를 새롭게 창조하였다. 불을 사용하였고 움집, 의복, 용기, 석제 받침, 도기 등 생활 용구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씨족, 부족, 부족 연합체 등 공동체 조직을 통해 다양한 생활 형태를 유지하였다. 암각화, 사슴돌, 판석묘 등 중요한 문화 형태, 목걸이, 팔찌, 옷핀, 갈고리, 단추, 압정 등 생활 도구와 장신구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불과 어머니, 자연을 ‘주인(ezen)’으로 삼아 숭배하는 신앙이 생겨났다. 여기에서는 이 모든 것을 고대인들이 언제 어떻게 만들었으며 생활해 왔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80만 년 전	몽골 땅에 고대 인류가 생활하기 시작
80만 년 전~1만5천 년 전	구석기 시대
10만 년 전~4만 년 전	대 빙하기
4만 년 전	호모 사피엔스( <i>Homo sapiens</i> )의 탄생
구석기시대 중기	씨족을 구성해 살기 시작
1만5천 년 전~ 8000년	신석기 시대
기원전 3000년대~기원전 1000년대	청동기 시대
기원전 2000년대	부족, 부족 연합체 구성
기원전 1000년대~기원전 7세기	초기 철기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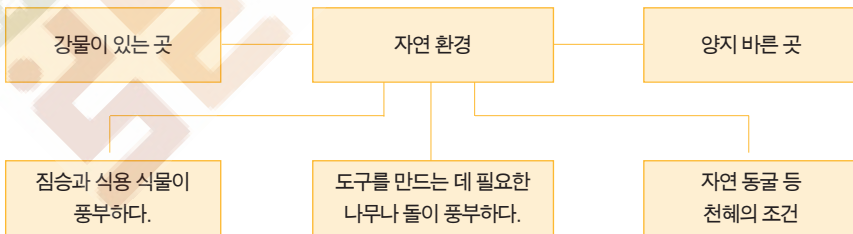
# 01

## 자연과 인간

몽골의 조상은 취약한 자연 조건에 맞추어 자연을 아끼고 이용하여 후손들에게 자연을 그대로 물려준 위대한 사람들이다. 오늘날에도 자연 환경은 몽골인의 생활 원천이다. 우리는 몽골인의 부모와 형제들이 우유, 차, 음식, 음료 등의 가장 정결한 부분을 신성한 하늘, 해와 달, 땅과 물에 바치며 기원하는 것을 항상 볼 수 있다. 이것은 무슨 까닭인가?

### ○ 자연 : 인류 생활의 원천

고대인은 자연 속에서 마실 물과 먹을 음식 등 필요한 물품을 얻으면서 살아왔다. 그들은 식물과 과일을 채집하고 사냥을 통해 식생활을 영위하였다. 고대인이 살았던 거주지를 자연 환경과 비교하여 보자.



고대 인류의 생활 환경

이렇게 보면 고대 인류 생활에서 자연 환경은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신생대 제3기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몽골의 지형이 높아져 산과 산맥이 형성되었다.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되어 인도양에서 오는 습한 공기를 가로막아 몽골 땅의 기후는 한랭 건조해졌다. 10만 년에서 4만 년 전 사이에 발생한 빙하기 동안 몽골 땅의 알타이(Altai), 향가이(Khangai), 헨티(Khentii) 산맥의 일부 지역과 홉스굴(Khövsgöl) 지역의 일부 높은 산이 빙하로 뒤덮였다. 여러 종류의 식물과 동물은 그러한 혹독한 시련을 극복하지 못하고 멸종하였다. 그러나 강과 큰 호수 주변은 온난 다습해 야생말, 소, 시슴, 맘모스, 코뿔소, 물고기, 새 등 다양한 동물이 살 수 있었다. 호이드 첵헤르(Khoid tsenkher) 동굴의 암각화가 그 증거이다. 그 암각화에는 지금은 몽골 땅에서 사라지고 없는 맘모스, 타조, 코뿔소 등 동물의 그림이 있다. 고르반 첵헤르(Gurvan tsenkher) 지역에 살던 인류는 그러한 동물들을 사냥하며 생활하였던 것이 분명하다.

## ○ 자연 환경 조건과 생활 신앙

4만 년 전부터 빙하기 줄어들면서 몽골 땅의 자연 기후는 오늘날의 조건과 비슷해졌다. 다시 말하면 대륙성 한랭 건조한 기후가 된 것이다. 그때부터 고대인들은 보다 살기 좋은 지역으로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몽골은 평균 해발 1,580m의 중앙아시아 고원 지대에 있다. 따라서 토양의 자양분 층이 얇고 식생은 희박하다. 그러한 자연 조건에 가장 적합하고 생산력이 높은 것이 유목이었다. 몽골 땅에 살았던 인류는 대략 12,000년 전부터 야생 동물을 순화시켜 유목을 하기 시작하였다. 오중 가축의 야생 조상이 몽골 땅에 살고 있었던

것이 유목이 발생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유목은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켜 주었다. 초원의 유목은 자연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으며, 가뭄과 재앙 등 자연 재해에 의해 많은 피해를 입는다. 자연 조건은 인간 사회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친다. 흉노의 국력이 약해지고 멸망한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오랫동안 계속된 가뭄과 재앙 때문이었다. 원숭이 해에 가뭄이 자주 발생하여 많은 가축이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 있다. 오늘날에도 가뭄 등의 재앙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2000년에서 2002년 까지 가뭄과 설해 등의 재앙으로 1120만 두의 가축이 피해를 입었다. 자연 조건 때문에 몽골에서 농경을 할 수 있는 곳은 크게 제한되어 있다.

사람과 자연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몽골인들은 가축에서 나오는 영양을 섭취하며 살아 왔다. 따라서 초지와 물을 바꿔 가면서 이동하며 생활한다. 몽골인들의 이동은 가축에게 영양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자연을 회복시키고 보호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인간-가축-자연 이 세 요소가 상호 적응해 온 밀접한 관련성에 기초하여 몽골 유목 문명은 발전해 왔다. 자연과 기후 조건은 사람의 외모와 체형, 심성 등에 영향을 미친다. 몽골인들의 외형은 몽골 땅의 자연과 기후 조건에 따라 형성된 것이다. 몽골인은 굳건한 의지와 인내심, 체력면에서 우수하다. 동물의 흔적만 보아도 어떤 동물이 언제 어디로 갔는지를 바로 알 수 있다. 어떤 가축이어도 소리로 구별할 수 있다. 시력 또한 날카롭고 뛰어나며 청력도 우수한 사람들이다. 성격이 담대하고, 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능력과 심사숙고하는 심성은 눈이 부신 푸른 하늘과 끝이 보이지 않는 광대한 초원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지리적 조건이 몽골인들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이다.

## ○ 우리는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에 의지해 살아야 한다

자연은 인간 생존의 원천이다. 때문에 몽골 조상들은 자연을 사랑하고 알맞게 이용하는 모범을 보여 주었다. 일반적으로 자연과 알맞게 관계하는 것은 국가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근본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오늘날 인간들이 자연에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서로 경쟁하며 함부로 이용하여 생태 환경의 파괴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자동차 운전수들이 마음대로 달림으로써 자동차 도로로 50만 헥타르의 초지가 훼손되었다. 인간들이 자연을 지나치게 이용함으로써 몽골 땅의 강과 냇물, 호수와 연못이 수없이 말라 버렸다. 지표수가 줄어들면서 식물의 종류 또한 감소하였고 토양 파괴가 증가하여 사막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금광 채굴자들의 지나친 경쟁으로 많은 강과 냇물이 오염되었고 수량 또한 줄어들었다. 옹기(Ongi) 강 수원에 금광을 개발하여 물을 대량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하류에 있는 호수들이 말라 버리고 강 주변에 살고 있던 지방 유목민과 가축은 물 부족을 겪게 되었다. 큰 나무뿐만 아니라 어린 나무까지 베어 대량으로 이용하면서 삼림 또한 심하게 훼손되었다. 기상 이변 발생도 빈번해지고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모든 생명체의 발육 상태 또한 점차 부실해지고 있다. 인간이 생활할 수 있는 자연 환경 조건이 점차 열악해지고 있다. 이런 예는 자연을 잘못 이용하면 그 대가가 몇 배나 큼을 보여 주는 증거들이다.



---

# 02

---

## 몽골 영토에 살았던 고대인들

고대 시기부터 중앙아시아와 몽골은 포유류의 요람이었다. 어떤 학자는 몽골을 인류 발생지 중 하나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것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지 생각해 보자. 정말 몽골 땅에서 고대 시기에 인류가 탄생하고 살았던 것일까?

---

### ○ 고대인의 흔적

몽골에는 고대 인류가 살았던 흔적이 많이 남아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들이 살았던 흔적이라 여겨지는 곳이 1천여 곳에 이른다. 주거 유적에서는 그들이 사용하였던 석기가 대량으로 출토되고 있다. 이런 작업 도구들은 인간의 삶을 증명해 줄 뿐만 아니라 그 발전 정도와 상호 관계 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80만 년 전부터 15,000년 전까지 살았던 고대 인류가 사용하였던 도구를 구석기라고 한다. 구석기의 변화 상황을 살펴보면 고대인들이 비록 그 속도가 빠르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바얀홍고르(Bayankhonggor) 아이막(aimag, 道)의 울지트



몽골 영토상의 고대인 거주지

(Ölziit) 쉼(sum, 郡)에 있는 나린(Nariin) 골(gol, 江) 분지에서 구석기 시대의 전기, 중기, 후기에 걸친 47곳의 주거지가 확인되었다. 그중에 하나가 나린 골 17B 주거 유적이다. 그 주거지에서 조약돌로 만든 파편과 화살촉 등의 도구가 발굴되었다. 이것은 몽골 땅에 80만 년 전부터 고대 인류가 살았다는 증거이다. 구석기 시대 전기와 관련된 다른 하나의 유적은 바얀릭(Bayanlig)의 차간 아고이(Tsagaan agui, 동굴)이다.

다양한 문화층이 모두 존재하는 차간 아고이 유적의 11번째 지층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 그곳에서 73만 년 전에 인류가 살았음이 밝혀졌다. 그뿐만 아니라 차히오르틴 훈디(Tsakhurtyrtyn khöndii, 계곡평원), 모일틴 암(Moiltyrtyn am, 계곡), 아라산 하드(Rashaan khad, 바위)의 주거지, 야르힌 울(Yarkhyrtyn uul, 산), 아르츠 북드(Arts bogd)의 자연 보호 구역 등 광범위한 유적도 있다. 아르츠 북드의 보호 구역은 길이 12km, 너비 8km에 걸친 넓은

지역이다. 대략 1만 m<sup>2</sup>의 넓이인 차히오르틴 훈디 주거 유적에서는 석기 시대 전반에 걸쳐 사용된 도구가 발굴되었다. 모일틴 암 주거 유적에서는 구석기 시대 중기부터 인류가 살았던 1.5~2m 두께의 네 개의 문화층이, 아라산 하드의 주거 유적에서는 2.5~3.5m 두께의 문화층이 발굴되었다.

## ○ 고대 인류의 생활과 발전

차간 아고이 지역은 고대 시기에 활엽수와 침엽수가 자라던 온난 다습한 기후였다. 당시에는 호모 에렉투스에서 호모 사피엔스로 발달하던 인류가 살고 있었다. 그들의 두개골은 넓적하며 이마는 비스듬하고 턱은 아직 발달하지 못하였다. 뇌 용량은 900~1,200cm<sup>3</sup>, 치아의 구조와 형태는 현생 인류와 유사하였다. 그들은 두 발로 걸어 다니며, 두 팔로 일을 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호모 에렉투스라고 한다. 호모 에렉투스는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약돌을 때리거나 자르거나 떼어 내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편을 가지고 돌날 칼, 송곳 등의 도구를 만들어 썼다. 그러한 도구를 이용해 사냥을 하면서 살았다. 그리고 식용 식물을 채집하여 음식물로 사용하였다. 고대 인류는 사냥감이 풍부하고 천혜의 자연 조건이 갖추어진 곳이나 도구를 만들기에 적합한 돌이 많은 곳에 무리지어 오랫동안 살았다. 야르힌 울의 보호 구역에서 발굴된 유물을 살펴보면 30만 년 전에 살았던 인류는 대개 화살촉과 길쭉한 돌칼을 선별하여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빙하기 때부터 고대 인류의 생활과 체격에도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 그때부터 몽골 땅에 살았던 인류의 발달 단계는 네안데르탈(Neandertal)인의 수준에 가깝게 되었다. 그들의 뇌 용량은 1,300~1,600cm<sup>3</sup> 정도였다. 언어를 사용하였지만 여전히 이마는 작고

비스듬하였으며 눈썹뼈는 돌출되었고 팔은 손가락이 발달하지 않아 아직 호모 사피엔스의 수준에는 다다르지 못하였다. 네안데르탈인은 주로 조약돌을 길게 곁을 따라 깨뜨려 양면을 갈아서 도구를 만들었다. 또한 뼈와 돌촉을 사용해 만든 창, 끝부분을 불에 태워 단단하게 만든 나무 창이나 돌팔매 등을 사용해 사냥을 하였다. 사냥한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걸쳐 입었고, 동굴뿐만 아니라 움집을 만들어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마찰을 통해 불을 일으켜 사용하였다. 불을 이용하면서 고대 인류의 생활은 급속히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4만 년 전이 되면 호모 에렉투스에게 있던 눈썹뼈의 돌출부가 사라지고 두개골은 커지며, 이마의 아랫부분이 앞으로 나온다.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서 턱뼈가 현생 인류와 비슷해졌으며 뇌 용량도 더 커졌다. 이렇게 수십만 년에 걸쳐 발달하여 호모 사피엔스가 탄생하였다.

몽골 땅에는 호모 사피엔스가 광범위하게 분포하여 살았다. 그들은 돌을 길게 깨뜨려 가는 방법을 알았으며 얇은 돌 조각으로는 새로운 도구를 만들었다. 특히 돌촉을 붙인 투창을 사용하여 사냥이 훨씬 쉬워졌다. 여성들은 다른 노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성별에 따른 노동 분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고대 인류는 어머니, 땅과 물, 해와 달 등을 귀하게 여겨 숭배하였다. 또 일부 동물과 식물, 현상과 물건 등의 외형을 신앙 대상으로 삼아 숭배하였다. 호모 사피엔스는 당시의 상황을 반영한 암각화를 많이 그려서 남겨 놓았다. 그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그림은 호이드 쉐헤르 아고이의 동굴 암각화이다.



---

# 03

---

## 씨족제도

고대 인류는 생존과 생활을 위해 일정한 사회 조직을 형성하였다. 인류 공동 생활에서 최초의 형태는 모권제 씨족사회였다. 공동 생활 속에서 사람은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돕는 관습을 지니게 되었다. 인간은 공동 노력으로 어떤 어려움과 장애도 극복하였으며 많은 것을 창조할 수 있었다.

---

### ○ 모권제 사회

고대 인류의 생활에서 여성은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였다. 집안(화로)을 지키고, 일부 생활에 필요한 도구를 준비하는 여성을 중심으로 인간 공동체가 형성되었다. 아이는 어머니의 성을 따르고, 어머니를 중심으로 한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함께 생활하였다. 이렇게 해서 모권제 사회가 생겨났다. 씨족 사회 내에서는 어머니와 할머니의 임무가 컸고, 권위와 영향력도 광범위하였다. 여성을 존중하고 어머니의 가르침과 의견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모권제 사회의 흔적은 알란 고아(Alan Goa), 후엘룬(Hüelün)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씨족마다 우두머리가 있었는데 그들은 여성이었다.

각각의 씨족은 그 명칭과 집안의 역사(족보)가 있었으며 동일한 관습과 하나의 집안(화로)을 유지하였다. 노동 도구와 사냥감은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이러한 조직을 갖춘 공동 작업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사회 발전을 가속화시켰다. 이러한 상황은 도구의 발달과 변화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때는 나무와 뼈로 만든 몸통에 조각 돌날을 박아 넣어 만든 새로운 도구를 사용하였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돌칼 등 구석기 시대의 도구도 계속 사용하였다. 보통 15,000년 전부터 8,000년 전까지를 구석기에서 신석기 시대로 옮겨가는 이행기, 즉 중석기 시대라고 한다. 이 시기에 투창 대신 활과 화살을 이용한 것은 도구의 변화 단계에 나타난 놀라운 발전이었다. 그때는 사냥과 함께 어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약 12,000년 전에는 야생 동물을 순화시켜 가축화하는 초기 단계에 있었다.

## ○ 부권제 사회

활과 화살을 사용해 사냥을 하게 되면서 사냥 기술에도 커다란 발전이 이루어졌다. 동물을 순화시키는 일은 주로 남성들이 담당하였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남성의 임무가 커졌고 그들의 지위도 점차 높아졌다. 남성들은 조약돌에 구멍을 뚫거나 한 면을 떼어 내 갈던 전통적인 방법을 더욱 발전시켜 보다 날카롭고 예리한 날을 가진 칼, 굽개, 송곳, 화살촉 등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또한 조약돌, 편암 등에 구멍을 뚫고 문질러서 가는 등 새로운 방법으로 정교하게 다듬어 돌도끼, 손도끼, 곡식을 가는 맷돌, 방망이, 공이, 그물 추 등 최신타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활과 화살을 사용한 사냥 기술이 발달하면서 동물 뼈를 이용한 도구와 장신구가 많아졌다. 뼈로 된 몸통에 돌날을

박아 넣어 만든 칼을 광범위하게 사용하였다. 뼈로 만든 화살촉, 송곳, 목걸이, 팔찌 등도 많이 사용되었다. 8,000년 전부터 3,000년 전 사이에 이런 도구를 널리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시기를 신석기 시대라고 부른다. 신석기 시대의 주거 유적은 몽골 땅의 남부, 동부, 기타 지역에서 많이 발견되었다. 그중에서 탐삭볼락(Tamsagbulag), 조힌 소린(Zuukhyn suurin), 노르블링(Noroblin), 바얀작(Bayanzag) 등의 주거와 거기에서 발굴된 유물들은 아주 흥미롭다.

그중에서 탐삭볼락 주거 유적에서는 몸날, 곡식을 가는 맷돌, 굽개, 돌날을 박은 뼈칼, 뼈 화살촉, 송곳 등의 도구와 동물 뼈와 사슴 이빨로 만든 장식, 토기 파편 등 도구와 장신구가 발굴되었다. 그리고 노르블링 무덤에서는 얇은 모습으로 매장된 인골이 발견되었다. 이 외에 노르블링 무덤에서는 산호 목걸이, 뼈로 만든 팔찌, 돌날을 박은 뼈칼, 사람 얼굴을 새기고 윗부분에 구멍을 뚫은 아주 정교한 돌부적(ongon), 뼈로 만든 목걸이, 산호로 만든 돼지와 고슴도치 형상 등이 발굴되었다. 바얀작의 주거 유적에서는 돌로 만든 세 받침 위에 바닥이 둥그런 토기를 얹은, 세발 달린 솔의 기원을 알 수 있는 유물이 발굴되었다. 지금까지 몽골 땅에서는 신석기 시대 무덤이 열 개 정도 발굴 조사되었으며, 그들은 몽골 인종으로 밝혀졌다.

## ○ 경제, 사회, 문화 생활

발달된 도구를 사용하면서 일부 새로운 경제 분야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여전히 사냥이 주된 경제 활동이었으므로 목축 경제가 발생하는 기초가 마련된 것이다. 큰 물가에 살던 사람들은 물고기를 잡아 생활하였다. 채집 경

제 활동과 더불어 몽골 땅에 야생으로 자라던 곡식과 밀 등을 농작물화시키면서 농경도 일부 시작되었다. 토기와 도기를 만들어 실생활에 사용하였다. 인류는 자연 상태의 것을 채집하며 살다가 자신이 만들어 사용할 줄 알게 된 것이다. 도구를 만들고 활과 화살을 이용하여 사냥을 하고, 동물을 순화시키고, 가축을 기르고, 땅을 경작해 농사를 짓는 등 경제 활동의 중요 부분을 모두 남성이 담당하게 되었다. 씨족 내에서도 남성의 영향력이 증대하여 자식들은 아버지의 성을 따랐다. 씨족 수장의 권한이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이어져 집안의 주인 자리를 남성이 차지하게 되었다. 아버지의 권력과 영향력에 의해 조직된 혈연 관계에 기초한 씨족을 부권제 사회라고 한다. 신석기 시대에 몽골 땅에는 생활의 주된 형태가 부권제 사회로 된 조직이었다. 그런데 생산 도구와 생산물 소유권은 씨족 구성원 간에 평등한 형태가 지속되었다. 각 씨족의 생활과 경제 활동의 주된 형태는 씨족 연합이었다.

돌로 만든 부적, 사망자의 물품과 부장품을 꺼묻어 매장한 것을 통해 신앙 숭배가 널리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신앙 숭배가 깊어져 사물의 외형을 보고 숭배하던 때보다 더 그 '주인'의 신령함을 숭배하게 되었다. 달리 말하면 산과 물, 해와 달, 신성한 하늘 등 숭배하는 대상의 '주인(신령)'을 숭배하게 되었다. 암각화 이 외에도 돌과 뼈로 만든 예술품들이 적지않게 발굴되었다. 수흐바타르(Sükhbaatar) 아이막의 옹곤(Ongon) 솜에서는 물고기 모양으로 만든 곡식을 가는 맷돌이 발굴되었다.



---

# 04

---

## 부족, 부족 연합의 발생

훈육(獯鬻), 귀(鬼), 호(胡) 등의 이름으로 중국 사서에 기록된 원(原) 몽골 계통의 씨족과 부족은 그 사회에서 귀족 계층, 지도자, 지배자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몽골사』 1권, 2003, 186쪽)

---

### ○ 청동기와 초기 철기 시대

금속기 시대에 몽골 땅에 누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었는지는 판석묘(dörvöljin bulsh, 板石墓)를 통해 알 수 있다. 판석묘는 청동기 시대부터 초기 철기 시대에 걸쳐 몽골 땅에 집중적으로 분포한 독특한 문화이다. 이 판석묘의 주인공은 몽골인의 고대 조상이다. 그들은 주로 목축을 하며 생활하였다. 그들은 청동과 철로 만든 무기, 생활 도구와 장신구 등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몽골 땅에서 청동기 제작은 기원전 300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기원전 2000년경에는 광범위하게 발전하였으며, 기원전 1000년대 초기까지 지속되었다. 청동 제품은 황동 90%에 주석 10%를 섞어 만든다. 이런 청동을 녹여서

틀에 부어 제품을 만들었다. 판석묘에서 발굴되거나 수집된 것으로는 청동 도끼, 손도끼, 칼, 화살촉, 투구, 술, 재갈, 재갈멈치, 송곳, 골무, 동물 문양 압정, 그물추 등이 있다. 보통 청동제 무기, 생활 용구, 장신구는 몽골 영토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 따라서 몽골은 세계적인 청동기 생산의 중심지였다고 할 수 있다. 청동기 시대의 중요한 기념물인 판석묘와 사슴들은 각 부족의 우두머리와 부족 연합의 수장 등 위대한 지도자를 기념하여 만든 것이다. 그러한 거대한 기념물은 부족 전체의 힘으로 세운 것이지 결코 한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 사슴들은 지배적인 위치에 있던 부족의 상징이었다. 따라서 청동기 시대 초기에는 부족, 중기에는 부족 연합체의 형태였음을 알 수 있다.

판석묘는 흉노인들이 만든 무덤의 고전적인 형태로, 학자들은 그들의 조상과 관련된 유적이라고 보고 있다. 중국 역사서에 기록된 흉노족의 첫 번째 조상은 훈육(獯鬻)과 귀(鬼) 등이다. 기원전 2000년대에 귀라는 부족은 오늘날의 몽골 땅에서 가축을 기르고 마차를 이용하여 장소를 이동하며 살았다. 호(胡)는 기원전 7세기부터 저습지의 광산에서 '쇠가죽 풀무를 이용하여 고온에서 철광석을 녹이는 방식(bukh darakh)'으로 소량의 철을 제련해 도구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초기에는 철이 귀하었기 때문에 청동기의 일부분만 철로 하였고, 또한 청동기와 같이 사용하기도 하였다. 찬드만(Chandman)의 무덤과 다른 지역에서는 화살촉, 단검, 쇠도끼, 송곳 등의 철제 도구가 발굴되었다. 철기를 이용하면서 기원전 4세기경 흉노가 강성해지자 북중국 사람들은 흉노 기마병의 공격을 받았다. 그들은 흉노의 공격을 막기 위해 성벽을 쌓기 시작하여 그 유명한 '만리장성(萬里長城)'을 축조하였다.

## ○ 부족, 부족 연합체의 형성

청동기 시대부터 유목(이동 목축)은 몽골 땅에 거주하는 이들의 기본 경제 활동이었다. 이렇게 인간이 상시적인 경제 활동을 하게 되면서 생활은 안정 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가족은 씨족이 공동으로 소유해 집단으로 이동하며 목축을 하였기 때문에 초지가 빠르게 황폐화되었고, 그로 인해 가족의 생산력이 저하되어 각 씨족 구성원의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부 현명한 사람들은 가족 단위로 유목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해서 청동기 시대에는 씨족이 분화되어 가족 단위로 유목을 하게 되었다. 개별 가족 단위로 유목을 시행하자 가족의 번식력과 생산력이 좋아져 사람들의 생활 또한 이전에 비해 급속히 향상되었다. 그렇다고 해도 유목



기원전 16~기원전 11세기 원(原) 몽골어 계통의 부족 분포도

민은 자연 환경과 기타 피해에 적지 않게 노출되었기 때문에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개별 가호가 연합하여 부족(ayimaʏ)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 조직을 만들게 되었다. 각 부족은 자기 부족명을 갖고 일정한 초지를 소유하였으며 지도자를 중심으로 회의를 구성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같은 언어로 말하고 다른 부족과 구별되는 풍습과 관습법이 있었다.

가축을 개인이 소유하게 되자 부족장이나 현명하고 능력 있는 전사 휘하에 많은 사람이 모여 들었다.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유목을, 나머지는 사냥을 주업으로 삼아 생활하면서 사회적인 초기 분업 형태가 발생하였다. 그들은 상호 교환과 매매를 통해 다방면에 걸친 교류를 시행하였다. 말을 승용과 수송용으로 사용하여 교류는 더욱 활발해졌다.

생산력 면에서 유목이 사냥보다 더 우월하였기 때문에 유목민과 수렵민 부족 사이에 발전 정도가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각 씨족의 유력자는 가축 생산력뿐만 아니라 상업 이익과 전리품, 명예, 영향력 등도 점차 향상되었다. 그리고 상호 간에 안다(anda, 의형제), 누쿠르(nökör, 동지) 관계를 맺어 힘을 증강시켰다. 전쟁을 통해 타인의 가축과 재산을 빼앗아 자신의 소유로 삼으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기원전 2000년대 후반부터 혈연 관계가 없는 몇몇 부족이 군사 지도자의 통치하에 연합함으로써 부족 연합이 탄생하였다. 그들 중에서 주도적인 부족이 생겨나면서 각 부족의 권력자가 모여 의견을 나누고 부족 연합체의 지도자를 선출하게 되었다. 각 부족 회의의 임무와 위치는 약화되어 이름만 남았다. 군사 지도자의 권력이 증대되면서 많은 중요한 문제를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결하게 되었다. 이를 ‘군사 민주제’라고 한다. 부족 연합은 정치 국가 발생 이전의 조직 형태였다. 중국 사료에 따르면 당시 몽골 땅에는 훈육, 귀 등의 부족이 있었다. 그 부족이 흉노의 고대 조상이다. 흉노 부족 연합은 24개의 부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 05

## 몽골: 인류 문화의 고대 중심지

몽골 땅에는 선사 시대부터 인류가 살면서 남겨 놓은 풍부한 문화 유산이 있다. 그들은 문화 유산을 다른 사람에게서 빌려 온 것일까? 아니면 스스로 창조하여 남긴 것일까?

### ○ 암각화

몽골에서는 수없이 많은 암각화를 볼 수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호이드 첵헤르 동굴의 암각화이다. 이 그림은 구석기 시대 중기에 그려진 것으로 보이는 아주 뛰어난 작품이다. 동굴의 흰 석회질 벽면에는 소, 맘모스, 코뿔소, 타조 등 오늘날 몽골에서 볼 수 없는 동물부터 산양, 큰뿔양, 영양, 쌍봉낙타 등에 이르기까지 붉은 광물 물감(zos, 赭石)으로 그려져 있다. 이 그림은 당시에 살았던 동물과 생활상을 형상화한 것이 분명하다. 이 암각화를 몽골 최초의 예술 그림이라



모조의 암각화(오브스 아이막 사길 숲)



테브시 올의 암각화(우부르항가이 아이막 복드 솜)

고 한다. 이것은 몽골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전역에 걸쳐서 아주 희귀한 세계적인 작품이다. 이 시겐 톨고이(Ishgen tolgoi), 찬드만 하르 우주르(Chandman' khar üzüür), 하드 우주르(Khad üzüür), 아라산 하드(Rashaan khad), 차강 살라(Tsagaan salaa), 오이고린 하드(Oigoryn khad)의 암각화들은 모두 구석기 시대에 만들어 남긴 새긴 그림들이다. 중석기 시대의 생활상을 반영한 모조(Mojoo)의 암각화, 신석기 시대의 생활상을 반영한 조라긴 올란 하드(Zuraagyn ulaan khad)의 암각화 등 고대 예술 작품들이 몽골에는 아주 많이 남아 있다. 청동기 시대에 붉은 광물 물감으로 그리거나 바위에 직접 새긴 그림 또한 아주 많다.

따라서 청동기 시대를 몽골 고대 예술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다. 청동기 시대에는 동물을 있는 그대로 그리는 한편 양식화하여 그리는 방법이 널리 유행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몽골 땅에는 청동기 시대부터 양식화해서 그린 예술 그림도 크게 발전하였다. 암각화에는 동물, 가축, 활과 화살을 지닌 사람, 소가 끄는 쟁기, 말이 끄는 마차, 사냥 장면, 전쟁 장면 등 당시 생활상이 표현되어 있다. 예를 들면 비안릭의 비칙틴 암(Bichigtin am)의 암각화에는 소가 끄는 쟁기, 곡괭이를 든 사람 등을 표현하였다. 이 암각화는 내용으로 보아 초기 철기 시대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몽골 땅에서는 지금까지 1백여 개의 마차 그림이 발견되었다. 이 마차 그림은 기원전 2000년대의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의 자동차 바퀴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마차바퀴는 유목민, 그 중에서도 몽골 조상이 창조한 것이다. 암각화는 인간이 영위하는 경제 생활,

꿈과 희망, 신앙 숭배 등을 다양한 형상과 기호, 점, 일부 동물의 형상으로 표현한 것이다.

## ○ 히르기수르

히르기수르(khirkisüür)와 사슴돌(bugan khöshöö) 구조물은 기원전 16세기부터 6세기경에 몽골 중부와 서부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창조한 문화이다. 히르기수르는 중심 봉분과 그것을 둘러싼 네모 또는 둥근 형태의 주위 시설 그리고 그밖의 부속 시설로 이루어져 있다. 어떤 경우에는 히르기수르의 왼쪽(동쪽)에 사슴돌을 세우기도 하였다. 히르기수르 문화에서 동물을 형상화하여 그리는 예술이 발생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히르기수르는 매장 시설이었을 뿐만 아니라 조상 제사나 숭배의 대상이기도 하였다.

## ○ 사슴돌

사슴돌은 청동기 시대에 몽골에서 최초로 발생하여 유라시아의 초원 지대로 확산된 역사 문화의 위대한 유적이다. 사슴돌은 씨족이나 부족의 지도자 또는 전사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것이다. 사슴돌을 세우려면 평균 1.4m 정도의 길쭉한 돌을 골라 네 면을 손질하고 상단과 하단에 비교적 적은 면적을 남겨 두고 두 줄로 허리띠를 표시하여 모두 세 부분으로 구분한다. 사슴돌의 윗 부분에는 해와 달, 귀걸이, 두세 줄 정도의 사선을 그린다. 중간 부분에는 뛰어오르는 사슴을 옆에서 바라본 형태로 아주 아름답게 표현하였다. 또한 사

슴 대신에 말, 산양, 표범, 돼지, 새를 표현한 사슴돌도 있다. 사슴돌의 아래 허리띠에는 칼, 단검, 창, 활과 화살, 화살통, 전투용 곡괭이, 도끼, 방패 등 무기를 매단 형태로 표현하였다.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700여 개의 사슴돌이 발견되었는데 그중의 대부분인 약 550개가 몽골에 있다. 사슴돌이라는 이 뛰어난 작품은 몽골의 조상이 만들었으며 인류의 문화 유산으로 물려준 것이다.

## ○ 관석묘

청동기 시대의 역사와 관련된 중요한 유적 중 하나가 관석묘이다. 관석묘의 주인공은 원 몽골어를 사용하였으며 몽골 인종이었다. 달리 말하면 몽골의 조상이 살았던 땅에 만들어 놓은 문화 유적이다. 관석묘의 문화층에서 당시 사람들의 기원, 관습, 생활, 문화에 대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몽골인이 죽은 사람을 깊이 존경하여 생전에 살았던 게르(ger)에서 떠나갈 때 돌로 만든 게르(무덤)를 준비하여 매장하였던 것이 관석묘이다. 시신을 매장할

때에는 바닥을 파서 사방을 네모난 돌로 두르고 시신의 머리를 동쪽으로 향하게 하였으며, 머리 밑에는 돌을 베개로 삼아 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였고, 시신은 곧게 편 상태로 눕혀 놓았다. 그리고 부장품을 묻고 제사 의식을 행한 후 넓적한 돌로 입구를 막고 지표보다 조금 높게 주위를 돌로 두르고 그보다 높게



관석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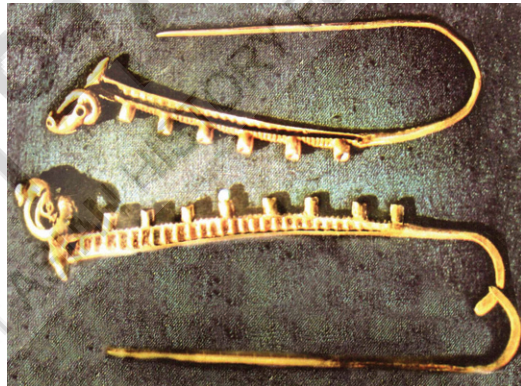
비석, 때로는 사슴뿔을 세우기도 하고 돌로 덮개를 덮기도 하였다. 관석묘는 대부분 크기가 6×4m 정도이며 가장 큰 것은 10.5×5m이다.

관석묘에서는 인골과 동물의 뼈, 청동기, 투구, 채갈, 채갈머치, 등자 등 가축용 도구와 도끼, 손도끼, 칼, 솔 등 생활 용구 그리고 장신구 등이 발굴되었다. 또한 불을 지켰던

흔적도 발견되었다. 돌, 뼈, 청동으로 만든 장신구들도 적지않게 발굴되었다. 그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노르블링 무덤에서 발굴한 돌부적(옹곤), 뼈로 만든 팔찌와 목걸이, 청동으로 주조한 동물 문양 띠쇠[帶鉤], 압정 등이다. 고대인들은 그리기, 때리기, 새기기, 주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장신구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조상을 숭배하는 것이 또한 중요한 신앙 의식이었다. 씨족이나 부족의 우두머리나 권력자를 존경하여 비석을 세우고 매장하였다. 해와 달, 땅과 물을 숭배하여 비석의 상단에 새기기도 하였다. 불을 신성시하고 불을 통한 세정 의식이 널리 확산된 것은 매장 시에 사용하였던 불의 흔적에서 알 수 있다. 말, 소, 사슴, 독수리 등 동물을 신성시하여 숭배하였던 것은 암각화, 사슴뿔, 매장 의식 등에 반영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관석묘의 문화 분포도



관석묘에서 발견된 금제 머리핀(우부르헝가이 아이막 북드 슴 테브시 울)



동북아시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제2장

# 몽골 영토상의 고대 국가들



홍노 무덤에서 출토된 카펫 조각

기원전 3세기 이후 몽골 땅에는 흉노, 선비, 유연(니룬), 투르크, 위구르, 키르기스, 거란 등 여러 나라가 차례로 세워졌다. 그들은 비슷한 자연과 기후 조건에서 살았기 때문에 모두 초지 유목에 기반을 둔 유목 문명을 누렸다. 그리고 유목 생활에 적합한 정치 체제를 형성하였으며 뒤를 이어 발전을 이룩하였다. 정치 국가를 세움으로써 영토와 국경이 확정되고 경제 문화적으로 발전이 가속화되었다. 여기에서는 고대 국가의 역사를 그들의 기원, 영토, 인구, 정치 제도, 경제, 문화, 교류 관계 등의 내용을 통해 배워보자.



기원전 209~기원후 93년	흉노
1~3세기	선비
330~555년	유연(니룬)
552~745년	투르크
745~840년	위구르
840~923년	키르기스
901~1125년	거란

# 01

## 몽골땅에 세워진 고대 국가들

동호(東胡) 부족 연합은 목푼(冒頓) 선우(單于)에게 처음에는 뛰어난 명마를, 다음에는 사랑하는 부인 중에서 한 명을 줄 것을 요구하였다. 목푼 선우의 대신들은 화를 내며 바로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목푼 선우는 말 한 마리와 왕비 한 명으로 우호 관계를 깨뜨릴 필요가 없다고 하고 요구를 들어 주었다. 그런데 동호의 지도자가 양측 국경에 있는 빈 땅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목푼 선우의 대신들은 필요 없는 땅은 주어도 상관없다고 충고하였지만, 목푼 선우는 화를 내며 “땅은 국가와 백성의 근본이다. 땅을 남에게 준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며 반대하는 대신들을 모두 처형하고 동호를 급습하여 정복하였다. (『몽골사』 1권, 2003, 196쪽)



홍노



선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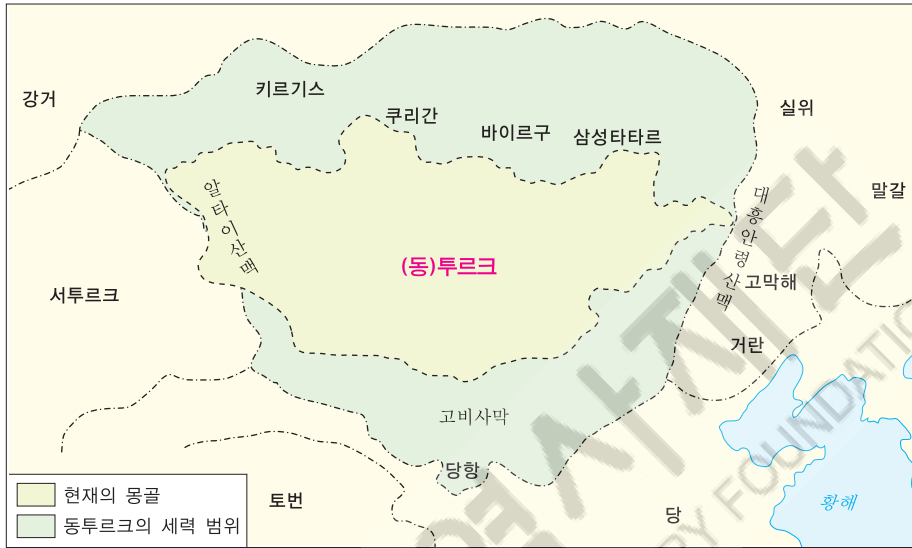
유연(니룬)

## ○ 고대 국가 - 흉노, 선비, 유연

	흉노(기원전 209~기원후 93년)	선비(1~3세기)	유연(330~555년)
기원 및 원 거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석묘의 주인공과 동일한 기원</li> <li>• 원 몽골어 사용</li> <li>• 오르도스에서 바이칼 호, 알타이 산맥에서 도르노드 평원까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흉노와 같은 기원인 동호의 주된 구성원</li> <li>• 몽골인의 고대 조상</li> <li>• 흉안령 산맥을 중심으로 시라무렌 강에서 아르군 강까지, 도르노드 평원에서 라오허[遼河]의 상류까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흉노, 선비에서 기원</li> <li>• 몽골인과 친연 관계</li> <li>• 향가이 산맥을 중심으로 고비 사막에서 바이칼 호, 흉안령 산맥에서 알타이 산맥까지</li> </ul>
국가 성립 조건 및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족, 부족 연합체 조직을 갖추고 있었다.</li> <li>• 기원전 214년 10만 명의 중국 군대가 흉노 고지(故地)의 남부 지방인 오르도스를 장악하였다.</li> <li>• 월지(月氏) 등 강력한 부족의 공격을 받았다.</li> <li>•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영토와 백성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li> <li>• 흉노의 호연(呼衍) 씨, 선비의 수복(須卜) 씨, 유연의 옥구려(郁久閼) 씨 등 지배 씨족과 부족이 상황을 파악하고 국력을 강화하여 투쟁하였다.</li> <li>• 국가와 백성의 이익을 중시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출현하였다.</li> </ul>		
국가 성립 후 강성해진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아시아 유목민 중에서 성립한 최초의 국가</li> <li>• 기원전 209년 목탁 선우가 강력한 흉노 국가를 건립</li> <li>• 동호 등을 병합하여 중국에게 빼앗긴 오르도스를 되찾고, 북방의 유목민 부족 통합</li> <li>• 기원전 200년에 한(漢) 왕조의 30만 대군의 공격을 물리치고, 기원전 198년에 한 왕조와 조약을 맺어 동등한 강대국임을 상호 승인</li> <li>• 양국의 국경을 만리장성으로 정하고 한 왕조는 흉노에게 공납을 바칠 의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3년에 한 왕조와 힘을 합쳐 흉노를 정복하고 원 거주지에 남아 있던 50만 명 정도의 흉노인들을 통합하여 선비 국가 건립</li> <li>• 156년 칸[大人]에 추대된 단석괴(檀石槐)가 국가 성립을 선포</li> </ul> <p>사료 : 단석괴는 현명하고 멀리 내다볼 줄 알았으며 공정한 정치를 펼쳤고 조직력이 뛰어났으며 상을 내리는 것을 주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옥구려의 투쟁으로 시작해서 330년에 차로 고이가 국가의 기반을 갖추었다.</li> <li>• 사륜카간[社崙可汗, 402~410]이 국가를 강성하게 만들었다.</li> <li>• 우부·좌부를 통합하고 흉노부족의 반란을 진압하였으며 고차(高車, 위구르 계통) 부족을 통합하였다.</li> </ul>

	흉노(기원전 209~기원후 93년)	선비(1~3세기)	유연(330~555년)
국가 성립 후 강성해진 이유	<p>를 지고 약 50년간 수행</p> <p>사료 : 흉노·한 왕조 간의 기원전 198년 조약문에서 : 장성 이북의 인궁지국(引弓之國)은 선우의 통치를 받으며, 장성 이남의 관모를 쓴 나라(漢)는 내 통치를 받는다. 한과 흉노 양국은 모두 어깨를 견주는 강대국이다. (『몽골사』 1, 21쪽)</p> <p>• 흉노는 동(東) 투르키스탄을 정복하고 기원전 1세기부터 실크로드를 장악해 강대국이 되었다.</p>	<p>하지 않고 항상 백성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군사·정치 지도자였다. (『몽골사』 2, 254쪽)</p> <p>• 단석괴 시기(156~181)에 오환(烏桓)을 통합하고 한반도 부근까지 영토를 확장하였다.</p> <p>사료 : 한 나라의 대신인 채옹(蔡邕)의 178년 기록에서 : 흉노국을 물리침으로써 선비가 강성해졌고 그 영토를 장악하여 10만 군사를 지니게 되었다. 그 능력이 흉노보다 뛰어났으며 생각 또한 우수하였다. 무기는 날카롭고 말도 빨라 흉노보다 훨씬 뛰어났다. (『몽골사』 III, 100쪽)</p>	<p>사료 : 처음 리베이 칸(Livei khan, 220~277) 말기에 타브가치[拓跋]의 기마병들이 머리를 눈썹까지 기른 출신도 이름도 모르는 노예를 한 명 사로잡았다. 그 주인은 옥구려(郁久闐[몽골])라고 불렀다. …… 그 자손들은 옥구려를 성으로 삼았다. 옥구려가 죽은 다음 아들 차로고는 이를 뛰어난 전사였기 때문에 부족을 통합하고 자신을 유연(柔然)이라고 불렀다. (『몽골사』 I, 39쪽) 그들의 고향에는 여름에도 눈이 있는 높은 산이 있고 아주 넓게 펼쳐진 초원이 있으며…… 풀과 물을 따라 이동하였다. (『몽골사』 I, 42쪽)</p>
인구와 영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의 대부분은 몽골 계통</li> <li>• 투르크·만주(통구스 계통)의 다른 부족을 통치하고 있었다.</li> <li>• 만리장성에서 바이칼 호, 라오허 상류에서 일리(ili)·타르바가타이(Tarbagatai)까지의 땅에 살았다.</li> <li>• 군주(선우)의 궁정은 룡(Lüng, 籠城), 즉 오르혼 강 상류인 호쇼 차이담(Khōshō tsaidam) 부근에 있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는 흉노와 선비인</li> <li>• 만리장성에서 바이칼 호, 한반도 부근에서 일리·타르바가타이까지의 땅에 살았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의 대부분은 몽골인의 고대 조상 부족</li> <li>• 기타 구성 원으로는 투르크·위구르 계통의 부족들이 속해 있었다.</li> <li>• 고비 사막에서 바이칼 호, 한반도 부근에서 하르 사이르(Khar sair)에 이르는 광대한 영토에 살았다.</li> </ul>

	흉노(기원전 209~기원후 93년)	선비(1~3세기)	유연(330~555년)
<b>쇠약해진 원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의 분열, 중국화 정책과 그 시행</li> <li>• 수년간 지속된 재해</li> <li>• 중국 한 왕조의 다양한 방책과 계략</li> <li>• 권력층의 독립 경향과 권력 장악을 위한 다툼</li> <li>• 내부 통일을 유지할 수 없게 된 상황</li> <li>• 통치하에 있던 각 부족의 독립 경향과 투쟁</li> </ul>		
<b>붕괴 상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 왕조는 혼인 정책, 관작 수여, 특권 수여, 재화 증여 등의 방법을 통해 권력층 일부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 굳건한 애국자들에게 대항하도록 중용하였다.</li> <li>• 한 왕조의 계략에 호한야(呼韓邪) 선우가 속아 기원전 53년에 남흉노를 이끌고 한 왕조에 투항하였다.</li> <li>• 한 왕조는 남흉노를 북흉노에 대항하게 하여 북흉노를 서쪽으로 쫓아내고 힘이 약해지자 기원후 37년에 복속시켰다.</li> <li>• 교역 관계를 중지시켜 흉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부족하게 만들어 내분을 일으키는 정책을 광범위하게 사용하였다.</li> <li>• 복속시킨 후 중국화 정책을 시행하였다. 기원후 1세기부터 남흉노 선우의 인장(印章)을 중국 내의 관인으로 교체하였다. 흉노가 종속 부족들에게 공납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였다.</li> <li>• 48년에 흉노는 남북으로 분열되어 쇠망의 길로 접어들었다.</li> <li>• 93년에 한 왕조는 남흉노, 선비 등을 연합 세력으로 삼아 북흉노를 공격하여 멸망시켰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비는 단석괴가 사망하자 국력이 약화되었다.</li> <li>• 가비능(軻比能)이 일시 통합하여 지배하였으나, 235년에 그가 사망하자 다시 각 부족과 소국으로 분열되었다.</li> <li>• 선비의 큰 부족으로는 모용부(慕容部)와 탁발부(拓跋部)가 있었지만, 모용부의 지도자와 귀족 중 일부는 중국화 정책으로 기울어져 내부 혼란이 가중되면서 국력이 약화되어 410년에 탁발 위(北魏)에게 정복당하였다.</li> <li>• 탁발부는 386년에 중국에 북위 왕조를 건립하고 그때부터 중국화 정책을 시행하였다. 탁발부의 일부는 중국화되어 버리고 나머지는 그 정책에 대항하다가 535년에 동서 위(魏)로 분열되어 581년에 멸망하였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위(魏) 왕조의 여러 차례에 걸친 공격을 받아 점차 약화되었다.</li> <li>• 유연의 암가이(Amgai) 칸은 뇌물을 받고 자만하여 현실을 파악할 능력을 잃었고, 국력은 더욱 약화되었다.</li> <li>• 이러한 상황을 그들의 휘하에 있던 알타이 지방의 투르크 부족이 간파하고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반란을 일으켰다.</li> <li>• 그러한 투쟁을 서위(西魏)가 지원하면서 동맹 세력이 되었다.</li> <li>• 555년에 몽골 유연은 알타이 지방의 투르크 부족의 공격을 받아 멸망하였다.</li> </ul>



투르크



위구르(회골)



거란[외]

## 고대 국가 - 투르크, 위구르, 키르기스, 거란

	투르크(552~745년)	위구르(745~840년)	키르기스 (840~923년)	거란(901~1125년)
기원 및 원 거주지	<p>사료 : 이웃 부족의 공격을 받아 손발이 잘린 채 살아 남은 열 살짜리 사내를 암 늑대가 발견하여 그들 사이에서 열 명의 자식이 생겼다. 그들이 열 개의 씨족이 되었고 그중 하나가 아사나(阿史那) 씨이다. 아사나 씨는 투르크 부족의 조상이며 그들의 후손은 알타이 산맥의 남면으로 이주하여 유연의 통치를 받으며 쇠를 공납품으로 바쳤다. (투르크의 기원에 관한 설화에서)</p>	<p>사료 : 흉노의 군주에게서 두 명의 딸이 태어났다. 군주는 딸들을 북방의 황야에서 살게 하였다. 여러 해가 지나 한 마리 늑은 늑대가 다가왔다. 여동생은 그 늑대를 하늘이 보낸 자신의 운명의 반려자로 여겨 그와 함께 살았다. 그 사이에서 이들이 태어나 위구르의 조상이 되었다. 위구르인들은 조상을 생각하면서 오르틴 도(長歌)를 부르게 되었다. (위구르의 기원에 관한 설화에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오랜 옛날부터 미누신스크 분지, 고를록(예니세이) 강 분지에서 살고 있었다. 이들은 투르크 계통이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홍안령 산맥의 왼쪽(동쪽)과 라오허[遼河]의 오른쪽(서쪽), 시라루렌 강의 북쪽에 있는 평원에 살았다. 그들은 대부분 동호 계통으로, 오늘날 몽골 영토를 중심으로 살지는 않았지만 923년 이후 알타이 산맥의 동쪽부터 헤를렌(Kherlen) 강의 북부까지 영토를 확장하여 역사 문화적 유적을 몽골 땅에 많이 남겼다.</li> </ul>

	투르크(552~745년)	위구르(745~840년)	키르기스(840~923년)	거란(901~1125년)
국가 성립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배 국가의 통치에서 벗어나 독립을 쟁취하려는 복속국의 염원</li> <li>• 지배 국가의 국력이 약화되는 상황</li> <li>• 일부 정책과 활동에 따른 영향</li> <li>• 권력과 칸위를 쟁탈하려는 지배 국가 권력층 내부의 갈등과 투쟁</li> <li>• 그 결과 투르크 계통과 기타 유목 부족의 힘이 통합되어 강력해짐</li> </ul>			
국가 성립 후 강성해진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세기부터 알타이 산맥 지방의 투르크 부족이 강성해졌다.</li> <li>• 서위의 도움으로 유연에 대항하게 되었다.</li> <li>• 552년에 아사나 씨의 권력자 부민(Bumin)이 투르크 국가를 건립</li> </ul> <p>사료 : 내 조상은 부민 칸이다. 많은 아이를 사로잡아 이 나라를 세우고 정치를 굳건히 하였다. …… 조상인 부민은 현명한 칸이었다. 용맹한 전사였다. (윌테킨 비문에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86년까지 영토를 지속적으로 확장하여 유목민의 거주지 대부분을 통합한 강대국이 되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르크 제국의 목철(默噠) 카간(693~716)의 정책에 대항해 투쟁하였다.</li> <li>• 744~745년에 투르크에 대항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였다.</li> <li>• 745년에 위구르는 투르크를 격파하고 국가를 건립하였다.</li> <li>• 모윤초르(磨延曷) 카간(747~759) 시기에 더욱 강성해졌다. 그는 현명하고 과감하였으며, 능력 있는 장군이었다.</li> <li>• 모윤초르는 북방의 키르기스, 동쪽의 거란 등을 성공적으로 공격하였다.</li> <li>• 당(唐) 왕조와 광범위한 교역 관계를 맺었다.</li> <li>• 국경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큰 관심을 기울였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20년에 위구르를 공격하여 국가 성립의 기틀을 다졌다.</li> <li>• 840년에 위구르 국가를 무너뜨리고 그 통치에서 벗어나 키르기스 국가를 건립하였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01년에 야율(耶律) 씨의 암바간(Ambagyan, 耶律阿保機)이 거란 부족 연합체의 수장(칸)으로 추대되어 국가를 건립하였다.</li> <li>• 이어 카간이 되어 917년에 거란 국가 성립을 선포하였다.</li> <li>• 923년에 몽골 땅을 공격해 알타이 산맥의 동부 지역을 장악하였다.</li> <li>• 924년에 여진을, 936년에 후당 왕조의 연운 16주(燕雲十六州)를, 이어서 황허 이북의 영토를 장악하고 제국의 규모로 확대되어 스스로 '대거란국(大契丹國)'이라고 칭하였다.</li> </ul>

	투르크(552~745년)	위구르(745~840년)	키르기스 (840~923년)	거란(901~1125년)
영토와 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르혼 강의 상류인 호쇼 차이담에 중심을 둔 동(東)투르크 제국은 만리장성부터 바이칼 호까지, 흥안령 산맥에서 알타이 산맥 너머까지 영토를 차지하였다.</li> <li>• 인구의 대부분은 투르크 계통이었고, 그 치하에 몽골인이 있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토는 만리장성에서 바이칼 호까지, 흥안령 산맥에서 탕게르 올[天山山脈]까지 달하였다.</li> <li>• 751년에 오르혼 강의 서쪽 평원에 오르두 발릭(Ordu balig)을 세울 수도로 삼았다.</li> <li>• 인구의 구성은 위구르, 투르크, 몽골 계통으로 이루어져 있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논, 헤를렌 분지, 용기 강 하류에서 일리·타르 바가타이, 바이탁 북드까지 달하였다.</li> <li>• 칸의 궁정은 오르혼 분지에 있다가 탄누(Tannu) 산맥 부근으로 옮겼다.</li> <li>• 인구 구성은 대부분 투르크 계통이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평양 연안에서 알타이 산맥, 만리장성에서 헤를렌 강 북부 분지까지 광대한 영토를 장악하였다.</li> <li>• 인구 대부분은 몽골, 만주(통구스), 중국인 등 다양한 계통으로 이루어졌다.</li> </ul>
분열되어 멸망한 경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르크의 이시발라[沙鉢略] 칸이 581년에 동투르크인들을 이끌고 중국에 투항하여 50여 년 동안 그 통치하에서 아주 쇠약해졌다.</li> <li>• 590년대에 동서 투르크로 분열되었다.</li> <li>• 투르크 치하에 있던 각 부족의 저항으로 투르크는 더욱 약해졌다.</li> <li>• 몽골 땅에 국가를 건립하려는 위구르 부족의 투쟁으로 투르크 제국은 745년에 멸망하였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몽골 땅에서 위구르의 지배는 고향으로 돌아온 몽골 부족의 부흥과 그들의 투쟁과 중첩된다.</li> <li>• 그 통치하에 있던 키르기스인들도 820년에 독립을 위해 강력하게 투쟁하였다. 840년에 키르기스는 오르두 발릭을 장악하고 위구르 제국을 멸망시켰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란인들이 몽골 땅으로 공격해 오자 키르기스는 몽골 땅에서 쫓겨나 923년에 통치력을 상실하였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타르·몽골인의 부흥에 영향을 끼쳤다. 거란의 통치하에 있던 여진인들의 금이 송과 연합하여 거란에 대항하였다. 결국 거란은 패배하여 1125년에 멸망하였다.</li> </ul>



---

# 02

---

## 정치 조직, 통치 규범

“하늘 아래에서 태어나 나라 안에서 산다.”

“정치는 둥글고 법률은 뾰족하다.”

“국가가 있으면 세금이 있다.”

이와 같은 격언은 어떤 의미일까?

---

### ○ 정치 조직

고대 유목 국가들은 십진법에 의거한 통치 조직을 갖고 있었다. 흉노의 목  
특 선우는 나라를 좌부, 우부, 중부로 나누어 중부는 자신이, 우부와 좌부는  
각 왕[右賢王, 左賢王]에게 위임하여 통치하였다. 그리고 다시 만호, 천호, 백  
호, 십호로 나누어 만호와 천호는 고관(noyan)이, 백호와 천호는 지휘관  
(daruYa)이 통치하도록 하였다. 그 각 장들은 평화 시에는 백성을, 전쟁 시에  
는 군사를 지휘하였다. 이것을 ‘군사 행정의 십진법 체계’라고 한다. 이러한  
조직은 인구가 적은 유목민의 국가에 알맞은 형태이다. 그로 인해 백성들에  
게 소식을 빠르게 전달함으로써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전쟁에 참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수고도 덜어 주었다. 이러한 행정 통치에 적합한 조직체계는 몽골 땅에 있었던 고대 국가들이 흉노 시대부터 지속적으로 시행해 온 것이다. 고대 국가들은 대부분 칸의 궁정이 있는 오르혼 강 상류를 중심으로 중부의 만호는 칸이 직접 통치하였다. 이것은 광대한 영토를 칸이 직접 감시 감독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고대 유목 국가의 통치 조직

정치 조직의 최고 기관은 칸과 귀족회의로 이루어진다. 정치 지도자인 칸은 나라의 모든 권력을 쥐 주권자였다. 칸은 관료와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하여 직접 결정을 내린다. 또한 만호장과 천호장에게 초지를 나누어 주었다. 모든 장관, 장군, 관리를 위임하거나 파면하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 귀족회의(대회)는 칸을 추대하고 이웃 나라와 전쟁을 할 것인지, 우호 관계를 유

지할 것인지 등 중요한 문제를 토의하여 결정한다.

흉노는 강궁(強弓)으로, 선비는 장궁(長弓)으로 무장하였으며 군대는 주로 경기병으로 이루어졌다. 유연은 활과 화살, 강철 창으로 무장한 경기병이 주력이었으며, 일부 중무장을 한 기병도 있었다. 호구(戶口)를 기준으로 가족 수를 감안하여 세금을 거두었다. 그러나 정복당한 나라의 백성은 군역의 의무를 지며 자신들의 주된 생산물로 공납을 바쳤다.

## ○ 통치 규범

대중의 신임을 얻어 그들로부터 일정한 권력을 위임받은 자들이 정치 행정을 담당한다. 일부는 권력을 남용하여 백성들로부터 정치에 대한 신망을 잃기도 하였다. 따라서 행정 업무를 상세하게 규정한 규범에 의거하여 수행해야 한다. 이것을 통치 규범이라고 한다.



고대 국가의 통치 규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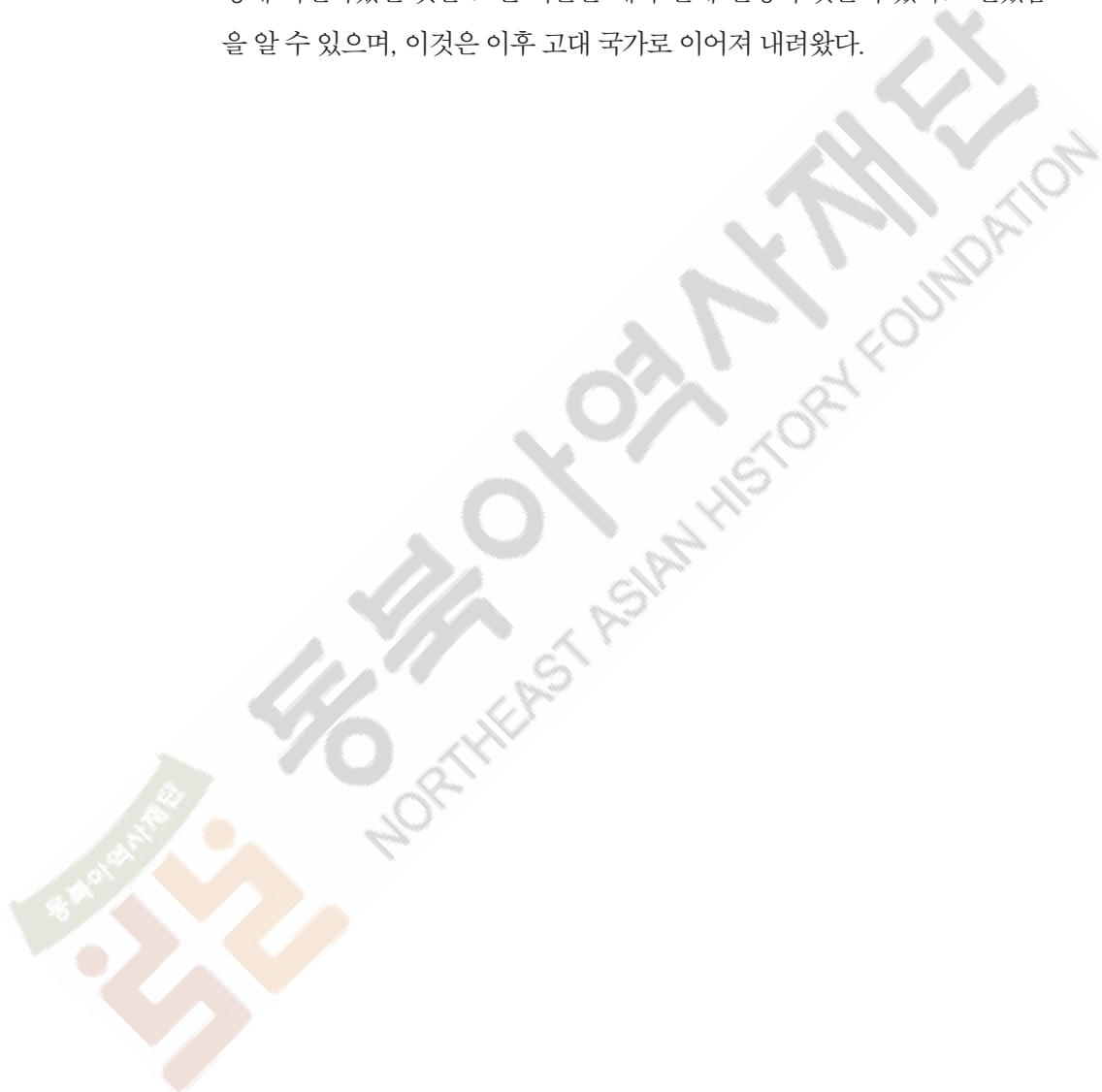
**정부 조직** 칸을 추대하는 것은 정치 조직의 중요한 임무이다. 칸 이하 관료는 칸이 직접 임명하기 때문에 칸을 올바로 선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다. 칸을 ‘하늘의 아들(tngri-yin kübegün)’이라며 숭상하였다. 앞선 칸이 남긴 유언을 귀족회의에서 토의하여 다음 칸을 추대하였다.

**법률 제정과 준수** 고대 국가들은 관습법에 기초하여 칸의 명령으로 법률을 제정하였기 때문에 모두가 법률을 믿고 따랐다. 법률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올바른 규범을 정하는 방향으로 제정된다. 고대 국가에서는 잘못된 사람을 때리거나 사형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처벌하였다. 칸을 추대하거나 관료를 임명하고 파면하는 규정 등을 귀족회의에서 토의하고, 결정할 문제는 실생활에서 입증된 상세한 규정에 의거하여 판단하였다.

**행정 통치 규범** 행정 업무는 상호 신뢰를 통해 권력을 행사하고 책임을 지는 원칙하에 수행하였다. 예를 들면 천호장은 칸의 신뢰를 받아 명령을 실행하고 책임을 지며 명령을 실행할 때에는 칸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행사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천호장의 신뢰를 받은 백호장이, 백호장의 신뢰를 받은 십호장이 책임을 지고 실행한다.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정직을 기준으로 삼으며 군주가 신뢰하고 맡긴 임무를 관리가 성실하게 수행하였는지를 평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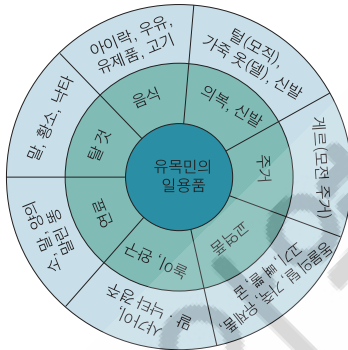
**대외 관계** 몽골의 고대 국가들은 사신 파견, 외국 사절 접대, 문서 교환, 조약 체결, 적대 관계와 우호 관계 문제를 결정하는 독자적인 체도를 가지고 있었다. 외국과는 사신을 통해 평화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중시하였다. 따라서 몽골에서는 대외 관계를 곧 사신 관계라고도 하였던 것이다.

**국가 의례** 고대 국가에서는 정부 수반(칸), 궁정, 국기, 장군 등을 숭앙하고 존경하였다. 흉노의 군주가 아침에는 해를 향해, 저녁에는 달을 향해 기원하였던 것을 보면 이들은 해와 달에 신령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이후 고대 국가로 이어져 내려왔다.



# 03

## 경제, 사회, 문화 생활



이 도표를 살펴보고 유목이 몽골인들의 일용품을 어느 정도 충족시키는데 대해 깊이 생각해 보자.

### ○ 경제

#### 유목(이동 목축)

고대 국가들은 몽골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 고원에서 생활하였다. 자연 기후 조건이 비슷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주로 초원에서 유목을 하였다. 이것은 투자 비용이 가장 적으면서도 생산력이 높고,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경제 활동이었다. 유목민은 먹을 음식과 입을 옷, 주거, 탈것, 연료뿐만 아니라 교역품, 양모, 가죽, 우유, 고기, 놀이 도구 등 필요한 것을 모두 유목에서 얻었다. 초원의 가축은 자연의 시련을 극복하고 선별적으로 증식하는 특징이 있다. 목축에 대한 이야기에는 하루에 천리를 가는 말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되어 있다. 초원 유목은 자연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흉노 시대부터 전통적인 초원 유목을 실시하였다. 그것은 강대국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경제적 조건이었다. 이렇게 백성들이 초원에서 유목을 통해 생활하였기 때문에 몽골 땅에 있었던 고대 국가들을 ‘유목민의 나라[行國]’라고도 한다. 그러나 그들은 중심 주거지를 갖고 있었다. 몽골에서는 지금까지 200여 개의 도시(주거) 유적이 발견되었는데, 그중에서 흉노 시대의 것만도 10개 정도가 있다. 그중에 일부 유적지를 발굴하여 연구한 결과 수공업자, 농민, 교역 상인이 살았던 것을 확인하였다. 그중에서 흉노인들이 토기와 기와를 구웠던 가마 2개가 투브(Töv) 아이막 몽곤 모리트(Möngön morit) 숲의 호스틴 불락(Khustyn bulag)에서 발굴되었다.

**사냥** 흉노를 비롯한 고대 국가에서 사냥은 목축업 다음으로 중요한 분야였다. 포위하고 몰아서 사냥하는 위렵(圍獵)이 사냥의 주요한 형태였다. 기원후 1세기 70년대에 흉노의 선우가 10만여 명의 기병으로 위렵을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사냥의 목적과 형태

**수공업** 흉노인들은 가죽, 모피, 나무, 토기, 돌, 금, 은, 청동, 쇠, 뼈 등을 정교하게 가공하여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그것으로 마차 부품,



홍노 무덤 출토 유물

안장과 고삐, 게르, 생활 도구, 양탄자, 청동기, 철제 장식, 금은 장식, 석제 장식, 뿔, 합성 활, 토기, 건축용 기와, 벽돌 등의 제품을 만들었다. 나무, 벽돌, 토기로 건축물과 목곽묘 등의 구조물은 주거 유적과 무덤을 발굴하면 계속 출토된다. 홍노인들은 목재를 가공할 때 쇠톱으로 게르 건축 자재, 가구, 마차, 안장, 목곽묘, 건물 등을 만들었는데 그 기술은 동시대에서 가장 뛰어난 수준이라 할 만하다. 아르항가이(Arkhangai) 아이막의 바트첵겔(Battsengel) 숲의 호드긴 톨고이(khudgyn tolgoi)에 있는 홍노 무덤에서 쇠검 한 쌍, 활에 붙였던 뼈 조각, 쇠톱(처음으로 완전하게 출토됨) 등 다양한 유물을 발굴한 것은 홍노 수공업의 발전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예이다.

투르크인들은 석재와 철을 가공하는 데 있어 고대 국가 중에서 가장 우수하였다. 석인상을 만들 때에도 그 주인공의 특징 한 가지를 잘 표현하고 문자를 새기기도 하였다. 쇠를 이용해 다양한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중에서도 전투용 도끼, 칼과 방패, 갑옷과 투구, 장검과 송곳, 지뢰 못 등 무기를 제작하는 능력이 뛰어났다.

거란인들은 건축과 도시 건설 방면에서 뛰어났다. 지금은 단지 토울(Tuul)

강 주변에 있는 거란 시대의 도시 유적 열네 곳만 발굴하여 연구하였다.

**농경** 흉노인과 선비인들은 몽골 땅에서 자라는 곡식 등을 적게나마 길렀다. 흉노 무덤에서는 곡식 씨앗이, 일부 주거지에서는 쟁기와 맷돌 등 농기구가 출토되었다. 고대 유목민 중에서는 투르크인들이 농사를 가장 많이 지었다. 몽골 땅의 한랭 건조한 기후에서 농사를 짓는 것은 어렵고 생산량이 좋지 않아 충분히 발전하지 못하였다.

**교역** 어떤 나라든 스스로 만들지 않는 것은 외국에서 구입하여 사용한다. 매우 건조하고 한랭 건조한 몽골의 기후 조건에서는 농사를 짓기 어렵고, 또 작황이 좋지 않아 농사는 발달하지 못하였다. 몽골의 고대 국가들은 곡식과 옷감 등을 중국과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구입하였고, 그 대신에 가죽, 털, 가죽, 모피 등을 팔았다. 천연 자원은 거의 매매하지 않았다. 그런데 중국은 유목민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미끼로 하여 압박을 가하고, 그들을 약화시켜 지배하기 위해 유목민이 원하는 것을 판매하지 않았다. 유목민의 침략을 받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야 판매하였다. 중앙아시아 각국과의 교역 또한 안정적이지 못하였다. 결국 비단길의 북방 노선(초원길)을 장악하였을 때에만 동서 각국과 교역을 통해 일용품과 일부 사치품을 중개 무역 [대상]을 통해 매매하여 이익을 얻곤 하였다. 부렉항가이(Büregkhangai)의 흉노 귀족 무덤에서 발굴된 금박은 그러한 교역 관계의 증거이다. 중국 사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중국의 일부 소량의 비단으로 흉노의 황금 제품을 대량으로 얻을 수 있다면 적국인 흉노는 국력이 약해질 것입니다. 그리하면 당나귀, 노새, 낙타 대상단이

(중국) 국경으로 몰려들 것이고 야생마, 말 등 모두가 우리 가축이 될 것이며 담비, 타르바간, 여우, 오소리, 펠트, 양탄자 등이 모두 우리의 창고에 쌓일 것이며 옥, 산호, 수정 등이 모두 우리의 보석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외국의 물품은 국내로 흘러 들어오게 하고 이익은 새나가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고대 중국의 환관(桓寬)이 지은 『염철론(鹽鐵論)』 중에서)

## ● 사회와 인간

고대 유목민 사회에서 백성은 땅을 초지라는 형태로 이용하였다. 초지는 개인이 소유할 수 없었고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이것은 해당 지역의 한해(旱害)나 설해(雪害)가 들 때와 관련된 것으로, 그런 상황이 되면 어디에 풍부한 초지가 남아 있는지 살펴서 그곳으로 이동해 유목을 하며 살아야 하였기 때문이다. 고대 국가 시기에 토지와 초지는 각 씨족과 부족의 공동 소유에서 칸과 그 가문 및 만호장과 천호장의 소유로 옮겨가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토지는 국가(칸)의 소유가 되었다. 칸은 영토를 침범당하지 않을 신성한 권리를 국가와 백성의 힘으로 지켜내며 행정 조직에게 권력을 분배하는 등의 제반 권리를 행사하였다. 그런데 가축은 그와는 달리 두수(頭數)로 소유하여 재산 정도의 차이가 생겨났다. 재산 정도와 출신 가문에 따라 개인이 지닌 사회적 위치가 명확히 구분되었다. 칸과 그 일족, 좌우 왕공과 만호장과 천호장 등 귀족은 큰 권력을 지니고 부유한 생활을 하였다.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평민의 권력과 생활 수준은 매우 낮았으며 귀족에게 예속되는 경향을 보였다. 인구의 극히 일부분은 노예였다. 노예는 대부분 여성(노비)이었다. 그들은 아무런 권력도 없이 주인의 권한에 속해 있었으며 주인이

시키면 무엇이든 하였다.

유연의 칸과 귀족, 고관과 국사 등도 백성을 소유하였다. 예를 들면 국사인 다르마 프리야(Darma priya)는 3,000명의 평민을 소유하고 있었다.

투르크 사회에서는 사회 구분이 더욱 명확하였다. 투르크 시대의 비문에는 벡(beg, 권문 세족), 보둔(bodun, 백성), 카라 보둔(qara bodun, 하인), 타트(tat, 이방인 노예)라는 단어가 많이 보인다. 이로써 투르크 사회에는 주인에게 예속되거나, 노예를 소유하는 제도가 눈에 띌 정도로 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 ○ 문화

고대 국가의 문화는 앞 시대의 것을 이어받는 경향이 있었다. 판석묘 옆에 세운 시슴들은 흉노 시대의 석인상에서부터 투르크 시대의 기념할 만한 주인공의 특징을 반영한 비석으로까지 발전하였다(퀸 테킨 두상). 동물을 양식화한 조형은 돌을 쪼아서 만들거나 돌에 그려서 만든 것임을 알 수 있다. 흉노 시대부터는 돌뿐만 아니라 금, 은, 청동, 쇠, 양탄자, 펠트 등 다양한 재료로 표현하였다. 동물 문양을 꽃잎, 곡선, 마름모꼴 등 다양한 모습으로 장식하여 보다 아름답게 만들었다. 제품을 만들 때 그리기, 겹치기, 때리기, 새기기, 녹여서 붓기, 부풀리기, 자수, 붙이기, 짜기 등 다양한 예술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노용 올(노인 올라)의 제25호 흉노 무덤에서 양탄자에 몽골 계통의(넓은 이마에 낮은 코, 짙은 수염) 사람을 수



퀸 테킨 두상

놓은 초상이 발굴되었다. 흉노인들은 별자리의 운행과 사람과 동물의 일생 분기에 근거하여 12간지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후에 60갑자 달력의 기초가 되었다. 이 달력 계산법은 선비, 유연, 투르크, 위구르 등이 계승하였으며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켰다. 유연의 사륜(社崙) 카간 등 별자리에 관한 지식이 뛰어났던 이들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다. 중국의 한(漢) 왕조는 60갑자 달력 계산법을 흉노에서 얻어 사용하였다.

몽골 계통의 고대 국가 군주들은 외국과 문서를 통해 교류하였다. 관료들이 행정 업무를 나무나 뼈에 표기하였다는 기록도 있다. 어떤 무덤에서는 인장과 문자가 기록된 유물이 출토되었다. 에긴 골(Egiin gol) 분지에 있는 흉노 무덤에서 먹물 흔적이 있는 벼루가 출토된 것은 문자를 사용하였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당시에 기록한 문자의 완전한 형태를 갖춘 유물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투르크, 위구르 시대에 룬(투르크) 문자, 위구르 문자를 기록한 70여 개의 비문이 몽골에서 발견되었다.

거란인들에게는 대자, 소자 두 종류의 문자가 있었다. 거란 소자와 몽골 문자가 그 기원이 같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고대인들은 샤먼(무당)을 숭배하였다. 하늘과 해와 달, 땅과 물, 불 등도 숭배하였다. 산, 물, 불 등에 제사를 지냈다. 흉노 제국 시대에는 일부 변경 지방에 불교가 들어왔으며, 유연 시대에는 불교가 국교로까지 숭상되었고 널리 확산되었다. 흉노 시대부터 남성들이 씨름, 활쏘기, 경마 기술로 경쟁하였던 것으로 '남성 3종 경기(naadam, 나담)'가 생겨났다. 축제와 제사를 지낼 때에는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추며 잔치를 벌였다. 몽골 계통의 국가와 투르크, 위구르인들도 오르



퀵 테긴 비문

틴 도[長歌]를 불렀다. 모린 호르(morin khuur, 馬頭琴)와 헬 호르(khel khuur, 口琴), 피리, 대금, 북 등의 악기를 즐겨 연주하였다. 흉노 무덤에서는 뼈로 만든 헬 호르가 발굴되었다.

매달 초를 중시하여 차간 사르(Tsagaan sar, 正月) 초하루를 기념하는 관습이 생겨났다고 한다. 흉노와 선비에는 서로 머느리를 주고받아 인척 관계를 맺는 풍습이 있었다. 흉노인과 투르크인들은 죽은 자를 존경하여 특별한 의식을 치른 후 매장하였다. 흉노인들은 죽은 자를 통나무로 만든 무덤에 대부분 목관을 써서 시신과 부장품을 같이 묻었다. 투르크인들은 시신을 불에 태워서 사당을 짓고, 망자의 초상(석인상)을 만들고, 전쟁에 참가한 사실을 비문에 기록하고 신앙 의식을 치른 후 매장하였다. 몽골인의 조상이 창조한 문화와 관습의 전통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

# 04

---

## 몽골의 고대 국가와 세계

“사신들의 발걸음이 끊기면 대포 소리가 난다”라는 몽골 격언이 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

### ○ 몽골 고대 국가의 대외 관계

국가가 성립되고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요건은 외국과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교류하는 것이다. 흉노가 건립된 때부터 몽골 국가의 대외 교섭이 시작되었다. 목푼 선우가 “땅은 국가의 근본이다”라고 선포한 것은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대외 정책의 근본이었다. 기원전 198년 흉노는 한(漢) 왕조와 조약을 체결하고, 한 왕조는 흉노를 대등한 강국으로 인정하였다. 조약에 따라 만리장성을 양국의 국경으로 삼았다. 이렇게 흉노는 영토와 국경이 완전한 독립 국가임을 한 왕조가 인정하도록 하였다. 한 왕조는 흉노의 복속국 상태가 되어 공납을 바치게 되었다. 이렇게 흉노는 중앙아시아 유목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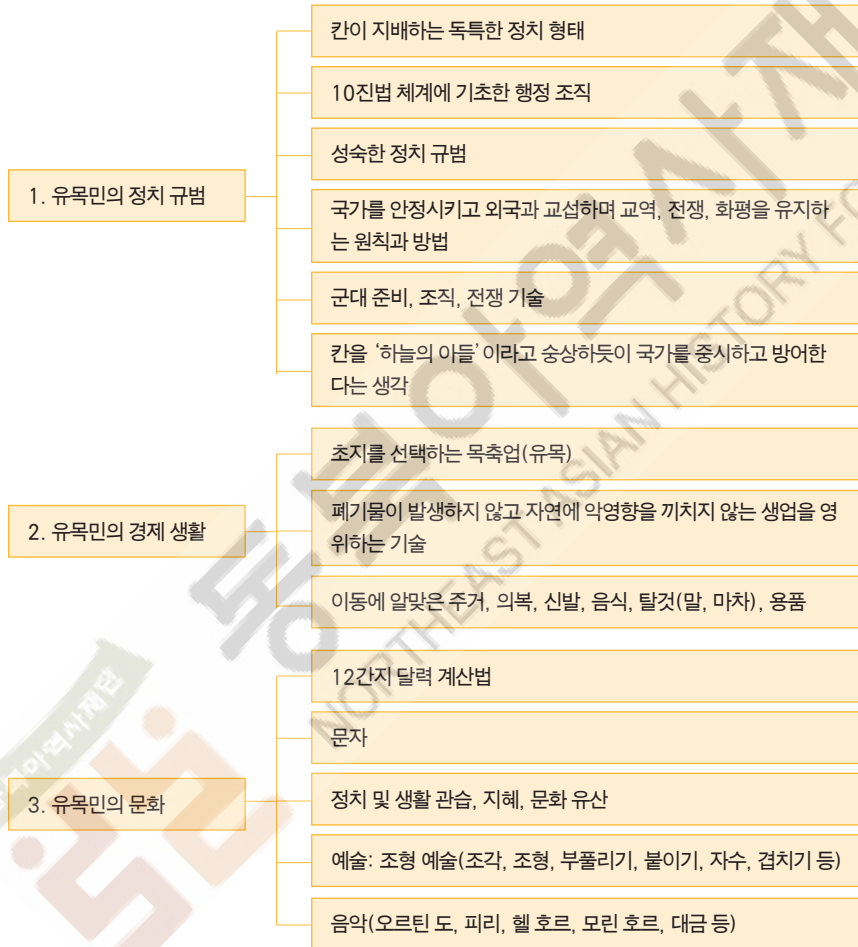
과 중국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몽골 고대 국가들의 대외 정책은 중국과 중앙아시아 각국과 관계를 맺고, 독립과 안전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실행되었다. 또한 그들과 교역을 통해 부족한 물품을 구입하였다. 유목은 인간이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것을 충족시켜 주었지만, 밀가루, 곡물, 차, 옷감 등은 항상 부족하여 그것을 외부 세계, 특히 이웃인 중국에서 구입하고는 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압박 정책으로 양국 사이의 무역이 중단되어 전쟁을 치르는 경우도 적지않았다. 흉노인들은 중앙아시아 각국과 사신 교환 및 교역을 하고, 때로는 복속국으로 삼아 공납을 받는 등 다양하게 교류하였다. 흉노국은 기원전 1세기부터 비단길을 장악하고 동서방의 각국, 심지어 그리스, 로마 제국과도 교류하였다. 흉노 이후에 성립된 국가들도 역시 상업과 교역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222년에 선비의 군주 가비능(軻比能)이 7만 여 두의 말과 소를 몰고 가서 중국과 교역을 한 기록이 있다. 유연은 428년부터 532년 사이에 탁발 위(북위)에 41차례 사신을 파견하였고, 교역 관계를 복원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위구르도 비단길을 장악하고 국제 교역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다. 고대 유목 국가들은 인도, 티베트, 중앙아시아 각국과 종교, 문화 교류를 유지하였다. 흉노 제국 시대부터 영토 내 서남 지역에 불교가 성행하였고, 선비와 유연 시기에 더욱 확산되었다. 위구르는 소그드(Sogd, 粟特)로부터 문자를 받아들여 사용하였다. 고대 국가들은 사신 왕래뿐만 아니라 외교 문서를 통해서도 외국과 지속적으로 교류하였다. 사신 파견, 접대, 외교 문서 작성 등에도 엄격한 제도와 형식이 있었다.

……오손(烏孫) 땅에서 안서(安西)까지의 각국은 흉노의 사신을 우호적으로 대하며…… 우리에게는 신경도 쓰지 않는다.

(중국 사신 장건(張騫)이 한 무제에게 올린 글 중에서)

## ○ 몽골과 세계 역사에 끼친 영향

몽골의 고대 국가들은 목축에 기초한 독특한 유목 문명을 창조하였다. 고대 국가 시기의 중요한 성취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대 유목 문명의 특징



바이 발리크(위구르 성터)

고대 국가 시기에 만들어져서 후대 국가에 전해져 사용되는 귀중한 것도 많다. 그중에서 흉노인들은 유목민의 생활에 맞추어 다양한 것들을 최초로 만들어 전해 주었다. 흉노는 당시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한 강대국이었다. 흉노처럼 조직이 비교적 완비된 국가는 없었다. 흉노인들은 다양한 것을 동시대의 수준보다 훨씬 높은 기술로 만들 줄 알았다. 흉노인들이 사용한 뼈 조각을 붙인 강력한 활은 동시대의 일반적 활보다 두 배 이상 멀리 날아갔다. 흉노인에게서 중앙아시아인과 유럽인은 많은 것을 배워서 발전과 향상에 이용하였다. 중국인은 흉노인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는데, 특히 그중에서도 열두 동물 달력[十二支]을 배워서 사용하였다. 몽골 초원에 흉노라는 대제국이 성립되어 당시 국제 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흉노는 중국의 북방 영토 확장 정책을 막았다. 그리하여 투르크, 만주, 통구스, 페르시아 등 아시아 여러 민족은 중국에게 침략당하지 않고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었다.

흉노인들은 중앙아시아, 서북 인도, 동유럽까지 진출하여 몇몇 나라를 세우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중 하나는 흉노인들이 유럽에 가서 세운 아틸라(Attila)의 훈 제국(434~453)이다. 아틸라의 훈 제국은 드네프르 강에서 다뉴브 강까지의 영토를 차지하였으며 비잔틴 제국으로부터 공납을 받았다. 아틸라가 이끄는 훈족은 서로마 제국을 공격하여 멸망에 이르게 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 그럼으로써 로마 제국의 억압에서 수많은 국가가 해방되어 독립국을 세워 발전을 이룩하였다. 투르크 문화의 핵심인 룬 문자(투르크 문자)는 중국과 페르시아 사이에 살던 많은 민족의 문화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위구르인들은 아랍 문자에서 기원한 소그드 문자를 기초로 위구르 문자를 제작하였는데, 이는 중앙아시아 유목민의 문자 유산이 되어 전승되었다. 그러나 투르크 계통 민족의 침략을 받은 몽골인들은 어쩔 수 없이 그 통치하에서 정든 고향을 버리고 밖으로 도망가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오랫동안 분열되고 가로막혀 살면서 발전이 늦어져 다른 민족보다 뒤떨어지게 되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제3장

# 6~12세기의 몽골인



게르미치를 이용한 이동

6~10세기에 몽골 땅에는 투르크 계통의 유목민이 국가를 건립하여 살고 있었다. 당시에 몽골인들은 타타르(Tatar) 소칸국(khanliy ulus), 에르구네 쿤(Ergüne kün)의 몽골인, 맹고(萌古, 몽골), 실위(室韋)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몽골 땅의 변방으로 밀려나 살게 되었다. 그러나 투르크 국가들이 멸망한 8세기 후반부터 몽골인들은 원래 거주지로 돌아오기 시작하였으며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10세기 초에 투르크 계통 유목민의 지배가 끝난 후에 몽골인들은 모두 고향으로 돌아와 부족 또는 부족 연합체를 결성해 살아갔다. 인구 구성은 원래 몽골인과 기타 몽골 계통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들이 살던 주위 환경으로 '삼림민'과 '초원민'으로 구별하기도 한다. 11세기 말에서 12세기 초에는 타타르 소칸국 이외에도 케레이트(Khereit), 나이만(Naiman), 하막 몽골(Khamag Monggol, 전 몽골), 삼성(三姓) 메르키트(Merkit) 소칸국 등이 건립되었다. 여기에서는 몽골인들의 경제·문화 생활에도 커다란 발전과 변화가 생겨 통합 국가 건설의 전조가 보임을 배우고자 한다.



6~10세기	몽골 영토에 투르크 계통의 국가 성립
8세기 후반	에르구네 쿤의 몽골인들이 고르반 골[三河] 상류 지역으로 이동
1084년	'전 몽골'이라는 명칭이 사료에 처음 등장
1130년	전 몽골국을 카불 칸이 통합하여 다스림
1147년	전 몽골국과 금조 사이에 조약 체결

# 01

## 몽골인의 기원과 명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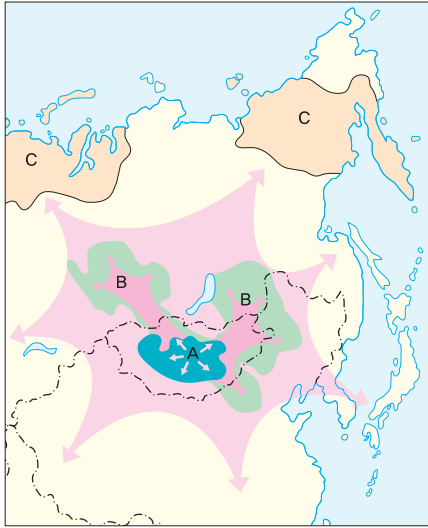
사람이 자신의 뿌리를 알지 못하면 숲 속에서 길을 잃은 원숭이와 같으며, 자기 씨족을 알지 못하면 터키석으로 만든 용 조각과 같고, 조상들의 이려저려한 말씀을 알지 못하면 아이를 잃어버린 어머니와 같다. (『샤르 토지(Shar tuuj, 大黃冊)』 중에서)

- 혈통 기원 추적 방법
  - 족보, 문서, 고고학 자료 등
  - 각 부족의 공통 요소
- 몽골 인종의 공통 요소
  - 영토
  - 유전자 혈통, 외형
  - 생활 문화의 특징
  - 언어
- 귀(鬼) → 호(胡)
  - 동호(東胡)
  - 임호(林胡)
 → 흉노 → 선비 → 유연(尼倫)

도표를 잘 살펴보고 무엇을 말하는지 생각해 보시오.

### ○ 몽골인의 기원

유연의 뒤를 이어 투르크 계통 민족이 400여 년 동안 몽골 땅에 살았다. 몽골인들은 투르크 민족의 공격을 받아 큰 피해를 입었지만 에르구네 쿤의 몽골인과 타타르 소칸국은 몽골 혈통을 유지하며 원 거주지의 동쪽 변경에서



A. 몽골 인종의 발생 장소  
 B. 몽골 인종의 확산  
 C. 인디언과 핀·우고르 계통

살다가 전(全) 몽골국, 대몽골국 시대를 맞이한다. 우리는 몽골의 조상들이 이룩하여 남긴 유적과 문화, 관습을 통해 몽골인의 기원에 대해 가장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고고학 연구를 통해 몽골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남긴 유적 사이의 상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몽골 영토는 몽골인의 요람이며, 몽골인은 그 땅의 주인공의 후손이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고, 몽골의 자연과 기후 조건은 몽골인의 유전자, 성격, 경제, 문화가 발생하고 발전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그런 자연 조건에 적응하면서 몽골인이 형성된 것이다. 몽골인들은 전 세계에

살고 있는 몽골로이드의 원 조상이다. 몽골인의 유전 혈통은 몽골의 중심부에서 발생하였다고 한 학자[바트소리, J. Batsuur']가 증명하였다. 몽골 땅에는 몽골 계통 민족의 특징이 있는 문화 유적이 풍부하다. 그중 하나가 판석묘이다. 판석묘는 시간적으로는 청동기 시대부터 흉노 시대까지, 지역적으로는 몽골의 동부 지방에서 알타이 산맥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던 문화이다. 판석묘의 주인공은 기원, 경제, 문화적으로 몽골인과 관련이 있으며 몽골인의 조상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몽골 영토는 몽골족이 발생하고 성립된 요람이다. 민족의 기원을 밝히는 데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언어이다. 몽골어의 기원과 문장 구조를 보면 중국, 티베트, 러시아 등 이웃한 거대 민족의 언어와 분명히 다르며, 고대 시기에 발생한 독자적인 언어이다. 몽골어의 기원을 도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몽골어의 기원

몽골어의 큰 특징은 교착어라는 점이다. 문자도 아주 독특하다.

## ○ ‘몽골’이라는 명칭

학자들은 ‘몽골’이라는 명칭이 지명, 고대 씨족이나 부족의 창건자, 지도자 등의 이름에서 만들어졌다고 추정한다. 몽골 땅에는 몽골 산, 몽골 사막 등 지명이 여러 개 있다. 보통 몽골인들은 먼 조상이나 씨족의 이름을 부족과 민족의 명칭으로 삼는 전통이 있다. 귀, 호, 훈이라는 씨족과 부족 명칭에서 흥노라는 국가 명칭이, 선비라는 부족명에서 선비라는 국가 명칭이 생겨난 예도 있다. 한편 한 집단이 가서 오랫동안 머물렀던 땅을 그 집단의 명칭을 따 부르는 지명도 적지않다. 흥노 영토의 중심지였던 아르항가이 아이막에는 흥노 강(Khünüi gol)이 있다. 선비 부족의 이름을 몇몇 지명으로 부르는 곳도 있다. 몽골이라는 명칭을 몽골 유연[니룬] 국가를 세운 옥구려(郁久闐, 몽골)와 연관하여 설명하는 학자도 있다. 보돈차르(Bodonchar)가 이끄는 ‘몽(Mong)’이라는 씨족이 전 몽골국의 주요 씨족이 되면서 몽골이라는 이

름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추정도 있다. 중국 사서에 맹고(萌古) 등으로 기록된 이들은 몽골 국가를 세운 몽골인의 조상이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몽골 땅에 있었던 원 몽골 부족의 한 이름에서 몽골 민족의 명칭이 기원하였다고 볼 수 있다.





# 02

## 투르크 계통 민족 지배기의 몽골인 (6~10세기)

“아주 오랜 옛날 ‘몽골’이라는 부족이 다른 투르크 부족과 충돌하여 멸망하였다. …… 투르크 부족은 몽골을 멸망시키고 남녀 각 두 명 씩만 살려 두었다. 이 두 가정은 전쟁을 피해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도망갔다. 험준한 산과 삼림으로 둘러싸인 오솔길을 따라 산속으로 들어갔다. 그 안에는 초지와 물이 풍부한 땅이 있었는데 그곳을 에르구네 쿤이라고 불렀다.” (『집사』에서)

### ○ 에르구네 쿤의 몽골인

이 설화에서 알 수 있듯이 원 몽골인의 키안(kiyan), 누쿠즈(nüküz) 부족에서 살아남은 이들이 에르구네 쿤으로 간 것이다. 그들은 에르구네 쿤에 오랫동안 살았는데 인구가 증가하면서, 각각 우량하이드, 콩기라드, 이케레스, 일지겐, 아를루트, 술데스, 바야우드 등 20여 개의 씨족이 되었다. 그들 대부분을 다를리긴(Darligin, 두를레킨) 몽골이라고 한다. 다를리긴 몽골인들은 부족 연합체 단계의 조직이었다.

에르구네 쿤의 몽골인들은 영토를 지키기 위해 투르크 부족에게 강력하게 대항하였지만 커다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매우 미약한 세력이었



투르크의 공격

다. 에르구네 쿤에 살면서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인구와 가축이 증가하자 철광산을 녹이며 탈출하였다고 위에서 언급한 설화에 기록되어 있다. 몽골 역사서 『몽골비사』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칭기스 칸의 조상은 높은 하늘에서 운명적으로 태어난 부르테 치노아이다. 그 아내는 고아 마랄이다. 그들은 큰 강을 건너왔다. 오논 강의 상류 부르칸 칼둔에 머무르고 있을 때 태어난 이가 바타치 칸이다.

(『몽골비사』에서)

8세기 후반에 다들리긴 몽골인들은 부르테 치노아의 지도로 원주지로 돌아와 부르칸 칼둔에 중심을 두고 고르반 골(헤를렌, 오논, 토울)의 상류에서 살

기 시작하였다. 고르반 골 유역에 도달한 몽골인들이 특별한 조직을 갖추고 있었음을, 부르테 치노아와 그 이후 바타치가 칸이라는 칭호를 갖고 이어받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에르구네 쿤에서 이동해 온 몽골인들은 이후 전 몽골국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부르테 치노아의 10대 후손인 도부 메르겐까지 다들리긴 몽골족이 전체 몽골 부족 중에서 지도적인 지위를 차지하였다. 10세기가 되자 원 몽골인들의 영토는 고르반 골의 흐름을 따라 더 확장되었다. 다들리긴 몽골의 귀족층은 삼림민(Khoyn irgen)과 코리 투메트부에서 며느리를 맞아 인척 관계를 맺음으로써 같은 기원의 몽골인들을 연맹 세력으로 삼아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었다.



에르구네 쿤의 몽골

## ● 타타르 소칸국

유연 국가는 몽골 니룬[유연]이라고 불렸으며, 그와 함께 5세기부터는 타타르라고도 불렸다. 그것은 414~429년에 몽골 유연국을 통치한 타타르라는 칸의 이름[大檀]과 관련이 있다. 타타르 칸이 태어난 원 몽골 부족을 중국 사서에는 달단(韃靼, 타타르)이라고 기록하였다. 유연이 멸망할 때부터 몽골 부족의 대표는 타타르 소칸국이였다. 553년에 부민(Bumin, 土門) 카간의 장례식에 참가한 여러 나라 대표 중에 삼십성(三十姓) 타타르(Otuz tatar)의 사

신이 왔다고 최초로 기록되었다. 735년에 빌개 카간을 기념하여 세운 비문에도 “구성 타타르의 침략을 715년에 아구(Agu)라는 곳에서 물리치고 평정하였다”라고 기록하였다. 이와 같이 타타르에 관해 기록한 투르크 비문을 여덟 개 발견하였다. 타타르 소칸국에 속한 몽골 부족은 홀룬 보이르 호수를 중심으로 생활하였다. 그들의 게르는 보이르 호수라는 곳에 있다고 『집사(集史)』에 기록되어 있다. 이는 부족 연합체 수장 궁정이 있고 그들이 모여 살았던 땅일 것이다. 타타르 소칸국은 두 계통의 30여 개의 부족으로 이루어져 삼십성 타타르라고도 불렸다. 이후 8세기에는 구성(九姓) 타타르(Tokuz tatar)라고 불리는데, 이것은 그 구성원 중 일부 부족이 에르구네 쿤의 몽골족과 연합한 것과 관련이 있다.

거란 시기에 저복(阻卜)이 주요 성원이 되면서 다양한 교류 관계를 맺었다. 타타르 부족은 앞선 부족과 마찬가지로 유목을 중심으로 사냥을 하면서



몽골 부족의 분포도

생활하였다.

## ○ 실위 부족

당 왕조의 역사서에 실위에 대한 기록이 있다. 실위는 선비 계통으로 본다. 실위라는 명칭을 선비의 변화된 형태라고 추정하기도 한다. 6~9세기에 실위라는 일반적인 명칭 아래 10여 개의 부족이 있었다. 그들은 에르구네 강(아르군 강)에서 송가르 강[松花江]까지와 아무르 강[黑龍江] 남쪽에 거주하였다. 그 구성원으로는 몽골, 함니간(Khamnigan, 통구스 계통), 투르크 계통의 부족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은 모두 사냥을 하며 살았지만 일부는 돼지를 기르고 물고기를 잡는 등 반정주 생활을 하였다. 다른 일부는 목축을 하고 이동하며 살았다. 경제 생활의 습관으로 보면 통구스(함니간) 계통이 대부분이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그 구성원 중에는 몽울실위(蒙兀室韋), 울로후[烏洛候, 울쿠누드] 등 몽골 계통의 부족도 있었다.



---

# 03

---

## 몽골인의 새로운 형성 (10~11세기)

보돈차르가 앞장서 가서 초원 한가운데서 아이를 뱀 여자를 잡아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다. 그 여자는 “나는 자르추드 아단한 우랑하이진 출신의 여자이다”라고 대답하였다. 다섯 형제는 그녀를 앞세우고 가서 말과 가축, 재물과 식량, 백성과 노예 등을 차지하여 살았다. (『몽골비사』에서)

---

### ○ 고르반 골 유역의 몽골인 형성

투르크인의 지배가 무너진 8세기 중반부터 몽골 부족은 원 거주지로 차례 차례 이동해 왔다. 에르구네 쿤의 몽골인들은 돌아와서 고르반 골 유역의 상류인 부르칸 칼둔에 살았다. 그 이후 200여 년 동안 몽골 부족이 모여들었고 많은 씨족과 부족이 새롭게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에르구네 쿤의 몽골 부족 중에서도 기원이 같은 다를리긴, 니룬 두 계통만 해도 부족이 30여 개는 되었다. 다를리긴 몽골인들은 도부 메르겐 이후 니룬 몽골에게 주도권을 빼앗겼다. 니룬 몽골은 설화에 이르기를 하늘의 빛에 의해 알란 고아 카툼에게서 태어난 부쿠 하타기, 부구티 살지, 보돈차르의 가계에서 생긴 지파라고 한다.



11~12세기 몽골 부족과 부족 연합

따라서 그들은 ‘하늘의 자손’이라고 추대되어 통치자의 지위에 올랐다. 칭기스 칸의 황금 가문(altan uruy)은 이로부터 기원하였다고 한다. 대략적으로 10세기 후반 하늘의 운명을 받아 알란 고아 카툰에게서 태어난 자식들의 영향력이 커져 고르반 골 유역의 몽골 부족을 통합하여 통치할 수 있게 되었다. 970년대에 태어난 보돈차르는 원 몽골 부족 대부분과 일부 근본 없는 족속을 함께 통치하게 되었다. 사방으로 흩어졌던 몽골 부족 연합체의 탄생은 전체 몽골 부족을 통합하고 국가를 건립할 수 있는 초석이 되었다.

## ○ 몽골 부족의 형성

11~12세기에 만리장성에서 바이칼 호까지, 흥안령 산맥에서 알타이 산맥 너머까지 펼쳐진 광대한 초원에는 몽골 계통의 많은 부족(70여 개)과 부

족 연합체가 있었다. 그 동부에 전 몽골, 타타르 등 원 몽골인이 있었다. 투르크 계통 민족이 몽골 땅에서 400여 년 동안 통치할 때 몽골과 투르크는 서로 가까워져서 몽골화된 투르크인, 투르크화된 몽골인들이 생겨나서 몽골 영토의 중앙, 서부, 남부, 북부 지방에 거주하고 있었다. 몽골 유목민은 원 몽골인과 기타 몽골인으로 구성되었다.

몽골계통 부족과 부족연합의 위치

몽골 계통 부족, 부족 연합		거주 지역과 영토
1	전 몽골	헤틀렌, 오논, 토을 강의 분지
2	타이치우드	오논 강 상류, 오르혼, 셀렝게 강의 왼쪽에 거주
3	잘라이르	오논 강 하류
4	타타르	홀룬 보이르 호수를 중심으로
5	케레이트	약야브간(작, 자브한 ← 바이드락), 셀렝게, 토을 강과 고비 사막 사이
6	삼성 페르키트	오르혼 강 하류와 셀렝게 강 사이
7	나이만	오르혼 강에서 이르티시 강, 항카이 산맥에서 알타이 산맥 너머까지
8	삼립 부족	흙스굴 호 서쪽부터 알타이 산맥까지 삼립에 거주
9	옹구트	오르도스에서 동북 방향으로 만리장성 이북
10	콩기라드	할하 강 분지
11	울쿠누드	홍안령 산맥 서쪽
12	바이우드, 코리 투메드, 바르구드	바이우드는 흙스굴 호 동쪽에서 셀렝게 강 하류, 코리 투메드는 바이칼 호 서쪽, 바르구드는 바이칼 호 동쪽

# 04

## 소칸국들(11~12세기)

전 몽골을 카불 칸이 장악하여 통치하였다. 카불 칸에게는 7명의 자식이 있었지만, 그는 생굴 빌렉의 아들 암바가이 칸에게 자신의 뒤를 이어 전 몽골을 다스리게 하였다. (『몽골비사』에서)

### ○ 몽골계 소칸국들의 성립과 특징

통합된 정치 국가를 건립하기 이전의 단계에서 형성된 비교적 작은 독립국을 소칸국(qanliγ ulus)이라고 한다. 소칸국은 칸(또는 왕)이 계승하면서 통치하였다. 타타르는 투르크 지배 시기부터 소칸국 수준에 도달한 상당히 강력한 나라였다. 그들은 독립을 위해 끊임없이 투쟁하였다.

키르기스의 침략에 대해 위구르와 연합해 싸웠지만 패배  
위구르의 통치에 반대하여 전쟁을 치렀지만 모윤초르 카간에게 패배  
투르크의 통치에 반대하여 두 번 싸웠지만 모두 패배

842년

747~750년

723~724년

투르크의 통치력이 약화되면서 타타르 소칸국은 강해졌고, 9세기부터 흉안령 산맥의 동쪽에서 몽골 땅의 남부 지방을 감시하는 수준에 도달하였다. 그때부터 몽골은 타타르라는 이름으로 이웃 나라와 세계 역사에 기록되었다. 그런데 10세기 초부터는 거란의 통치를 받으며 복속되어 있었다. 이 시기에 삼십성 타타르는 구성 타타르 수준으로 세력이 약화되었다.

별이 박힌 하늘이 뒤집히고 수많은 나라가 서로 싸웠다. 잠자리에 들지 못하고 포로가 되었다.

(『몽골비사』에서)

11세기 후반에서 12세기 초반에 몽골 유목민 내에는 케레이트, 나이만, 전 몽골 등 몇몇 소칸국들이 새롭게 형성되었다. 또한 삼성 메르키트, 삼림민, 옹구트 등 소칸국에 가까운 연합체도 있었다. 소칸국들은 스스로를 방어하고 여진족이 세운 금(金)의 공격을 막으려고 계속 투쟁하였다. 이때부터 시작하여 그들 사이에는 통합과 분열이 반복되었다. 고르반 골 지역의 몽골인들이 강력해지자 그들 사이에서 충돌과 분열이 일어났다. 삼십성 타타르는 구성 타타르 수준으로 약화되었다. 전 몽골과 타타르 사이에 열세 차례에 걸친 전쟁이 일어났다고 『몽골비사』에 기록되어 있다. 케레이트와 나이만은 모두 광대한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른 부족보다 발전 수준이 높았다. 그들은 전 몽골과는 그리 우호적이지 못하였다. 그런데 토그릴 칸(王汗, 1160~1203)이 숙부와 칸위 쟁탈전을 할 때 예수게이 바야타르에게서 도움을 얻어 승리를 거두자 그들은 안다(anda, 맹우)의 관계를 맺고 전 몽골과 케레이트 간에는 우호 관계가 성립되었다. 나이만 소칸국은 내부 분열로 12세기 중반에 동부와 서부로 분열되었으며, 타타르와 메르키트 소칸국은 몇 개



몽골 계통 소칸국들

의 부족 연합으로 분열되었다. 초기에는 각 소칸국들의 세력이 비슷하였지만 그들 중에서 전 몽골의 국력과 영향력이 빠르게 성장하였다.

### ○ 전 몽골 소칸국

몽골 부족 연합이 확대되면서 1130년대가 되자 전 몽골 소칸국(Qamuγ mongγol-un qanliγ ulus)이 성립되었다. 원(原) 몽골 부족 연합체를 역사에서는 ‘전(全) 몽골’이라고 한다. 그들에 관한 기록은 1084년 중국 사서에 ‘대몽고(大蒙古)’라고 처음 나타난다. 전 몽골 소칸국의 구성원으로는 다를리긴 몽골 16부족, 니룬(유연) 몽골 16부족, 타이치우드, 잘라이르 등 인구가 많은 부족 연맹이 속해 있었다.

카불 칸은 나라를 고대 유목 국가의 전통에 따라 우부, 좌부, 중부 셋으로 나누어, 중부는 스스로 통치하고 우부와 좌부는 군사 정치 지도력을 갖춘 능력 있는 고관이 통치하게 하였다. 카불 칸은 칸의 추대, 외국과의 전쟁, 우호 관계 등 중요한 문제를 토의하여 결정을 내리는 기관으로 쿠릴타이(quriltai, 국회)를 조직하였다. 새로운 칸을 선출할 때에는 앞선 칸의 유언에 따라 쿠릴타이에서 논의한 다음 추대하는 규범을 만들었다. 그리고 나라를 십진법 체계로 조직하였다. 전 몽골의 군사 제도도 십진법 체계로 조직되었다. 전 몽골의 아우룩(auruγ, 奥魯) 궁정은 헤를렌 강으로 흘러드는 아브라가 골(Avragagol)의 합류점 근처에 있었다. 전 몽골은 거란과 중국의 송, 금, 중앙아시아 각국과 교류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사서에 기록되어 있다. 금의 군대는 전 몽골을 몇 번이나 공격하였지만(1136~1146) 패하고 1146년 8월에 몽골에게 우호 관계를 맺자는 제의를 하였으며, 1147년에 전 몽골의 칸은 몽골에 유리한 조건으로 금과 우호 조약을 체결하였다. 몽골과 금의 조약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금은 전 몽골국을 승인한다.
- 금은 전 몽골국에 매년 소 20만 두, 양 5만 두, 비단 30만 필, 면화 30만 근을 주기로 한다.
- 시링허(헤를렌 강) 이북에 있는 27개의 요새를 주며 양국의 국경은 대흥안령 산맥으로 정한다. 카불 칸은 금이 하사한 ‘베일(veil)’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지 않고, 스스로 ‘위대한 기원의 칸(övög yazguur khaan)’, 연호를 ‘하늘에서 흥기한(tengerees mandsan)’ 이라고 바꿔 부르게 하였다.

(수흐바타르, 『몽골역사 사료』, 1992, 68쪽)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금이 중국 송의 동북 지방을 점령하면서 강력해 지자, 예전에 전 몽골과 체결한 조약을 파기하였다. 한편 금은 타타르와 연합하여 전 몽골에 대항하기 시작하였다. 카불 칸은 생전에 타이치우드의 암바가이 노얀을 후계자로 삼으라는 유언을 남겨 칸을 추대하는 제도를 마련해 놓았다. 암바가이를 칸의 다음 가는 타이시라는 관직을 주어 중부의 백성을 통치하게 하였다. 암바가이 칸의 아들 카단이 타이시로 있을 때 전 몽골의 국력이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전 몽골의 암바가이 칸은 타타르와 혼인을 맺어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시도하다가 타타르에게 사로잡혀 금으로 끌려 갔다. 금 황제의 명령으로 나무로 만든 나귀에 못 박혀 사형당하기 전에 카불 칸의 아들 쿠틀라가 칸위를 이으라는 암바가이 칸의 유언이 비준되었다. 1150년대 말에 쿠틀라 칸은 유언을 남기지도 못한 채 사망하고, 이어서 그의 가까운 인척인 예수게이 바이타르가 전 몽골국을 통치하게 되었다. 1170년에 예수게이 바이타르가 사망하자 전 몽골국은 부족과 부족 연합체 상태로 다시 분열되었다.



---

# 05

---

## 경제, 사회, 문화 생활

얼굴 빛이 고운 여자를 칸이 되신 당신에게 높은 수레에 앉혀 검은 빛깔의 수낙타가 끌게 하여 빨리 달러가서 카툰의 자리에 같이 앉히시죠. (『몽골비사』에서)

---

### ○ 경제

#### 유목(목축업)

자연 상태와 조건, 생활의 발전 단계에 근거해 블라디미르초프(B. Ya. Vladimirtsov)를 비롯한 학자들은 전체 몽골 부족을 ‘삼림민’과 ‘초원 유목민’ 둘로 나누었다. 초원의 유목민은 말, 양, 소를 중심으로 증식시키며 그 생산력으로 필요를 충당하고 이동하며 생활하였다. 특히 말을 잘 증식시키는 것은 초원 목축 유목민이 살아가는 데 탈것이나 짐을 싣는 용도로 동물이 큰 역할을 하였던 것과 관련이 깊다. 또한 국가와 백성을 지키는 데에도 중요하였던 것이 분명하다. 그러한 상황은 몽골 제국 시대 사료에도 보인다.

그들처럼 탈것을 끄는 가축을 많이 지닌 사람들은 다른 나라 땅에는 결코 없습니다.……

(플라노 드 카르피니, 『몽골인의 역사』, 1988, 15쪽)

**사냥** 사냥은 생활에 긴요한 물품을 충족시키고, 가축을 아끼고 증식에 도움이 되는 생산 활동의 중요한 한 부분이다. 한편 ‘삼림민’은 주로 사냥을 통해 생활한다. 순록과 사를락(야크와 몽골 소의 교배종) 등 특별한 동물도 있었다.

**수공업** 몽골인들은 목재를 가공하는 기술이 뛰어났다. 그들은 게르를 짓는데 필요한 목재, 가구, 안장, 의자, 수송용 마차 등 다양한 물건을 만들었다. 게르마차(게르를 얹은 채 이동할 수 있는 마차)를 만들려면 아주 정교한 기술이 필요하였다. 전쟁 시에 암호할 때나 결혼 등 잔치에는 수천 대의 마차가 모여들었다. 전 몽골의 칸이 거주하던 아브라가(avraga) 궁정 터를 발굴한 결과, 수공업 지구, 상업 지구, 관축 기법으로 만든 성벽을 갖춘 사당, 높은 섬돌이 있는 마흔 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진 궁궐 터 등이 발견되었다. 성벽으로 이루어진 도시 유적에서는 철과 생철을 녹이고 쇠를 달구던 화덕의 유적과 석탄 찌꺼기 등이 출토되었다. 당시의 무덤과 주거지를 발굴한 결과 청동 또는 철제 화살촉, 압정, 등자, 재갈, 크고 작은 갑옷미늘, 못, 도끼, 톱, 쟁기, 토기를 굽는 화덕 등이 발견되었다. 이 모든 것은 당시 몽골의 수공업 수준을 보여 주는 증거이다.

**농경, 채집 경제** 울쿠누드[烏洛侯]는 조 등의 곡물을 심었다. 당시의 주거지를 발굴하면 곡식의 씨앗과 흔적, 손 멍돌 등이 출토되는

데, 이것으로 조금이나마 농사를 지었음을 알 수 있다.

**상업** 여진족이 세운 금 왕조에 가죽, 가죽 제품, 소금 등을 수출하였으며, 거란과는 가죽을 주고 일상 용품으로 바꾸는 교역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당시 몽골인들의 생활상은 기록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후엘룬 우진은 현명하게 태어나 어린 자식들을 키우려 팔뚝을 견어붙이고 허리 띠를 단단히 묶고 오는 강을 따라 위아래로 달리며 밤낮으로 올리르스와 모일스를 따서 먹여 키웠다. 대담하게 태어난 어머니 우진은 영명한 자식들을 먹여 키우려 마른 흙을 부여잡고 지혜롭게 가르쳤다.

(『몽골비사』에서)

## ○ 사회, 문화 생활

몽골 소칸국과 부족들은 명확한 영토를 소유하고 있었다. 소유한 영토는 타인이 침범할 수 없는 신성 불가침의 대상이다. 목축업은 상당한 생산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초원 유목민의 발전 정도는 삼림민 부족보다 매우 높은 단계에 있었다. 초원 유목민이 소칸국 상태에 있을 때 삼림민은 부족 연합체 수준이었다.

인구 대부분 목축 또는 사냥을 주업으로 하는 자유민이었다. 초원의 자유 유목민 중에는 ‘자영민’이라는 부유한 목민들이 적지않았다. 몽골인들이 영위하였던 경제 활동과 창조물은 다방면에 걸친 그들의 지혜와 지식을 보여 주기에 충분하다. 몽골인들은 사면을 숭배하였으며 푸른 하늘, 지모신, 화로,



몽골 소칸국의 사회 구조

조상을 숭상하여 제사를 지냈다. 평화를 소중히 여기고 통합하여 하나의 국가를 건립하려는 마음이 충만해 있었다.

축제와 잔치의 최고조는 ‘남성 3종 경기’였다. 흙먼지가 갈비뼈까지 차도록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었고, 즐겁게 잔치를 즐겼다. 모두 60갑자 달력을 사용하였으며, 나이만 등 소칸국과 일부 부족은 문자가 있었다.



동북아시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제 4 장

# 대몽골국



칭기스칸 초상

13세기는 몽골인의 역사에서 특별하게 기록되는 시대이다. 1206년에 칭기스 칸이 대몽골국을 세워 몽골 민족이 새롭게 구성되고 '몽골'이라는 이름을 전 세계에 알렸다. 유목민에게 알맞은 정치와 행정 제도를 갖추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많은 문제를 이흐 자삭(Ikh zasag ← yeke jasaʻ, 大禁法)으로 결정하였다. 여러 나라 기술자들의 노력으로 건설한 도시 카라코룸은 몽골과 세계의 문화, 과학, 대외 교역의 중심지가 되었다. 대칸의 보호하에 들게 된 비단길과 몽골인이 건설한 역참(驛站, örtege)은 각국의 대외 관계와 교역, 정보 교류의 발전 속에서 거대한 진보를 이루었다. 칭기스 칸과 그의 후계자들이 시행한 정복 전쟁은 관련된 지역, 참여 대상국, 규모 등에서 비교할 수 없이 광범위하였고 그 결과 세계 역사의 발전 방향을 바꾼 대사건이 되었다. 이런 이유로 13세기의 세계를 '몽골 시대'라고 부른다.



1162년	테무진 탄생
1189년	테무진이 전 몽골국의 칸이 됨
1206년	대몽골국 성립
1215년	금의 수도 중도(中都) 함락
1219~1224년	중앙아시아 원정
1227년	당구트[西夏] 정복
1227년	칭기스 칸 사망
1229~1241년	우구테이 칸의 통치
1246~1248년	구육 칸의 통치
1251~1259년	몽케 칸의 통치



---

# 01

---

## 대몽골국의 성립

머리가 여러 개이고 꼬리가 하나인 뱀과 머리가 하나이고 꼬리가 여럿인 뱀, 두 마리가 이동이 많은 대로를 건너가게 되었다. 머리가 하나이고 꼬리가 여럿인 뱀은 기회를 엿보아 한쪽 방향으로 무사히 건넜다. 그러나 머리가 여러 개이고 꼬리가 하나인 뱀은 길을 건너려 하자마자 각각의 머리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다가 마차 바퀴에 치여 죽었다. -몽골인들은 통합되었을 때 강력하였다.

---

### ○ 13세기 초의 세계와 몽골인

몽골인이 통일 정권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던 당시, 중국은 둘로 나누어져 있었다. 남쪽에는 송(宋)이 있었고, 북쪽에는 금(金)이 연경(燕京, 지금의 베이징)을 중심으로 몽골과 국경을 맞대고 있었다. 몽골의 서남 방면에는 서하(西夏), 즉 탕구트[黨項], 서쪽에는 호레즘 제국이 있었다. 호레즘 제국은 내부의 종교 분쟁으로 전쟁과 혼란이 끊이지 않았다. 가톨릭의 수장인 로마 교황은 '이교도(異教徒)'인 투르크인들에 대항해서 성전(聖戰)을 일으키자고 호소하였다. 그는 크리스티교와 이슬람교의 투쟁을 격화시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려고 꾀하였다. 유럽에서는 로마 제국이 붕괴되어 이탈리아

가 독립하고, 독일은 분열되면서 오랫동안 지속되는 전쟁이 시작되었다. 프랑스와 영국의 왕들은 점차 기반을 공고히 하면서 강력해졌을 뿐만 아니라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전쟁도 불사하였다. 바꿔 말하면, 당시 세계는 전쟁과 혼란이 계속되는 불안한 시대였다. 바로 그때 몽골도 국가를 세우기 위해 그리고 보다 먼저 세우기 위한 경쟁이 강력하게 확산되었다. 그러한 경쟁 결과 몽골인들은 통합된 강력한 정권을 수립할 수 있었다.

## ○ 전 몽골국의 부흥

테무진은 1162년 5월 31일에 오논 강변의 델리운 볼닥이라는 곳에서 예수게이 바아타르와 후엘룬 카툰 사이에서 태어났다. 역사서에는 그가 오른 손에 양의 복사뼈만한 핏덩이를 쥐고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다. 예수게이 바아타르가 사망하자 통치하에 있던 타이치우드 등 여러 부족이 흩어져 도망갔다. 예수게이 바아타르를 잃은 남은 가족은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혜로운 어머니 후엘룬은 자식들을 귀족의 법도에 따라 키웠다. 어머니 후엘룬은 온갖 고생을 하며 자식들을 키우는 한편, 조상의 교훈과 격언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면서 은인과 적을 구별할 줄 아는 사려 깊은 사람으로 교육시켰다. 전 몽골국의 칸위를 차지하는 투쟁에서 초대 칸인 카불 칸의 손자이자 예수게이 바아타르의 아들인 테무진이 승리를 거두었다.

테무진은 천성적으로 지혜가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물러서지 않는 굳건한 용기와 통치 규범, 평화, 정직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대칸이자 위대한 장군의 능력을 갖춘 인간이었다. 테무진은 아버지의 안다(anda, 맹우)였던 케레이트의 토그릴 칸과 자신의 안다 자다란의 자무카, 보오르추, 젤메, 무칼

리 등 정직한 동지들의 도움으로 아버지가 세운 나라의 분열을 다시 통합할 수 있었다. 1189년에 카라 지루켄(Qara jirüken)의 쿠케 노르(Köke naʻur)에서 알탄, 후차르, 사차 베키, 타이추 등 전 몽골족의 영향력이 큰 귀족들의 회의인 쿠릴타이를 개최하여 테무진을 전 몽골국의 칸으로 추대하고 최초로 '칭기스 칸(Chinggis Khan)'이라는 칭호를 바쳤다. 그때 테무진은 28세였다. 전 몽골족을 부흥시킨 것은 이후 대몽골국을 건설하는 핵심이 되었다. 칭기스를 칸으로 추대한 것에 대해 나머지 소칸국과 각 부족의 우두머리, 황금 가문의 고관 대작들은 모두 다르게 받아들였다. 케레이트의 토그릴 칸은 "자식(의 관계에 있는)인 테무진을 칸으로 추대한 것은 옳은 일이다. 몽골인들에게 칸이 없다면 어찌할 것인가?"라고 칭찬하였던 반면에, 안다인 자무카는 기뻐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평생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다.

## ○ 대몽골국의 건립

칭기스 칸은 전 몽골국의 칸이 된 후 자기편 사람들과 힘을 합하여 전체 몽골 부족을 하나의 통치하에 두려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1190년에 달란 발주트(Dalan Baljut)라는 곳에서 테무진이 자무카와 최초로 전쟁을 치른 것을 역사서에서는 '십삼익(十三翼)의 전투'라고 한다. 자무카는 승리를 거두었지만 동족을 약탈하여 반감을 샀다. 그래서 많은 부족이 테무진을 따랐다. 1196년에는 오랫동안 금의 통제를 받던 타타르인들이 반란을 일으켜, 그 지도자인 메구진 솔트가 금나라의 군대에 쫓겨 울자 강으로 도망쳤다는 소식을 듣고, 칭기스 칸은 옛 원한을 풀기 위해 토그릴 칸과 힘을 합하여 타타르 부족을 섬멸하였다. 금의 황제는 그들의 노력을 치하하여 토그릴에게는 왕, 칭



후흐노르[쿠케노르]

기스에게는 '자우트 쿠리(Ja'ut quri)'라는 관직을 내렸다. 이때부터 토그릴은 역사에 옹칸[王汗]이라고 알려졌다. 칭기스 칸과 옹칸의 우호 관계는 더욱 굳건해졌고 국력이 더욱 강해지자, 일부 부족과 소칸국의 우두머리들은 그들을 싫어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자무카는 간교한 계략으로 타타르, 나이만, 메르키트의 칸과 귀족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었다. 그들은 1201년에 자무카를 구르 칸(Gür Khan)으로 추대하여 종마와 암말을 죽여 희생 의식을 치르고 충성을 맹세하여 칭기스 칸과 옹칸에 대한 공동 전선을 형성하였다. 자무카는 자신의 연합 세력을 지휘하여 칭기스 칸과 옹칸이 이끄는 군대와 헤를렌 강의 하류에 있는 쿠이텐(Khüiten)이라는 곳에서 전쟁을 치렀다. 자무카는 이 전쟁에서 패배하였고, 이때부터 독자적인 영향력을 상실하였다. 칭기스 칸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더욱 유리한 위치에 섰다.

1202년에 칭기스 칸과 옹칸은 메르키트, 타타르 부족을 정복하였다. 타타르를 공격할 때 규율을 어기고 전리품을 획득하는 데 혈안이 되었던 알탄, 후차르, 다르다이 옷치긴 등을 칭기스 칸이 심하게 꾸짖고 전리품을 회수하자 그들은 이에 불만을 품고 칭기스 칸에게서 떨어져 나갔다. 1203년경에 자무카는 알탄과 후차르 등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고, 게다가 옹칸의 아들 쟁굽을 직접 만나 칭기스 칸에 대항하여 함께 싸울 것을 부추겼다. 쟁굽은 예전부터 칭기스 칸을 시기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항해서 함께 싸우게 되었다. 쟁굽이 이 사실을 아버지에게 말하자, 옹칸도 처음에는 완고하게 반대하다가 결국에는 “네가 스스로 알아서 하라”라고 암묵적으로 승인하였다. 그런 음모를 안 칭기스 칸은 1203년 가을, 옹칸이 방심한 틈을 타 급습하여 케레이트부를 멸망시켰다. 전쟁터에서 도망친 옹칸은 나이만의 국경 초병에게 살해당하고, 아들 쟁굽은 더 멀리 도망갔으나 텡게르 올[天山] 근처에서 사망하였다. 이 승리로 칭기스 칸은 자신의 능력을 깨달았고, 모든 몽골 부족을 통합하는 투쟁의 길로 들어섰다. 1204년에 칭기스 칸의 군대는 나이만부를 정복하였다. 칭기스 칸이 메르키트, 타타르, 케레이트, 나이만 등 주요한 소칸국을 복속하자, 그 통치하에 있던 부족과 부족 연합체들은 모두 칭기스 칸의 휘하에 놓이게 되었다.

테무진은 1185년에서 1206년 사이에 서른두 차례의 전쟁과 전투를 치러 모두 여든한 개의 크고 작은 부족을 통합하여 전체 몽골족을 통일하였다. 대몽골국을 건립하려는 칭기스 칸의 목표에 대해 페르시아의 역사가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부모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식들, 형들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동생들, 부인을 신뢰하지 않는 남편, 남편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부인, 며느리를

괴롭히는 시어머니, 시어머니를 공경하지 않는 며느리, 어린 아이들을 보호하지 않는 어른들, 연장자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연소자 …… 가난한 이들을 돕지 않는 부자들, 고귀한 자들을 존경하지 않는 하인들이 있는 그들 백성을 내 나라에 통합할 때 가장 앞에 내세운 것은 그들 가운데 규율과 정직을 갖추게 하려는 목적이었다.

(라시드 왓 던, 『집사』)

1206년에 오는 강 상류에서 몽골 귀족들이 대(大)쿠릴타이를 열어 대몽골국 성립을 전 세계에 선포하고 칭기스를 대칸으로 추대하였다. 그리하여 북으로 바이칼 호에서 남으로 만리장성까지, 동으로 흥안령 산맥에서 서로는 알타이 산맥 너머까지의 광대한 영토를 가진 대몽골국이 성립되었다.

대몽골국이 성립되어

- 사회발전 향상에 장애가 되었던 전란이 가라앉고 경제가 되살아 나기 시작하였으며 더욱 발전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 몽골 계통의 소칸국과 부족을 통일하여 명확한 영토와 국경을 갖추었다. 나이가 같은 언어와 종교, 문화를 공유하여 새로운 몽골인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 군사 능력이 향상되어 독립을 지킬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 (위구르식) 몽골 문자를 국자(國字)로 삼아 공식 행정 문서 언어로 사용하였고 역사서를 기록하여 남기게 되었다.
- 국내외 사정을 이흐 자삭(대금법)에 따라 판결할 수 있게 되었다.

『몽골비사』에는 “모전 천막에 사는 사람들(유목민)을 통합하여 호랑이 해



대몽골국(1206년)

에 오는 강 상류에 모아 아홉 개의 흰 깃발을 세우고 칭기스에게 칸이라는 칭호를 수여하였다”라고 하였다. 그때 테무진은 마흔다섯 살이었다. 칭기스 칸은 고군분투하여 세운 국가를 방어하고 강화하여, 백성들이 마음으로 국가를 존중하고 믿을 수 있게끔 여러 분야에 걸쳐 노력하였다.

칭기스 칸의 교훈 중에서 정치 규범에 대해 언급한 것을 살펴보자.

키툼에게는 세 명의 사내가 있다. 첫 번째는 황금과 같이 고귀한 국가, 다음은 고결한 명예, 그 다음은 결혼한 남자이다. 고귀한 국가를 강력하게 만들면 고결한 명예가 따라오고, 고결한 명예를 지키면 남편이 다른 데로 떠나가지 않는다.

(구시 룽상단잔(Güüsh Luvsandanzan), 『알탄 톱치(Altan tobči 黃金史)』 중에서)



칭기스 칸 탄생 800주년 기념비

한 길 내 몸뚱이는 힘들어도  
위대한 내 나라는 약해지지 말기를  
내 한 몸은 힘들어도  
내 백성은 흩어지지 않기를

(칭기스 칸의 교훈 중에서)



---

# 02

---

## 대몽골국의 정책

정치 규범을 올바로 지킨다면 그는 위대한 사람이며 정직한 법을 따른다면 모든 백성을 통치할 수 있다. (『지혜의 열쇠(Oyuny tülkhüür)』 중에서)

---

### ○ 행정 조직

칭기스 칸은 대몽골국을 건립하고 나서 먼저 적절한 행정 통치와 군사 조직 체계를 갖추었다. 이전의 정치 규범 전통에 근거해 군사, 행정 조직의 다양한 위계와 통치 조직을 갖추었다. 이것은 모든 문제를 제 시간에 그리고 신속하게 결정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대몽골국의 가장 높은 권력자는 칭기스 칸이었다. 몽골국의 영토와 복속민들은 모두 대칸의 소유였다. 몽골인들은 대칸을 “하늘에서 기원하였다”라고 하며 존송하였으며 칸의 명령을 어김없이 완수하였다.

대칸은 대를 이어 국가를 통치하였으며 대칸이 지명한 사람을 쿠릴타이에

서 비준하여 추대하였다. 칸을 추대하고, 외국과 우호 관계를 맺을지 전쟁을 할지 등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은 쿠릴타이에서 결정하였다. 따라서 쿠릴타이는 정치의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 되었다. 쿠릴타이에는 황금 가문의 구성원과 정부 관료, 대신, 학자, 장군 등이 참여하였다. 다양한 의견을 듣고 공정하게 문제를 해결하였기 때문에 아주 민주적인 방식이었다. 따라서 일부 학자는 ‘쿠릴타이’를 오늘날 국회의 최초 형태라고도 한다.

정치 사건을 다룰 때에는 원로회의가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다. 원로회의는 사려 깊고 올바르고 현명하게 정책을 다루었기 때문에 영향력이 매우 컸다. 칭기스 칸이 조직한 원로회의에는 세계 여러 나라의 학자가 참여하였기 때문에 세계 통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대칸이 임명한 행정대신은 통치 업무를 수행하였다. 대몽골국의 초대 행정대신은 국왕 무칼리(Muqali)였다. 몽골국의 매사는 행정대신이 지휘하여 처리하였으며, 자기 능력 범위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일은 대칸과 쿠릴타이를 통해 해결하는 규칙이 있었다. 국내 사회 생활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예케 자르구치(yeke jarγuči, 大斷事官)가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였다. 칭기스 칸이 임명한 최초의 예케 자르구치는 시기 쿠투쿠(Sigi qutuqu)였다.

영원한 하늘의 가호 아래 모든 나라를 영도하고 있을 때, 너는 보는 눈, 듣는 귀가 되어 모든 나라를, 어머니에게, 우리에게, 아우들에게, 자식들에게 …… 또한 시기 쿠투쿠에게 “온 나라의 도둑을 징계하고 거짓을 추궁하여 죽일 만한 사유가 있는 자들을 죽여라! 벌할 만한 사유가 있는 자들을 벌하라!”하고 분부하면서 모든 자의 위에서 송사를 처결하도록 맡겼다. “모든 백성을 묶을 나눈 것을, 송사를 처결한 것을 『푸른 책(Köke debter)』에 글로 써서 기록하라. 또한 후손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시기 쿠투쿠가 내게 상의하여 법으로 정해 푸른 책, 흰 중

이에 기록한 것을 변경하지 마라! 변경하는 사람은 죄인으로 다스리도록 하라!”

(『몽골비사』, 203절)

대몽골국의 근본이 되는 중요한 법률은 대금법이였다. 이 법률은 완전한 형태로 전해지지 않는다. 대금법에는 칸의 추대, 쿠릴타이 소집과 개최, 외국과의 교섭 원칙, 군사와 행정 업무, 공납 등 다양한 형사 및 민사 문제 처리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정치를 하는 데 중요한 임무를 띤 사람을 정치 고문 베키(beki)라고 한다. 정치 고문인 베키는 흰 말을 타고 흰 옷을 입으며 쿠릴타이 개최, 칸의 추대, 원정 출발 날짜 등 정치적으로 중요한 일을 시작하는 상서로운 날을 택하고 시간과 방향 등을 알려 주는 임무를 수행한다. 최초의 정치 고문인 베키는 우순(Usun) 노인이었다. 대몽골국의 주된 신앙은 샤머니즘(무교)이었다. 아주 유명한 무당 쿠케추(Kökecü), 즉 텡 텡게리(Teb tenggeri)는 대칸의 신임을 얻어 나머지 무당보다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대몽골국을 건립하는 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분투하여 특별한 공적을 세운 칭기스 칸의 동지들을 구준(九駿), 다르카드(darqad), 군사 장군, 용사 등으로 불렀다. 그들은 대칸의 고귀한 생명을 지키고 국가를 굳건히 하는 데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대칸에게 충고하고 자문하는 등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권리를 지니고 있었다.

칭기스 칸은 네 명의 용감한 장군을 충성스러운 개에 비유하여 가장 중요한 사건이나 어려운 전쟁 등에 파견하였다. 대몽골국을 건립할 때 목숨을 아끼지 않고 노력한 보오르추, 젤메, 소르칸 시라 등을 다르칸으로 임명하였다. 그들에게 분지를 사여하고, 소유한 땅은 자자손손 통치하며, 전쟁과 위렵 시에 노획물을 나누지 않고 독차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모든 공납을 면제해 주고, 언제든지 대칸을 만날 수 있으며, 죄를 아홉 번까지 사해 주는 등의 특

칭기스 칸의 충신들

칭기스 칸의 기준	무칼리, 보오르추, 젤메, 시기 쿠투쿠, 소르칸 시라, 수베에데이, 제베, 보르쿨, 하르 히루게, 추 메르겐(보오르추가 죽은 다음 추가)
칭기스 칸의 네 대신	보르쿨, 보오르추, 무칼리, 칠라군
칭기스 칸의 사구(四狗)	쿠빌라이(쿠두스), 젤메, 제베, 수베에데이
칭기스 칸의 공신	보르쿨, 젤메, 보오르추, 소르칸 시라

권을 부여하였다.

몽골국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중요한 버팀목은 근시(近侍, 호위병)였다. 근시는 대칸의 안전을 보호하며 국가에 봉사하고, 위급한 상황에는 군대의 중심이 되는, 항상 전투 준비를 하고 있는 무장력의 핵심이었다. 대몽골국에는 일만 명의 근시가 있었다. 칭기스 칸은 옛날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천호제 조직을 정비하여 모두 95개의 천호로 나누었다. 천호제도는 평시에는 공납을 받는 기본 단위이며 전시에는 일정한 수의 군사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 행정 단위이다.

한 행정 단위에서 다른 단위로 합부로 옮기는 것은 대금법으로 강력하게 규제하였다. 상비군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사 정책을 입안하는 일두치(ilduči, 작전 참모소, 원뜻은 칼을 지닌 자)라는 기관을 조직하였다. 대몽골국의 영토를 우부, 좌부, 중부 등 세 개의 대만호로 나누어 중부 만호는 나아가 통치하게 하였으며 그중에는 고르반 골 유역이 포함되어 있었다. 알타이 산맥 부근의 우만호는 보오르추가 다스리게 하였다. 몽골의 왼쪽(동쪽)인 흥안령 산맥 부근의 좌만호는 무칼리가 통치하게 하였다. 대만호는 그 안에 몇 개의 소만호, 소만호는 천호, 백호, 십호로 각각 구성되어 있었다. 그들은 전시



대몽골 제국의 정치 행정 조직

에 열 명에서 만 명까지 군사를 제공하였으며 평화 시에는 의무적으로 일정한 공납을 바쳤다. 칭기스 칸의 정치 행정 조직은 유목민을 다스리기에 가장 적합한 형태였다.

## ○ 경제 개혁

칭기스 칸은 정치를 안정시키고 나서 국가의 독립을 지키는 근본이 되는 경제 정책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국가 경제의 기본인 목축업을 발전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가축을 증식시키는 원천이 되는 자연을 보호하는 문제를 정책의 주된 방향으로 삼아 대금법으로 조정하였다. 오종 가축(말, 소, 양, 염소, 낙타) 중에서는 예전처럼 말을 가장 중시하였다. 말은 국가를 지키고 광대한 영토의 국내의 교류를 연결시키며, 유목을 시행하고, 전국적인 축제(naadam), 위렵 등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이다. 고아원을 설립하고, 국가 건립에 목숨을 바친 장군과 군사들의 가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며, 또한 사회적 약자층에게는 공납을 감면 내지 면제해 주는 등 다양한 사회 보장 제도를 실시하였다.

**대외 관계** 몽골은 대외 교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중요한 정책을 많이 시행하였다. 몽골인들의 교역에 대해 금(金)이 지속적으로 방해하였기 때문에, 때로는 전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유목민에게 전쟁은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었다. 중앙아시아와 교역을 발전시키고 몽골에서 상업 활동을 하는 외국인들을 장려하고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정책을 시행한 것은 대외 교역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는 증거이다.

웅구트족의 알라코시 디기드 코리에게서 온 사르탁 사람 아산이 흰 낙타를 타고 1천 마리의 거세 양을 몰아 담비, 다람쥐와 바꾸러 에르구네 강을 따라 내려오는 것을 (칭기스 칸이) 가축에게 물을 먹이러 발주나 호수로 들어가다가 만났다.

(『몽골비사』, 183절)

칭기스 칸과 그의 후계자들은 비단길을 장악하고, 교통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전반적인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하였다. 대외 교역은 이전보다 훨씬 증가하였다. 당시에 몽골 대칸에게서 재정 후원을 받아, 그들을 대신하여 교역을 하던 중앙아시아의 오르투크(ortoʻy, 斡脫)이라는 상인들도 많이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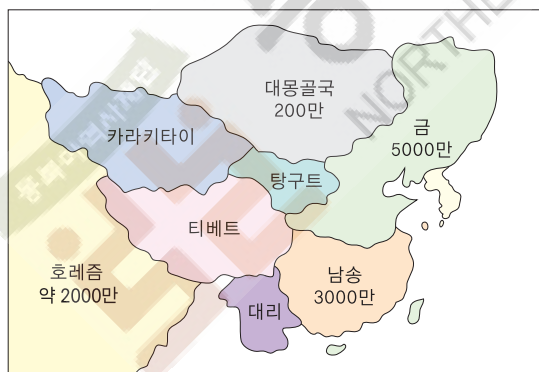


# 03

## 칭기스 칸의 대외 정책

몽골인들은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책임감과 조직을 갖추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칭기스 칸 군대의 장군들은 뛰어난 군사 기술로 그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칭기스 칸은 역사에 남을 위대한 군사 전략가이며 지도자였음은 의심할 바 없다. 칭기스 칸은 자신도 뛰어난 장군이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장군을 만들어 냈다. (인도의 정치가 네루 수상이 한 말)

### ● 금 정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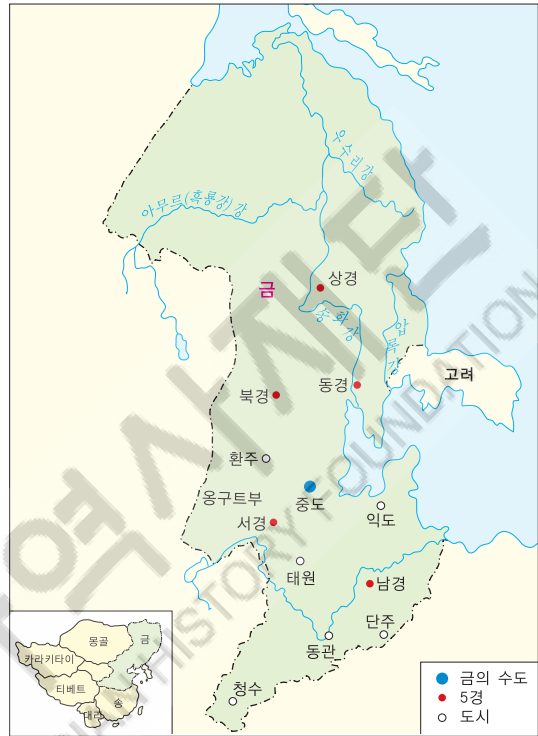


13세기 각국의 인구

대몽골국의 주변에는 사회 발전 단계 상 서로 차이가 나는 나라가 있었다. 칭기스 칸은 대몽골국을 건립하고, 인접국과 평등하고 평화적인 관계를 맺어, 그들이 대몽골국을 인정하고 상호 자유 무역을 발전시키는 등 대외적으로 안전 보장을 강화하는 것을 특히 중요하게 여겼다. 그러기 위해 금과 탕구트, 호레즘 등 각

국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금의 통치자들은 대몽골국을 인정하기는커녕 공납을 바치도록 요구하였다. 호레즘 샤(Khorezm Shah)는 사신과 상인을 죽이고 물품을 강탈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칭기스 칸은 1205년에 탕구트를 처음으로 공격하였다. 이것은 탕구트와 금이 연합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금을 공격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대외 조건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이었다. 1207년, 1210년에 재차 공격하여 도시를 점령하여 물자를 약탈하고, 낙타 등 동물을 대량으로 획득하였다. 탕구트에게는 매년 공납을 바치고, 전쟁에 군사를 차출할 것을 강요하였다. 탕구트를 정복하여, 처음으로 정주 국가를 공격하는 경험을 쌓았다. 금은 몽골인들이 중국과 교역하는 것을 방해하고, 유목민이 연합하여 강력해지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해하였다. 1211년에 선조들의 유언을 실행하기 위해 ‘원수를 갚고 장애물을 제거하려고’ 칭기스 칸은 대군을 이끌고 정벌에 나서 23년에 걸친 금과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군사를 둘로 나누어 하나는 자신이 지휘하고, 다른 하나는 무칼리와 제베 등이 지휘하도록 하였다. 몽골 군사는 금의 일부 지방을 정복하고 대량의 재화를 전리품으로 획득하여 돌아왔다. 그러나 금이 약속을 지키지 않자 1213년, 1214년에 칭기스 칸은 다시 금에 대군을 보내



금의 영토



13세기의 말 지뢰

마침내 1215년 수도 중도(中都)와 주요 거점을 정복하였다. 1217년 8월에 무칼리에게 나머지 지방을 정복할 것을 명령하고 몽골로 돌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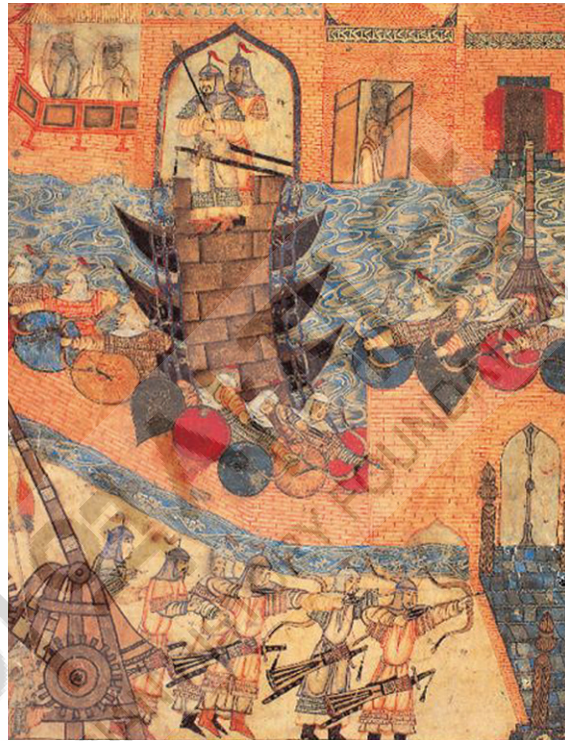
몽골 군대의 무기 등에 대해 중국 사신 조공(趙珙)이 『몽달비록(蒙鞞備錄)』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칭기스 칸은 전투에 앞서 복병이 숨어 있는지 의심하여 뛰어난 기병을 사방으로 보내 군대의 이동을 엄호한다. 도시를 공격할 때 적의 진영과 물자 보급로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서 오는지 은밀히 파악하고 곧바로 어떻게 싸울 것인가 하는 새로운 방법을 강구한다. …… 선봉 부대가 전투에서 아주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다. 모든 군대의 열 중에 셋은 그의 통제를 받는다. …… 적과 대적할 때 삼삼오오 흩어져 싸우기 때문에 적을 만나도 포위될 위험이 없다. …… 몽골 군대가 다가오는 것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과 같고 갑자기 말머리를 돌려 사라지는 것은 번개가 치는 것과 같다.

## ● 호레즘 정복

호레즘은 중국과 지중해, 인도와 러시아 간의 교역의 십자로인 서 투르크스탄의 아무다리야 강 하류에 있는 반정주 국가였다. 교역로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고도로 발전하였고 경제력은 강대하였다. 1217년에 칭기스 칸은 교역을 위해 호레즘에서 몽골로 파견한 사신을 되돌려 보낼 때 오키나(Ukhuna)를 우두머리로 하는 450명의 사절단을 함께 보냈다. 그는 호레즘

샤에게 친서를 보내 교역을 위해 사절을 보냈음을 언급하면서 이후에 양측에서 교역을 지원할 것을 희망하였다. 대상단이 오토라르(Otrar)에 도착하자 성주 이날축(Inalchuk)은 그들을 모두 살해하였다. 칭기스 칸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격노하였지만, 1218년에 호레즘 샤에게 다시 한 번 사신을 파견하여 잘못을 시인할 것을 요구하였다. 호레즘 샤는 그 사절 중 두 명을 살해하고 한 명은 모욕을 주어 돌려 보냈다. 그리하여 칭기스 칸이 호레즘을 정복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몽골군은 동서양에서 동시에 전쟁을 치르게 되었다. 몽골 군대가 호레즘을 정복하였다는 소식을 믿지 못한 금 황제는 몽골에 두 번이나 사신을 보내 그 사실을 확인하려 하였다. 호레즘 샤는 바로 그런 강력한 몽골을 맞아 싸운 것이다.



몽골군의 공성전

1218년에 칭기스 칸은 쿠릴타이를 열어 자신이 원정을 떠난 후 전권을 옷치긴에게, 고비 이남에서 황허까지는 알락 베키 공주에게 위임하였다. 호레즘국을 정벌할 때 칭기스 칸은 고문으로 네 명의 자식과 보오르추, 시기 쿠투쿠, 제베, 수베에데이 등 장군을, 카툰 중에서는 쿨란을 데리고 떠났다. 어떤 기록에 따르면 칭기스 칸의 군대는 15만에서 20만 정도였다고 한다. 1218년에 칭기스 칸은 도로와 다리를 놓고, 도시 성벽을 무너뜨리는 데 적합한 투석기 등의 공성 도구와 기름이 가득 들어 있는 방화용 불화살, 활시위 등 우

수한 전투용 무기와 기술을 완벽하게 준비하였다. 칭기스 칸은 금과 전쟁을 치르면서 새로운 무기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정주 국가를 공격하는 방법도 배웠기 때문에 호레즘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었다. 칭기스 칸은 군대를 둘로 나누어 사신을 살해한 오토라르 성주 이날축을 살해하고 도시를 잿더미로 만들었다. 칭기스 칸 군대의 다른 한 부대는 1218년에 세미레치에(七河 유역), 1219~1221년에는 고대 문화 도시인 부하라, 사마르칸드, 우르젠치 등을 정복하였다. 1221년에 제베, 수베에데이가 이끄는 군대는 호레즘의 무함마드 샤를 뒤쫓는 한편, 아제르바이잔과 그루지아 등을 정복하였다. 세미하를 점령하고 북 카프카스 산맥을 넘어 크림 반도까지 가서 수달(술다이아)을 점령하였다. 1223년에는 할하 강변에서 러시아 왕공의 군대를 섬멸하였다. 이렇게 칭기스 칸의 대군은 여러 나라와 도시를 포함한 광대한 영토를 정복하여 몽골 제국의 기초를 닦았다.

## ○ 탕구트 정복

1225년 초, 칭기스 칸은 군사를 돌려 몽골 초원으로 돌아왔다. 이는 몇 가지 이유에서였다. 금을 정벌하기 위해 출정한 무칼리 장군이 사망하였고, 금의 일부 도시가 몽골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으며, 탕구트가 협력을 거부하고 몽골에 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칭기스 칸은 단기간에 10만 군사를 모아, 그 해 가을 탕구트로 진격하였다. 칭기스 칸은 탕구트로 사신을 보내 “사르타굴(SartaYul, 호레즘)을 정복하러 갈 때 몽골 군대의 우익이 되라고 하였는데 너희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신의를 저버렸다. 우리는 사르타굴을 정복하고 돌아왔다. 이제 너희들을 정복하겠다”라고 알리고 전쟁을 선포하였

다. 1226년 춘정월에 군대를 둘로 나누어 우익을 칭기스 칸 자신이 직접 이끌고 서량부(西涼府)에 도달하였다. 서량부는 탕구트의 수도 다음 가는 큰 도시로 교역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티베트 고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전투 요새였다. 서량부는 전쟁을 하지 않고 항복해 버렸다. 우익은 투렘기(Türemgii) 도시를 점령하고 1227년 1월에 야르가이(Yargai, 寧夏) 시에 다가갔다. 탕구트의 주력군이 투렘기 성에서 한 번 크게 패하여, 수도는 소규모 병력만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탕구트는 금방 무너졌다. 그러나 칭기스 칸은 1227년 8월 25일(양력)에 상처로 인한 고열로 생을 마감하였다.



---

# 04

---

## 천 년의 역사 위인, 칭기스 칸

테무진 - 활시위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테무진 - 화살촉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테무진 - 어머니 후엘룬에게서 태어났다.

테무진 - 위대한 역사에서 태어났다.

(푸렘도르지(Pürevdorj)의 시「칭기스」, 1962)

---

역사 인물은 동시대의 산물이다. 한 인물이 형성되는 데에는 그 사람이 태어나 자란 땅과 자연, 기후, 사회 환경 등이 주된 영향을 끼친다.

### ● 칭기스 칸, 위대한 정치가

칭기스 칸은 시대의 산물이며 몽골 유목민 중 한 명이다. 칭기스 칸은 세계 정치와 사회의 위대한 지도자요, 뛰어난 군사 지휘관이었다. 그는 시대의 요구를 가장 먼저 자각하고 이해하였으며 그것을 실행할 가장 올바른 길을 찾았기 때문에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이에는 자연과 사회적으로 다양한 요

인이 영향을 끼친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몽골 땅의 혹독한 기후 상황은 테무진을 인내력 있고 강건하게 만들었으며, 어려서부터 홀로 가난하게 자란 것은 생존 방법을 깨닫게 해 주었고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성격을 만들어 주었다. 그의 성장기에 몽골 사회는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전쟁을 통한 문제 해결, 힘으로 해결하려는 분위기, 이방인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어 버린 조상의 통렬한 교훈, 유언 등을 테무진이 깨닫도록 하였다. 테무진은 가족을 지키고 흩어진 백성을 모으고, 나아가 모진 천막에 사는 사람들(유목민)을 통일하지 못하면 몽골인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뼈저리게 이해한 사람이다.

그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강하고 정직한 동지의 도움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았다. 평생토록 정직한 동지였던 보오르추, 무칼리 등 수많은 사람을 예로 들 수 있다. 칭기스 칸은 사람을 알아보는 안목이 탁월하였다. 그것이 그가 성공을 거두는 데 한 가지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전투에서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조르가다이의 비할 데 없이 정직한 마음을 알아보고 그를 ‘제베(Jebe, 화살촉)’라고 이름 지어 주고 자신의 믿음직한 장군으로 삼았다. 제베는 유라시아에서 중형무진 활약하여 이름을 날린 유명한 장군이 되었으며 죽을 때까지 칭기스 칸에게 충심으로 봉사하였다. 테무진은 태어날 때부터 현명하였으며 게다가 생존에서 배운 신중함, 인내심,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정신력, 한 번 시작한 일은 끝내고야 마는 완고함, 사람의 본질을 꿰뚫고 여러 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 선악을 구별하는 능력 등 어려서부터 배운 것이 훗날 위대한 정치 지도자, 뛰어난 군사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준 것이다. 칭기스 칸이 이렇게 커다란 영예를 얻은 데에는 그가 일생 동안 이상으로 꿈꾸었던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치 숭앙** 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타인의 말을 들을 줄 알았고 학자들의 충고를 중시하고 쿠릴타이에서 비준한 정책과 법률 등을 실생활에서 명확하게 실행하였다. 정치를 숭양하는 정신을 몽골인 모두의 마음에 굳건하게 심어 준 것은 오늘날에도 ‘우리들의 정치에 서광이 깃들기를’, ‘정치가 안정되면 백성이 평안하다’라는 염원을 간직해 온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칭기스 칸은 관료를 임명할 때 그 사람의 지혜, 능력, 공적, 정직함을 특별히 중시하였으며, 결코 출신 가문을 따지지도, 인척 혹은 안면 있는 사람을 고르지도 않았다. 이는 정치의 범위를 한정 짓지 않는 하나의 근본이 되었다. 바로 이것이 정치 지도자가 갖춰야 할 중요한 자질이다.

**법률 준수** 황금 가문, 정치가, 군공을 세운 장군을 막론하고 법 앞에 평등한 권리를 지닌 것은 정치 업무를 효율적으로, 제때에, 공정하게 시행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였다. 벨구테이는 대칸의 동생이었지만 비밀을 누설하였기 때문에 쿠릴타이에 참석할 권리를 박탈당하였고, 전리품을 챙긴 알탄과 후차르 등도 역시 황금 가문의 구성원이었지만 법률에 의거 처리하는 등 많은 예를 들 수 있다.

**생각의 자유 존중** 당시에는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었다. 따라서 칭기스 칸 시대 몽골에는 샤머니즘,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등 다양한 종교가 서로 충돌하지 않고 공존하였다. 다양한 계통의 학자와 관리, 대신이 어깨를 맞대고 몽골의 정치에 참여하였던 것은 대칸의 본질을 꿰뚫는 현명한 정책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 ○ 칭기스 칸, 위대한 군사 지도자

칭기스 칸은 자신도 위대한 장군이자 군사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몽골과 세계 역사에 내로라하는 뛰어난 장군을 배출하기도 하였다. 칭기스 칸이 금과 호레즘 등 그 시대에 강력하고 인구도 많은 나라를 소수의 군사로 정복한 것은 그가 뛰어난 장군이었음을 보여 준다. 그가 군사를 통솔하고 군사 지휘관을 준비할 때 기준으로 삼았던 원칙은 다음과 같은 예에서 살펴볼 수 있다. 군대를 아끼며 통솔하는 장군은 세계 역사에서도 드물다. 칭기스 칸의 원칙은 군사가 많으면 손실이 크고, 적으면 손실이 적음을 알아 전략과 전술을 매우 치밀하게 준비하였으며 그 결과 전쟁에서 입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였다. 이것이야말로 군사 지도자이며 장군인 칭기스 칸의 위대함이다. 칭기스 칸은 전투에서 먼저 상대방의 전력을 정확하게 정탐하여 그 나라나 도시 등에 알맞은 방법과 전술을 개발하여 사용할 줄 알았는데 바로 이것이 그가 승리를 거둔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이다.

칭기스 칸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수테이와 같은 용사는 어디에도 없을 것이며, 그와 같은 재주를 가진 사람도 어디에도 없다. 그는 행군이 가져다 주는 고통을 겪지 않았고 갈증이나 배고픔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와 함께 있는 다른 누쿠르(nökör)들이나 병사들도 자기처럼 고난을 견뎌 내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감내하지 못한다. 이런 까닭에 군대의 지휘관으로는 적합하지 못하다. 군대의 지휘관이 될 만한 사람은 스스로 배고픔과 갈증을 체험하여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행군할 때에는 보조를 맞추어 병사들이 배고픔이나 갈증을 느끼거나 기축이 피로해지지 않도록 하는 사람이어

야 한다.

(라시드 왓 딘, 『집사』 1-1, 2002, 406~407쪽)

아직까지도 사람들은 몽골인들이 전쟁에서 많은 광포한 군사력으로 몇백만에 달하는 사람들을 살육하였다는 식으로 쓰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으며, 칭기스 칸의 군대는 수적으로는 적지만 강철과 같은 엄격한 규율과 몽골인과 몽골 말의 인내심, 장거리 원정을 견딜 수 있는 능력 때문에 승리를 거둔 것이다. 그리고 그 시대 동서양 대도시의 인구는 많아야 35,000~40,000명에도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몇백만 명씩 사람을 몰살시켰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다.

## ○ 칭기스 칸이 세계 역사에 끼친 영향

칭기스 칸의 군사 정복으로 세워진 몽골 제국은 세계 경제와 상호 교류, 의학과 문화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세계 문명사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비단길은 대칸의 후원과 보호를 받게 되어 더 자유로운 교역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는 세계 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모든 정복 전쟁은 많은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전쟁으로 정복당한 지역의 주민과 몽골인 또한 많은 고통을 겪었음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

# 05

---

## 칭기스 칸 이후의 대몽골국

대칸의 고향은 20세기에 놀랄 만한 기술 발전을 이루었지만 또한 감추어진 비밀의 섬처럼 오늘날에 이르렀다. …… 그 비밀을 풀 열쇠는 바로 이 비밀의 섬에 있다.

(잭 웨더퍼드, 『오늘날의 세계를 만든 자, 칭기스 칸』, 2003, 14~15쪽)

---

### ● 우구데이 칸의 추대

칭기스 칸이 세상을 뜬 다음 그의 막내아들 툴루이가 다음 칸을 추대할 때까지 1년 정도 감국(監國)으로 있었다. 길일을 택해 1228년 9월에 우구데이를 대칸으로 추대하는 쿠릴타이를 헤를렌 강가의 쿠데에 아랄(Ködege aral)에서 개최하였다. 대칸을 추대하는 의례에는 몽골 각지에서 칸의 자식과 황금 가문의 고관이 모두 참석하였다.

우구데이를 칸으로 추대할 때 모두가 모자를 벗고 허리띠를 목에 걸치고 차가타이는 오른쪽에서, 툴루이는 왼쪽에서, 옷치간은 뒤에서 받쳐서 칸의 자리에 앉



우구데이 초상

했다. 툴루이가 우유가 든 잔을 바치자 쿠릴타이에 참석한 모두가 아홉 차례 몸을 숙여 '대칸'이라고 큰 소리로 추대하였다.

(『몽골비사』 269절)

우구데이 칸이 정권을 잡았을 때 몽골 제국의 구성원으로는 북중국, 동 투르키스탄, 중앙아시아, 이르티시 강에서 불가 강에 이르는 초원, 몽골 지배가 그리 공고하지는 않았지만 이란과 카프카스의 대부분 지역도 포함되었다. 우구데이 칸은 정권을 잡고 부친의 정책을 이어받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제국의 영토와 대외 관계를 확대하고 공납 제도를 가다듬었으며, 경제 개혁 문제를 중심으로 주의를 기울였다. 대몽골국의 수도인 카라코룸은 우구데이 칸이 건설한 것이다. 그는 복속국의 정치 관료와 학자들의 능력을 이용하였는데 이로써 거대한 제국을 통치할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하고 실시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1235년에 열린 쿠릴타이에서 우구데이 칸은 몇 가지 중요한 문제를 토의하여 결정하였다.

- 공납 제도를 손질하여 세수의 규모를 법으로 규정하였다. 유목민에게서는 기축 백 마리당 한 마리를, 정주 농경민에게서는 곡식 열 가마당 한 가마를 국고로 거두어들이라는 명령을 내렸다.
- 파발마 제도를 폐지하고 역참 제도가 마련되어 몽골 제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발전을 향상시키는 훌륭한 추동력이 되었다. 체계적인 조직과 안정된 식량 보급, 국가가 보호하는 역참(驛站)을 조직하여 동서양 사람들이 서로를 인식하게 되었고, 문화와 과학의 성과를 상호 공유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를 열어 주었다. 당시 역참제는 광대한 영토에서 비교적

단기간에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놀라운 것이었다. 따라서 역참제는 오늘날 인터넷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다고도 할 수 있다.

제국의 광대한 영토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아주 짧은 기간에 주파하여 몽골 제국의 중심으로 와서 구육 칸의 추대식에 참가하였던 플라노 드 카르피니는 『몽골인의 역사(Istoriya Mongalorum)』에서 역참에 대해 명확하게 기록하였다. 우구데이 칸은 역참마다 20여 명의 파발꾼[差役], 정해진 수의 거세마, 식용 양, 우유를 짤 수 있는 암말, 운송용으로 거세한 소, 마차를 준비해 두도록 법률로 정하였다. 이 쿠릴타이에서 다시 법률을 제정해 천호장에게 초지를 나누어 주고, 10호 조직에서 마음대로 탈퇴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것은 소유 체계를 강화한 것이다. 고비 지방에는 우물을 파서 초지를 확대하는 방법을 강구하기도 하였다.



역참제의 역할

## ○ 칭기스 칸 후계자들의 정복전

우구데이 칸은 칭기스 칸의 유언을 실행하기 위해 1234년에 금을 멸망시

졌다. 1228년과 1235년의 쿠릴타이에서는 서방의 여러 나라를 정복할 것을 결의하였다. 주치의 아들 바투를 원정군의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왕자들을 그의 지휘하에 참가하도록 결정하였다. 경험이 많은 수베에데이 장군을 그의 보좌역으로 임명하였다. 1236~1238년에 라잔, 블라디미르 공국, 불가강변의 불가르를, 1239년에는 남카프카스,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그루지아를 정복하고 더 나아가 1240년에는 키예프를 공격하여 정복하였다. 1241년 초에는 폴란드, 슬레지엔을 정복하였다. 헝가리의 국왕 벨라 4세가 패잔병을 숨겨 준 것을 빌미로, 바투는 헝가리를 공격하였다. 바투가 이끄는 군대는 티사 강변에서 헝가리 군대의 주력 부대와 싸워 꺾멸시켰다. 바투와 수베에데이의 군대는 벨라 4세를 찾기 위해 오스트리아 빈까지 진격하였다. 몽골군의 위협에 유럽 전체가 두려움에 떨었다.

몽골의 정복에 대해 “개의 머리 형상을 하고 인육을 먹는다”는 끔찍한 유언비어가 유럽을 뒤덮어 ‘타타르의 공격에서 살아남게 해 주세요!’라는 기도가 나왔다고 한다. 몽골의 위협을 과장해서 이야기하여 덴마크의 어부들조차 몽골인을 두려워하여 바다에 나가지 못하였다고도 한다. 몽골군이 슬로바키아를 넘어 체코의 동부 지방을 정복하고 아드리아 해까지 도달하였을 때 우구데이 칸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다. 바투 칸은 전쟁을 멈추고 몽골을 향해 말머리를 돌렸다. 전투 과정에서 바투와 구육 간에 불화가 생겼는데, 대칸은 바투의 손을 들어 주었다. 그러나 구육은 그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불만을 품고 있었다. 바투에게는 누가 새로운 대칸으로 선출될 것인가 초미의 관심사였으며 오랫동안 걸친 원정으로 몽골 군대가 지친 것도 몽골군의 철수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

## ○ 황금 가문 내의 칸위 쟁탈전

1241년에 우구데이 칸이 세상을 뜨고 얼마 안 있어 차가타이 칸도 사망하자 황금 가문 구성원 사이에 칸위 쟁탈전이 벌어져 몽골 제국의 내부 상황이 불안해졌다. 우구데이 칸이 유언으로 남겨 임명한 쿠추는 전쟁에서 죽고 시레문은 아직 어렸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칭기스 칸의 네 아들 중 주치와 툴루이 집안, 우구데이와 차가타이 집안 둘로 나뉘어 의견이 충돌하여 통합된 결의에 도달하지 못하자, 우구데이 칸의 부인인 투레게네 카툰이 5년 정도 감국(監國)으로 통치하였다. 그런데 투레게네 카툰이 자신을 비판한 정직한 관료들을 박해하고 파면시켜 정치 활동이 크게 위축되었다. 황금 가문 귀족들의 요구에 따라 카라코룸 부근의 시라 오르두(Sira ordu)라는 곳에서 1246년에 쿠릴타이를 개최하여 구육을 칸으로 추대하였다. 구육을 칸으로 추대할 때 황금 가문의 칸의 자제 중에서 바투는 신병을 핑계로 쿠릴타이에 참가하지 않고 대신 동생 베르케를 보냈다.

구육 칸의 추대식에는 국내외에서 사신과 대표단이 4,000명 정도 참석하였다. 그들은 대부분 몽골 제국의 대칸이 이후에 어떤 정책을 실시할지를 파악하고 자신들이 충심을 다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 주려는 목적으로 온 것이다. 구육은 칸위에 오르자마자 정치에 개입하여 혼란을 일으킨 자들을 처형하였다. 그리고 투레게네 카툰의 명령으로 관직에서 쫓겨났던 칭가이 승상, 마수드 벅, 마흐무드 알라바치 등을 원래의 자리로 복직시켰다. 그리고 투레게네 카툰 시기에 발행한 명령과 패자(牌子)를 무효로 하고, 우구데이 칸 시대의 것으로 다시 효력을 발생시켰다. 공납 제도를 정비하고 군사 소집을 질서 정연하게 할 목적으로 1247년에 호구 조사를 실시하였다. 1247년 겨울, 구육 칸은 대군을 이끌고 치료차 서쪽 에밀 지방으로 향하였다. 그가 출

발할 때 툴루이의 미망인 소르카타니 बे키 카툰은 바투에게 사신을 파견해 신중하게 처신할 것을 주의시켰다. 바투는 구육과 오랫동안 적대 관계에 있었다. 그리고 구육이 칸이 되는 데 후원을 하지도 않았다. 바투가 군사를 준비하여 신중하게 기다리고 있던 때인 1248년 봄에 구육 칸이 갑자기 사망하였다. 우구데이 집안과 불화 관계에 있던 바투는 툴루이의 아들 몽케를 칸으로 추대하기로 마음먹었다.

1251년에 몽케를 칸위에 앉히기 위한 쿠릴타이가 군대의 삼엄한 보호하에 열렸다. 몽케 칸은 대몽골국의 정치적 붕괴를 막기 위해 행정 업무의 기강을 바로잡고자 하였다. 역참 문제를 정비하여 오직 공무 수행자만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상인이 합부로 이용하는 것을 규제하고 상인들이 스스로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몽케 칸은 다시 호구 조사를 실시하여 군사와 공납 문제를 정비하였다. 유목민에게는 가축 100마리당 1년에 한 마리, 100마리가 되지 않으면 공납에서 면제시킬 것, 그리고 중국과 마와라 알나흐르[河中] 지역에서는 부자는 1년에 금화 열 냇, 가난한 자는 한 냇, 호라산에서는 부자는 금화 일곱 냇, 가난한 자는 한 냇을 징수하게끔 차별화하여 상황을 상당히 호전시켰다.

몽케 칸은 이전 대칸들의 대외 정책을 이어 받아 양 방향으로 정복 전쟁을 계속하였다. 몽케 칸은 동생 쿠빌라이에게 북중국을 모두 정복하고, 나아가 남송(南宋)을 정복할 것을 명령하였다. 그 아래 동생 훌레구에게는 군사를 주어 이슬람 제국과 바그다드의 칼리프를 정복하도록 서방으로 파견하였다. 훌레구는 대칸의 명령을 실현하기 위해 1256년에 이슬람 제국, 1258년에 바그다드를 각각 정복하고 일 칸국을 건립하였다. 나아가 훌레구의 군대는 이집트의 맘루크 군대와 싸웠지만 패배하였다. 1257년에 몽케 칸은 군사를 이끌고 남송을 정복하기 위해 친정하면서 아립 부케를 감국(監國)으로 임명

하였다. 몽케 칸은 남중국의 20여 개 성을 점령하고 정복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던 중 질병으로 사망하였다.





동북아시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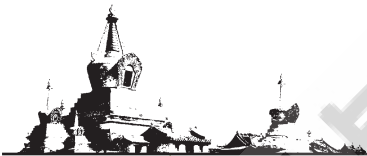
## 제5장

# 몽골 제국



몽골 제국 시대 문화 교류

13세기에 몽골인들은 유라시아에 걸친 광대한 영토를 태평양 연안에서 동유럽까지, 시베리아에서 페르시아 만에 이르기까지 정복하여 통치하였다. 정복 전쟁 중에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피해와 파괴를 당하였지만, 몽골 제국이 성립되어 대규모적인 회복 사업을 실시하여 폐허 이전보다 더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몽골인들의 대원정과 정복 전쟁은 군사 기술과 무기 기술의 전 세계적인 발전에 분명히 공헌하였다. 몽골 제국이 성립되어 세계 자유 교역망이 만들어져 교통, 문화, 과학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비단 길과 역참이 급격하게 발전하여 교역뿐만 아니라 지식과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는 통로가 되어, 동양인과 서양인들이 서로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몽골 제국은 동양과 서양의 문화와 과학을 다양한 노선으로 연결시킴으로써 세계가 발전하는 데 커다란 추진력을 제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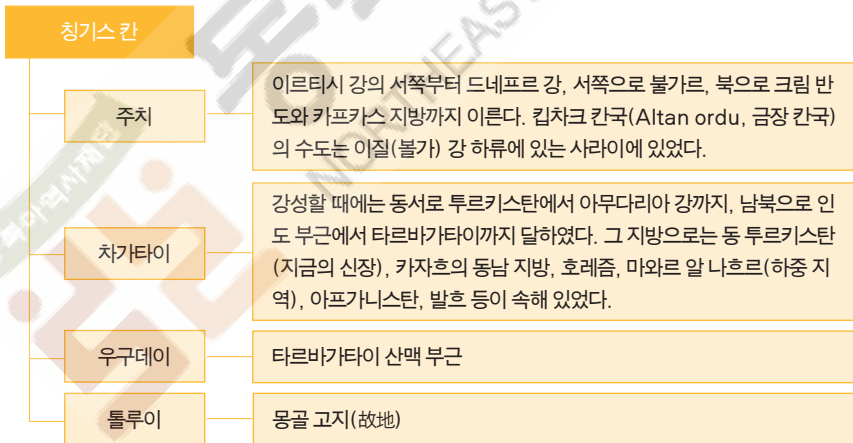
1260년	쿠빌라이 칸 즉위
1271년	몽골(원) 제국 성립
1279년	남송 정복
1274~1281년	일본 원정 실패
1294년	쿠빌라이 칸 사망
1295~1332년	9명의 대칸이 차례로 통치
1333~1368년	토곤테무르 칸[順帝] 통치
1366년	홍건적의 난 발생
1368년	몽골(원) 제국 붕괴

# 01

## 몽골 제국의 구성

칭기스 칸과 그의 후계자들은 나폴레옹, 히틀러,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다스렸던 제국을 모두 합한 것보다 더 광대한 777만 km<sup>2</sup>를 정복하여 통치하였으며, 인구가 아주 많은 중국, 이람, 유럽 등 문명국을 몽골 제국하에 통합하고 정치·경제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다양한 연결망을 이용해 동서를 통합하였다. (볼드바타르, 『역사를 이어온 나날들의 이해』 1권, 226쪽)

칭기스 칸은 정복 전쟁을 통해 획득한 영토를 살아 생전에 네 아들에게 나



칭기스 칸의 자제 분봉



몽골 제국의 최대 영토

누어 주었다. 이들이 영위한 땅을 분봉지(qubi) 또는 나라(ulus)라고 한다.

칭기스 칸은 장자인 주치에게 고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땅을, 막내 툴루에게는 제국의 중심 화로(집안)인 몽골 땅을 주었다. 몽골의 상속 제도에는 막내아들이 화로를

지키는 특권이 있었다. 이르티시 강에서 서쪽으로 몽골 말발굽이 닿는 데까지 장자 주치에게 주었는데 이를 주치 울루스(Jochi ulus, 킵차크 칸국, 金帳汗國)라고 부르게 되었다.

칭기스 칸이 살아 생전에 큰 아들 주치가 사망하자, 칭기스 칸은 명령을 내려 주치의 아들 바투(1227~1256)에게 뒤를 잇게 하였다. 바투는 서방 원정에서 돌아온 다음 해인 1242년에 킵차크 칸국을 건립하였다. 킵차크 칸국의 구성원으로는 중앙아시아의 호레즘, 시르다리아 강의 하류 지방 이질(불가) 강 부근의 불가르, 폴로브치(폴로베츠), 즉 킵차크 초원, 크립, 북(北)카프카스 등지에 거주하는 다양한 계통의 민족을 통치하에 두었다. 러시아의 대부분은 킵차크 칸국의 통치하에 들지 않았지만 공납을 바치는 종속국 상태에 있었다. 차가타이 칸국은 중부 아시아에 있었으며 수도는 일리 강의 분지에 있었다. 차가타이 칸국의 영토를 통해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상업 교역망의 주요한 노선이 이어졌다. 이것은 교역 경제 발전의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지만 이웃한 여러 민족이 교역로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 침략을 일삼으면서 피해를 입었다. 몽케는 칸위에 오른 다음, 1256년에 동생 훌레구에게 군사

몽골 제국 각 지방 정권의 주요 통치자

킵차크 칸국	바투(1227~1256년), 베르케(1257~1266년), 몽케테무르(1266~1280년), 투다몽케(1280~1287년), 툴라부카(1287~1291년), 톡타(1291~1312년), 우즈벡(1312~1342년), 자니벡(1342~1357년)
차가타이 칸국	차가타이(1227~1242년), 알구(1243~1256년), 무바락(1266년), 케벡(1319~1326년), 카자간(1346~1358년)
일 칸국	홀레구(1256~1265년), 아바카(1265~1282년), 아르군(1284~1291년), 게이카투(1291~1295년), 가잔(1295~1304년), 올제이투(1304~1316년)

를 주어 이슬람교도들의 나라를 정복하라고 보냈다. 그 결과 페르시아, 이라크,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투르키스탄, 그루지아 등의 영토에 ‘일 칸국’이 건립되었다. 이를 ‘홀레구 울루스’라고도 한다. 일 칸국의 수도는 타브리즈(Tabriz)에 있었지만 14세기 초에 이라크 지방에 있는 술탄니아(Sultaniya)로 옮겼다.

킵차크 칸국, 차가타이 칸국, 일 칸국은 몽골 전통에 따라 각각 동부, 서부, 중부 셋으로 나누어 통치하였다. 중부 지역의 행정 통치 제도에는 몽골의 전통 관습과 복속국들의 행정 조직을 같이 사용하였다. 정복한 각국의 지방과 도시, 주거지 등에는 다루가치(darugači, 達魯花赤)를 두고 군대를 배치하여 통치하였다. 그들 각 울루스는 몽골 제국의 서부에 있었고, 그 지역으로 역참과 중요한 교역로가 통과하였으며 동서의 문화가 전파되고 상업과 경제 발전의 중요한 교량이 되었다. 각 울루스는 발전의 특징이 서로 달랐다. 킵차크 칸국과 차가타이 칸국은 무역과 경제가 발전하였고, 일 칸국은 학문과 학자 후원 방면에서 유명하였다. 당시 학문의 여러 방면 중에서 특히 역사학과 의학이 발전하였으며, 아타 말릭 주베이니(Ata Malik Juvayni, 1226~1283)의

『세계정복자사』, 라시드 앓 딘(Rashid al-Din)의 『집사』 등 유명한 역사서들이 저술되었다. 차가타이 칸국과 킵차크 칸국은 도시 건설이 크게 발달하여 어떤 역사서에는 도시들의 나라라고도 기록하였다. 요즘 킵차크 칸국의 영토에서 몽골 권력자들인 칸과 귀족들이 사용하였던 섬세하게 세공된 금은기들이 대량 출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에 수공업이 크게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

# 02

---

## 몽골(원) 제국(1271~1368)

문치(文治)는 보통 매듭처럼 쉽게 풀어지지 않으며, 사람에게 칸의 통치는 황금 바퀴처럼 부서지지 않는다. (쿠빌라이 칸, 『차간 투흐(Tsagaan tüükh)』에서)

---

### ○ 쿠빌라이 칸의 즉위

13세기 후반, 즉 몽케 칸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몽골인들은 북중국 전체를 정복하고 나아가 남송 왕조를 공격하였다. 1259년 몽케 칸이 남송 원정 중에 세상을 뜨자, 다시 칸위 쟁탈전이 벌어졌다. 몽케 칸의 카툰과 자제를 비롯한 황금 가문의 일부 귀족들은 카라코룸에서 쿠릴타이를 개최해 아릭 부케를 칸으로 추대하였다. 그런데 쿠빌라이는 1260년에 개평부(開平府)에서 스스로 칸위에 올랐다. 그렇게 동시에 두 명의 칸이 나오자 몽골 제국의 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1260년부터 시작하여 아릭 부케와 쿠빌라이는 4년여에 걸친 칸위 쟁탈전을 벌인 끝에 결국 쿠빌라이가 승리를 거두고 아릭



쿠빌라이 초상

부케는 항복하였다. 쿠빌라이는 1264년에 오늘날의 베이징을 중심으로, 연호를 지원(至元)이라고 명명하였다. 1267년부터 북경의 동부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여 칸 발릭(Qanbaliq, 帝都) 또는 대도(大都)라고 칭하고 1271년에는 나라 이름을 원(元)이라고 하였다. 몽골 제국의 정치 중심이 옮겨가자 황금 가문의 일부 귀족들은 불만을 품고 대항하기 시작하였다. 쿠빌라이 칸은 나얀 장군에게 대군을 내주어 카이두의 반란을 진압하러 보냈는데, 도

리어 나얀이 카이두 측에 들게 되어 쿠빌라이 칸은 결정적인 방법을 강구하게 되었다. 즉, 쿠빌라이 칸이 몸소 대군을 이끌고 나얀이 이끄는 군대를 공격하여 진압하고 그를 사형에 처하였다. 카이두의 반란은 쿠빌라이 칸이 살아 생전에 해결하지 못하였으며, 뒤를 이은 테무르 올제이투(Temür Öljeitü) 칸[成宗] 시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진압하였다.

### 원대의 몽골 고원

몽골 제국의 정치 중심이 옮겨간 이후 몽골 고지를 ‘영북행성(嶺北行省)’ 또는 ‘화림행성(和林行省)’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원의 칸들은 카라코룸이 갖는 정치적 의미를 잃지 않으려고 칸의 자제들에게 진왕[晉王, 이후 변형되어 지농(jinong)이 되었다]이라는 칭호를 주고 카라코룸에 거주하면서 정치 업무를 처리하는 연습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카라코룸은 변경의 일개 지방으로 변해 버렸다. 카라코룸으로 끊임없이 향하던 여행자, 사신, 상인들이 모두 원나라의 수도로 향하는 바람에 발길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카라코룸 시가지를 확대하고 궁

전과 성벽을 보수, 증축하고 새로운 건물을 세우고, 농경과 수공업을 알맞게 발전시킬 방법을 강구하고 노력하였지만, 카라코룸은 정치 중심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린 후 세계 각국을 연결해 주던 수도로서의 위용 또한 잃었다. 카라코룸에 일정한 수의 상비군을 주둔시켜 중국에서 일어나는 반란을 진압하곤 하였다. 몽골 제국의 대칸들은 몽골의 독특한 특징과 생활 방식, 전통 유산 등을 지키려고 노력하였다.

## ○ 원의 행정 통치 조직

몽골(원) 제국의 모든 정권은 쿠빌라이 칸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몽골(원) 제국은 킵차크 칸국, 일 칸국, 차가타이 칸국을 모두 통할하고 있었다. 원나라의 최고 정치 기구는 중서성(中書省)이라는 내정 기관이었다. 중서성 예하 6부가 있었다. 대체적으로 대를 이을 칸의 아들이 중서성의 최고 관직에서 행정 업무를 수행하였다.



몽골(원) 제국의 정치 조직과 업무

그는 휘하에 우부와 좌부를 다스리는 승상을 통제한다. 그 아래 육부를 직접 다스리고, 행정 통치의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지휘관에는 몽골인을, 참모 직에는 중앙아시아 출신의 색목인(色目人)을 임명하였다. 법으로 정한 이 조항은 초기에는 분명하게 지켜졌으나 후에는 칸들이 준수하지 않아 정치 요직에 한인(漢人)들이 많이 앉게 되면서 정치가 혼란해지기 시작하였다.

## ○ 원의 정책

쿠빌라이 칸[世祖]부터 토곤테무르 칸[順帝]까지 원 제국의 칸들은 몽골 중심의 정책(몽골 지상주의 정책)을 기준으로 삼았다. 중국과 기타 복속국에 서는 몽골의 통치를 강화하기 위해 권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실행하였다. 특히 중국을 정치 경제적으로 완벽하게 통치하는 문제는 몽골 대칸들의 주요 관심사였다. 원의 칸들은 복속시킨 중국 영토와 백성, 재화를 황금 가문 구성원과 귀족, 장군, 대신들에게 소유르갈(soyurjal, 賜與)로 나누어 주었다. 예를 들면, 쿠빌라이 칸은 어머니와 아들 친김[眞金] 등에게는 10만 5천 호의 농가를, 바얀(Bayan, 伯顏) 장군에게는 6천 호의 한인을 농경지와 함께 하사하였다.

● 몽골 칸들은 복속국의 고관 대작들과 관련을 맺어 그들의 후원에 의지해 각국의 특징에 따라 구분하여 통치하였다. 몽골 제국의 모든 행정 업무에 몽골어를 사용하였다. 원 시대에는 동전과 함께 일곱 종류의 지폐(鈔, 交子)를 발행하여 유통시켰다. 금은을 지폐로 교환하는 장소를 정해 금 한 냥을 동전 스무 꾸러미에 해당하는 지폐로 교환하게 하였다. 몽골 지배 시기에는 인구를 모두 10등급으로 나누어 통합된 공납 제도를 실시하였다. 쿠빌라이 칸 시



몽골군의 일본 침략

대에 많은 사신과 상인들이 몽골 제국으로 와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아울러 대칸의 신임을 얻어 몽골 정치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쿠빌라이 칸은 불교를 국교로 삼고 티베트의 승려 파스파(八思巴)를 국사로 임명하였다. 또한 그는 정교 일치의 정책을 실시하였다.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 등을 동등하게 인정한 것은 다양한 인종으로 이루어진 제국을 통치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각국의 성직자, 학자, 점성술사들은 원 제국에 와서 달력을 제작하고 천문대를 건설하였으며, 성수의 운행과 천체 관측에 참여하였다. 이에 점복과 예언이 크게 발전하였다. 몽골의 대칸들은 정치의 비밀을 간직하기 위해 새로운 문자를 제작하고, 정치적으로 중요한 관직에는 몽골인만 임명하였다. 몽골인들이 중국인과 섞여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고, 몽골인이 중국인과 혼인 관계를 맺거나, 중국 의복을 입고 중국의 예법을 따르는 것 등을 법으로

강력하게 금지하였다. 쿠빌라이 칸 시대에는 약 20개 나라와 정치, 교역 관계를 맺었다. 쿠빌라이는 이전 칸들과 마찬가지로 제국의 영토 확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마침내 남중국을 완전히 정복하고 더 나아가 버마(현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 등을 여러 차례 공격하여 복속국으로 만들었다. 쿠빌라이는 일본에도 여러 차례 사신을 파견하였고, 1274년과 1281년에 두 차례에 걸쳐 정벌을 시도하였으나 해상에서 태풍을 만나 성과 없이 끝나 버렸다.

#### ◆ 역자주

몽골은 1231년 고려를 방문했던 몽골 사신이 귀국길에 피살된 사건을 구실로 대군을 이끌고 침략하였다. 이로부터 고려는 40여 년 동안 몽골과 전쟁을 벌였고, 몽골과의 강화 이후에는 약 90여 년 간 몽골(원)의 간섭을 받았다. 몽골의 침략 당시 고려의 무신 정권은 수도를 강화도로 옮기고 항쟁과 외교를 병행하였으며, 신분에 관계없이 단결하여 저항하였다. 이러한 고려의 끈질긴 저항 결과 몽골은 고려를 완전 정복하는 대신 고려의 주권과 고유한 풍속은 인정하게 되었다.

---

# 03

---

## 몽골 제국과 세계

개울과 큰 강을 건너려면 배와 뗏목을 만들어야 한다. 세계를 다스리려면 현자와 학자를 널리 초빙해야 한다. (정춘진인(長春真人), 『서유기(西遊記)』, 1997, 70쪽)

---

### ○ 세계

13세기에 오랫동안 지속된 십자군 전쟁으로 기독교도와 이슬람교도들은 큰 피해를 입었다. 셀주크 투르크는 그리스와 소아시아를 빼앗기 위해 전쟁을 벌였고, 이집트의 권력자들은 시리아를 점령하기 위해 전쟁을 벌이는 등 전 세계는 정치적으로 불안정하였다. 『몽골비사』에 기록된 것처럼 “별이 박힌 하늘이 돌고 수많은 나라와 백성이 싸웠다”는 것은 몽골뿐만 아니라 세계의 상황을 말한 것이다. 몽골 제국이 성립되자 세계 각국은 다양하게 반응하였다. 몽골 제국과 국경을 맞댄 아시아와 유럽 각국의 정권과 종교 지도자들은 몽골 대칸의 정책 의도를 파악해 다시 정복 전쟁을 시행할지 안 할지, 군

사 무기의 현황과 그들의 성격은 어떠한지 등을 알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관계를 맺어 후원을 얻거나, 가능하다면 대칸을 자신들의 종교로 개종시킬 목적으로 여러 차례 사신을 파견하였다. 예를 들면, 로마 교황과 프랑스의 왕은 카르피니(Plano de Carpini)와 루브룩(William of Rubruck)을 파견하여 몽골 대칸을 기독교로 개종시키고, 개종시키지 못한다 해도 기독교와 주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을 간청하였다. 한편, 몽골 제국의 관도에 들어온 나라의 위정자와 귀족들은 몽골 대칸의 마음에 들게끔 다스리고, 그들의 지지를 얻어 주민에게 공납의 의무를 지우고, 아니면 적대적인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 몽골에게 군사력과 무기 등의 도움을 얻으려고 하였다. 예를 들면,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네프스키(Alexandr Nevsky)는 킵차크 칸국의 바투 칸과 인척 관계를 맺고 군사적인 지원을 얻어, 서쪽에서 공격해 오는 테브톤의 기독교도들의 공격을 계속해서 물리칠 수 있었다. 몽골인의 공격에 큰 피해를 입은 일부는 대항을 하다가 항복하였고, 일부는 몽골인의 편에 가담하여 대칸의 고문이 되어 정치 요직에서 충성을 바치기도 하였다.

## ● 몽골 제국

● 몽골 제국이 성립함으로써 복구 사업이 제국의 규모로 광범위하게 시행되었다.

● 몽골 칸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전쟁으로 파괴된 도시와 산업을 부흥시키는 데 큰 관심을 기울여 자본과 인력을 조직하여 새로운 도시를 많이 세웠는데, 이는 경제와 교역 발전에 큰 추동력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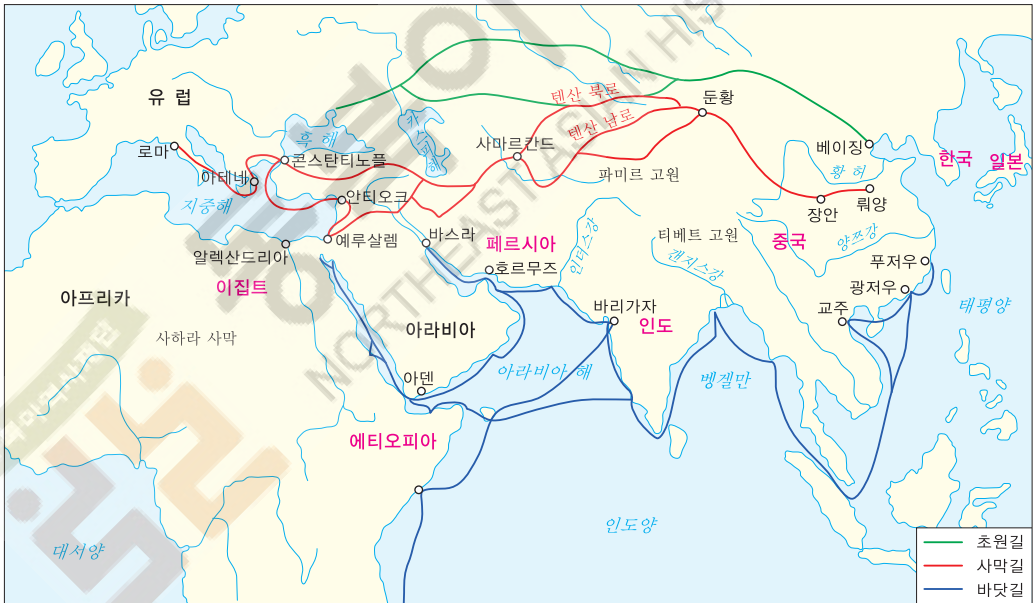
● 아시아와 유럽에 걸친 광대한 영토를 장악한 몽골 제국이 세워지자 세계

### ◆ 몽골 제국

적절한 정책을 시행하여 새로운 통치 제도를 갖추고 역참과 비단길을 대간의 보호하에서 군사로 지키며 재정적인 후원을 시행하였다.

### ◆ 세계

자유 무역 지대를 만들어 세계 경제 발전에 커다란 진전을 이룩하였다. 유라시아의 사람들은 서로를 알게 되었고 문화와 과학의 성취를 상호 전파하고 지식과 정보를 통한 발전이 가속화되었다.



동서 교통로



쿠빌라이를 알현하는 마르코 폴로

자유 무역 지대가 형성되었다. 비단길을 통제하에 넣고 30km마다 역참을 세워 군사적으로 보호하고, 상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였을 뿐 아니라 비단길에 가로수를 심어 대상로의 편안함을 고려한 것도 비단길을 통해 오가는 상인들의 수를 급격히 증가시켰다. 대칸의 재정 후원을 받아 그들을 대신해서 교역하는

무슬림 상인 역시 크게 증가하였다. 그들은 단지 비단길뿐만 아니라 몽골 제국을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역참을 통해 어디든 갈 수 있었으며, 새롭게 복구되고 있는 도시와 거주지에 가서 장사를 하였기 때문에 당시 도시 주거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데 한몫하였다. 비단길과 역참은 단지 상업 교역만이 아니라 동서양의 문화와 과학 기술이 교류하는 데 동맥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각 문명의 첨단 제품을 세계 각지로 퍼뜨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몽골 제국과 세계 문명사에 큰 흔적을 남겨 세계의 발전 속도를 빠르게 만들었다. 바로 당시의 중국 나침반, 도자기, 화약, 석탄 등 놀라운 물건이 서방으로 전파되었으며, 아랍의 의학, 시학, 천문학, 역사 서술 등의 학문이 빠르게 발전하였다. 당시의 대외 교류 관계도 이전보다 폭넓게 발전하여 외국 사절단의 접대, 예식, 외교 문서 서식, 문장 구성 등 외교 제도가 몽골의 대칸이 규정한 대로 정형화되어 남게 되었다.

몽골 대칸의 안정화 정책의 결과, 제국의 수도에는 각국의 수공업자, 상

인, 학자, 성직자 등이 함께 거주하며 자신의 작품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카라코룸에는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등 다양한 종교 사원이 열두 개 있었으며 종교 업무를 자유롭게 수행하였다. 승려와 성직자들은 자신의 종교의 영향력을 증대시켜 대칸의 후원을 얻으려고 노력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아마도 역사상 최초로 몽케 칸의 궁정에서는 불교와 기독교, 이슬람교의 대표자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누구라도 다른 종교를 자유롭게 믿을 기회가 있었다는 것은 사상의 자유가 완전하게 지켜졌다는 명확한 예증이다.

당시 세계 각국의 주민들은 교류를 통해 아주 많은 것을 서로 배우고 알게 되었다. 적은 인구의 몽골인들이 어떻게 제국의 광대한 영토와 엄청난 인구를 통치하였는가는 문제는 오늘까지도 완전히 풀리지 않는 비밀로 남아 있다. 이에 대해 학자들은 몽골인들의 뛰어난 지혜, 강철과 같은 신의, 법 앞의 평등, 사람의 능력을 올바르게 조직하고 각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맡긴 것 등과 관련시켜 설명하기도 한다. 만약 잔혹하게 억압하였다면 적은 수의 몽골인들이 그 많은 다양한 언어의 민족을 어떻게 통합하여 통치할 수 있었겠는가? 몽골인들은 사람을 출신과 민족으로 구별하지 않고 지혜와 능력을 높이 평가하여 그들을 정치 요직에 앉혀 이용할 줄 알았기 때문에 몽골의 통치가 강력하였던 것이다. 세계 각국의 현자들이 몽골의 정치 업무를 충심으로 수행하였음이 그 명확한 실례라고 할 수 있다. 야율초재(耶律楚材), 라시드 앳 딘, 마흐무드 알라바키, 마르코 폴로, 마수드 벡 등 수많은 학자와 현인들이 몽골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제국을 통치하였다.



---

# 04

---

## 몽골 제국의 붕괴

두 사람이 협력하면 쇠바퀴처럼 강하지만 스무 명이라도 불화하면 깨진 바퀴처럼 된다.

(『지혜의 열쇠』 중에서, 2002)

---

### ○ 원조의 붕괴

쿠빌라이(1260~1294)부터 토곤테무르(1333~1370)까지 모두 11명의 대칸이 몽골(원) 제국을 통치하였다. 토곤테무르 칸 시기에 중국 지방의 사회와 정치 상황은 매우 어려웠다. 게다가 몽골의 위정자들은 권력 쟁취를 위해 다투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분열 상태에 놓여 통치력이 약화되고 정복지를 감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지방 고관들은 자의적으로 공납액을 지나치게 징수하여 백성들의 생활이 어려워졌고 따라서 이러한 모든 것이 나라의 내부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1337년에 중국에서는 몽골의 지배에 저항하는 반란이 일어나 세력을 떨치기 시작하였다. 반란

군들은 머리에 붉은 수건을 돌렸기 때문에 역사에 ‘홍건적(紅巾賊)의 난(亂)’이라고 기록되었다. 반란군들은 남중국을 장악하고, 1368년에는 수도인 칸발릭[大都]을 점령하였다. 토곤테무르 칸은 가족과 인척 일부를 데리고 포위망을 벗어나 도망쳤다. 그렇게 1368년에 중국 지방에 있던 몽골의 지배가 끝났다. 다양한 나라와 민족을 통합하였던 몽골(원) 제국이 멸망하고 중국에는 명(明)이 세워졌다. 몽골 제국의 통제력을 장악하고 있던 원이 멸망하자 다른 지역에 있던 제국의 나머지 구성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티무르 초상

## ● 유라시아 각지에서의 몽골 지배의 붕괴

몽골 제국의 구성원이었던 각 지방 정권 내부에서도 분열과 투쟁이 발생하였다. 1330년대부터 훌레구 울루스(일 칸국)에서도 전쟁과 혼란이 발발하였다. 이로 인해 훌레구 울루스 내에는 몇 개의 지방 정권이 성립되면서 분열되었다. 1351년부터 1352년에 걸쳐 페르시아 지방에서는 수공업자와 농민들이 연합해 커다란 봉기를 일으켰다. 그들은 1353년에 일 칸인 톱 테무르와 기타 권력자들을 사로잡아 처형하자 페르시아에서 몽골의 지배는 끝났다. 차가타이 칸국에서도 정치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투쟁으로 혼란이 계속되자 비단길이 가로막히게 되었다. 교역에 방해를 받아 경제 위기에 처하게 되었

고 백성들의 생활에 큰 고통이 찾아왔다. 차가타이 칸국 정권을 무력으로 빼앗은 티무르(Timur, Tamerlane)는 1381년부터 1398년까지 페르시아를 몇 차례 공격하여 정복하기는 하였지만, 그가 사망하자 몽골 통치도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14세기 중반 킵차크 칸국의 권력자들도 칸위 쟁탈전을 벌여 1357년부터 1381년 사이에만 20여 명의 칸이 바뀌었으며, 국가는 내부적으로 노가이 칸국, 카잔 칸국, 크림 칸국, 아스트라칸 칸국, 시비르 칸국 등으로 분열되었다. 아흐마드 칸은 킵차크 칸국의 통합된 권력을 부흥시키기 위해 최후까지 노력하였다. 그러나 1480년 겨울 아흐마드 칸이 경쟁자들에게 살해당함으로써 킵차크 칸국도 멸망하여 200여 년에 걸친 몽골 지배도 끝이 났다. 이렇게 몽골 제국이 통치하였던 각국 백성들의 투쟁으로 무너지면서 유라시아에 걸친 몽골의 통치도 끝이 났다.



---

# 05

---

## 13~14세기 몽골의 경제와 문화

훌륭한 문화 유산은 한 시기에 만들어져 좋은 것은 계승되고 나쁜 것은 사라지게 마련이다.

---

### ○ 생활과 관습

#### 목축업

몽골은 중앙아시아의 고원 중심부의 냉대에 있는 대륙성 한랭 건조한 기후로 예로부터 주로 목축업이 발달하였다. 자연 기후 조건 이외에도 지형적 조건, 정치적 분열 상황 등이 당시 몽골인들이 영위하던 생업에 영향을 끼쳤다. 13세기에 대몽골국이 성립되고 목축이 근본 생업이 되면서 몽골인들의 생활은 비슷해지기 시작하였다. 몽골인들이 당시에 얼마나 많은 가축을 소유하고 있었는지 밝힐 수는 없지만, 오종 가축을 증식시키고 있었던 것만은 분명하다. 말을 특별하게 여겼는데, 장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지구력과 먹이를 가리지 않는 인내심이 강한 말을 따로 준비하여 말 무리의

두수는 빠르게 증가하였다. 심지어 몽골 군대는 여분의 말을 데리고 다녔음을 생각해 보면 군용 악대말[去勢馬]만 하더라도 엄청난 수였을 것이다. 말이 풍부하였다는 것은 당시의 역사서와 몽골에 다녀갔던 이방인 여행자들의 기록에도 언급되어 있다.

일천 마리의 말이 한 무리가 되며 그중에서 한 마리도 쓸데없이 울지 않는다. 말에서 내려 발을 묶어 둘 필요도 없으며 말은 주인으로부터 멀리 떠나지 않는다. 말의 능력은 아주 놀랄 만하며 하루 종일 있어도 배고픔을 모르는데 다만 밤에는 풀이 많건 적건 간에 입에 맞는 초지에 홀로 두고 밤을 새고는 새벽에 다시 안장을 엮고 출발한다. 말에게 콩이나 좁쌀을 먹이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다. 모든 사람은 원정을 떠날 때 몇 마리씩 말을 데리고 가며 매일매일 바꿔 탄다. 따라서 말이 피곤해서 죽는 일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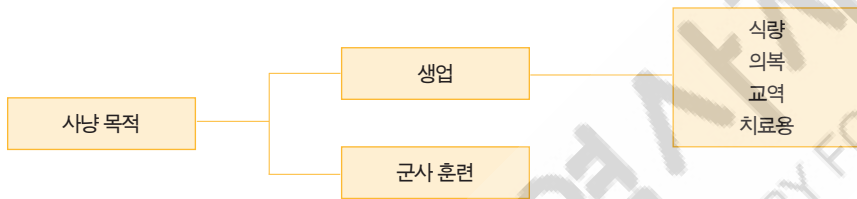
(조공, 『몽달비록』에서)

몽골인들은 가축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음식, 의복, 주거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충당한다. “원 왕조는 북쪽 땅에서 흥기하여 모두 말 위에서 활을 쏘는 데 능하며, 활과 말의 능력에 의해 천하를 얻었다. …… 중통(中統) 4년(1263) 군목소(群牧所)를 설치하여 태부감(太府監)에서 관장케 했다.”

(『원사(元史)』 卷一百, 志 第四十八, 兵三, 馬政) [중화서국 표점교감본 2553쪽]

**사냥** 몽골인의 생활에서 사냥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가축을 증식시키고 잉여 식량을 많이 준비하고 따뜻한 옷과 용구를 준비하고 치료용 물건을 준비하는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냥을 하였다. 필요와 목적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동물을 사냥한다. 대칸과 고관 등 많은 사람이 참가한 국

가적인 사냥을 대위렵(aba qomurʻa)이라고 한다. 대위렵은 식량을 준비하는 동시에 군사 훈련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위렵은 주로 대군을 이끌고 원정을 떠날 때나 돌아올 때 실시한다. 일반인들은 대위렵에 참가하는 동시에 홀로 또는 두세 명이 사냥을 하기도 하였는데, 이것을 수렵(狩獵, qaidaʻ aba)이라고 한다. 이것은 생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당시 사냥의 일반적인 모습을 도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유목민의 사냥 목적

### 농경

당시의 몽골인들은 조금이나마 농사를 지었다. 『몽골비사』, 『알탄 툽치』 등의 역사서에 케레이트의 토그릴 칸[웅칸]이 메르키트 부족에게 사로잡혀 곡식을 찢었다거나, 칭기스 칸이 어머니와 막내 동생 옷치긴에게 농사를 짓게 하려고 일만의 여진인을 분봉해 주었다는 기록이 있다. 당시에 농사를 지었던 중요한 지방은 오르혼, 셀렝게, 하라, 유러 강 분지였다. 카라코룸 근처의 오르혼 강 분지에는 공공 경작지가 있어 수백 명이 일하였다. 공공 경작지는 대부분 군인과 이방인 포로들이 농사를 지었다. 또한 황금 가문의 구성원과 고관 대작들은 궁정과 저택 옆에 곡식과 채소를 심고 공원을 조성하였다는 것을 옷치긴 노안과 칭가이 승상 등의 예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농경이 그리 발달하지 않은 것은 몽골 땅의 한랭 건조한 기후와 연관이 있다.

## 국가 제례와 축제

당시 몽골인들은 정치, 종교, 생업과 관련하여 하늘, 산, 물 등에 대한 제사, 잔치, 차간 사르(Tsagaan sar) 등 제례를 기념하여 축제를 즐겼다. 몽골인들은 대칸을 ‘영원한 하늘의 자손’이라고 보아 하늘과 땅을 숭상하였다. 헨티, 항가이, 알타이 산맥의 높은 산봉우리에 제사를 지내고 숭배하였다. 부르칸 칼둔, 복드 한 울, 오토공 텡게르, 알타이, 한 후히 등 신령한 산에 지내는 제사는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대몽골국 시기에 칸의 추대, 전쟁과 평화, 연회, 장례 등 국가와 백성들의 생활과 관련된 의식은 샤먼(무당)들이 정해 주는 대로 시행하였으며, 몽골 제국 시기에는 무당과 함께 불교 승려들이 참여하였다.

국가와 백성의 축제와 연회는 상세하게 정해진 규범이 있었으며, 고관 대작과 노인들을 공경하는 오랜 관습을 젊은 세대에게 전달해 주는 일종의 예절 교육이었다. 연회에서는 주로 아이락(airag, 馬乳酒) 등 유산 음료를 마셨으며, 아르히(arkhi, 증류주)는 마흔이 넘어야 입에 뱉 수 있었다. 당시 몽골인들의 중심 축제는 ‘남성 3종 경기’로, 여기에서 누구의 아들이 명궁인지 또는 힘이 센지, 누구의 말이 준마인지를 선발한 것은 훌륭한 전사를 준비하는 것과 관련된 고대의 전통이었다. 칭기스 칸이 벨구테이가 씨름에서 우승한 힘과 카사르의 명궁술로 대제국을 세울 수 있었다고 한 것은 그 까닭이 있는 것이다. 유목민의 생활과 축제는 그들 삶의 특징과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훌륭한 씨름 선수와 명궁을 높이 평가하여 정치를 담당하게 하였고, 이는 축제의 꽃이 되었다. 『몽골비사』에는 카사르, 이숭게, 부리 부케, 벨구테이, 칠게르 등 뛰어난 씨름 선수와 유명한 명궁 등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 우구데이 칸이 호라산을 정복한 다음에 씨름꾼들을 궁정으로 불러 경기를 개최하였는데, 칸을 대표해서 내보낸 씨름꾼을 이긴 타지크 출신의 씨름꾼 필라(Fila)를 높이 평가하여 큰 상을 내렸다고 한다. 명궁에게는 ‘메르겐(mergen, 善射者)’

이라는 칭호를 수여하였다고 한다.

## ○ 물질 문화

**주거** 몽골인의 주거인 게르는 위로 조금 뾰족한 것 이외에는 오늘날의 것과 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대칸과 고관들의 게르는 잘 꾸며서 장식한 여러 개의 벽을 갖춘 큰 규모의 것으로 당시의 특징이었다. 그것을 황금 궁전, 황금 벽, 궁전 게르, 궁전 마차라고 부른 이유는 황금 가문의 사람들이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부를 황금이나 금박을 입힌 재료로 장식하였기 때문이다. 일반 게르처럼 짓거나 헐지 않고, 마차 위에 상설한 것이었다고 한다. 일부 궁전 게르 마차는 가로 9m 정도, 두 바퀴 사이의 간격은 6m로 궁전 게르는 마차보다 양쪽으로 1.5m 정도 더 나온 형태였다. 당시 몽골 땅에 왔던 외국 사신들의 기록을 보면 그런 게르 마차는 스물두 마리의 수소가 끌었으며 마차의 축은 상당한 크기였다고 한다. 유목 생활에 가장 적합한 주거인 게르 궁전은 몽골 장인들이 직접 만들고 장식하였다. 황금 벽 게르(altan terem)라는 아주 큰 규모의 주거는 특별한 경우에 사용하였다. 헝가리 왕 벨라 4세가 선물로 보낸 황금 벽 게르는 구육이 칸으로 추대될 때 행한 의식에 쓰였으며 2천 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크기였다. 또한 킵차크 칸국의 바투 칸도 그런 화려한 황금 벽 게르에 살았다는 기록이 있다.

**의복** 몽골인들은 가죽과 동물의 가죽과 털로 만든 옷을 입었으며, 또한 외국에서 들여온 옷감으로 만들어 입기도 하였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옷은 재질과 모양에서 크게 구별되었다. 남자들은 윗부분이 둥그렇고 모

자 뒷부분이 목덜미를 가리는 형태나 유땡(yüüden, 비바람막이 모자) 형태의 모자를, 결혼한 여자는 높은 복탁(bogtag) 모자를 썼다. 복탁 모자는 사회적 위치와 품계에 따라 구별되었다. 대칸의 부인인 카툰의 것이 가장 높았다. 귀족들은 값비싼 모피로 만든 옷과 금은보석으로 장식한 사치품을 애용하였다. 당시의 델(deel, 몽골 전통 복장)은 오늘날의 델과 같이 수직으로 겹친 비스듬한 옷깃과 왼쪽 겨드랑이까지 갈라져 있으며, 단추가 오른쪽에 세 개, 왼쪽에 하나가 달려 있었다. 허리띠는 초원 유목민 전사들이 전쟁에서 얻은 공적을 보여 주는 증거로, 남자가 가장 소중히 여겼다. 몽골 남자는 모두 허리띠를 두르며 여자는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리띠 없는 사람(büsgüi, 여자)’이라는 말까지 생겼다고 한다. 초원 유목민 귀족 남자들이 완전하게 치장을 한 금은 허리띠를 사용하였다는 것은 『몽골비사』 등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다. 울란바토르 시 근교의 송긴 하이르한(Songin khairkhan)의 다다르트 울(Dadart uul), 킵차크 칸국, 치타(Chita, 러시아 연방) 등지에 있는 몽골 시대 무덤에서 금은 허리띠 실물을 발굴하였다. 몽골인의 옷은 민첩한 동작과 말에 오를 때 방해받지 않도록 만든, 유목 생활에 적합한 것이다.

**도시** 몽골 초원에는 동서양의 문화가 교차하여 독특한 형태와 성격의 도시가 발전하였다. 그런 도시들은 규모와 인구 구성에서 이전의 도시와 구별된다. 13~14세기 몽골의 수도 카라코룸, 아브라가 궁정, 칭가이 성, 카라 툰 궁정, 수릭 바드룰라흐(Süriig badruulakh), 혼두이(Khondui) 등 아주 유명한 도시와 군사 요새가 있었다. 고대 몽골의 도시 건설, 건축 유적 중에서 최고는 카라코룸 시이다. 이 도시는 처음 칭기스 칸의 명령으로 1220년에 건설하기 시작하여 우구데이, 몽케 칸 시기에 완성되었다. 카라코룸은 짧은 기간에 세계의 교역, 문화, 종교, 대외 관계의 중심이 되었다. 우구데이



카라코룸 상상도

칸이 세운 64개의 기둥을 갖춘 궁정, 프랑스 세공사 기욤 부시예가 제작한 유명한 은(銀)나무, 불교와 기독교, 이슬람교 사원 등은 독특한 건축 구조와 의장으로 많은 이들의 눈길을 끌었다. 당시에 로마 교황이 보낸 사신 카르피니, 프랑스 왕 루이 9세의 사신 루브룩 등은 카라코룸과 다른 도시들에 대해 흥미로운 사실을 많이 기록하여 오늘날 역사를 복원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띤다. 카라코룸을 건설하는 공사에는 몽골 기술자뿐만 아니라 정복지에서 데려온 건축 기술자, 공예가 등이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도시들에서는 많은 수공업자들이 살면서 금은 등의 귀금속으로 장신구를 제작하였다. 『몽골비사』, 『집사』 등 역사서에는 은으로 장식한 옷감, 진주로 장식한 이불, 금은 귀걸이, 반지, 허리띠 등 장신구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되어 있다. 최근에 고고학 발굴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유물이 상당히 많이 출토되었다.

**금속 가공 기술** 당시에 특별히 언급해야 할 수공업 분야는 몽골인들의 금속 가공과 군사 무기 제작 기술이었다. 몽골인들이 금속을 잘 가공하였으며, 높은 강도의 무기를 제작하였음은 사료와 외국인 여행자들의 기록에 많이 언급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출토된 생활 도구와 군사 무기, 마차 바퀴, 굴통쇠 등으로도 알 수 있다. 사소한 생활 도구에서 전쟁 무기, 갑옷과 투구 등을 아주 높은 수준으로 제작하는 금속 가공업자들이 적지않았다. 사료에 보면 철광석을 녹이는 기술을 '쇠가죽 풀무를 이용한 제련술'이라고 하고 쇠로 만든 풀무(khyasa)도 있었다. 풀무는 휴대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마차에 실어서 옮길 수 있는 황소 가죽으로 만든 큰 풀무까지 있었다. 몽골인들이 정복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이유 중 하나는 뛰어난 금속 가공 기술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카라코룸 유적지에서 발굴한 쇠뿔(부스러기 쇠)을 현대식 실험실에서 녹여 보았는데, 1,350도에서 녹았다. 당시에 어떤 방법으로 이런 고온에서 쇠를 녹였는가는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다.

최근에 몽골 도르노드 지방에서 매우 아름다운 모습의 석인상을 많이 발견하였는데, 이것은 13~14세기 몽골인들의 경제 문화와 예술 문화 유적의 뛰어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석인상들은 칸과 귀족을 기념해 세운 것으로 그 형태를 보면 투르크 시대의 석인상과 큰 차이가 있으며 아주 우수한 형태로 제작되었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다.

## ● 정신 문화

**문자** 대몽골국이 세워지자 행정 업무에 공식 문자를 사용한 것은 몽골의 정신 문화사에서 위대한 유산이다. 지금까지 몽골 문자(위구르식 몽

풀 문자)로 기록된 가장 오래된 유물은 ‘칭기스 칸 비문(이승계 공적비)’이다. 이 유물은 칭기스 칸 비석(Chinggis stone)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다. 이 비석은 몽골인들이 중앙아시아 각국을 정복하고 돌아와 1225년에 축하 잔치를 벌이고, 부카 소치가이라는 곳에서 고관 귀족들의 쿠릴타이를 개최하고 경기를 벌였는데, 카사르의 아들 이승계 명궁이 335알다(alda, 양팔을 벌린 거리



13세기의 훈출로(석인상)

로 1.8m 정도)를 쏘아 우승한 것을 기념하여 세운 것이다. 몽골 대칸의 곁에는 나이만, 위구르, 케레이트 출신의 문인 관료들이 행정을 담당하였으며 다양한 외국어 통역자들이 공무를 함께 수행하였다. 몽골 대칸이 발행하는 공문서에는 해당 지역의 문자로 쓰고 그것을 몽골 정부의 공식 문자로 서명하여 비준하는 원칙이 있었다. 당시에 국가의 대단사관(yeke jarγuči)인 시기쿠투쿠와 칭가이(Cingγai, 鎮海) 칭상[丞相], 카다(Qadaq) 등 문인 관료가 많이 있었다. 몽골 제국의 최초의 법률인 대금법을 몽골 문자로 적어 한 부를 강철관에 새겼고, 나머지는 목판으로 종이에 인쇄하여 반포하였다는 사료는 있지만, 대금법 원본은 현재 전해지지 않고 있다. 1269년에 국사 파스파 승려가 제작한 네모 문자(파스파 문자)를 쿠빌라이의 명령에 따라 국자(國字)로 정하였지만, 잠시 부분적으로만 이용되고 폭넓게 확산되지는 못하였다.

13세기 말에서 14세기 전반까지 몽골의 유명한 학자인 초이지-오드세르(Choiiji-odser)는 『마하칼라 막탈(頌)』, 『주르흐니 툴리트(Jirūken-ü tolitu)』

등 철학, 어학, 문학 관련 서책을 많이 저술하였으며, 고대 산스크리트어와 티베트어에서 『보디차리야 아바타라(Bodhichariya avatara)』 등의 철학 서적을 번역하였다. 그리고 몽골 학자 샤라브 쟁게(Sharab sengge)는 위구르어, 티베트어에서 불교 경전 『금강경』, 『북두칠성경』을, 소놈가라(Sonomgara)는 티베트 학자 궁가잔찬(Gunggajantsan)의 교훈서 『수바시드(Subashid)』 등을 각각 번역하였다.

**역사 서술** 당시 몽골인들에게 수백 년에 걸쳐 구전으로 전해지는 역사에 근거한 역사 서술의 전통이 생겨났다. 몽골인들은 역사에 관한 풍부한 전통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자신의 기원을 잘 알고 그것을 후손에게 전해 주었다.

페르시아의 역사가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족보를 잘 아는 아랍인을 제외한다면 몽골인 이외에 다른 부족에게는 이러한 전통이 없다.

(라시드 앳 딘, 『집사』)

이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바로 『몽골비사』이다. 이 책은 고대 몽골인의 역사 전통, 정신 문화가 아주 높은 단계에 도달하였음을 보여 준다. 구전으로 전해진 수백 년에 걸친 역사 사건을 문자로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분열되었던 몽골인들을 통합하여 대몽골국을 건립한 역사적 사건을 시간 순서에 따라 마치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마음을 빼앗기게끔 서술하였다. 그 역사적 사건을 이끈 칭기스 칸의 조상, 후계자, 자신의 역사를 문학적 방법을 통해 아름답게 서술하였다. 세계 몽골학 연구에 이미 ‘몽골비사

학'이라는 분야가 있다. 세계 각국의 몽골학 연구자들이 이 사료를 연구하여 업적을 발간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당시에 『몽골비사』 이외에도 『몽골부족 기원사』, 『황금서책(Altan debter)』 등 역사 기록이 있었지만 오늘날까지 전해지지는 않는다. 이 책들은 칭기스 칸의 조상과 기원에 대한 역사이며 황금 가문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다.



한문본 몽골비사

또한 『성무친정록(聖武親征錄)』이라는 역사서는 (한문)번역본으로 전해지고 있다. 몽골인과 몽골 제국 시대의 역사와 관련된 아랍, 페르시아, 아르메니아어와 한문, 러시아, 한국어(한문) 등으로 당시에 기록된 역사서도 많다. 그중에서 일부 예를 들어 보면 아타 말릭 주베이니(Ata Malik Juvayni)의 『세계정복자사』, 라시드 왓 딘(Rashid al-Din)의 『집사』, 명초(明初)에 편찬된 『원사(元史)』, 마가키의 『궁수들의 나라 역사』 등이 있다. 쿠빌라이 칸이 저술한 『차간 투흐(Tsagaan tüükh, 白史)』라는 역사 범람집은 사본으로 전해져 내려온다.

**예술과 문학** 풍부한 구전 전통에 기초해 몽골 문자로 기록된 문학 작품이 나왔다. 구전 문학, 신화, 백성의 격언 등을 이용해 역사를 문학 서술 방식으로 훌륭하게 기록한 예가 바로 『몽골비사』이다. 따라서 역사 서이자 문학 작품이기도 하다. 『몽골비사』의 작자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는 역사가였을 뿐만 아니라 문학가이기도 하였다. 수백 년 동안 구전으로 전해지는 「게세르(Geser)」, 「장가르(Janggar)」 등 영웅 서사시를 며칠

밤을 새워 모린 호르를 연주하며 이야기하는 시인의 천성을 타고난 구연가, 시인, 모린 호르 연주자 등도 적지않았다. 그들 중에서 아르구산 호르치(Argusan khuurch), 수니드(Sönid)의 길구데이 바이타르(Gilgüdei baatar)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아르구산 호르치의 설화』, 『칭기스 칸의 구준(九駿)과 고아(孤兒)의 논쟁』, 『두 마리 망아지 이야기』, 『킵차크 칸국의 백화수피(白樺樹皮) 문서』 등의 작품이 당시에 저술되었다. 그러한 유산들은 당시의 사회 상황을 자세히 알려 주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종교와 신앙** 대몽골국 시대에는 무교(巫敎)가 국교의 지위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면, 몽골 제국 시대에는 인도와 티베트에서 전해진 불교를 국교로 삼아 파스파 등 티베트 승려를 국사로 추대하였다. 또 당시에 페르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 마니교(摩尼敎)와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景敎]도 일부 전파되어 카라코룸에 사원을 세우고 종교 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몽골인의 정신 세계와 생활에는 대부분 무교에 대한 믿음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 몽골인들은 13~14세기에 세계 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다. 당시에 발생하여 꽃을 피운 다양한 문화에서 좋지 않은 것은 역사의 발전 과정에서 사라지고 훌륭한 것은 더욱 발전하여 후대에 전해지게 되었다. 몽골인들이 건설한 카라코룸과 몽골의 훌륭한 현자가 지은 『몽골비사』, 몽골인이 만든 모린 호르 등은 오늘날에도 훌륭한 인류 문화 유산으로 인정받고 있다.

## 제6장

# 14~17세기의 몽골



자작나무 껍질에 쓴 문서

14~17세기는 몽골 역사에서 분열과 혼란의 시기라고 한다. 세계를 정복하였던 몽골의 통치가 끝나 가면서 몽골인들은 고향인 몽골 초원으로 돌아왔다. 중국에서 몽골인의 지배를 무너뜨린 명(明)의 통치자들은 국력이 약해진 몽골을 침략하기 위해 대군을 여러 차례 보내 공격하였다. 몽골의 대칸도 잃어버린 권력을 회복하고 다시 중국을 통치하겠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고 대항하며 투쟁하였다. 오랫동안 이방(異邦)에서 통치자로 있었던 권력자들이 고향으로 돌아오자 영유지와 권력 때문에 서로 다투면서 정치적 분열이 가속화하였다. 국내외의 정치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대칸의 권위와 권력은 약화되어 통치력을 회복하지 못하자, 몽골은 북몽골, 남몽골, 서몽골 셋으로 분열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시기를 소칸의 시대라고 한다. 권력자들은 정치적으로 통합하지 못하고 서로 싸웠기 때문에 나라의 내부 상황이 혼란해지고 몽골의 발전이 동요되기 시작하여 독립을 유지하기도 힘들 정도로 점차 약화되어 갔다.



1370~1378년	빌렉투 칸 통치
1378~1388년	투구스테무르 칸 통치
1449년	에센 타이시가 명을 공격하여 영종(英宗) 황제를 포로로 잡음
1454~1455년	에센 타이시 칸위 등극
1466~1517년	바트몽흐 다얀 칸 통치
1577년	투메드의 알탄 칸이 티베트의 소드눔잡츠에게 '달라이 라마'라는 칭호를 수여
1586년	아브타이 사인 칸이 이르테니 주 사원 건립
1587년	아유시 구시가 몽골 갈릭 문자 제작
1639년	자나바자르를 제1대 복드 쩡준담바 호탁트로 추대
1648년	오이라트의 자야 반디다 남하이잡츠가 몽골 토드 문자 제작
1686년	윤두르 게겐 자나바자르가 몽골 소음보 문자 제작



---

# 01

---

## 정치적 분열

전통적인 귀족층은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자 중앙 권력과 칸의 통제 범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였다. 그들이 칸의 통제 범위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이 칸이 되려 하거나 자기 편을 칸으로 세워 권력 다툼을 일삼은 것은 중앙 권력을 약화시키고 국가 정치의 통합 상황을 깨뜨려, 나라는 크고 작은 다양한 분지(分地)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

정치의 분열은 역사 발전의 한 단계이며, 길고 짧은 차이는 있지만 모든 나라의 역사에 공통된 상황이다. 이는 몽골에서 14세기에서 17세기에 걸쳐 약 300년 동안 지속되었다. 당시에 몽골인들은 동으로 흥안령 산맥에서 서로는 탕게르 울[天山山脈]까지, 북으로 이르티시 강과 예니세이 강 상류에서 남으로 만리장성에 이르는 몽골 고지(故地)에 살고 있었다. 1368~1634년 까지 비교적 짧은 역사 시기에 22명의 칸이 몽골을 통치하였기 때문에 이 시기를 ‘소(小)칸의 시대’, ‘정치적 분열 시기’라고 부른다. 몽골 제국 시기에는 40만 몽골, 4만 오이라트라고 불렀는데, 분열 시기인 바트몽흐 칸 시기에는 6만 몽골, 4만 오이라트라고 사료에 기록되기에 이르렀다. 당시에 몽골인들은 정치적으로 분열된 결과 처음에는 서몽골, 동몽골 둘로 분열되고,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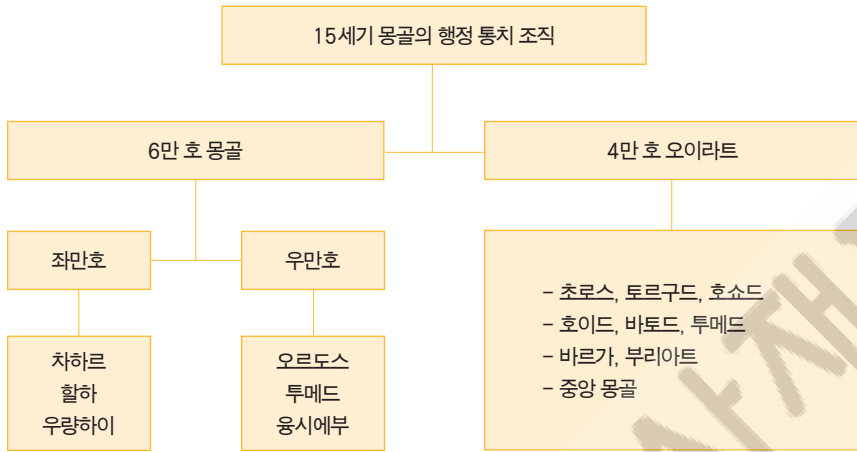
몽골(16세기 말)

동몽골이 다시 남북으로 분열되어 결국 몽골 땅에는 세 개의 독립국이 존속하게 되었다. 이렇게 분열된 것은 이후 몽골의 운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좌3만호는 칸이 통치하며 할하 지방(현 몽골국)에 있었으며, 우3만호는 다음에 칸위를 계승할 왕자 또는 지농(Jinong)이 통

치하며 오르도스 지방에 있었다. 당시에는 만호라는 조직이 일만 명의 군사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상실하고 고관의 속령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에 이르렀다.

동(좌)몽골의 12오툽(otog)에서 남5오툽은 독립하여 내(남)몽골, 북7오툽은 할하몽골이라고 불려 전체 몽골은 할하몽골, 내몽골, 서몽골 셋으로 분열되었다.



15세기 몽골의 행정 통치 조직



16~17세기 몽골의 행정 통치 조직



---

# 02

---

## 분열 시기 몽골의 정책

중국에서 몽골의 지배는 붕괴되었지만 그렇다고 몽골인들의 국가가 멸망한 것은 결코 아니다. 정치의 중심지인 몽골 땅으로 돌아와 칸의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투쟁하였다.

(나찰도르지(Sh. Natsagdorj), 『몽골 봉건제의 기본 발전』, 1978)

---

### ● 몽골과 중국의 관계

당시 몽골의 정책 방향은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나라의 독립을 유지하고 내부적으로 정치 분열을 막기 위해, 경제 산업을 복원시키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 특히, 외교 정책으로는 몽골과 중국의 문제가 주된 관심사였다. 몽골인들은 잃어버린 지배권을 되찾기 위해, 중국은 몽골을 정복해서 지배하기 위해 서로 투쟁하였던 것이 이 시기의 특징이다. 토크테무르 칸은 군사력을 정비하여 다시 중국을 정복하기 위해 몇 차례 공격하였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1370년에 중국과 몽골의 경계에 있는 응창부(應昌府)에서 세상을 떠났다. 대칸이 사망하고 아들 빌렉투(1370~1378)와 손자 투구스테무르(1378~

1388) 등이 칸이 되어 수도 카라코룸을 중심으로, 몇 차례 명을 공격하였지만 역시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명 황제도 몽골의 국력이 약화된 상황을 이용해 몽골을 정복하려고 대군을 이끌고 몇 차례 공격하였지만 역시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몽골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 우호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는 명이 아직 안정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몽골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 포로로 잡고 있던 토곤테무르 칸의 손자인 마이다르발(Maidarbal)을 1374년에 돌려보냄으로써 양국의 충돌은 잠시 멎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국력이 안정되자 명은 다시 군사를 조직해 몽골과 중국 사이에 지속적인 전쟁을 시작하였다. 서로 승리와 패배를 주고받다가 1388년 몽골 측이 크게 패해 투구스테무르 칸이 제명을 다 살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몽골군은 지휘부 장군 사이에서 분열이 일어나 대군의 좌익을 지휘하고 있던 나가추(Nagachu)가 1389년에 휘하의 우랑하이부와 함께 명에 항복함으로써 몽골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명은 몽골인들을 분열시키고 약화시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고, 몽골의 권력자들은 서로 분열하여 투구스테무르 칸 이후 1388년부터 1400년 사이에 재위하였던 다섯 명의 칸은 모두 제 명에 죽지 못하였다.

명 황제 영락제(永樂帝, 成祖)는 1409년에, 몽골의 칸으로 새로이 추대된 보안시리(Buyanshiri) 칸을 공격하기 위해 10만 명의 대군을 보내 공격하였지만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가 다시 군대를 움직여 친히 이끌고 몽골로 진격하여 오는 강변에 있던 보안시리 칸을 공격하려 하자, 보안시리 칸은 오이라트 땅으로 도망갔다. 그러나 당시 오이라트를 다스리고 있던 마하무드(Makhamud)는 그를 사로잡아 처형하였다. 명 황제는 오이라트의 고관들을 부추겨 동몽골의 아룩타이(Arugtai) 칸을 공격하도록 도움을 주었다. 명 황제는 몽골인의 통합을 분열시키려는 목적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에, 오이라

트의 고관들에게 막대한 재화를 상으로 주었다. 이어 명 황제는 오이라트가 강성해지는 것을 막고자 1413~1414년에 마하무드의 군대가 헤를렌 강변에 이르자, 다시 군대를 이끌고 친정하여 아룩타이를 도와 마하무드의 군대를 격파하였다. 이렇게 명의 분열 정책으로 몽골의 권력자들은 내분에 휩싸여 약화되어 대칸의 권위는 추락하였고, 몽골은 오랫동안 정치적으로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몽골은 정치 권력의 통합이 약화되어 동·서 몽골인들 사이에 충돌이 계속되었다. 정치 상황이 불안정한 틈을 타, 명은 고의적으로 교역을 끊고 몽골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실로 몽골인들을 지배하려고 시도하였다.

1440년에 정권을 잡고 있던 타이순(Taisun) 칸은 오이라트의 토곤 타이시(Togoon taishi)의 아들 에센(Esen, 也先)에게 타이시라는 관직을 주고 정치와 군사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1451년에 에센 타이시는 타이순 칸을 급습하였다. 타이순 칸은 헤를렌 강 방면으로 도망갔지만 그곳에서 예전부터 그에게 원한을 품고 있던 사람들에게 피살당하였다. 에센이 모든 권력을 장악해 정치적인 위기가 안정되자 몽골의 세력은 조금씩 회복되어 잠시 동안이나마 평화 상태가 유지되었다. 에센은 몇 차례 중국에 사신을 보내 경제적 교역 관계를 맺으려고 시도하였지만 성립되지 않자, 1449년에 명을 공격하였다. 명의 영종(英宗)은 이에 맞서 군사를 이끌고 친정을 하였지만 도리어 몽골의 포로가 되었다. 이 사건을 역사에서는 사건이 일어난 그 지명을 따라 '토목보(土木堡)의 변(變)'이라 한다. 포로가 된 황제를 인질로 삼아, 에센은 명에 정치적 압박을 가하면서 교역 재개를 요구하였지만, 명은 새로운 황제(景帝)를 앉히고 몽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로잡았던 황제를 조건부로 돌려준 다음 잠시 동안 양측의 관계는 안정되었다. 1454년에 에센 타이시는 스스로 전 몽골의 칸이라고 선포하였지만, 그는 황금 가문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를 칸으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다. 1455년에 에센 칸은 살해당하고, 그 뒤를 이어 10여 년 동안 여러 명의 칸이 교체되어, 몽골을 통합하려는 시도는 물거품이 되어 버렸다.

현명한 만도하이(Mandukhai) 세첸 카툰은 길게 늘어뜨린 머리를 올려 묶고 나라의 주인 다얀(Dayan, 達延) 칸을 요람에 넣고 지휘하여 출발하였다.

(『알탄 톱치』, 86쪽; 『에르테닌 톱치』, 202쪽; 『샤르 토지』, 72쪽)

## ● 몽골의 일시적 통합

1560년대에 정권을 잡고 있던 만도울(Manduul) 칸은 동서 몽골을 통합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도중에 세상을 떠났다. 몽골인의 통일을 위하여 국가와 민족의 근본적인 이익을 위해 많은 사람이 투쟁하였다. 그중에서 만도울 칸의 소(小) 카툰과 현명함으로 역사에 널리 알려진 만도하이(Mandukhai) 카툰, 바트몽흐 다얀(Batmönkh Dayan) 칸, 투멘 자삭트(Tümen zasagt) 칸 등이 출현하여, 몽고의 통일을 부흥시키는 데 일정한 임무를 수행하였다. 만도하이 세첸 카툰은 황금 가문 사람들의 후원을 받아 1466년 일곱 살인 바트몽흐(1460~1524?)에게 ‘다얀 칸’이라는 칭호를 바치고 칸으로 추대하였다. 바트몽흐 다얀 칸은 어렸기 때문에, 그를 대신해서 만도하이 세첸 카툰이 잠시 정치를 대행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만도하이 카툰은 동서 몽골과 오이라트의 대부분을 정치적 수단을 이용해 평화로운 방법으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었으며, 다얀 칸의 통치에 반발하는 일부 오이라트 귀족들은 무력을 사용해 정복함으로써 몽골의 대부분을 바트몽흐 다얀 칸의 통치하에 통합할

수 있었다. 이 시기를 역사에서는 ‘손과 발이 편안한 상태에 있는’ 시대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바트몽흐 다얀 칸은 자식들에게 영유지를 나누어 주어, 그의 손자대에 이르러 할하 만호는 그중에 투시에트(Tüsheet) 한, 세첸(Setsen) 칸, 자삭트(Zasagt) 한이라는 세 아이막, 7호쇼(khoshuu, 旗)로 나누어졌다.

16세기 초 다시 분열이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서부 몽골의 통치자로 지농 직책에 있던 다얀 칸의 손자 알탄(Altan) 칸(1517~1582)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알탄 칸이 정치, 군사적으로 강력해지면서 오이라트와 후흐 노르(Khökh nuur, 青海)를 점령하고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알탄 칸의 위력이 증대되자 명은 그를 주시하며, 그가 중국과 교역하려는 시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541년에는 알탄 칸의 수급(首級)을 베어 오는 자에게 많은 상금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1542년과 1546년에는 알탄 칸이 파견한 사신을 명에서 처형하였다. 이에 대해 알탄 칸은 여러 차례 명을 공격하여 우호 관계를 맺기는 하였지만, 그 관계는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알탄 칸은 투메드부에 농경과 수공업을 발전시켜 ‘바이싱(Bayishing, 板升)’이라는 도시를 건설하였는데, 이는 훗날 내몽골의 중심인 후흐 호트(Khökh khot, 呼和浩特)가 되었다.

당시 몽골의 통일을 부흥시키는 데 성공적으로 시도하였던 사람은 투멘 자삭트 칸(1558~1593)이었다. 그는 가장 먼저 동서 몽골 만호를 통합하려는 목표를 세웠다. 일부 칸과 귀족들이 반대하는 서몽골을 동몽골에 통합시키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가 포기하고, 먼저 그들을 통합된 나라로 만들기 하는 중요한 결의를 하였다. 투멘 자삭트 칸은 동서 몽골의 만호와 각각의 만호에서 가장 명성이 높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지도자들을 참여시켜 중앙 행정 기관을 조직하였다. 투멘 자삭트 칸의 이러한 통합 정책을 할하의 아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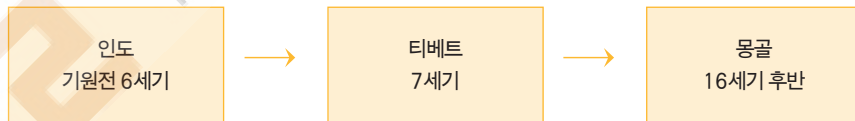
타이(Avtai) 칸, 투메드의 알탄 칸, 오르도스의 세첸 흥타이지(Setsen Khungtaiji) 등 당시 몽골의 영향력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적극 찬성하였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그를 ‘자삭트 한’이라고 불러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의 이런 활동은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진전이였다. 몽골이 오랫동안 정치적으로 분열되었지만, 중국 명의 침략을 잘 방어하여 정치적 독립과 영토의 완전한 보장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이 이 시기의 중요한 성과이다.

# 03

## 몽골 불교의 흥성

사료에 인도, 티베트, 몽골을 불교로 연결된 세 나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종교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것이다. 일부 학자들은 문학적으로 이 말을 '활불(活佛)의 나라, 눈의 나라, 말 젖을 즐기는 나라'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불교는 기원전 6세기에 인도에서 발생하여, 기원후 7세기에 티베트로 전파되었다. 14세기 말부터 시작하여 황모파(黃帽派)와 홍모파(紅帽派)라는 서로 다른 종파를 형성하여 영향력을 증대하기 위하여 경쟁하면서부터 티베트에 불교가 빠르게 전파되었다.



불교의 발생과 전파

불교 개혁을 통해 황모파, 즉 황교(黃敎)의 기초를 건설한 이는 티베트 승

려 총카파(Tsongkapa, 1357~1419)였다. 그래서 황교를 총카파교라고도 한다. 몽골 땅에는 불교가 모두 세 번 전해졌는데, 지금 살펴보려는 것은 그 세 번째 시기이다. 이전에 두 번 전파되어 국교가 되고 대칸의 후원을 받았지만, 대칸의 궁정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16세기 후반에 몽골에 황모파 불교가 급속히 전파되면서 홍성을 맡게 되었다. 황교가 이 시기에 흥성한 이유는 당시의 시대 상황과 몽골과 티베트 양국의 이익이 합치점을 찾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쳤다.

몽골과 티베트의 상호 교류

몽골	티베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결력으로 세계를 통합하였던 몽골인들은 상호 정치적으로 통합을 이루지 못하였다. 따라서 국가를 통일시키려는 목적으로 몽골의 권력자들은 티베트와 연합하여 종교를 흥성시켜 정신적으로 통합하려는 정책을 실시하였다.</li> <li>• 이방에서 현지인을 통치하던 고관 귀족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소유 영지와 숙인, 재화, 권력 등을 다루어 상호 투쟁함으로써 일어난 전쟁으로 고통받게 되자 안정된 삶을 원하는 불교 교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li> <li>• 국가에서 승려의 권리를 법제화하여 후원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li> <li>• 일반 백성들이 불교를 믿게 하기 위해 승려들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준 것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li> <li>• 무교의 순장 의식을 폐지하고, 죽은 사람과 함께 하인이나 가축을 켜묻는 것을 금지한 것이 일반 대중의 마음을 얻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티베트의 통치자들은 중국의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지키기 위해 몽골의 군사적, 정치적 후원을 받으려는 목적과 자신들의 종교인 불교를 흥성시켜 몽골인과 연합하려는 생각이었다.</li> <li>• 티베트 불교의 홍모파와 황모파의 권력자들은 몽골의 군사력과 무기를 지원받아 티베트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할 목적으로 서로 경쟁하였다.</li> <li>• 몽골인들에게 불교를 전파하여 불교도 수를 늘려 큰 영향력을 발휘함으로써 중앙아시아 정치 무대에서 티베트의 위상을 공고하게 하고 이름을 드날릴 목적이었다.</li> </ul>



녹색 다라모불(자나비자르 작)

위에서 언급한 요인들은 몽골에서 불교가 흥성하는 기반이 되었다. 처음에 몽골에는 티베트 불교의 황모파와 홍모파가 모두 자신들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경쟁하였지만, 점차 황교가 홍교를 능가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황교가 전 몽골에 확산되었다. 이 시기에 황교의 전파는 고관 귀족들의 궁정을 벗어나 모든 백성에게 확산되어 몽골의 주도적인 종교가 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1576년에 투멘 자삭트 칸은 처음으로 티베트 불교 홍모파의 지도자인 승려 가르마(Garmaa)를 궁정으로 초빙하여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맺고 불교에 귀의하여 나라 전체에 불교를 흥륭시키는 것을 정책적으로 후원하였다. 투

멘 자삭트 칸은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을 지닌 칸과 고관 대작들에게 각자의 영지에서 불교를 흥성시킬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투메트의 알탄 칸과 티베트의 달라이 라마(Dalai Lama)는 몽골에 황교를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 할하에서는 아브타이 사인(Avtai sain) 칸이 불교를 흥성시키기 위해 1586년에 에르테니 조(Erdeni zuu) 사원을 건립하였다.

황교의 승려들은 몽골에 불교를 전파할 때, 몽골인들이 주로 믿고 있던 무교의 무당과 강력한 투쟁을 벌였다. 몽골인들이 믿던 옹곤(부적 인형)을 모든 가정에서 거두어 불태우고, 무당들의 신통력과 능력을 제거하기 위해 개똥을 태워 그 연기를 쫓게 하고, 무당을 불러 굿을 한 사람에게는 가축으로 벌금을 물게 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강구하였다. 당시에 몽골인 중에는 무교의

식에 염증을 느끼고 반대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불교가 신속하게 전파되는 데 도움이 되었다. 1639년에 시레 차간 노르(Shiree tsagaan nuur)에서 자나바자르(Zanabazar)를 종교의 지도자 초대 복드 칸(Bogd Khan)으로 추대하였다. 이 의식을 계기로 샤르 부스(Shar bös) 궁정을 건립한 것이 할하의 이흐 후레(Ikh khüree), 즉 오늘날의 울란바토르의 기초가 되었다.

오이라트에서는 옥토르구인 달라이 랍잠바(Ogtorgüin dalai rabjamba)의 직책을 가진 자야 반디다(Zaya bandida) 남하이잠츠(Namkhajamts)가 황교를 흥성시켰다. 이렇게 16세기 후반 몽골에 티베트 불교가 들어오고, 그중에서 황교가 주도권을 장악하여 전 몽골에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불교가 흥성하면서 몽골에 인도, 티베트 문화의 영향이 유입되는 계기가 되었다. 몽골인들이 이렇게 불교를 믿고 흥성하게 된 것은 정치적으로 통합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종교의 깃발 아래 정신적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염원과 관련이 있다.



---

# 04

---

## 14~17세기 몽골의 생활과 문화

---

전 민족을 이끌 수 있는 정신적 지도자가 태어난 것이 이 시대의 큰 특징이다.

(볼드바타르(Boldbaatar T.) 등, 『몽골사』, 1999)

---

### ● 일상 생활

당시 몽골인들은 예전처럼 유목을 하며 물과 초지의 상태를 살피면서 일년 내내 이동하며 생활하였다. 초지는 이전보다 훨씬 조직적으로 이용하였다. 전쟁과 혼란 때문에 단체로 이동하면서 가축을 방목하는 것이 어려워져,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일(ayil, 家戶) 단위로 이동하게 되었다. 옛날부터 목축을 하며 살아 온 몽골인들은 자연에 적응하며, 주변의 환경을 아끼고 보호하는 등 풍부한 지혜를 축적해 왔다. 몽골인들은 자연 환경과 천체의 운행, 천기를 주시하여 날씨의 변화를 살피면서 생활하였다. 목축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가공하는 방법에도 많은 발전이 있었다. 가축의 생선품과 우유, 고기

등을 가공하여 식료품 수요를 충족하는 한편 사냥감과 자연의 산물을 광범위하게 이용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인의 기록에도 보인다.

사냥은 몽골인들의 일상이었지만, 짐승이 태어나고 성장하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봄에는 사냥을 하지 않았으며 가끔 하는 것은 배고픔을 달래는 정도였고, 가을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만리장성 이북의 풀과 나무가 낙엽이 지고 무기도 잘 준비되고 말이 통통하고 사냥감들이 살이 올랐을 때 모여 위렵을 한다.

(소대형(蕭大亨), 『북로풍속(北虜風俗)』)

오르혼, 셀렝게, 토을 등의 강변에서는 적게나마 농사를 짓기도 하였다. 그러나 자연 기후와 환경이 혹독하였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충분하게 수확하지 못하였다. 사냥은 몽골인의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예전처럼 많은 인원이 동원되는 광범위한 대위렵은 점차 줄어들고, 각 지방 귀족들은 현지 방식으로 성공적인 위렵을 시행하였다. 몽골인들은 가축에서 생산되는 원재료로 생활의 수요를 일부 충족하고 사소한 것들은 스스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가축의 털과 가죽 등으로 생활에 필요한 도구와 신발, 의복 등을 만들었다. 당시 몽골인들이 생활하던 주거는 오늘날의 게르와 큰 차이가 없다. 옛날에 사용하던 궁정 게르 마차 등은 사라지고, 16세기부터 칸과 귀족들이 거주하는 벽이 여덟 개나, 열다섯 개로 이루어진 대형 주거용 게르가 생겨났다.

대형 게르(örgöö)의 예는 최근까지 있었던 아브타이 사인 칸의 바룬 우르구(Baruun örgöö)의 예에서 잘 알 수 있다. 오늘날 그것을 본떠 만든 것이 울란바토르 호텔 동북쪽에 있다. 아브타이 사인 칸의 우르구는 300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였다고 당시 몽골 땅을 여행하면서 실제로 본 포즈드네에프(A. M. Pozdneev)가 기록하였다. 당시에 몽골인들이 입었던 옷은 남아 있

는 것이 아주 드물다. 당시의 법률 조문에 비단과 담비, 수달, 여우 가죽 등 값비싼 모피에 대해 언급한 것을 통해 보면, 그런 재료를 이용해 옷을 만들어 입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것은 사회 계층의 분화에 따른 부의 격차가 의복에도 그대로 반영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 ○ 정신 문화

몽골인들은 자식들에게 ‘게르(가정)학교’에서 주로 교육을 시켰다. 이 시대의 중요한 특징은 몽골에 불교가 전파되면서 인도와 티베트의 불교 경전을 몽골어로 번역하는 것이 널리 발전하였다는 점이다. 아유시 구시(Ayush guush), 구시 초르지(Guush tsorj), 자야 반디다 남하이잠츠(Zaya bandida Namkhajamts) 등 유명한 경전 번역가들이 이 시기에 출현하였다. 산스크리트어와 티베트어를 뛰어나게 잘 아는 학자들이 불경을 몽골어로 옮기고, 뜻을 잃지 않는 번역 방법과 원칙 등을 연구하여 완성하였다. 이를 위해 몽골어로 전사할 수 있는 알리-갈리(Ali-gali) 문자를 제작하고, 또한 몽골 문자를 더욱 세련되게 만들어 『주르흐니 툴리트』라는 문법서가 나왔다. 아유시 구시는 1587년에 갈릭(Galig) 문자, 자야 반디다 남하이잠츠는 1648년에 토드(Tod) 문자, 운두르 게겐 자나바자르(Öndör gegeen Zanabazar)는 1686년에 소욀보(Soyombo) 문자를 각각 제작하였다. 이들 학생들은 번역에만 머물지 않고 티베트어로 저술을 남기기도 하였다.

번역서를 손으로 필사하여 배포하였지만 수요가 증가하자 목판 인쇄를 하게 되었다. 목판 인쇄는 몽골인들이 경전과 책을 인쇄하는 방법이었다. 목판 이외에도 황동, 납, 쇠 등으로 판을 만들기도 하였다. 목판은 대부분 자작나

무를 사용하였다. 단단한 자작나무를 같은 크기로 잘라 무거운 것으로 눌러 그늘에서 말린 다음에 끓는 기름에 넣는다. 이것은 목판이 먹물을 흡수해 버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런 다음 각공이 경전의 글자를 새기고, 먹물을 발라 종이에 눌러 많은 양의 책과 경전을 인쇄한다. 그런 인쇄하는 곳을 바르칸(barkhan)이라고 한다. 큰 사원 옆에는 대부분 바르칸이 있었다. 몽골인들은 또한 자작 나무 껍질을 종이 대용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올론 슴(Olon süm, 내몽고), 볼간(Bulgan) 아이막의 다신칠렌(Dashinchilen) 슴에 있는 하르 보힌 발가스(Khar bukhyn balgas) 등에서 자작나무 껍질에 쓴 문서 자료가 대량으로 출토된 것은 이런 일이 널리 행해졌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청 지배시기 상인들의 회계 장부

번역 이외에 역사, 정치, 천문, 법률에 관한 많은 저술은 대부분 오늘날까지 원형 그대로 전해지지 않는다. 당시에는 법률 문서를 많이 적었다. 그중에 하나는 호탁타이 세첸 흥타이지(Khutagtai setsen Khungtaiji)가 지은 『알탄 칸 법전』이다. 이 법률은 원본으로는 전해지지 않지만, 그의 손자인 사강 세첸(Sagan Setsen)이 지은 『에르데닌 톱치(Erdeni-yin tobči)』에 대부분이 원전 형태로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다. 이 법률의 티베트어 번역이 영국 리버풀 박물관에서 발견되었다. 1970년에 하르 보힌 발가스에서 자작나무 껍질에 쓴, 할하 귀족들의 회의에서 토의되어 비준된 18가지 법률 모음집이 발견되었다. 또 당시에는 저자 미상의 『호랑고이 알탄 톱치(Khuraangui Altan tobči)』, 룽산단잔(Luvsandanzan)의 『알탄 톱치(Altan tobči)』, 『샤르 토지(Sbar tuuj)』,

샴바(Shamba, Jambal) 자작의 『아스락치 네르틴 투흐(Asragči nertiin tüükb)』, 사강 세첸의 『에르데닌 톱치』 등 많은 작품이 저술되었다.

역사 사건을 문학적으로 쓴 『토곤테무르의 슬픈 노래』, 『만도하이 세첸 카툰의 설화』, 『다얀 칸의 육만호 몽골 막탈[頌]』, 『우바시(Ubash) 홍타이지의 이야기』 등의 작품이 이 시기에 저술되었다.

**예술** 당시에 조형 예술과 건축 등이 많이 발전하였던 것은 새롭게 흥성하는 불교의 영향 때문이었다. 당시의 수공업 기술자들은 자신의 우수한 공예술을 사원의 건축과 불상 제작, 종교 의례용 도구 등에 경쟁적으로 쏟아부었다. 그 시대의 대표적인 예는 초대 복드 칸 운두르 게첸 자나바자르였다. 그는 몽골 조형 예술에 주조 기법 분야를 개척하였으며, 이 방법으로 제작한 오치르다라(Ochirdara) 불상, 21 다라모불, 마이다르 불상 등의 위대한 작품은 오늘날까지도 보는 이의 감탄을 자아낸다. 당시 건립된 불교 사원은 종교뿐만 아니라 교역, 경제, 문화의 중심이 되었다. 그중에서 커다란 사원으로는 에르데니 주 사원, 샤르 부스 오르두, 사리닥인 히드(Saridagyn khiid) 등이 있다. 당시의 정치 상황은 안정되지 못하였지만, 몽골 사람들은 자신의 문화를 끊임없이 창조하였다. 안타까운 것은 전쟁과 혼란 때에 많은 것이 파괴되고 사라져 더는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 제7장

# 만주(청) 지배 시기의 몽골



만주(청) 제국(1760년)

인류의 역사 발전을 살펴보면, 한 나라와 민족이 약화되어 멸망하면 다른 민족이 일어나 발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한때 몽골인들의 통치하에 있었던 여진 계통의 만주족이 17세기 초에 독립국을 세웠다. 이어 그들은 중앙아시아와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정복하여 청을 세우고 20세기 초까지 존속하였다. 그때 몽골은 만주 제국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몽골 역사에서는 이 시기를 '만주 지배 시기의 몽골'이라고 부른다. 여기에서는 세계의 역사를 새로 쓸 정도로 강성하였던 몽골이 왜 나라를 잃었고, 어떻게 200여 년 동안 이민족인 만주의 통치하에서 살았으며, 어떻게 민족과 문화를 지켜왔는지 등 복잡하고 교훈이 되는 역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1636년	내몽골, 만주(청)에 정복됨
1639년	이흐 후레(지금의 울란바토르)의 기초를 놓음
1640년	'몽골·오이라트 법전' 비준
1686년	가로쓰기 파스파(네모) 문자 제작
1691년	할하 몽골, 만주(청)에 정복됨
1727년	보이르(부렌스키) 조약으로 몽골과 러시아의 국경이 최초로 확정됨
1755년	준가르(오이라트), 만주(청)에 정복됨
1755~1758년	아마르사나, 칭군잡 등이 이끄는 무장 봉기 발생
1861년	이흐 후레에 러시아 영사관 설치
1880년	오늘트가 이끄는 봉기
1900년	올리아스타이 군사 봉기
1905년	악왕 바긴드라 문자 제작



---

# 01

---

## 만주(청)의 지배를 받게 된 몽골인

몽골인들은 역사상 여러 번 나라를 잃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쓰라린 역사를 배우려고 한다. 몽골인들은 왜 예전의 강성함과 정치적 독립을 지키지 못하였던 것일까? 이 교훈적인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몽골인들은 구름과 같아서 구름이 모이면 비가 오듯이, 몽골인들이 모이면 군대가 된다. 구름이 흩어지면 비가 그친다. 우리가 몽골인들의 힘이 흩어지기를 기다린다면 그들을 쉽게 정복할 수 있다.” (만주의 칸 누르하치가 한 말)

---

### ● 17세기의 세계와 몽골인

역사의 수레바퀴는 돌고 돌아 17세기가 시작되었다. 한때 세계 역사를 새롭게 썼던 몽골인들은 역사의 주무대에서 내려와 있었다. 여러분은 이전에 배웠던 세계사를 떠올려 보길 바란다. 이 시대는 서양의 역사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은 때이다. 북쪽에 인접한 러시아는 점차 발전하여 강력해져 새로운 영토를 정복하고 국토를 확장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나갔다. 러시아인들은 ‘검은 땅’이라고 부르던 시베리아와 극동의 광대한 땅을 정복하려고 노력하였다. 17세기 초에 러시아인들은 시베리아 서부를 대부분 장악하고 더 나아가 알타이, 바이칼, 아무르, 시베리아 동부 방향으로 진출하였다. 러시아의



몽골국(16세기 말~17세기 초)

이러한 정책으로 당시 몽골 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역사에 그들의 영향과 간섭이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몽골은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게 되었다. 당시 아시아의 각국들은 흥망성쇠를 반복하고, 분열과 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 그중에서 커다란 변

혁은 여진 계통의 만주인들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것이다. 그들은 강력해지자 곧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 시작하였다. 몽골의 통치를 벗어나 건립된 중국의 명은 세력은 약해졌지만 중앙아시아의 정치 상황에 끼치는 영향력은 여전히 있었다. 그들은 '이이제이(以夷制夷)'라는 전통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였다. 몽골과 국경을 맞대고 함께 살던 티베트인들은 17세기 초 종교와 정치적 분파 사이에 서로 분쟁을 일삼고 있었다. 특히 불교의 두 종파, 홍교와 황교 사이에 격렬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몽골의 서남과 서쪽 방면에는 무갈 제국과 부하라, 카자흐, 키르기스 등이 있었다. 그들의 내부 상황은 불안정하였고, 게다가 강력한 중앙 집권력이 존재하지 못할 정도였다. 나아가 중앙아시아의 아르칸드와 투르판의 통치자는 동(東) 투르키스탄을 장악하기 위해 계속 경쟁하고 있었다.

그러면 17세기 초에 몽골인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내몽골인들은 고비 남쪽에, 할하 몽골인들은 알타이와 항가이 산맥을 중심으로, 오이라트(서부) 몽골인들은 알타이 산맥 너머에 살면서 고비 사막과 높은 산맥을 경계로 하여 살고 있었다. 그들은 비교적 독립적인 존재였을 뿐만 아니라 내부 상황

도 각각 달랐다. 이 시기에는 ‘투멘(tümen, 만호)’ 행정 제도는 더 이상 정치 조직의 한 형태로 작동하지 않았고, 대부분 아이막(aimag), 오투크(otog), 호쇼(khoshuu)라는 조직이 시행되고 있었다. 내몽골 16아이막은 대칸의 통치를 받고 있었지만, 그들 중에서 ‘중앙 정치에서 분리하려는 양상’이 강력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릭덴(Ligden, 林丹) 칸은 통치력을 강화하고 전 몽골인을 통합하여 통치하려고 노력하였지만, 그의 영향력은 점차 약화되어 단지 자신이 직접 통치하는 8오투크, 차하르(Chakhar) 만호만 다스릴 수 있었다. 할하 몽골의 많은 오투크와 호쇼들은 모두 큰 아이막 세 개로 형성되어 있었다. 할하 귀족 내부에서도 릭덴 칸의 정책과 활동을 지지하는 분파와 반대하는 분파 둘로 나누어져 있었다. 한편 오이라트 몽골인들은 네 개의 주도적인 아이막으로 이루어져 그들의 고관 대작 사이에서는 중앙 통치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 널리 확산되고 있었다. 그들은 ‘두르벤 오이라트 출간(Dörben Oirat chuulgan, 사(四)오이라트 연맹)’으로 묶여 있었다. 당시에 몽골인들은 모두 이웃에 있는 나라와 백성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연합 전선을 형성하여 자신을 중심으로 통합하려는 대외 정책을 시행하고, 자신들의 완전한 권리와 존립을 위한 보증으로 삼으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희망은 실현되지 못하였다.

## ● 만주(청)에 통합된 내몽골

더욱 강력해진 여진족 국가(후금, 후에 청)는 고대 시기부터 강력하였던 두 나라, 즉 몽골과 명과 국경을 맞대고 있었다. 몽골과 명이 기존의 상황을 유지하고 강화하려 하였다면, 후금은 국력을 더욱 강화하여 만주 지방에서 자

신들의 영향력을 공고하게 행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후금의 이러한 정책에 가장 먼저 영향을 받게 된 것은 내몽골이었다. 이 시기에 몽골은 최후의 칸 ‘차하르’의 립덴 칸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립덴 칸은 자신이 정한 분명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강구하고 정책을 실시하였다.

아래의 사항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서, 립덴 칸이 시행한 정책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라.

립덴 칸의 정책

내부 정책	대외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하르 만호를 몽골 전통에 따라 좌, 중, 우부 세 개의 만호로 나누어 평화적으로 통치하려는 정책을 시행하였다.</li> <li>• 1617년에 아브가 하르 울(Avga khar uul)이라는 곳에 중심 수도인 오치르 차간(Ochir tsagaan) 호트(khot, 市)를 건설하였다.</li> <li>• 칭기스 칸과 쿠빌라이 칸의 칭호를 같이 사용하였다.</li> <li>• 티베트 홍모파의 고승을 초빙하여 ‘국사’의 직책을 제수하였다.</li> <li>• 불교의 대장경 108권 『간주르(Ganjuur)』를 33명의 학자와 고승들에게 번역하게 하여, 금자(金字)로 써서 완성하였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li> <li>• 1619년에 명의 광녕성(廣寧城)을 점령하였다.</li> <li>• 명은 국경을 열어 교역을 승인하게 되었다.</li> <li>• 1619년에 만주 군대와 철령(鐵嶺)에서 전투를 치렀다.</li> <li>• 1620년에 누르하치는 명과 대항해 연합 전선을 구축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립덴 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li> <li>• 립덴 칸은 누르하치와 사신을 교환해 교류하였다.</li> <li>• 명은 매년 은화 10,000~81,000냥을 국경을 방어하기 위해 몽골에 제공하였다.</li> </ul>

다른 한편, 후금도 내몽골을 제압하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쳤다. 그럴러니 몽골과 명의 연합이 큰 장애가 되었다. 따라서 만주인들은 이 연합 전선을 깨뜨리고, 양국 간의 국경을 동시에 방어하고 있던 립덴 칸을 가장 먼저 공격할 필요가 생겼다. 1618년부터 만주의 칸 누르하치는 몽골과 명을 매년

공격을 시도하여 일부 지방을 점령하기도 하였다. 1622~1623년에 내몽골 좌익의 영향력 있는 귀족들은 예하 속민들을 데리고 만주에 항복하기 시작하였다. 누르하치는 1626년에 자루드(Jaruud)와 바아린(Baarin) 아이막 전체를 장악하였다. 1627년에 나이만[奈曼]과 오한(敖漢), 1628년에 호르친(Khorchin) 아이막 전부가 항복하였다.



몽골국 (1636년)

만주의 새로운 칸 아바하이(홍타이지[皇太極], 1626~1636)는 1626년 2월에 호르친으로 보낸 사신을 살해하였다는 이유로 차하르를 공격하여 1만 이상의 사람과 말을 노획하였다. 립덴 칸은 이에 대해 호르친을 공격해 수많은 사람과 말을 노획하였다. 이에 대해 호르친, 투메드(Tümed), 오르도스(Ordos), 아수드(Asud), 융시에부(Yüingsheebü) 등 아이막은 연합 전선을 형성하여 립덴 칸이 거느린 43,000의 대군을 섬멸하였다. 1631년부터 1632년 사이에 립덴 칸은 만주에 항복한 일부 아이막을 되찾으려고 시도하였지만 성공하지 못하였다.

1632년 4월, 아바하이 칸은 립덴을 완전히 정복하기 위해 몸소 대군을 이끌고 공격해 왔다. 만주 군대에 편입된 몽골군이 비밀리에 소식을 전해 주어, 립덴 칸은 피해를 입지 않고 후호 노르[靑海] 쪽으로 피신하였다. 도중에 오르도스에 있는 칭기스 칸의 사당에서 의식을 치르고 칭기스 칸의 위령을 모시고 가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립덴 칸은 후호 노르 방향으로 향하던 중 1634년에 샤르 탈(Shar tal)이라는 곳에서 천연두에 걸려 생을 마감하였다.

이때부터 전체 몽골에는 칸이 없고, 내몽골에는 지도자가 없었다. 1636년에 내몽골의 16아이막[盟], 49호쇼[旗]의 왕공들의 회맹이 묵덴[瀋陽]에서 열리고, (만주의) 아바하이를 몽골의 대칸으로 인정함으로써 내몽골은 만주의 지배 영역이 되었다. 아바하이 칸은 국호를 ‘청(淸, ariyun)’으로 고치고, 연호는 승덕(崇德, degedü erdemtü)이라고 정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이후에 실시할 조처와 정책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 ○ 만주(청)의 지배를 받게 된 할하 몽골

만주인들은 내몽골을 장악하고 나자 이어서 할하 몽골로 관심을 돌렸다. 이때 할하 몽골의 대외 교류는 막혀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중앙 통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할하는 투시에트한 고펜도르지(Gombodorj), 세첸한 솔로이(Sholoi), 자삭트한 수바다이(Subadai) 등이 통치하고 있었다. 할하의 고관들은 립텐 칸과 만주의 정책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만주군을 피해 할하 지방으로 도망쳐 와 립텐 칸의 통치하에 있던 많은 아이막에 대해 할하의 고관이 취한 입장이 모두 달랐다. 할하의 고관들 중에서 축트 타이지(Tsogt taiji, 1581~1637)는 립텐 칸의 투쟁에 대해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었다. 그는 립텐 칸과 연합하기 위해 후호 노르로 향하였지만 성공하지 못하였다.

할하와 옹니구드(Ongnigud) 땅은 멀지만 서로 아끼는 마음은 하나이다. ……  
어머니가 한 아들을 사랑하듯이 ……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 도우며 살자.

(1624년 축트 타이지가 바위에 새긴 시 중에서)

초기에는 만주(청)이 할하 몽골(외몽골)을 공격할 위험이 없었지만, 1644년에 명을 정복한 다음 곧이어 위험이 닥쳐 왔다. 당시 할하의 칸들은 만주와 우호 관계를 맺을 기회를 엿보며, 아울러 내부 통합을 강화하고 저항 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었다. 이



만주와 몽골(1636~1691년)

러한 사실은 당시에 시행한 정책과 문서 등에서 명확하게 엿볼 수 있다.

할하 측에서는 '서로 끊임없이 소식을 물으며, 정치와 종교의 중심이 되어 화평과 명예를 깨뜨리지 말고 지키자'라는 평화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다. 1639년에 할하의 왕공들은 시레 차간 노르(Shiree tsagaan nuur)라는 곳에서 회맹을 갖고, 투시에트한 고펜도르지의 다섯 살 난 아들, 자나바자르를 할하 몽골 황교의 수장으로 추대하였다. 이 사건으로 이호 후레, 오늘날의 울란바토르의 기초가 놓였다고 할 수 있다.

1640년에 타르바가타이에 있는 울란 보라(Ulaan buraa)라는 곳에서 할하, 오이라트, 후호 노르, 이질(불가) 강 유역의 토르구드(Torguud) 몽골인들을 비롯해서 28명의 고관들이 회맹을 가졌다. 그들은 시대 상황을 파악하고 '몽골·오이라트 법전'을 비준하였다. 이상의 여러 사건은 우연히 조직된 방책이 아니었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의 저편에 어떤 생각이 놓여 있었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 다른 한편 만주(청)은 할하와 우호적인 교류를 하려던 정책을 급격하게 변화시키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할하의 내부 사정에 간섭하기 위해 더 큰 압박과 제재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만주 칸이 할하 몽골에 사신을 보내 “너희가 우호적 관계를 원한다면 우리와 연합하여 맹세하고 정해진 양을 공납으로 바친 후 교역을 해도 된다. …… 만약에 우호 관계를 맺지 않고 조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공납을 바쳐도 받지 않을 것이며 우리에게 도망 오는 자들에게 상을 내려 흡수해 버리라는 명령을 내릴 것이다. 잘 생각하라”라고 압박을 가하였다.

(『만주 칸의 명에 의해 쓴 서북변경 안정 정책』 44권, 몽골국립도서관, 수고실)

1636년에 만주의 승덕제(崇德帝, 태종, 홍타이지, 아바하이 칸)는 할하 몽골에 명과 교역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칙령을 내렸다. 1638년에 만주 칸은 할하의 세 명의 칸에게 매년 ‘구백지공(九百之貢)’을 바칠 것을 명령하였다. 순치제(順治帝, 世祖, eye-iyer jasarči qayan)는 1647년에 할하의 사인 노안(한)의 큰할아버지인 승려 단잔(Danzan)이 보낸 사신을 일부러 특별히 호의적으로 맞아 주었다. 당시 할하 몽골과 오이라트는 통합을 위해 노력하였다.

40만 몽골과 4만 오이라트는 예전의 분열을 멈추고 통일하였다. …… 몽골과 오이라트는 적이 쳐들어 오면 서로 알려 준다. 그 말을 듣고 고관이 오지 않으면 갑옷 100벌, 낙타 100마리, 말 100마리를 갖는다. 대군의 적을 보고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자는 모두 죽인다. 적의 공격을 받고 대신(大臣)이 도망가면 갑옷 100벌, 낙타 100마리, 50호(戶), 1,000마리 말 떼를 갖는다. …… 누구든 이 나라를 분열시키고 나라와 백성을 괴롭히면 몽골과 오이라트 둘이 힘을 합하여 …… 결정하고, 몽골과 오이라트 들뿐만 아니라 변경의 소부족과 백성을 분열시키면 처결한다. 이 법전은 그 어느 누구도 어기지 못한다. 어긴 자는 누구라도 처형한다.

(『대법전』에서)

세철했던 솔로이와 투시에트한 고펜도르지는 정치적으로 불안하였던 시기인 1652년과 1655년에 각각 삶을 마감하였다. 그들의 후계는 노로브(Norov)와 차쿰도르지(Chakhundorj)가 각각 이어받았다. 할하의 새로운 칸들은 정치적으로 경험이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멀리 내다볼 줄 아는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적에게 유리한 기회를 주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이용당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할하의 칸들은 여러 차례 자기 아들이나 동생을 사신으로 보낼 것을 만주 칸에 요청하였으나 만주 칸은 예전에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 1655년에 투시에트한이 자기 동생들과 아들 차쿰도르지를 함께 만주 칸의 궁정에 파견한 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근시안적인 사건이었다. 17세기 후반부터 내부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자삭트한 아이막에서도 칸위 쟁탈전이 벌어졌고, 게다가 예속민들의 문제로 자삭트한과 투시에트한 사이에 불화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이 투쟁은 이후에 더욱 격화되어 할하의 서부와 중부, 오이라트 전체로 확산되어 갔다. 이때 만주인들은 ‘도움을 준다’는 명목으로 할하의 내부 사정에까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였고,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부단히 노력하였다. 1686년에 작 바이드라긴 후렌 벨치르(Zag baidragyn Khüren belchir)라는 곳에서 만주의 칸이 참석하여 할하의 서부와 동부를 화해시키는 회맹을 주재하였다. 이 회맹에서 양측이 화해하고 맹세를 하는 의식을 행하였다.

당시 사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북쪽의 노란 중국(러시아)이라고 불리는 나라의 황제는 정치가 안정된 대국이지만 불법(佛法)을 알지 못하고 의복의 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복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남쪽의 검은 중국(만주)의 군주는 정치가 안정되었으며 게다가 불법이 널리 퍼졌고, 특히 만주 칸의 재화는 하늘처럼 많기 때문

에 큰 공덕이 있다. 따라서 그쪽으로 향하면 정치가 안정되고 중생이 모두 안녕할 것이다.

(회맹에서 자나바자르가 말한 의견에서, 『몽골사』 4권, 2003, 118쪽)

그러나 몇 가지 이유에서 갈단 보식트(Galdan Boshigt)는 이 회맹의 결의에 대해 반대를 표명하였다. 할하 몽골을 정복하려는 만주는 교묘한 정책을 실시하였고, 갈단 보식트는 할하와 오이라트를 통합하려는 생각으로 ‘대법전’의 정신을 위반하면서까지 1688년에 군사를 이끌고 할하를 공격하였다. 갈단의 공격과 만주의 압박에 견디다 못한 할하의 왕공들은 1688년 9월에 아르 엘스테이(Ar elstei)라는 곳에서 회맹을 갖고, 할하의 운명을 결정짓는 문제를 논의하여 만주(청)에 복속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만주의 강희제는 1691년 5월에 돌노르(Dolnuur)에서 할하의 550여 왕공과 타이지들, 내몽골의 49호쇼의 영향력 있는 왕공들을 포함한 회맹을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이 회맹에서 할하 몽골이 만주(청)에 복속하였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였다. 이렇게 하여 할하 몽골인들은 만주의 지배하에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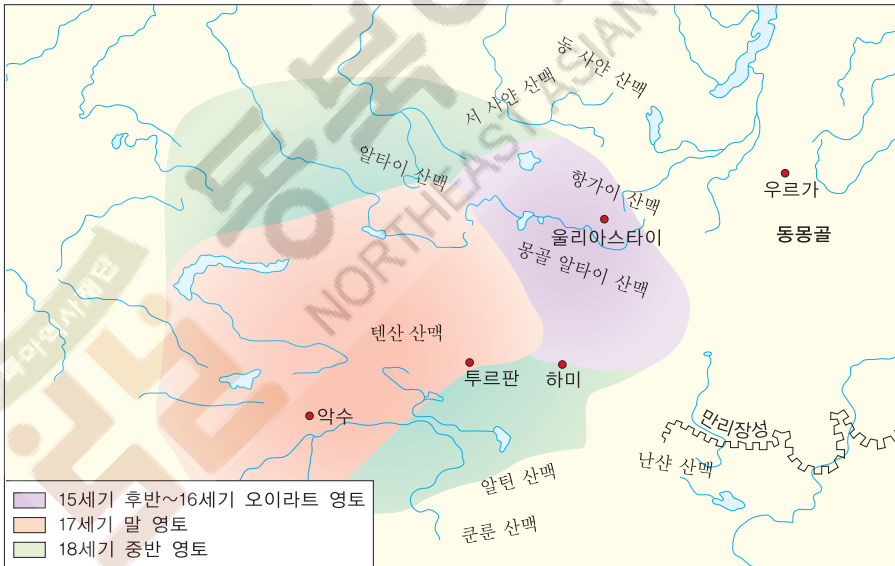
5월 초이틀(1691년 5월 29일)에 처음으로 강희제(康熙帝, 聖祖)의 은총을 바라며, 잠잔담바 호탁트가 할하의 칸, 지농, 노얀, 타이지 등 35명을 차례대로 알현할 수 있게 성지를 내린 것은…… 만약에 49호쇼의 많은 행정 자삭(zasag)들이 당신의 속민들을 공격하였다면 너희 할하는 곧 멸망하였을 것이다…… 내가 친히 가서 가르쳐…… 너희 신자들의 진심이 보이니 도와주어 은총을 내려 49호쇼의 예와 같이 내외를 막론하고 똑같이 어여뻐 여기는 것을 너희가 깨닫기를 바란다.

(갈단(Galdan), 『에르테닌 에리흐(Erdeniin erikh)』, 1960, 104~105쪽)

만주(청)은 할하를 정복한 후 몽골에서 유일하게 독립을 지키고 있던 준가르(Züüngar) 칸국으로 향하였다.

## ● 만주(청)에 정복된 오이라트 몽골(준가르 칸국)

17세기 초 오이라트 몽골인들은 내부적으로 통합과 분열을 거듭하여 안정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두르베드(Dörbed)는 이질 강 방면으로, 호쇼드는 후호 노르와 티베트 방면으로 이동해 갔다. 한편 고지에 남아 있던 오이라트 부족 중에는 초로스(Choros)부가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당시에는 오이라트 몽골인들의 권력자들을 포함한 회맹(會盟, chuulgan)이라는



준가르 칸국(15~18세기)



갈단 보식트 초상

독특한 권력 기관이 있었다. 17세기 초에 오이라트 회맹은 호쇼드의 바이바가스(Baibagas) 바아타르가 이끌고 있었으며, 그 뒤를 이어 초로스의 에르데니바아타르(Erdenibaatar, 1635~1654) 홍타이지가 지도하였다. 이때부터 오이라트의 좌익(左翼, züüngar ← jegün Yar)에 있는 초로스부의 고관들이 권력을 잡으면서 준가르 칸국의 기초를 놓았다. 에르데니바아타르 홍타이지는 내부적으로 평화롭고 통합된 상황을, 대외적으로는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중시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1640년에 ‘몽골·오이라트 법전’이 비준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다. 에르데니바아타르 홍타이지가 죽은 다음, 그의 자식들 사이에서 칸위를 차지하려는 싸움이 벌어졌다. 결국 10여 년 동안 티베트에서 불교에 귀의하여 훌륭한 승려가 되었던 아들 갈단(Galdan)이 계율을 파기하고 돌아와, 1671년에 칸위에 앉았다.

그는 1676년에 오이라트 몽골인들을 모두 통합하고 준가르 칸국을 통일된 강력한 국가로 만들었다. 갈단은 중앙아시아에서 강력한 영향력과 권위를 갖게 되었다. 갈단 보식트가 원칙으로 삼은 것은 ‘대법전(Ikh tsaaz ← yeke čaYaja)’의 정신을 실현하여 전 몽골을 통일시키고 만주의 침략에 대항해 투쟁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할하의 왕공들은 서로 분열되었고, 만주 칸은 그 분열 상황을 이용하여 할하의 내정에 간섭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기 때문에, 평화적인 방법으로 정책을 실행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갈단이 1688년에 군대를 조직해 할하를 공격하자 할하의 왕공들은 도망치듯이 만주에 스스로 복종함으로써, 할하 땅은 갈단의 수중에 들어왔고, 그의 투쟁은 곧바로 만주와 얼굴을 맞대게 되었다. 그는 투시에트한 차쿰도르지, 운두르 계겐 지나마자



청군과 갈단군의 전투

르 등을 뒤쫓아 내몽골 땅으로 쳐들어가 울란 보탕(Ulaan butan)이라는 곳에서 만주 군대와 접전을 벌이다가 포위되었다. 그러나 갈단 보식트는 적의 주력 부대가 도착하기 전에, 만주 군대의 지휘관과 우호 조약을 체결하고는 거짓 맹세를 하고 포위망을 벗어나 군대를 이끌고 무사히 빠져나왔다. 갈단 보식트를 놓쳤음을 깨달은 만주 칸은 크게 노하여 대군을 준비해서, 이번에는 자신이 군대를 이끌고 할하 땅을 해방시킨다는 명목으로 갈단을 제거하려고 하였다.

만주의 강희제(康熙帝, engke amuɣulangtu qaɣan)는 갈단에 대항해 전쟁을 준비하면서, 갈단 주위의 연합 세력을 하나하나 분리시켜 고립시킨 후에 공격한다는 작전을 세웠다. 이와 함께 준가르 칸국과 이웃한 나라와 우호 관



몽골국(1720~1730년대)

계를 맺기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이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였다. 만주 칸은 갈단을 군사력으로 정복하기 위해 1690년과 1696년에 대군으로 공격해 격렬한 전투를 벌였다. 갈단 보식트는 국력이 약화되기는 하였지만, 독립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만주에 대해 투쟁하였다. 적들의 침략을 막고 자유를 지키려는 애국적인 투쟁으로 공격을 선양한 격렬한 전투가 테렐지의 존 모드에서 벌어졌던 것에 대해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다.

갈단은 전력을 가다듬고 끈질기게 저항하였지만, 결국 만주 대군에게 패배하여 1697년 3월 13일 아츠 암트테이(Ats Amttai)라는 곳에서 적에게 사로잡힐 위험에 처하자 스스로 목숨을 버렸다.

갈단의 시신을 찾아 큰 길에 내걸고 그 자식들을 잡아 약탈과 혼란이 영원히 멈췄다. 분열된 변경이 이주 평온해졌다. 이로써 후호 노르가 복속되었고, 하미 왕국도 공납을 바치게 되었다. 서쪽의 변경까지 모두가 중국의 문화를 흠모하게 되었다. 진실로 한(漢), 당(唐), 송(宋)이 복속시키지 못하였던 나라까지도 정복하였다. …… 큰 공격을 세웠다. …… 이것이 첫 번째 공격이다.

(『몽골사』 4권, 2003, 144쪽, 만주 강희제의 칙령)

만주인들은 갈단을 진압한 다음, 준가르 칸국을 정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들은 준가르 칸국의 내부 통합을 분열시키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준가르 칸국의 통치권을 장악하고 있던 체웡랍단(Tseveenrabdan, 1697~1727)과 갈단체렝(Galdantseren, 1727~1745) 칸은 강력한 대응 정책과 저항으로 그런 기회를 내주지 않았다. 준가르 칸국의 칸들은 후호 노르, 티베트, 하미, 할하를 회유하기 위해 강력한 투쟁을 계속하였다. 그들 중에 과연 누가 중앙아시아를 지배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두가 서로 전력을 다해 투쟁하였다. 준가르 칸국은 국력을 다해 만주의 강력한 공격을 막아냈다. 만주 대군은 준가르 칸국에 대해 몇 차례 공격을 시도하였지만 성공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어떤 때는 대패를 당하는 치욕을 맛보기도 하였다. 그런 역사적인 전투가 1731년, 1732년에 후렘트(Khüremt), 호통 노르(Khoton nuur) 등에서 벌어졌다. 갈단체렝 칸은 만주에 대항하여 여러 차례 전투를 치른 끝에 1739년에 만주와 협정을 맺어 양국 간의 국경을 획정하였다.

그러나 만주의 건륭제(乾隆帝, ngri-yin tetgegsen qa'yan, 1736~1795)는 준가르 칸국을 정복하려는 의도를 결코 버리지도 포기하지도 않았다. 다만 적당한 때가 오기를 기다리며 모든 방면의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갈단체렝 칸이 세상을 뜨자 준가르 칸국에는 칸위 쟁탈전이 일어나 이전의 강력한 통합 상황이 깨졌다. 이때 만주 칸은 내몽골과 할하에서 군대와 물자, 보급품을 공급받아 대군을 집결시켜 준비한 후, 1755년 3월에 북로 3만, 서로 2만, 모두 5만 명의 군대로 준가르 칸국을 공격하였다. 만주의 대군은 내몽골의 만디(Bandi) 장군이 지휘하였다.

준가르 칸국 최후의 칸 다와치(Davaach)는 1755년 6월에 7천여 명의 군대를 이끌고 하신 노르(Khashin nuur) 근처에서 싸웠지만 우세한 적의 군사

력에 포위되어 패배하고 말았다. 오래 지나지 않아 1755년 7월, 다와치를 사로잡아 북경으로 송환함으로써 준가르의 영토는 만주의 군대가 장악하였다. 이렇게 하여 몽골은 모두 만주의 통치하에 들어갔다. 만주 조정은 준가르 칸국을 정복하고 예전과 마찬가지로 그들을 분산시켜 통치하기 위해 여러 호쇼, 솜 등으로 나누어 통치하였다. 건륭제는 준가르 칸국을 정복한 후 준가르 군대를 해산시키고, 1755년 9~10월에 돌노르에서 준가르가 만주 제국의 구성원이 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 성대한 연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예상치 못한 사건이 갑자기 일어났다.

## ○ 만주(청)에 저항한 몽골인들의 투쟁

### 1755~1758년의 무장 봉기

준가르 칸국이 만주에 정복되자 전체 몽골인들은 나라를 잃게 되었다.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 몽골인들에게는 자유와 독립을 위해 감히 일어나 투쟁할지, 아니면 지배를 받아들일지를 선택해야 하는 길만 남아 있었다. 몽골인들은 조국의 영토와 자유 그리고 나라를 되찾기 위해 만주의 지배에 저항하는 투쟁 노선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예가 1755년부터 1758년에 발생한 무장 봉기이다. 이 무장 봉기는 오이라트의 아마르사나(Amarsanaa), 할하(호트고이드)의 칭군잡(Chingünjab) 등이 조직하여 지도하였다. 또한 내몽골의 셉덴발지르(Sevdenbaljir) 등 일부 왕공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다. 그들은 준가르를 정복하기 위한 대군에 소속되어 원정을 가던 중 가을에 준가르, 할하, 내몽골에서 만주에 대항하는 봉기를 동시에 일으켜 대몽골 제국을 다시 세울 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만주 조정은 첩자들과 일부 배신자들에게서 이 정보를 입

수하여 반란 세력을 진압할 방도를 강구해 놓은 상태였다.

만주 조정은 칭군잡에게 한 하탕 골(Khan Khatan gol)의 텔렝게드(Telenged) 부족을 정복하는 임무를 부여한다면서, 셉텐발지르에게는 반란의 경과에 대해 조언해 주겠다고 북경으로 불러들여 칭군잡과 셉텐발지르의 관직을 박탈하고 가내에 감금해 버렸다. 게다가 아마르사나 또한 ‘반란 경과를 설명해 주겠다’고 북경으로 급히 불러들였다. 아마르사나는 황제를 알현하러 간다며 출발한 후 알타이 산맥 너머 우룽구(Öröngö) 강에 도착하자마자 근위군 300여 명을 이끌고 1755년 9월 24일 반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해서 1755~1758년에 걸친 독립을 위한 몽골인들의 무장 봉기가 시작되었다. 아마르사나의 지휘하에 오이라트는 모두 무장 봉기하여 만주군 부대와 분대를 여기저기 할것없이 공격하여 영향 범위를 계속 확대해 나갔다. 오이라트 몽골에서 독립을 위한 무장 봉기가 확산되자 만주의 조정 대신들은 크게 동요하였다. 만주 칸은 다시 잘라푹가(Jalafungaa)의 지휘하에 두 부대를 조직하여 파견하였다. 만주는 대군의 지휘관을 여러 차례 교체하면서까지 공격하였지만 무장 봉기를 진압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결국 무장 봉기 세력은 내부 단결과 세력을 통합하지 못하여 패배하고 말았다. 1757년 6월 30일에 샤르벨(Sharbel)이라는 곳에서 아마르사나와 만주 대군의 장군, 할하의 칭군잡(Tsengünjav) 사이에 결정적인 전투가 벌어졌다. 이 전투에서 아마르사나는 몇 배나 되는 대군을 이기지 못하고 패배하여 소수의 병력과 함께 러시아 방면으로 도망갔다. 1757~1758년 내내 갈상도르지(Galsandorj), 자나가라브(Zanagarav), 남(Nyam) 등이 봉기 세력을 지휘하였다. 그렇지만 만주군대는 그들을 차례대로 격파하여 오이라트 몽골의 독립을 위한 무장 투쟁을 진압하였다. 건륭제는 강력한 저항에 분노하여 오이라트 몽골인을 참살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 결과 오이라트 몽골인은 셋 중에 둘이 참사를 당하여

아주 작은 규모의 부족으로 약화되었다. 준가르 지방에서 봉기 투쟁이 확산 되는 한편, 준가르에 대항해 동원되어 열심히 싸웠던 할하 몽골인 사이에서도 만주의 침략에 대항하는 투쟁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1756년 4월에 제2대 쩡준담바 호탁트(Jevzündamba khutagt)의 형 린친도르지(Rinchindorj)를 아마르사나의 행위와 관련하여 처형시키자 할하 귀족 왕공의 불만이 한층 고조되었다. 1756년 6~7월에 만주 대군의 직책을 맡고 임무를 수행하려 갔던 호트고이드의 근왕(shadar van) 칭군잡은 전쟁터를 벗어나 봉기를 일으켰다. 또한 투시에트한 암필도르지(Yampildorj), 자삭트한 발디르(Baldir), 세첸한 마니바다르(Manibadar), 사인노안한 뎬치잡(Demchigjav), 다미란 궁(Damiran güng) 등의 왕공들은 만주 관직을 버리고 각각 자신의 영지로 돌아가 버렸다. 칭군잡 등은 할하의 유력한 왕공들에게 사람을 보내 만주 관직을 버리고 만주에 대항해 봉기할 것을 호소하는 비밀 문서를 전달하였다. 할하 몽골인들은 만주의 역참, 초병, 가축 무리 감시, 군대 의무 등을 모두 벗어던지고 여기저기서 일어나 수십에서 수백 명씩 봉기군을 조직하기 시작하였다.

만주 칸은 울드 몽골인들과 전쟁을 고집하여 군사와 무기를 준비시켜 할하 몽골인들을 괴롭히고 말 등 동물을 차출할 뿐만 아니라 갖가지 부담을 지웠으며, 칭기스 칸 혈통의 왕 린친도르지를 처형하고 백성들을 무고하게 죽였기 때문에 우리 몽골인들은 힘을 합쳐 곧바로 만주 칸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야 한다. 만약에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군사로 할하 몽골인들을 보호해야 한다.

(칭군잡의 편지에서, 『몽골사』 4권, 2003, 152쪽)

봉기군은 만주의 진압군과 탐욕스러운 한족 상인들이 살고 있는 도시 지

역은 물론 일부 배신한 왕공과 고관도 공격하였다. 그러나 봉기 세력은 연합된 조직이나 지도자 없이 개별적이고 산발적으로 투쟁하였기 때문에 눈에 띄는 명백한 성공을 거두지는 못하였다. 만주 조정은 할하 전역으로 확산되는 독립 투쟁을 진압하는 임무를 주(駐)올리아스타이 장군 친왕(親王) 칭군잡에게 부여하였다. 1756년 11월에 그는 수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칭군잡을 공격하였다. 이때 만주의 대군이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에 일부 왕공들은 군사를 데리고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내부적으로 의견이 분분하였기 때문에 칭군잡의 군사력은 크게 약화되었다. 칭군잡은 만주 군대의 공격을 받아 시시게드 골(Shishiged gol)로 후퇴하여 러시아 방면으로 도망갔지만 1757년 초 만주 군대에 사로잡혔다. 그는 가족과 함께 북경으로 보내져 1757년 3월 11일에 잔인하게 처형되었다. 또한 무장 봉기에 참여하거나 우호적으로 후원한 자들도 사형에 처하는 등 가혹하게 처벌하였다. 처형당한 사람의 머리를 여러 사람이 다니는 길에 있는 기둥에 매달아 놓았다. 그렇게 1755년부터 1758년에 걸쳐 일어난 아마르사나와 칭군잡 등이 이끄는 독립 무장 봉기가 진압되었지만, 이를 통해 교훈을 얻고 나라를 잃은 서글픔과 독립을 위한 선조들의 기개를 몽골 역사에서는 되새겨 왔던 것이다. 몽골에는 이 역사적인 사건과 관련된 많은 전설과 노래, 작품 등이 있다.



---

# 02

---

## 만주(청) 통치하의 몽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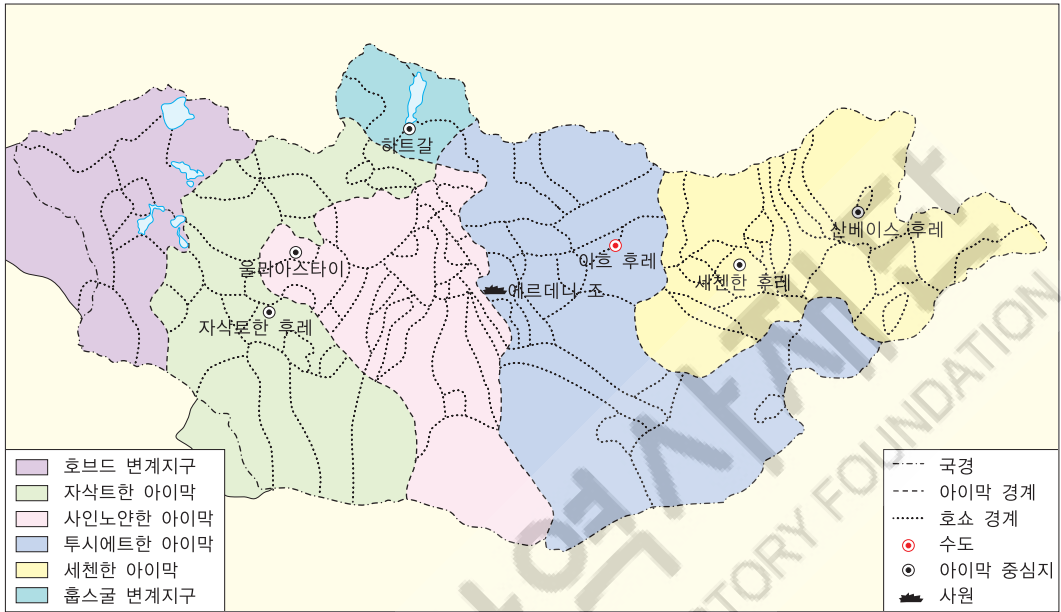
몽골인들은 만주의 지배를 받으면서 정책을 독립적으로 시행할 수 없게 되었고, 몽골 영토와 백성의 군주는 바로 만주의 칸이 되었다. 몽골인들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게 되었다.

“몽골인들은 부족이 많으며 매우 옹맹하다. 나는 온화하고 자애로운 모습으로 그들을 달래어 훈육하고, 왕조의 위엄으로 그들을 견제하려고 한다. 이와 함께 인애를 베풀어 마음을 얻은 후에 차츰 그들을 포섭하려 한다. …… 이는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드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만주 칸 강희제의 말)

---

### ● 몽골에 설치한 만주(청)의 행정 조직

청은 몽골을 정복하고 나서 그들을 소규모로 나누어 지배하려는 방향으로 행정 조직을 개편하였다. 청 황제는 몽골인을 통치하에 장악하고 몽골에 정책을 실행할 목적으로 ‘외몽골 통치기관[理藩院]’을 설치하였다. 이 기관은 ‘몽고율례(蒙古律例)’, ‘이번원칙례(理藩院則例)’를 비준 반포하여 몽골인을 강력하게 통치하는 정책을 법제화하였다. 외몽골에서 만주 통치를 실행하고 몽골인을 지배하는 권력 기관은 울리아스타이에 있는 만주 장군, 후레(Khüree, 庫倫)와 호브드 주재 만주 암반(amban, 總督) 등이었다. 만주의 장군과 대신들의 직접 지배하에서 아이막의 출간(chuulgan, 盟)이 행정 업무를



만주(청) 지배기의 외몽골 지도(1760~1911년)

수행하였다. 내몽골과 외몽골에는 모두 6맹이 있었다. 1725년에 사인노안한 아이막을 추가로 건립함으로써 할하는 네 개의 아이막이 되었다. 각 맹에는 맹장(chuulgan-u darga, 盟長) 한 명과 2~3명의 부(副)맹장(ded chuulgan-u darga)이 있었다. 각 맹은 3년마다 한 번 회맹(會盟)하여 업무를 토의한다. 각 아이막에는 ‘부장군(副將軍, tuslagch jangjin)’이 있었으며 해당 아이막의 군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청에서는 몽골을 자삭 호쇼(zasag khoshuu, 札薩克旗), 중심 호쇼(bügdiin dargyn khoshuu)라는 두 가지로 나누어 호쇼를 설치하였다.

또한 전체 몽골의 호쇼를 내(dotood), 외(gadaad), 자삭 호쇼(zasag khoshuu)로 나누기도 하였다. 내몽골의 6맹 49호쇼를 내기(內旗), 할하의

86, 호브드의 30, 일리의 13, 후호 노르의 29, 에즈네(Eznee), 알라샤(Alshaa) 호쇼는 외기(外旗)로 불린다. 호쇼는 행정 관료(zasag noyon)가 통치하며 해당 호쇼의 모든 업무를 주재한다. 각 호쇼의 행정 기관에는 보좌관(tuslakh tūshmel), 행정관(zakhiragch, 管旗), 메이렝(meiren, 梅倫), 잘란(zalan, 扎蘭), 비체치(bicheech), 타하르(takhar) 등의 관원들이 업무를 수행하였다. 각 호쇼는 하위에 솜(sum), 박(bag)이라는 행정 조직으로 나뉜다. 법적으로 150명의 군사를 낼 수 있는 규모를 하나의 솜으로 설치하였으며, 150명을 내지 못하면 혼도고 솜(khondogo sum)을 설치하였다. 솜은 솜의 장기(sumiin zangi, 佐領)가 다스린다. 1723년에 종교와 승려 업무를 담당하는 산조드바(Shanzudba) 관청을 설치하였다. 복드 쥬준담바와 호탁트에 예속된 사비들의 행정 통치의 기본 단위가 오투(otog)이다. 오투은 박(bag)과

관직에 따른 녹봉과 노복의 수

고관의 관직	1년 녹봉	소유 노복 수
호르친 조릭투, 투시에트, 다르한 친왕(親王)들, 몽골 칸들	2,500냥, 비단 40필	60
친왕들	2,000냥, 25필	
호르친 자작 준왕(準王)	1,500냥, 20필	50
준왕들	1,200냥, 15필	
베일[貝勒]	800냥, 13필	40
베이스[貝子]	500냥, 10필	35
투시에 공[輔國公]	300냥, 9필	30
토슬락치 공[輔佐公]	200냥, 7필	
타이지, 타브낭(1, 2, 3, 4등)	100냥(100, 80, 60, 40냥), 4필	15, 12, 8, 4

아르반(arvan, 十戶)으로 나뉜다. 이렇게 만주인들은 몽골인들을 통치하에 장악하고 많은 아이막, 호쇼, 슴으로 분할하여 나누어 통치하는 데 몽골 왕궁을 이용하였다. 그들에게 다양한 위계의 관직과 봉록, 명확한 권리 등을 주어 청에 충성을 바치게 하였다. 이들은 청의 법률에 반영하여 완성하였다.

## ● 몽골인들이 청에 바친 공납

만주(청) 통치 시기에 몽골인들은 사회적으로 몇 개의 커다란 계층으로 분화되었다. 청은 18~60세의 모든 몽골 남자들을 군적(軍籍)에 올려 다양한 형태의 무거운 공납(alba)을 바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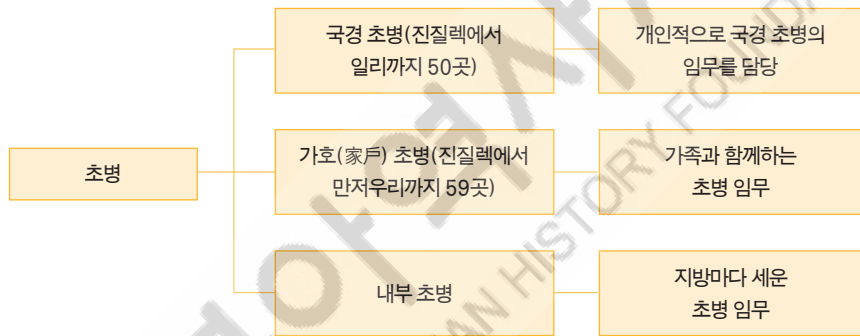
몽골인들은 청에 구백지공(九白之貢), 관례에 따라 북경에 갈 것, 가축 무리를 돌볼 것, 곡식, 모피, 특산품, 군사, 초병, 역참, 독경, 행정 교통비, 용품 등 다양한 공납을 바쳐야 하였다. 그중에서 가장 힘든 것은 ‘역참역(驛站役)’이었다. 청의 사신과 관리, 공문서 등을 신속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군사적으로 배치한 역말을 ‘급편 역참(buukhia örtöö)’이라고 한다. 북경에서 내몽골, 외몽골, 서몽골 지방까지 연결된 이 급편 역참은 역참이 지나가는 땅을 관리, 통치하는 대신들이 책임졌다.

5~10개의 역참을 한 명의 행정관이, 하나의 역참에는 5~30호가 공납 의무를 졌다.

만주 장군, 대신, 아이막, 호쇼 사이를 연결한 지방 역참은 소만 우르투(suman örtöö)라고 한다. 역참의 공납은 해당 호쇼의 백성들이 노동과 금전으로 바친다. 몽골인들이 빠짐없이 모두 바쳐야 하였던 힘든 공납은 초병역(哨兵役)이었다. 러시아와 만주 사이에 1727년에 체결한 부렌스키(Bürensky) 조



청 지배기 몽골인의 계층 분화



청에 바치는 공납 초병역

약으로 북쪽 국경을 상세히 확정하고 초병을 설치하였다.

당시의 상황으로 숨의 초병 한 명은 1년에 40냥, 행정 관리와 타이지 등은 각각 50냥, 근무병은 10냥에 해당하는 경비를 사용하였다. 19세기 말에 가호(家戶) 초병의 1년 경비는 당시 액수로 15만 냥의 은과 동일하였다.

몽골 땅에 설치된 장군과 대신 행정 기관, 아이막의 출간 등의 사용 경비 는 해당 지역의 몽골인들이 담당하였다. 예를 들면, 19세기 말~20세기 초 에 울리아스타이 장군의 경호와 군비에 할하의 네 아이막에서 파견한 170명 의 군대가 주둔하였으며, 한 명의 관리가 그들을 다스렸으며, 경계병 한 명의 1년 경비가 100냥 정도였다. 또한 울리아스타이 장군의 다양한 공납 의무를

지기 위해 ‘특별 역참역(tus-gai örtöö)’을 담당하는 40호, 안내를 담당하는 13호가 항시 임무를 수행하였다. 만주인들은 호브드의 군사비를 조달하기 위해 몽골인들에게 농경 공납도 바치게 하였다. 사료에 따르면 20세기 초에 호브드에 2백호의 농가, 그들을 통치



17~20세기의 외몽골

하는 7명의 관리와 7명의 근무병이 있었으며 이들의 1년 경비는 7,000냥 정도였다고 한다. 몽골인들은 아브가(Avga), 수누드(Sönöd), 다리강가(Dariganga), 일리(ili)에 있는 만주 칸의 목장 및 각지에 있던 공마군(公馬群)을 돌보는 임무도 수행해야만 하였다. 몽골인들은 만주의 공납 이외에도 지방 관리들에게 노동력과 물품이라는 두 가지 형태로 다양한 공납을 바쳤다.

## ● 종교와 사원의 영향력 확대

이 시기에 큰 특징적인 현상은 몽골에 불교의 영향력이 더욱 커진 것이다. 17세기부터 몽골과 만주의 통치자들은 각각 자신들의 목적으로 불교를 후원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청의 경우, 이는 몽골인을 지배하에 넣고 강력하게 통치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도구였다. 청 황제는 사원을 건축하고 불교 경전을 티베트에서 몽골어로 번역하여 목판 인쇄를 하여 보급하고 불교의 수장들을 베이징에 초빙하여 감시 감독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는 등 다양한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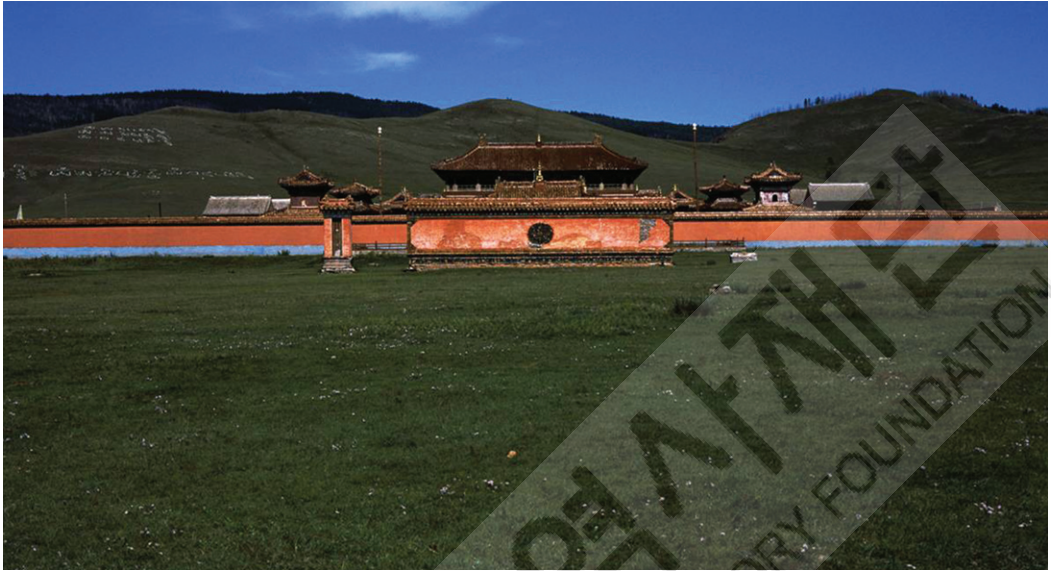
을 실시하였다. 강희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몽골인들은 부족이 많으며 매우 용맹하다. 나는 온화하고 자애로운 모습으로 그들을 달래어 훈육하고, 왕조의 위엄으로 그들을 견제하려고 한다. 이와 함께 인애를 베풀어 마음을 얻은 후에 차츰 그들을 포섭하려 한다. 나는 그들의 요구에 근거하여 칙령을 내려 사원 하나를 건립함과 동시에 49자삭 호쇼, 할하 자삭, 오이라트 자삭에서 승려를 각각 1명씩 불러 모두 120명을 이 사원(Amarbayasgalant khiid)에 주재시키겠다. 또한 불교를 통합한 것과 마찬가지로 멀리 떨어진 곳에도 사람을 보내 모두 이 사원에 모아 종교 규율을 범제화하겠다. 이는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드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만주 지배기의 몽골』, 2004, 57쪽)

만주인들은 제3대 복드 첩준담바 호탁트부터 시작해서 그의 전세(轉世)를 몽골인이 아닌 티베트인 중에서 찾게 하였다. 몽골의 사원들은 독자적인 조직 체계를 갖추고 위대한 호탁트들은 예하의 샤비들을 소유하며 행정 업무도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샤비들의 수가 끊임없이 늘자 그들의 영향력도 강화되었다. 19세기 말에 전체 몽골인 남자 중에서 3분의 1이 승려였으며, 외몽골에만 해도 10만 명 정도의 승려가 있었다. 외몽골에는 940여 개, 내몽골에는 1,800여 개 정도의 사원(寺院)과 도량(道場)이 있었다. 이흐 샤비(Ikh shavi)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임무를 지닌 에르테네 산조드바(Erdene Shanzudba)에 1832년부터 아이막, 출간 등과 마찬가지로 권력을 부여하였다.

『이번원칙례(理藩院則例)』 제5권, 107조에 종교, 사원과 관련된 조항이 들어 있다. 몽골의 사원마다 만주의 법률 범위 내에서 독자적인 내규를 갖고



불교 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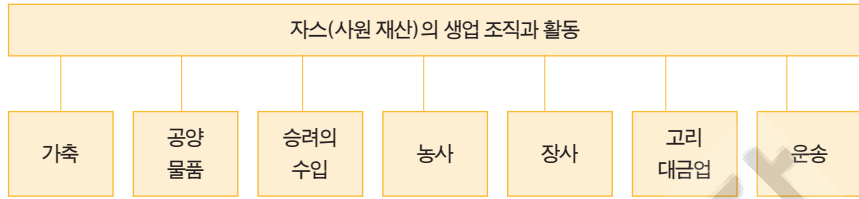
있었다. 만주인들은 승려에게 특별한 권리를 부여해 주었다. 종교가 널리 확산되고 사원 수가 점점 늘면서 독자적인 재산과 생업을 갖게 되었는데 그것을 자스(jas, 사원 재산)라고 한다.

종교와 사원이 흥성함으로써 몽골의 사회 생활에 깊은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긍정적, 부정적으로 다양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 ● 대외 교역과 고리 대금업

### 한족(漢族) 상업

청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한족 상인들이 몽골에 발을 들여 놓을 수 있는 문이 열렸다. 외몽골에는 갈탄에 대항한 만주



불교 사원의 활동

군의 전쟁으로 처음으로 한족 상인들이 들어오게 되었다. 청에서는 17세기 말부터 19세기까지 한족 상인들과 백성들이 몽골 땅으로 대량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다. 이것은 몽골인들을 만주 지배 세력의 연합 세력으로 만들어 지탱하기 위해 감시병으로 활용하고, 경제 발전을 억제시켜 반항 투쟁이 일어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몽골을 정치 경제적인 근거지로 남아 있게 하려는 이유와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한족들의 상업 활동을 강력하게 규제하지 않아 매년 그 영향력이 확산되었다.

한편 19세기 초 이후 청은 통제 정책을 바꿨다. 이것은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이것을 당시 세계의 발전 방향, 러시아의 영향력, 청의 내부 상황 등과 연관시켜 설명할 수 있다. 외몽골에는 한족들의 크고 작은 상점이 수백 개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이 다싱 후(Daashinkhüü, 大盛魁), 원센다(Arshaan), 탄이테(Nast)의 상점(püüs) 등이었다. 중국 상인들은 물건과 돈을 몽골인에게 연 36%의 이자로 빌려 주고 3년 내에 빚을 다 갚도록 강제하였다. 그러나 몽골인들은 빚을 제때에 갚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그 기간에 늘어난 이자를 더해 기간을 다시 3년 더 연장하였다. 이렇게 이자에 이자를 붙이는 고리 대금업이 성행하였다. 당시 백성 사이에 “양 한 마리에는 가축 세 장이 있다”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한족 상인들이 18세기에는 주로 소매업을 하였다면 19세기에는 도매

업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비용이 줄고 유통이 빨리 이루어져 한족들의 수입은 증가하였다. 이 이유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라.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까지 이흐 후레에 중국 상인의 수는 20배 이상 증가하였다. 20세기 초에는 몽골 땅에 중국 상인들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었다. 청에 다양한 공납을 바치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막과 호쇼들은 어쩔 수 없이 한인 상점과 ‘공생 관계’를 맺어 별도의 계약을 하고 모든 필요한 물건을 독점하게 해주었다. 이로써 공공 채무가 생겨났다. 한족 상인들은 몽골에서 큰 이익을 거두어 그 자본력으로 몽골의 자연 자원을 파괴하기 시작하였다. 당시의 상황은 다음 사료에서 잘 알 수 있다.

우리 장사꾼들은 몽골인들을 마음대로 이용한다. 당신들은 몽골인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보이지 않는가? 그들은 모두 어린애 같다. 가게 접포에 들르면 보는 것마다 다 사려고 한다. 돈이 모자라면 우리가 도와준다. 우리가 그들에게 물건을 외상으로 주면 나중에 그들은 더 큰 돈을 치러야 한다. 그렇게 해서만도 30~40%의 이익을 얻는다. 이것은 합법적인 일이다. 조금씩 이자가 늘어나서 이자에 이자가 붙는다. 우리는 그것을 또 받는다. 이런 것은 오직 몽골인에게만 가능한 일이다. 매년 우리는 몽골 땅 구석구석 돌면서 빗을 채취하여 소, 양, 말, 낙타 등을 빗 대신에 받아 온다. 이것은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큰 이익이다. 우리는 이렇게 헐값으로 받은 가축을 시장에서 가장 비싸게 되판다. 아! 몽골 사람들의 빗이란 이렇게 좋은 것인가? 정말 보물 상자라니까!

(1844년에 몽골을 여행한 프랑스 여행가 E. R. Ruch에게 중국 상인이 한 말)

1784년에 처음으로 후레에 러시아 상점이 문을 열었지만 크게 발전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19세기 후반부터 몽골에는 러시아와 다른 나라 상인들

이 들어와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당시 역사 발전의 흐름과 관련이 있다. 러시아는 여러 차례 청과 조약을 맺고 국경에서 교역할 권리와 기타 권리를 획득하였다. 이에 따라 1861년에 이흐 후레에 러시아 영사관이 설치되었다. 이때부터 외몽골에는 러시아의 상업 활동이 크게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대부분 비이스크(Biisk), 카흐타(Kyakhta)를 통해 몽골에 들어왔다. 러시아 상품들은 중국 것보다 품질이 훨씬 좋았다. 1861년 러시아와 몽골 간의 교역량은 10만 루블 정도였는데, 1900년에는 1690만 루블까지 증가하였다. 외몽골에서 러시아의 상업은 주로 서부와 북부 지역에서 더욱 발전하였다.

러시아의 소상공인들은 …… 몽골 땅에서 …… 어떤 아이막이라도 관세를 내지 않고 상업 활동을 할 권리가 있다. …… 상인들은 자기 성명과 물품 명세서, 품질, 짐 꾸러미, 낙타, 소, 말 등의 두수를 적은 (러시아, 중국, 몽골 문자로 된) 증서를 국경 사무처 예하에서 받기만 하면 된다. …… 몽골 주재 러시아 영사관은 상인들이 증서 없이 장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엄격하게 관리한다.

(러시아와 청 사이에 1862년 북경에서 체결한 상업조약 2조에서)

그뿐만 아니라 외몽골, 내몽골에는 러시아 이외에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 등 여러 나라의 20여 개의 상점과 회사들이 활동하고 있었다. 외국 상인의 활동은 몽골인들의 사회 생활에 적지않은 영향을 끼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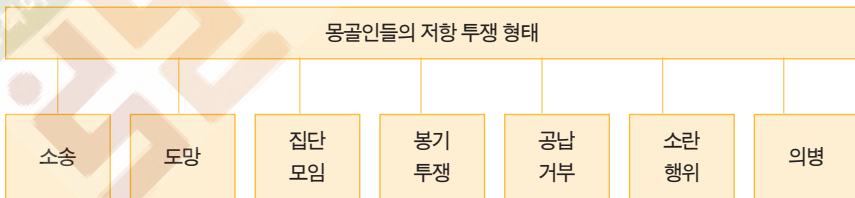
## ● 몽골인의 저항과 투쟁

만주의 지배하에서 억압과 착취가 심해지면서 생활이 피폐해질수록 백성들 사이에서는 반항과 투쟁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였다. 투쟁 움직임이 빈번해지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졌다. 저항 투쟁은 만주의 공납과 한족들의 밭과 착취, 고관 대작들의 공납에 대항해 일어난 것이다.

우리 아이막 소속 자사와 관리들은 우리 알바투(albatu[屬民])를 전혀 생각해주지 않으며, 많은 공납을 바치게 하고 고관 한두 사람만 잘살기를 생각합니다. 이유 없이 많은 공납으로 괴롭혀 수많은 백성들이 살 수 없게 되어, 저희는 굶기를 밥 먹듯 하며 넘어지고 깨지고 도망가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세첸한(Setsen khan) 아이막의 자사 체텡도르지(Tsedevdorj) 호소의 백성들이 올린 소송문에서)

건륭제는 특별 칙령을 내려 “상관과 소송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저항 투쟁을 멈출 수는 없었다. 투쟁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는 소송 투쟁이었다. 만주 지배기에는 크고 작은 소송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였



몽골인들의 저항 투쟁 형태



청 지배기 고문 장면

다. 1866년에는 내몽골 오르도스 호쇼에서, 1903년에는 자삭트한 아이막의 체첵 노르(Tsetseg nuur)에서 아요시(Ayushi)가 도고일랑(duguilan, 多歸輪, 獨貴龍)을 조직하여 투쟁하였다. 청의 정책에 반대하는 몽골인들의 봉기 운동도 확산되었다. 1880년에는 사인노안(Sain noyan)한 아이막의 오늘날트(Onolt)가 지도한 봉기, 1890년대에는 호브드 변경 지역의 무장 봉기, 1900년에는 올리아스타이의 엔흐타이왕(Enkhtaivan)이 이끄는 봉기가 발생하였다. 내몽골에서도 바이링가(Bailingga), 토흘(Tokhom), 담필(Dampil), 톡토흐(Togtokh), 축달라이(Tsogdalai) 등이 이끄는 봉기가 일어나는 등 19세기 중반 이후

확산되었다.

자삭트한, 사인노안 아이막의 군사 2,000명이 올리아스타이 옆에 있는 남시르(Namshir)라는 산기슭에 주둔하고 있었다. …… 그날밤은 달이 밝았다. 올리아스타이의 상긴 호트(Sangiin khot)의 부근에서 큰 소리가 났다. 공격을 개시한 몽골군은 상긴 호트에 도착하여 올리아스타이 장군의 호위병들과 합류하여 공격을 개시하였다. …… 몽골군이 공격을 개시하자 올리아스타이 장군은 겁을 먹고 도망가서 올리아스타이 시의 서북쪽 산으로 숨어 버렸다. …… 공격한 군사들은 각각 자신의 고향 아이막, 호쇼로 되돌아갔다.

(『몽골국 자치 정부 시기의 사실을 기록한 역사책』, 1960, 13~15쪽)

일반 백성들의 투쟁 움직임이 모두 목적을 이루거나 성공하지는 못하였지만, 어떤 때는 주의를 기울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청은 소송 투쟁을 강력하게 금지시키고 다양한 중형으로 처벌하였다. 그렇지만 저항 투쟁은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20세기를 맞았다. 이러한 투쟁의 역사가 몽골인에게 어떤 역사적 교훈을 남겼는가?





---

# 03

---

## 17~20세기 초의 몽골 문화

“검은 귀짝에는 보물이 있고, 절름발이 노인에게는 지혜가 있다.” (담딘수렌(Ts. Damdinsüren))

17~20세기 몽골인들은 이민족에 예속되어 문화 발전을 이루어야 하는 특수한 환경과 분위기 속에 살고 있었다. 이 시기에 만주, 몽골, 중국, 티베트, 호통(Khoton, 투르크·위구르)이라는 다섯 민족이 하나의 통치하에 들어, 청을 구성하고 있었다. 몽골인들이 200여 년 동안 이민족의 통치하에 살았던 이 시기에 만주와 중국의 영향을 얼마나 받았는가, 정말 ‘뒤집힌 술에 들어 있는 것처럼 암흑 속에서 낙후되었고’, ‘쇠약하고 멸망하고 있는’ 민족이었는데는 질문에 대답하고, 몽골인들이 자신의 문화 유산을 새로운 내용으로 새로운 성취를 이루면서 발전시켜 왔음을 배울 것이다.

### ● 생활 환경과 관습

만주 지배하에서 몽골인들의 생활 수준은 예전에 비해 크게 나아지지 않았지만 일부 발전적인 특징이 생겨났다. 가축을 키우는 데 축사와 개방 우리를 세워 이용하고, 건조 준비와 우수한 가축 종자를 남기는 기술 등이 널리 보급되어 발전하였다. 세첸한 아트세드(Artseid), 자삭 노얀 토포흐투르(Togtokhtör), 하르달 베이스(Khardal beis) 푸렙잡(Pürevjav) 등은 우수한 종자를 남기는 방법에 큰 공헌을 하였다. 몽골 전체에 유명한 ‘칸의 후예(Khan udam)’, ‘갈샤르(Galshar)’, ‘테스(Tes)’ 등 준마 계통의 빠른 말들

이 태어났다. 만주 지배하에서 농경은 예전보다 확대되고 발전되었다. 어떤 지방에는 농경을 주업으로 삼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따라서 그 지방의 백성 사이에 ‘씨앗을 먹으려거든 차라리 암소를 잡아먹어라’라는 말이 생겨나기도 하였다. 종교가 널리 확산되면서 몽골 전통 생활에는 자스(사원 재산)라는 새로운 형태가 생겨났다. 자스는 후례 사원의 자산과 생업을 담당하여 조직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사원은 농경지를 소유하게 되었다. 몽골인의 생활에 상업이 운영하는 현상이 명백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몽골인들은 목축업 생산물과 그 제품 그리고 자연물, 사냥감 등을 판매하였다. 상품 매매가 생활 경제의 한 부분이 되어 새로운 형태의 질서 문화가 발생하게 되었다. 몽골인들의 생활과 전통 관습에 불교의 영향과 교리가 크게 확산되었다. 몽골 축제(나담)의 형태가 틀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오락이 널리 발전하였다. 몽골인의 머리 모양에도 변화가 생겨 남자들은 만주인처럼 온순한 노예의 표지가 되는 변발(辮髮)을 하게 되었으며, 여자들은 독특한 형태의 머리 모양을 하게 되었다. 당시에 몽골을 다녀갔던 코즐로프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몽골인들은 훌륭한 말과 안장 등 마구, 장식을 통해 서로 더 아름답게 장식하려고 노력한다. 금, 은, 보석, 털 제품, 비단 제품은 유목민의 장식에 의미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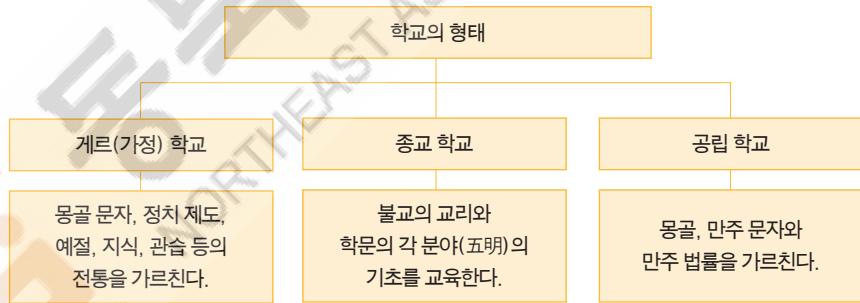
(코즐로프(P. K. Kozlov), 『몽골과 감 지방』, 상트 페테르부르크, 1905~1906, 103쪽)

몽골 델(deel)도 만주 정책의 영향을 받아 오늘날과 같은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관등, 의례, 관직, 사회 계층의 구별을 나타내는 다양한 형태의 델과 모자 등을 사용하게 되었다. 몽골의 공예가들은 의복 치장과 장신구를 스스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모든 연령에 따른 장신구, 안장과 고삐, 은제 장구, 생

활 용구 등을 우수한 품질로 만들었다. 각각 구별되는 특징을 갖는 독자적인 형태가 만들어졌다.

## ○ 학교와 교육

이 시대에는 주로 몽골의 전통적인 ‘게르(가정) 학교’에서 기초 교육을 담당하였으며 공립 학교는 중심 도시 지역에 세워져 교육 활동을 하였다. 1770년대부터 이런 학교가 상당히 많이 세워져 청에 봉사할 수 있는 행정 관리들이 배출되었다. 외몽골에는 1776년에 호브드에 최초로 학교가 설립되었고, 울드(Ööld)와 망가드(Myangad)부에서 20여 명의 어린이를 보내어 만주와 몽골 문자를 배우기 시작하였다. 또한 일부 호쇼에도 학교를 설립하여 가르쳤다.



몽골 학교의 형태

당시 한 귀족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본인은 왕의 관직에 올라 최고위에서 부유하게 생활하며 원하는 바를 모두 누리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과 같이 기쁜 일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  
왜냐하면 우리 호쇼의 어린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 교육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  
다. 먼 훗날 모든 사람이 칭기스 칸의 위대한 업적을 부흥시킬 의무를 갖게 된  
것이다.

(하르친(Kharchin) 자작 노안 궁센노로브(Güngsennorov)가 자신의 호쇼에 세운  
학교 개회사에서 한 말)

만주 지배 후반에 몽골 문자를 가르치는 학교의 학생 수는 투시에트한 아  
이막에 10명, 세첸한 아이막에 129명이 있었고, 만주와 몽골, 중국어(한문)  
학교에 12명이 있었다. 만주 지배 시기의 학교 교육은 종교 학교가 지배적이  
었다는 특징이 있다. 아이들은 5~7세부터 사원에서 승려의 제자가 되어 교  
육을 받았다. 큰 사원에는 내부에 다양한 종교 교육을 하는 다창(Datsan)이  
있었다. 당시 이흐 후레에는 승려가 많은 몽골 불교 학교와 경전과 지혜의 중  
심이었다. 티베트어와 산스크리트어 등의 언어로 쓴 경전에 의거해 종교 교  
육을 실시하였다. 종교 학교와 교육은 몽골인의 문화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불교 학교에서는 대오명(大五明), 소오명(小五明) 등 지식의 각 분야  
의 기초를 가르쳤다. 일부는 몽골의 종교 학교뿐만 아니라 인도와 티베트에  
가서 배우기도 하였다.

## ● 학문

몽골인의 문화 발전에 발생한 커다란 진보와 함께 다양한 학문이 더욱 발

전하였다.

### 언어와 문자 학문 분야

언어와 문자 학문의 발전에는 몇몇 특별한 진전이 있었다. 이 시기에 몽골인들은 몇 가지 문자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만주 문자와 한문이 공무에 사용되었다. 몽골 학자들은 언어 학과 문학 연구 분야에서 다양한 작품을 저술하였다. 그중에는 몽골어 문법을 최초로 저술한 초이지-오드세르(Choiji-odser)의 논리와 전통에 따라 발전시키고, 몽골어 문법, 정서법, 음성학 등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티베트어와 산스크리트어 문법 방면에도 몽골 학자들이 적지않은 저술을 남겼다. 몽골 학자들은 『사체합벽(四體合璧)』, 『오체청문감(五體淸文鑑)』, 『지혜보명(智慧寶明)』 등 다양한 사전을 저술하였다.

### 번역, 외국어 분야

불교학을 중시하여 경전을 연구하고 번역하는 일이 널리 확대되고 발전하였다. 몽골 번역가들은 공동으로 1628~1629년에 113권 『금자 대장경(Altan Ganjuur)』, 1741~1749년에 225권 『단주르(Danjuur)』를 번역하여 출판하였다. 오이라트의 자야반디다 남하이잠츠만 하더라도 200여 종의 경전을 번역하였다. 또한 몽골인들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티베트어, 한문, 만주어로 저술 및 출판을 하였으며, 번역하는 일도 많이 증가하였다.



불경

### 의학

몽골 전통 의학은 동양 의학의 이론을 바탕으로 발전하여 독특한 체계를 갖추었다. 람인 게젠 룽산단잔잘찬(Luvsandanjanjalsan, 1639

~1704), 할하의 자야반디다 룽산페렌레이(Luvsanperenlei, 1642~1715) 등 많은 학자들이 공헌하였다. 몽골 학자들은 의학 분야의 많은 책을 번역하거나 저술하였다. 예를 들면 19세기 초에 나이만의 잠발도르지(Jambaldorj)는 티베트어로 『놀라운 눈의 장식(*Gaikbamsbigt nidnii chimeg*)』이라는 책을 저술하였는데 이것은 오늘날까지 이용되고 있다. 이 저술에는 모두 582종류의 약의 원료를 명확하게 기록하였는데 식물성 323종류, 광물성 135종류, 동물성 124종류가 있음을 밝혔다.

### 역사학

만주 지배하에서 몽골의 역사가들은 역사를 연구하여 저술하는 데 상당한 업적을 이루었다. 『샤르 토지(*Sbar tuuj*)』, 『알탄 후르덴 망간 히게스트 비칙[金輪千輻]』, 『알탄 톱치(*Altan tobči*, 黃金史)』, 『강가인 오르스갈(*Ganga-yin ursgal*, 恒河之流)』, 『볼로르 에리흐(*Bolor erikh*, 水晶念珠)』, 『볼로르 톨리(*Bolor toli*, 水晶鑑)』, 『슌드 에리흐(*Suvd erikh*, 珊瑚念珠)』, 『에르데닌 에리흐(*Erdeniin erikh*, 寶貝念珠)』 등 수많은 역사서를 저술하였다. 티베트어로 쓴 몽골 역사가들의 작품도 적지 않다. 이 역사서들은 몽골의 역사를 고대 시기부터 주로 불교의 교리에 근거하여 서술하는 형태로 저술되었다. 또한 슌베 함바(Sümbe khamba) 이시발지르, 궁 고편잡(Güng Gombojav) 등 역사가들은 이웃 나라와 세계사, 인류 역사에도 관심을 기울여 연구하였다. 라시퐁착(Rashpuntsag), 이시발지르(Ishbaljir), 인지나시(Injinash) 등은 역사학 분야에서 역사 비평이라는 분야를 새롭게 개척하였다.

### 법률 분야

법률은 풍부하고 더욱 자세해졌다. 사회 정치적으로 새로운 상황에 적합한 다양한 법률서들이 나왔다. 17세기 전반에 쓰인 백화수피 법률 문서, 『몽골·오이라트 법전』, 18세기의 『할하 지름(할하 법령)』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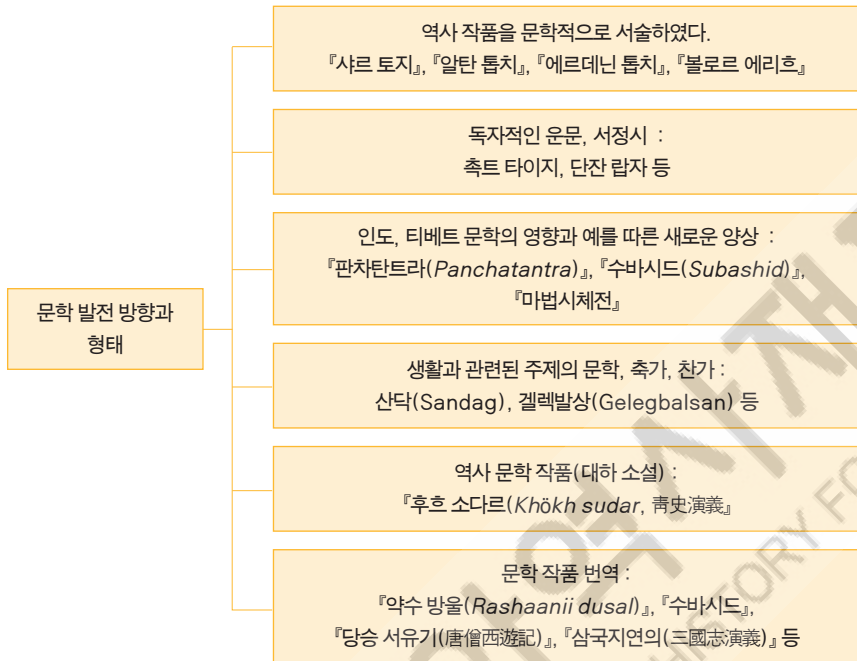
을 들 수 있다. 몽골 땅에서 발견된 백회수피 법률 문서의 유물 중에는 ‘칸들이 서로 다투면, 혼자 전리품을 차지하면 …… 귀족들이 서로 죽이면 ……’ 엄격하게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당시 몽골 사회의 다양한 교류, 관습, 규제를 조정하는 법적 기초가 되었다.

## ○ 문학과 공예

**문학** 만주 지배 시기에 몽골의 문학 발전에는 구전 문학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서사시, 동화, 신화, 유렐(erööl, 축가), 막탈(mag-taal, 찬가), 노래, 격언, 속담 등의 보고는 더욱 풍부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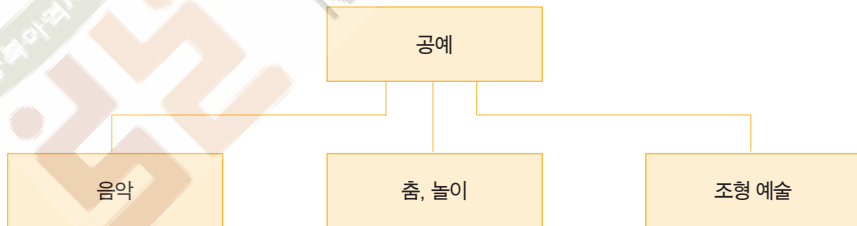
이 시기에 구비 문학 작품들이 기록되어 인쇄물로 출판되었다. 『게세르(Geser)』, 『장가르(Janggar)』 등의 유명한 작품들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런데 영웅 서사시를 대중에게 전달해 준 것은 대를 이어 활동하였던 유명한 툴리치(tuulich, 서사시 구연가)들이었다. 당시에는 유명한 이야기꾼, 서사시 구연가 등이 몽골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19~20세기 전환기에 두르베드의 사리산(Sarisan), 우랑하이의 질헤르(Jilkher), 바야드(Bayad)의 파르친(Parchin) 등 뛰어난 툴리치들이 있었다. 구전 문학과 함께 몽골 문학 작품은 더욱 발전하여 다양한 형태가 나타났다.

**공예** 서정, 생활, 역사, 해학, 종교 등 다양한 방면의 민중 가요가 더 풍부해지고 발전하였다. 토왕(Demchüdongrov, 德王), 노얀 호탁트(Noyan Khutagt) 단잔 랍자(Danzan Ravjaa) 등은 음악가, 가수, 무용가 등의 구성원들과 함께 춤과 연극을 공연하기도 하였다.



몽골 문학의 형태

공예 기술자 중에는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생겨나서 대장장이, 목수, 조각가, 화가, 수예가, 주조가, 조소가 등이 몽골 공예의 우수한 작품들을 제작하였다. 자나바자르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21다리불상을 만들었다.



몽골 공예의 구성 요소

## ○ 건축

17~20세기 초까지 몽골 문화 생활에 나타난 새로운 현상은 건축 분야의 발전이었다. 그것은 대부분 종교와 관련된 건축이었다. 이 시기의 건축 형태와 의장은 몇 가지로 나뉜다. 이전에는 몽골 게르 형태의 둥근 원형의 지붕에 방형 건축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던 것이 지붕을 늘어뜨린 삼각 혹은 사각형 또는 다각형의 건물과 주요 출입문을 여러 층의 지붕으로 만드는 중국 불교 건축 형태, 티베트의 정사각형 형태, 흰색 벽, 돌, 벽돌로 건축하는 형태, 몽골-중국, 중국-티베트, 몽골-티베트 혼합 형태의 독특한 새로운 건축 형태들이 나타났다. 이들 형태는 서로 혼합하여 점차 몽골 형태의 새로운 건축 양식을 이루게 되었다. 몽골 건축에 인도의 탑과(塔婆), 즉 부처님의 탑을 건축하는 독특한 건축 형태가 들어왔다. 만주 지배하에서 몽골의 문화 발전은 명확한 진보와 변화가 생겨 문화 유산의 전통과 보고에 수많은 새로운 작품이 더해지면서 깊고 풍부해졌다.



불교 사원(에르데니 조)



에르데니 조 사원 내부의 불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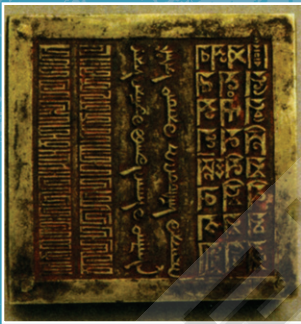


동북아시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제8장

# 몽골의 부흥 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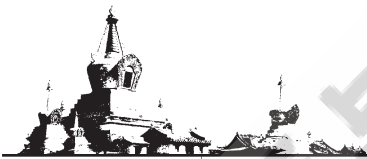


복드 한의 인장

20세기 초까지 몽골은 청(淸)의 지배하에서 가장 낙후된 변방이었다. 그래서 몽골인들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독립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투쟁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힘을 하나로 모으고 대내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민족 해방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청의 지배에서 벗어났다. 그 후 몽골인들은 나라를 안정시키고 청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쪼개진 민족을 하나로 통합하여 통일 국가를 세우려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세계 각지에서 치열하게 전개된 열강에 의한 식민 지배와 식민지를 차지하려는 경쟁은 몽골의 독립에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하였다. 중화민국과 제정러시아는 몽골 측에 부당한 조약을 강요하여 외몽골을 중화민국의 중주권하의 자치국으로 만들고, 내몽골을 중국의 한 성(省)으로 편입시키는 정책을 펴나갔는데 그들은 궁극적으로 이를 실행에 옮겼다.

더욱이 중화민국은 1919년에 몽골의 자치권마저 박탈하고 무력으로 직접 통치를 시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몽골인들은 중화민국의 압제에서 벗어나 독립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몽골 역사상 최초로 정당이 생기고 외세의 압제에 저항하는 민족·민중 혁명이 일어나 1921년 7월에 다시 독립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서는 이처럼 현재 몽골의 발전과 부흥의 확고한 기초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1900년	췌췌뎡뎡뎡 호탁트, 다 라마 바담도르지, 체렌-오드세르 등을 러시아에 보내 몽골의 독립 운동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
1901년	청의 신정(新政) 시작
1910년	몽골에 신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산도[三多]가 이흐 후레에 도착
1911년 12월 29일	몽골인들이 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
1912년 11월 20일	몽골-러시아 협정에 서명
1913년	몽골 문제에 관한 러-중 성명 발표
1915년 5월 25일	러시아-중국-몽골 삼국 회담 시작
1919년 11월 22일	중화민국이 외몽골의 자치권 박탈을 선언

# 01

## 1911년 혁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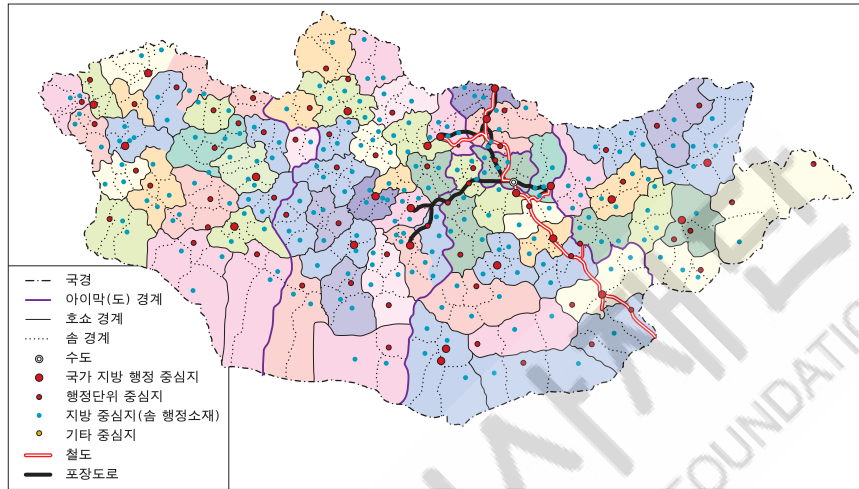
“…… 우리 호쇼(Khoshuu, 旗)의 백성들이 굶주림에 시달려 인근 지역으로 흩어지고, 그중 일부는 홀룬 보이르(Khölön buir)에서 임대료를 내고 고기잡이를 하는 러시아인들에게 구걸하여 목숨을 연명하고 있으며, 현재 300~500가호(家戶) 1,000여 명의 백성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 소식을 알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예하 아이막(Aimag, 盟, 호쇼의 상위 행정단위)에 할당된 공납(貢納)을 어떤 방법으로도 감당할 수 없게 된 사연을 밝혀 알려드립니다.”

(세첸한 아이막 수직트 왕 도르지 팔람 호쇼의 문서 중에서)

### ○ 20세기 초 세계 정세와 몽골

#### 19세기 말~20세기 초 세계 정세

널리 알려진 것처럼 19세기 말에서~20세기 초 식민주의자들은 원자재와 노동력, 상품을 판매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고 치열하게 경쟁하였다. 그 결과 20세기 초에 들어와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일본, 미국, 이탈리아 등의 열강은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대륙의 약소국을 분할·지배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이 시기에 세계적으로 독립국은 겨우 50여 개국에 지나지 않았으며, 전 세계 인구의 70% 정도가 식민지 또는 반(半)식민지 상태에서 살고 있었다.



몽골 행정구획 단위(몽골과학아카데미, 2005년)

당시 열강은 산업화, 경제 성장, 국가 총생산, 군사, 무기 등 여러 방면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강대국들은 식민지가 대부분 본국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나 바다 건너 다른 대륙에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를 지키기 위하여 육군과 해군을 더욱 증강하였다. 이러한 군사 및 군비 경쟁의 가속화는 전쟁의 위험을 불러왔고, 더불어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등 옛 식민주의 국가의 국력이 쇠약해짐에 따라 다시 한 번 식민지 분할 경쟁이 가속화되었다.

청 역시 이러한 식민지 확보 경쟁의 파도에 휩쓸려 들어갔다. 청은 정치 및 경제력이 약화되고 내적으로 일반 백성의 저항이 거세지면서 강대국에 맞서 반제국주의 투쟁을 효율적으로 전개하지 못한 채 그들의 갖가지 압력과 요구에 시달렸다. 그리하여 영국, 독일, 프랑스, 제정러시아, 일본 등은 청의 영토를 분할하여 서로 다투어 자신들의 세력 범위를 확정해 나갔다. 대양(大洋)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에 있는 몽골은 1850년대까지 강대국의 큰 관심을



20세기 초 몽골인의 모습

끝지 못하였다. 그런데 청이 그들의 영향권 아래 들어가자 식민지의 식민지로 전락할 위험에 직면하였다.

특히 제정러시아와 일본은 몽골 지역에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1907년과 1910년에 두 나라는 협정을 맺어 제정러시아는 외몽골을, 일본은 내몽골을 각각 자신의 세력 범위로 확정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서구 열강은 자신들의 세력 범위를 설정한 제정러시아와 일본의 침략 정책을 승인하였다. 미국 또한 이 지역에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부심하고 있었다. 1909년 칼간(Khalgan, 張家口)에 주재하던 미국 영사 스트레이트는 '만주, 몽골, 극동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감찰 계획'을 수립하고 그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확대되기를 희망하였다.

## 혁명 이전의 몽골

청은 정복 당시부터 ‘몽골이 강성해질까 두려워’ 몽골 지역을 무지하고 낙후된 상태에 머물게 함으로써 손쉽게 지배하고 통치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몽골은 이런 정책의 폐해로 20세기 초에 들어와 세계적 발전 수준에 비하여 크게 낙후되고 외부와 차단된 외딴 변방으로 전락하였다.

즉, 그 시기 몽골인들은 오로지 목축에 의지하여 살았고 생존을 위해 간단한 가내 수공업에 의존하였다. 국가의 모든 결정은 청 황제로부터 하달되는 등 정치적으로 전혀 자유롭지 못하였다. 또한 몽골인이 지식과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한 결과 20세기 초 대다수 몽골인들은 민족 문자도 깨치지 못한 문맹이었다. 궁핍한 생활, 무거운 공납, 질병의 만연 등으로 당시 몽골인들의 평균 수명은 40세 정도에 불과하였다. 외몽골 총인구 50여 만 명 가운데서 승려가 무려 10여 만 명에 이르렀다.

게다가 매년 증가하는 청의 과중한 공납을 충당하느라 모자란 공납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족(漢族) 상인과 고리 대금업자들에게 돈을 빌려, 아이막 또는 호쇼 전체가 빚더미에 앉았다. 그 무렵 한족 상인들과 고리 대금업자들은 몽골인들을 착취하고 궁핍하게 만든 주요 요인이었다. 청은 몽골 백성의 채무(債務)를 호쇼 전체가 책임지는 규정을 만들었는데 한족 상인들과 고리 대금업자들은 이를 교활하게 이용하였다. 즉, 그들은 호쇼의 귀족, 타이지(Taiji, 臺吉), 승려, 평민들에게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 주고, 나중에 이를 호쇼 전체에 책임지게 하는 방식으로 모두를 궁핍하게 만들었다. 당시 한족 상인과 고리 대금업자에게 갚아야 할 채무는 은 1100만 냥(兩),<sup>1</sup> 즉 가호마다 은 100냥 이상이었다. 몽골 지역을 여행한 외국의 여행가나 연구자들은 당시 상황에 대하여 몽골족이 절멸(絶滅)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글을 남겼다.

<sup>1</sup> 당시 화폐 단위로 10전(錢)을 1냥이라고 한다.

## 청의 신정(新政) 시행

청의 통치자들은 20세기에 들어와 백성의 저항과 투쟁을 약화시키고 강대국에게 배상금을 지불하는 한편, 이완된 통치 질서를 강화하려면 대대적인 국가 정책과 제도 개혁이 필요함을 절감하였다. 그리하여 청은 1901년부터 정치·경제·군사·문화·사회·교육 등 전 분야에 걸쳐 개혁을 시작하였는데 역사에서는 이를 '신정'이라고 한다.

## 정치 분야

청은 1906년 몽골 등 변방의 소수 민족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한 이변원(理藩院)을 현실적 필요성에 따라 이변부(理藩部)로 개칭하고, 일부 조직을 개편하여 그 안에 조사국(調查局)과 편찬국(編纂局)을 신설하였다. 그들은 몽골 전역을 조사·연구하여 몽골의 모든 아이막과 호쇼의 지도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각 아이막과 호쇼로부터 몽골 군대와 초소의 위치 및 수, 호쇼의 경계와 지명 등 제반 사항을 제출하도록 강요하였다. 청은 1905년에 이흐 후레(Ikh Khüree, 庫倫, 지금의 울란바토르)에 순방영(巡防營)을 창설하고 몽골의 거점 도시에 분소를 세웠다. 이는 그 해 청에 신설된 순경부(巡警部)의 지부 격으로, 당시 빈번하게 일어난 백성의 반란을 효과적으로 제압하는 조치였다. 이흐 후레의 순방영은 1910년에 인원이 대폭 확대되었다. 청은 신해혁명(辛亥革命) 직전인 1911년 에르데네 산조드바(Erdene Shanzudba, 額爾德尼商卓特巴)<sup>2</sup> 폰착(Putsag)과 체렌치메드(Da lama Tserenchimed) 등에게 당시 청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던 입헌 정부 수립에 관한 제반 업무를 위임하였다.

<sup>2</sup> 1723년에 설립된 에르데네 산조드바 아문(衙門)의 수장으로 집준담바 호탁트의 재무 및 재정, 그에 속한 승속(僧俗)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 경제 분야

1906년 일부 관료는 청 황제에게 몽골 초원에 한족을 이주시켜 목초지를 개간하여 농사를 짓게 하고, 광산을 개발하여 유용 광물을 채굴하고, 자연자원을 이용하고, 소금을 캐내고, 은행을 설립하는 등 이른바 ‘개발’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제안을 주청(奏請)하여 이를 시행케 하였다. 이와 더불어 청은 한족 상인과 고리 대금업자들의 회사를 지원하여 몽골인들을 경제적으로 더욱 예측시키려고 하였다. 이를 테면 후호 호트[歸化城]에 기지를 두고 있던 ‘다싱후(大盛魁)’라는 무역회사는 몽골인들에게 빌려 준 돈의 이자 명목으로만 매년 7만 두의 말과 50만 두의 염소를 중국으로 보냈다고 전해진다.

한족 상인들은 또한 빚을 진 사람이 그 빚을 변제할 능력이 없으면 그에게 ‘보조금’으로 50냥을 주고 도주시키고, 그가 도주한 후에는 500냥의 장부를 만들어 호쇼 전체가 연대 지불하게 하여 이익을 챙겼다. 그런가 하면 채무 변제의 명목으로 받은 가축을 다시 그 주인에게 맡겨 관리하도록 하고, 태어난 새끼와 거기서 얻은 이익(젖, 털 등)은 자기가 챙기는 방법으로 유목민의 노동력을 착취하였다. 몽골 지역의 목초지 개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몽골 유목민은 매 가호마다 90두령의 땅을 소유하고 그보다 많으면 매입하게 하였다.

### 문화 분야

청은 몽골의 어린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중국의 문자(한자), 문화, 관습을 익히게 할 목적으로 만주-중국어 학교를 설립하였다. 『몽골어 고(Mongol ügiin bodrol)』라는 신문을 중국어와 몽골어로 간행하였다. 이 신문은 갖은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신정’을 찬양하고 홍보하는 한편, 몽골인들이 ‘무지몽매’하다는 등 모욕적인 기사를 실었다. 라마교의 가르침과 사상이 청이 추진하던 신정에 부합되지 않자 그때까지 행해 왔던

라마교 지원 정책을 철회하고, 불교의 영향력을 줄이고, 승려들을 군대에 소집하고, 승려와 불제자(佛弟子)에게 세금을 징수하였다.

1910년에 산도(Sando, 三多)가 후래의 임시관사대신[署庫倫辦事大臣]으로 부임한 이후 몽골 지역에 신정이 급속하게 추진되었다. 외형적으로 보면 청이 몽골에 신정을 주도적으로 시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한족 관리들이 권력을 장악하였기 때문에 이는 한족들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신정은 또한 몽골을 발전시키려고 시행한 것이 아니고, 열강에게 몽골을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자신의 손아귀에 넣어 중국화시켜 궁극적으로 중국의 한성(省)으로 만들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 ● 1911년 민족 해방 혁명

### 혁명 투쟁의 시작

19세기 후반부터 몽골 각지에서 청의 압정에 저항하는 투쟁이 힘차게 전개되었다. 몽골 귀족 역시 청의 압제에서 벗어나 독립하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이를 테면 당시 외몽골 라마교 수장이었던 첩준담바 호탁트는 1895년 러시아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러시아의 도움으로 몽골이 독립을 이루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하였다. 이에 대하여 러시아 측은 몽골 대표단에게 다음과 같이 충고하였다.

몽골인들의 요청은 정당합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합당한 방법으로 돕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청에 특별한 잘못이 없기 때문에 몇 년을 기다렸다가 기회를 잡아 봉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크비를 유지하고 서두르지 말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몽골인들이 뜻을 하나로 모아 확실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Dilav Khutagt Jamsranjav, 『외몽골의 정치에 관한 회고록』, 1991, 5~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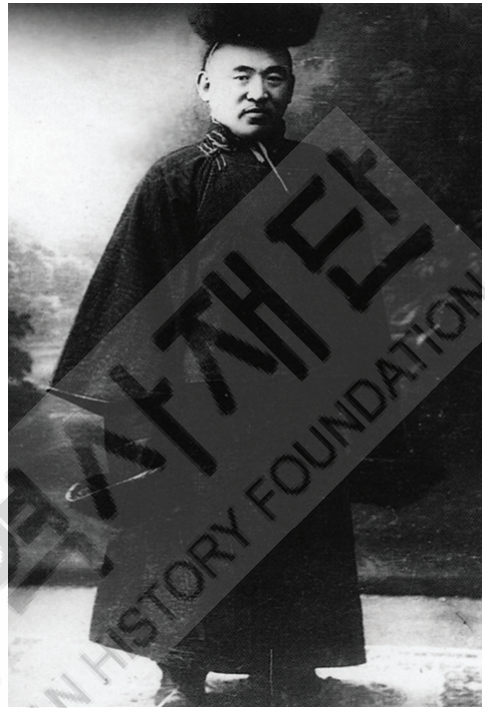
시간이 지나면서 몽골인의 저항은 점점 조직화되어 갔다. 그리하여 1900년에는 올리아스타이(Uliastai)에서 2,000명의 몽골 군인들이 봉기하였으며, 1906년과 1910년에는 이흐 후레에서 탐욕스런 한족 상인들에 저항하여 몽골 백성과 승려가 쫓겨난 사건이 발생하였다. 특히 몽골의 정치 지도자와 백성들은 처음부터 신정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에 격렬하게 저항하였다. 이처럼 신정은 몽골인들의 분노를 한층 가중시켜 그들에게 외세의 침략자에 맞서 국가와 민족을 지키기 위하여 봉기하도록 만들었다. 한편 이 시기에 청의 집권력은 더욱 약화되었고, 중국 내에서는 자본주의 혁명(신해혁명)이 발발하였다.

### 혁명의 전개

제8대 복드 쥬준담바 호탁트, 체렌치메드, 한드도르지(Khanddorj)를 위시한 몽골의 정치 지도자들이 주도권을 쥐고 독립 투쟁을 지도하였다.

1911년 여름에 할하(Khalkh, 외몽골) 4아이막과 이흐 샤비(Ikh shav, 쥬준담바 호탁트 소유의 예속민)의 유력한 왕공(王公)과 승려는 쥬준담바의 만수무강을 빌고 공물을 바치는 행사 기간에 이흐 후레의 에르테네 산조드바 아문에서 비밀리에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청의 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둘러싸고 참석자 사이에 의견이 갈렸기 때문에 신정에 반대하는 4아이막의 귀족, 관리, 승려 등이 복드 산 뒤쪽 숲속에서 따로 모여 다시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그들은 다음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였다.

1. 몽골인이 독자적으로 청에 대항하여 싸우는 데 자금 및 무기가 충분하지 못한 점 등 어려움이 많으므로 대표단을 러시아로 보내 도움을 요청한다.
2. 독립을 위하여 힘을 하나로 모아 투쟁하고, 쟁준담바 호탁트에게 독립을 선포할 때가 되었음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룬덴(Lünden, 라마교 수장의 조서 또는 가르침)을 내려달라는 뜻을 전한다.



다라마 체렌치메드

러시아에 도움을 요청하는 대표로 친왕(親王) 한드도르지, 다라마 체렌치메드, 내몽골 관리 하이산(Khaisan) 등을 임명하여 보냈다. 그들은 제8대 쟁준담바 호탁트와 할하 4아이막 왕공의 공동 명의로 러시아 황제와 외무부에 전달할 서한을 가지고 비밀리에 이흐 후레를 떠나 1911년 8월 15일 페테르부르크에 도착하였다. 몽골 대표단은 몽골의 독립을 지원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하는 서한을 러시아 황제에게 바치고, 청과 한족들의 압제와 현재 몽골이 처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한 21개조에 달하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제정러시아의 외무부에 전달하였다.

그중 일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몽골에 한족들을 집단으로 이주시켜 주, 현 등 행정 기구를 설치하여 청 관리들이 다스리게 하고 여러 몽골 왕공의 권한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것에 정말 분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라거나, “우리 몽골이 청에 복속된 이후 많은 교활한 한족이 장사를 하면서 자신의 물건은 비싼 값에 팔고, 우리 몽골의 가축이나 물건을 여러 가지로 횡방을 놓아 헐값에 사들이며, 돈을 빌려 주고 이자에 또 이자를 붙여 우리 몽골을 이미 끝수에 사무치는 가난으로 몰아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는 ‘신정’이라는 이름하에 모든 물건에 세금을 매기고, 나아가 백성을 착취하여 여러 가지로 곤궁하게 하는데 우리 몽골인들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라거나, “우리의 칸, 왕, 왕공은 모두 한마음이 되어 복드를 황제로 추대하고 몽골국을 건설하여 큰 나라에 의지하여 그 은혜와 도움을 받고 고락을 함께하며 우호 관계를 영원히 유지하기를 바랍니다”라고 독립에의 지원을 호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러시아의 집권자들은 몽골의 대표자들에게 현재 몽골이 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 대신에 몽골에서 행해지고 있는 신정을 중지하도록 청에 압력을 행사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또한 한족들에 의하여 자행될 우려가 있는 살육으로부터 몽골인들을 보호하고, 이호 후레 주재 러시아 영사관을 지키는 병력을 기관총으로 무장한 200명의 카자흐군인으로 강화하겠다고 공언하였다. 러시아 측은 이 약속을 처음부터 실행에 옮겼다. 즉, 1911년 8월 29일 베이징 주재 러시아 공사는 몽골 문제에 관한 러시아 정부의 입장을 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은 몽골 문제는 국내 문제이므로 제정러시아가 간섭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고 말하였지만, 자원이 풍부한 지배 영역을 잃지 않으려고 몇 가지 점을 양보하였다. 이를 테면 청은 그 해 9월 말 베이징 주재 러시아 공사에게, 페테르부르크 주재 자국의 대리 공사를 통하여 러시아 외무부에 “몽골에서 행해지고 있는 군사 및 정치 부문의 개혁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하였다.

## 혁명의 성공

러시아에 파견된 몽골 대표들이 시차를 두고 돌아온 후 이흐 후레에서는 몽골의 독립을 선언할 준비를 서둘렀다. 그리고 1911년 11월 28일 몽골의 왕공과 고위 승려들은 이와 관련하여 쩡준담바 호탁트에게 가르침을 하달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한 답변 형대로 내려진 칙령에서 쩡준담바 호탁트는 몽골 백성들에게 자유와 독립을 위한 대업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였다.

1911년 11월 30일 몽골 왕공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독립을 직접 지휘하고 내외의 정치를 관장할 ‘할하 후레의 모든 일을 임시로 총괄하는 부서(Khalyn Khüreenii бүх кhergiig түр еrөнkhiiлөн shiitgekh gazar)’라는 일종의 임시 정부를 수립하였다. 임시 정부는 투시에 공(Tüshee гүн) 차다르자브(Chagdarjav)를 비롯하여 친왕 한드도르지, 다 라마 체렌치메드 등 7명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몽골 왕공은 청의 판사대신 산도에게 공문을 보내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하였다.

……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몽골인들의 옛 관습을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착취하였을 뿐 아니라…… 귀하의 관리로 말하면 현재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을 처결하기는커녕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게 하고, 재산을 가로채 착취하여 피해를 입히는 것이 헤아릴 수 없고, 지금 귀하의 청 황제의 여러 성(省)이 각각 자신의 생각을 갖고…… 독립하여 나뉘진 것은 분명히 그릇이 깨져 물이 새는 것과 같으니 이런 정부와 우리 몽골인들은 함께 시간을 기다리고 고난을 맞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몽골인들은 쩡준담바 호탁트를 황제로 추대해서 독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귀하의 만주인과 한족이 우리를 통치하고 이곳에 주재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산도 귀하를 위시하여 만주 및 한족 관리와 군대는…… 그동안의 사정을 깨닫고 신속하게 본국으로 돌아가

야 마땅합니다. 이 때문에 서한을 보냅니다.

(이흐 후레 주재 청의 판사대신 산도에게 보낸 공문서 중에서)

최후통첩을 통해, 판사대신 산도를 1911년 12월 4일에 몽골에서 축출함으로써 이흐 후레에서 청의 통치가 막을 내렸다. 산도가 본국으로 돌아간 후 1911년 12월 29일 이흐 후레에서 쩍준담바 호탁트를 교권(教權)과 정권(政權)을 한 손에 쥐는 몽골의 황제로 추대하는 의식이 거행되었다. 이어 복드 황제의 칙령에 따라 5개의 부(部)로 이루어진 몽골의 신정부(新政府)가 출범하였다. 이리 하여 1911년 민족 해방 혁명이 성공하였는데 이 사건은 첫째 외몽골인들의 독립 쟁취와 몽골족의 부흥을 알리는 시발점이 되었고, 둘째 몽골인들을 중국화하려는 사악한 정책을 종식시키고 민족을 구원하였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다.

◆ 사인노은한(Sain noyon khan) 남난수렌(Namnansüren, 1878~1919)

1911년 민족 해방 혁명을 이끈 저명한 인물이자 몽골국 초대 총리로, 1914년부터 몽골 상원의장, 1915년부터 군사부 장관을 겸임하였다. 그는 1912년 몽골-러시아 회담을 통하여 전체 몽골족 통합에 반대한 제정러시아의 약속 폐기를 격렬하게 항의하였다. 남난수렌은 또한 1913년 11월 페테르부르크를 방문하여 제정러시아와 중국이 비밀 회담을 통하여 외몽골을 중국 영토의 한 부분으로 만든 것에 대하여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였다. 러시아 방문 기간에 그는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으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하여 페테르부르크 주재 각국 대사관에 외교 문서를 보내 몽골이 청으로부터 독립하고 대몽골국을 건국하였음을 알렸다. 남난수렌의 시대에 민족 화폐 발행, 도량형 정비, 교통·통신 개선, 민족 은행 설립에 대한 안이 제출되었으며, 『새 거울(Shine tol)』, 『수도 신문(Niislel khüreenii sonin bichig)』 등이 출판되고 초중등 학교가 설립되었다.

#### ◆ 친왕 한드도르지(1869~1915)

1911년 민족 해방 혁명 지도자로 몽골 독립을 위하여 끝까지 싸운 독립투사이자 저명한 정치인. 할하(외몽골) 40아이막 지도자 회의를 제안하였으며 처음부터 청의 신정에 격렬하게 저항하였다. 다 라마 체렌치메드와 함께 1911년 7월 몽골 대표단의 일원으로 러시아를 방문하였다. 러시아에서 돌아온 후 자신의 호소에서 군대를 소집하고, 나아가 독립운동을 이끌 임시 정부를 구성하는 일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초대 몽골국 외무부 장관으로 재임할 때 몽골의 독립 선언에 관한 외교 문서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9개국 정부에 보냈다. 친왕 한드도르지는 1915년 초 분명하지 않은 이유로 사망하였다.

#### ◆ 제8대 쥬준담바 호탁트(1870~1924)

1911년 민족 해방 혁명의 정신적 지주이자 몽골 정교(政敎)의 수장이다. 그는 제정러시아와 중화민국이 몽골을 중국의 자치국으로 만들려는 정책에 대한 확고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또한 1919년 10월 천이(陳毅)의 압력으로 총리 바담도르지가 올린 몽골의 자치권 폐지에 관한 건(件)을 반려했기도 하였다. 서북 군벌 쉬수징(徐樹錚)이 무력으로 몽골의 자치를 철폐시킨 데 대하여 격렬하게 항의하고, 미국, 일본, 콜차크(Kolchak)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 ● 몽골족을 통합하기 위한 투쟁

### 몽골인의 민족 통합 운동

1910년대 몽골 민족 해방 혁명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내몽골, 외몽골, 바르가[巴爾虎], 다리강가

(Dar'ganga), 후호 노르[青海], 알라샤[阿拉善], 신강(新疆), 타르바가타이 [塔爾巴哈臺], 타그나 토바(Tagna tuba) 등 모든 몽골족을 통합하여 통일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그 때문에 몽골 신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몽골족을 통합하는 데 목표를 둔 정책을 세우고 활동을 해나갔다.

그 하나로 1912년 1월 21일에 울리아스타이를, 8월에는 호브드(Khovd)를 각각 청의 지배에서 해방시켰다. 이 일에 막사르자브 공(Magsarjav gün)과 담딘수렌(Damdinsüren) 등이 큰 공을 세웠으며, 그들은 영웅 칭호를 받았다. 1912년에는 두르부드, 자흐친, 알타이 오랑하이, 토르고드, 울드, 망가드, 차하르, 다리강가의 여러 호쇼가 자발적으로 몽골의 신정부에 복속해 왔다. 또한 몽골 영토로 이주해 온 카자흐족 역시 신정부에 귀부를 알려 왔다. 그 결과 1911~1912년 사이에 내몽골의 전체 49개 호쇼 가운데 35개 호쇼, 후호 노르의 몽골족이 신정부에 귀부 의사를 알려왔다. 신정부는 내몽골인들의 민족 통합 운동을 적극 지지하였다. 이를 테면 내몽골에서 신정부에 귀부해 온 사람들에게 북쪽 국경을 따라 땅을 주어 정착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오다이(Udai), 라시민주르(Rashminjüür), 하이산, 곤칙수렌(Gonchigsüren) 등의 애국 지사를 몽골 신정부의 관료로 임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중화민국 정부는 내몽골인의 민족 해방 투쟁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국토를 황폐화시키고, 인민들을 박해하였기 때문에 내몽골인들은 몽골 신정부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몽골 신정부는 내몽골 방위 군대를 조직하여 파견하였다. 만라이바타르 담딘수렌이 1만 명으로 구성된 대군을 오로(五路)로 나누어 내몽골 해방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즉, 그들은 1913년 가을에 실린 골(Shilin gol)과 차하르 지역을 해방시켰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몽골군이 만리장성까지 진출하기도 하였다. 그런가 하면 내몽골과 신속하게 교섭하기 위하여 지금의 도르노드 아이막(Dornod aimag)에서

바르가족 거주지와 실린 골, 또한 지금의 도르노고비 아이막(Dornogov' aimag) 술린헤르 쉘(Sulinkheer sum)에서 내몽골 지역의 여러 호쇼에 이르  
기까지 여러 갈래의 역참(驛站)을 구축하였다.

### 민족 통합 운동의 중단

내외몽골을 통합하여 하나의 국가를 세우려는 몽골인들의 열망은 몽골과 극동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세력 범위를 분할·설정해 러시아와 일본의 이해관계에 상충되었다. 이에 러시아와 일본은 1912년 4월 25일, 이전의 합의한 사항을 확인하는 협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두 나라는 외몽골은 러시아가, 내몽골은 일본이 특수한 이해관계를 갖는 지역임을 상호 승인하고, 어떤 경우든 이를 위반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제정러시아는 일본과 맺은 협정 내용을 중화민국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당해국은 몽골의 독립을 지지하지만 중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지도 않고 그렇다고 중국에 편입시키지도 않는 정책을 일관되게 밀고 나갔다.

이에 대하여 중화민국 정부는 위협과 설득과 선전 활동 등을 통하여 몽골국에게 독립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다시 중국에 복속시키기 위한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였다. 특히 한족 자본가를 대표하는 쑨원[孫文]과 위안스카이[袁世凱] 등은 몽골의 독립을 막기 위하여 적극적인 방해 공작을 펴나갔다. 중화민국 정부는 외몽골을 자국 내의 한 성(省)으로 보고, 당시 베이징에 거주하던 친왕 나얀트(Chin van Nayant)를 파견하여 몽골 신정부와 대화를 시도하는 한편, 무력 침공을 준비하였다. 몽골의 독립이 위기에 봉착하고 잔악한 중국 군대의 침략이 임박한 시기인 1912년 가을에 몽골과 제정러시아 정부 대표가 니슬렐 후레(Nislesel khüree, 지금의 울란바토르)에서 역사적인 회담을 가졌다.

몽골 측은 처음부터 바르기족 거주지와 내몽골 등 전체 몽골족을 포함한 독립 국가를 건설하고 페테르부르크에 대사관을 설치하는 문제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러시아 측은 몽골 측의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하였다. 즉, 제정 러시아 대표 코로스토베츠(I. Ya. Korostovets)는 “전체 몽골족을 통합하는 것은 본국 정부의 정책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먼저 외몽골이 자치권을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땅히 이 문제부터 의논해야 합니다”라고 몽골 측 제안을 거부하였다. 제정러시아 측의 이런 태도 때문에 몽골은 여타 국가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우리와 조약을 맺어 교역을 하고 우호 관계를 증진시키시다. 이를 알리기 위해 보냅니다”라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1912년 10월 29일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등 9개국에 보냈지만 어떠한 국가도 답을 하지 않았다. 당시 그들은 대부분 중국 영토를 분할하여 영향권을 행사하는 지역을 확정하는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몽골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같이 대내외적인 상황이 불리한 데다가 제정러시아 측에서 강압적으로 밀어붙인 결과 몽골 측은 마침내 러시아 측이 마련한 협정안에 서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하여 1912년 11월 2일 모두 4개조로 이루어진 러시아-몽골 우호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는 비록 전체 몽골족을 통합하려는 몽골인들의 의지를 좌절시킨 불평등 협정이었지만, 몽골을 자국 영토로 편입시키려는 중화민국 정부의 노력을 봉쇄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913년 말에서 1914년 초에 몽골의 내각총리 남난수렌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이 제정러시아를 다시 방문하였다. 이때 몽골 측은 제정러시아에 1913년 말 러시아와 중국 간에 체결한 협정(몽골 문제에 관한 이른바 베이징성명)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통보하는 한편, 내몽골 통합 운동을 지원하고 현금 차관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정러시아 측은 300

만 루블의 차관을 제공하고 중화민국 군대의 침략으로부터 몽골을 보호한다는 등의 지원을 약속하고는, 그 대신에 몽골군을 내몽골에서 철수시키고 카흐타에서 열릴 몽골-중국-러시아 삼국 회담에 대표를 보낼 것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처럼 제정러시아 측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내몽골을 해방하기 위해 파견되었던 몽골군이 철수해 전체 몽골족을 통합하려는 몽골인들의 노력이 좌절되어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었다.



---

# 02

---

## 몽골의 운명과 독립의 가치

에르데니 조 사원 담장의  
백팔 개의 탑 위에  
금세기 우르가의  
백만 개 창문 위에  
네 이름을 외치며 적는다.

독립이여!

(푸렘도르지(D. Pürevdorj)의 시, 〈독립〉 중에서)

---

### ● 독립을 이루려는 노력

몽골 신정부는 독립을 선포한 직후부터 정치적 독립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개혁을 수행하고, 국가를 발전시키는 조치를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가장 먼저 몽골의 정부 조직을 구성하고, 각종 법제 장치를 개정하고, 군대를 창설하고,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영토를 지키는 등 여러 가지 과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갔다.

#### 몽골의 정부 조직

몽골 황제 복드 쥬준담바 호탁트는 정치와 종교 모든 면에서 최고 권력자였다. 그래서 그의 칙령(룬텐)은 몽골의

정치와 종교 방면에서 준수하고 따라야 할 주요 문건이었다. 신정부 출범 초기에는 복드 황제의 칙령에 따라 정부 주요 부처의 서열을 정하여 내무부를 선임 부서로 다른 부서보다 위에 두고, 외무부를 그 다음 부서로 정하였다. 또한 내무부 장관이 내각총리를, 외무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였다. 그러다가 1912년에 들어 총리부가 신설되면서 몽골에 총리직이 생겼다.

몽골 정부는 개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선진국들의 발전적인 요소를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당시 많은 나라가 의회제를 채택하고 있었던 것을 참조하여 국가의 당면 과제를 토의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논의하기 위하여 상·하 양원(兩院)으로 이루어진 의회를 1914년에 설립하였다.



몽골의 정부 조직

## 국가회의

상원 중요한 정치 사안에서 따라야 할 정책을 입안하여 황제에게 의견을 개진하고 논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가기구. 각부의 장관과 차관, 왕(王), 베일, 베이스, 공(公), 자삭(호쇼의 장), 이흐 사비·홀룬보이르·다리강가·차하르의 업무를 관장하는 총관(總管)이 상원 의원으로 임명된다. 총리가 회의를 주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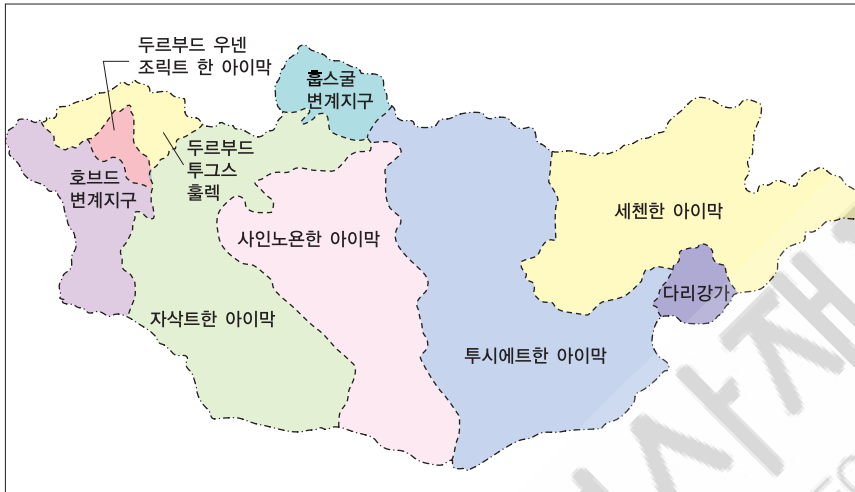
하원 국사의 어떤 일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토의를 거쳐 상원으로 보낸다. 각부의 사관(司官), 문서 담당 관리, 에르데네 산조드바 이문, 4아이막의 장군, 각 지방 관청에서 한 명의 관리가 의원으로 임명된다. 총리가 임명한 관리가 회의를 주재한다.

## 군대 창설

청의 통치 시기에 몽골에는 상비군이 없었다. 각 아이막과 호쇼에 군인이 소수 있었지만 무기 보급과 조직과 전투력 및 군사 훈련 등 여러 방면에서 낙후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새로 출범한 몽골 정부는 상비군을 창설하고 무기를 충분히 보급하고, 군인들에게 군사 지식을 교육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민족 해방 혁명 과정에서 외세의 침략자들로부터 조국을 해방시키는 일에 앞장 선 군인과 나중에 자발적으로 입대한 군인이 몽골 상비군의 기초가 되었다. 1912년 군사부에서 첫 정규군의 편성 단위를 조직하고, 그중에서 병사를 차출하여 복드 황제의 근위대를 창설하였다. 1913년에 몽골 군인이 준수해야 할 23개 조항의 임시 규정을 제정하여 병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조정하였다. 이러한 군사 업무에 타이지 막사르자브와 바르가의 담당한 공이 크게 공헌하였다.

또한 몽골군의 발전에 제정러시아의 지지와 원조가 일정한 역할을 하였



북드한 시기 몽골 행정 구역(1911~1919)

다. 특히 몽골 정부는 제정러시아에서 군사 전문가와 교관을 초청하여 1912년 말 니슬렐 후레 근처의 호지르볼란(Khujirbulan)에 군사 학교를 세웠다. 몽골과 제정러시아 양국은 1913년에 기마대 창설을 위한 협정에 서명하였다. 당해 협정에서는 기관총과 대포 부대를 포함한 2개 기병대로 이루어진 병사 1,900명의 부대를 창설한다고 명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몽골군을 훈련시킬 목적으로 제정러시아에서 49명의 교관을 파견하고, 제반 군사 업무에 사용할 차관을 공여하였다. 제정러시아의 원조로 설립된 호지르볼란 군사학교는 최초로 몽골군의 하급 장교를 양성하는 등 그 후 몽골군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1921년 혁명을 주도한 수흐바타르(D. Sükhbaatar)는 이 학교 졸업생이다.

### 국법의 제정과 시행

신정부 수립 후 청의 법제를 폐기하고 독립 몽골의 사회 관계를 자신의 법으로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

어 법제를 정비하는 일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몽골 정부는 새로 제정한 법률의 문건을 복드 황제의 재가를 받아 시행하였다. 그것들을 모아 편찬한 『진정으로 준수해야 하는 법(Jinkhene dagaj yavakh khuul' dürem)』이라는 법전이 한때 몽골법의 기본 문건되었다. 정부는 1915년 5월에 16명의 의원으로 법률 제정을 위한 부서를 구성하였다. 이 일에 푸레브자브 공(Pürevjav gün), 자미얀(S. Jam'yan), 막사르자브, 바트-오치르(Bat-Ochir) 등이 참여하였다. 그리하여 1915년부터 1918년 사이에 '흙정몽골국칙례(Zarligaar togtooson Mongol ulsyn khuul' züiliin bichig)'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법률을 부분적으로 제정하여 비준하였는데 나중에 이들을 한데 모아 출간하였다. 이러한 법은 사회 여러 방면에서 제반 관계를 조정하고, 몽골의 독립을 확고히 하고, 사회 조직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또한 복드 황제의 칙령에 따라 남난수렌 총리의 지시로 체벤(J. Tseven)이 몽골 헌법 초안을 마련하는 일을 수행하였다. 이 시기에 법률을 제정하면서 몽골의 전통과 다른 선진국의 법률을 연구하여 그중 일부를 반영하였으며, 청의 법 가운데서도 일부 받아들였다.

## ● 카흐타 삼국 협정

카흐타 삼국 협정은 식민지 확보 경쟁이 한창인 1915년에 체결되었다. 당시는 강대국들이 약소국에 자신들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도록 하는 등 불공정한 원칙이 지배하던 시기였다. 카흐타 회담이 개최되기 전인 1913년 말 제정러시아와 중화민국은 이른바 베이징성명을 통하여 몽골 문제에 관한 몇 가지 사항에 합의하였다. 이 성명에서 양국은 몽골을 중화민국의 중주



삼국 회담이 열린 카흐타

권하의 자치국으로 격하시키는 데 합의하였다. 따라서 제정러시아와 중화민국은 카흐타 회담을 통하여 이러한 합의를 어떤 식으로든 몽골 측이 수용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

세 나라는 처음부터 자국의 입장을 확고하게 주장해 삼국 간의 입장 차이가 뚜렷하였다. 몽골 측은 독립을 보장받고 통합 의사를 표명한 모든 몽골족을 자국에 편입시키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이에 대하여 중화민국 측은 몽골인 스스로 독립을 취소하고, 내외몽골을 중국의 성으로 하고, 공대(公戴)라는 연호와 황제라는 칭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입장을 내세

왔다. 그런가 하면 러시아 측은 형식상 외몽골에 대한 중화민국의 종주권을 인정하고, 1912년에 몽골과 맺은 협정으로 획득한 자국의 정치·경제적 지위를 상실하지 않기를 희망하였다. 그 때문에 카흐타 회담은 1914년 8월 26일에 시작하여 이듬해 1915년 5월 25일까지 장장 9개월 동안 진행되었다.

그러나 제정러시아와 중화민국의 압박 속에서 진행된 이 회담은 결국 러시아 측의 입장을 두 나라가 수용하는 형태로 막을 내렸다. 즉, 삼국 협정으로 몽골은 독립과 자주성이 크게 제한된 중국의 종주권하의 자치국으로 전락하였고, ‘자치 외몽골’의 경계는 할하의 4아이막과 호브드 변계(邊界)로 정해졌으며, 전체 몽골족을 하나로 통합하여 통일 국가를 세우려는 노력이 강제로 중단되었다. 이렇게 하여 내외몽골 등 각지의 몽골족은 이전처럼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에서 몽골은 중화민국과 제정러시아가 내정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받아 냈을 뿐만 아니라, 황제 칭호, 정부, 영토, 국경, 군대를 그대로 두게 되었다. 또한 한족의 대규모 정착, 제정러시아와 중국 군대의 몽골 주둔을 불허하고, 다른 나라와 교역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였다. 이 모든 것을 놓고 보면 몽골은 사실상 자주 독립국의 지위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

## ● 몽골의 독립 상실

### 몽골의 대외 환경 변화

카흐타 삼국 협정 이후 몽골의 대외 환경은 점점 더 악화되었다. 먼저 제정러시아가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정치적 위기가 닥쳐 각지에서 제정(帝政)에 반대하는 투쟁과 내

전이 일어났다. 다음으로 일본은 당시 강대국으로 비상하고 자국의 세력 범위를 확장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특히 일본은 제정러시아의 세력이 약화된 상황을 틈타 몽골 전역을 자신의 세력권하에 두려고 노력하였다.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 일본인들은 바이칼 호 동부의 부랴트와 치타, 몽골과 바르가족 거주지를 통합하여 '범(汎)몽골국(Narmai Mongoluls)'을 세울 것을 제창하였다. 이는 외형적으로는 몽골족의 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전체 몽골인 거주지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려는 책략에 불과하였다. 그들은 범몽골국을 건설하기 위한 회의를 1919년 2월 치타 주의 다우리아(Dauria)에서 개최하고 내몽골의 네이스 게겐(Neis gegen)을 수장으로 하는 임시 정부를 수립하였다. 몽골 정부에서는 이 회의에 자국 대표를 보내지 않았다. 일본의 침략 정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세워진 이 국가는 어떠한 성과도 거두지 못하였다. 끝으로 중화민국은 제정러시아의 정치적 위기와 혁명 운동 및 일본의 침략 야욕을 구실 삼아, 몽골의 독립을 철폐시킨 후 자국의 성으로 편입시키려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 중화민국에 의한 몽골 독립 철폐

카흐타 삼국 협정이 체결된 후 중화민국 정부는 몽골을 완전히 자국에 편입시키기 위해 복드 쩌준담바와 정부 각료, 여러 왕공, 귀족, 승려들에게 작위와 관직 및 높은 봉급을 약속하는 등 자기 편으로 포섭하고 매수하려고 갖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당시 후레에 주재하던 중국 도호사(都護使) 천이[陳毅]는 그 상황을 이용하여 이른바 몽골의 미래 발전을 위한 64개 조항이라는 것을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몽골 자치 정부를 폐기하여 중화민국에 편입시키고, 중화민국 정부에서 파견한 관리가 몽골을 통치하고, 이호 후레, 호브드, 올리아스타이, 카흐타에 관리를 주재시키고, 몽골

에 중화민국 군대를 주둔시키는 대신에 복드 황제 및 몽골의 기타 왕공에게 여러 특전을 베푼다는 것이었다. 이어 그는 1919년 7월에 600명의 중화민국 군인을 후레로 끌어들여 몽골에 중국의 지배 체제를 무력으로 구축하는 조치를 강행하였다. 1919년 7월에 천이의 강압으로 몽골의 집권자들은 이 안건을 의회에 상정하여 논의하게 되었다. 또한 세첸한(setsen khan), 잘한즈 호탁트 담딘바자르(Jalkhanz khutagt Damdinbazar) 등의 대표단을 파견하여 몽골의 자치국 지위를 인정하라고 중화민국 정부에 요청하였지만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였다.

몽골인들은 자치국 지위 박탈을 수용하지 않고 저항하였다. 그래서 이 일을 서둘러 끝낼 목적으로 1919년 11월 초 쉬수정(徐樹錚)이 이끄는 군대를 니슬렐 후레에 진입시켰다. 그는 몽골의 집권자들에게 중화민국의 지배를 원한다는 탄원서를 1911년 11월 14일 오전 8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복드 황제와 총리 바담도르지를 체포하여 베이징으로 압송하겠다고 협박하였다. 또한 그는 복드 황제가 머물러 있던 사원을 무장 병력으로 에워싸고, 그곳에서부터 바담도르지의 자택 정문까지 대규모 병력을 정렬시키고 위협하였다. 복드 황제와 바담도르지는 결국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중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당시 복드 황제는 “…… 이번에 한 번 중국의 지배하에 들어가지만, 2~3년 내에 주권을 회복할 때가 반드시 오리니 맘대로 하라”고 말하였다. 복드의 이 말은 당시 몽골인이 민족의 권익과 나라를 위해 싸우고자 하는 염원이 얼마나 강렬하였는지를 보여 준다.

중화민국 대총통은 1919년 11월 22일에 공식적으로 외몽골의 자치국 지위 철폐령을 내렸다. 쉬수정은 몽골 군대를 해산하여 무기를 회수하고, 5부를 폐지하여 관인을 회수하는 한편, 복드 황제와 왕공에게 중화민국 대총통의 사진에 머리를 조아리게 하고, 몽골의 자치권을 박탈하는 거창한 행사를

거행하였다. 이와 같이 중화민국 정부는 긴박하게 돌아가던 국내외 상황을 이용하여 몽골의 독립을 군사력으로 저지하고 잔혹한 군사 지배 체제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몽골인들은 결코 독립에의 의지를 꺾지 않았으며, 그 후에도 국권 회복을 위하여 끊임없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 ● 산업 및 문화 부문에 나타난 변화

1911년 민족 해방 혁명 결과 몽골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던 한족 상인들과 고리 대금업자들의 영향력이 약화되었고, 몽골의 산업·경제·문화 부문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이는 몽골 신정부가 정치적 독립을 공고히 하는 한편, 국가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개혁 조치를 단행하여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음을 의미한다.

**산업에 나타난 변화** 축산 이 시기 몽골인의 기본적인 생업, 즉 생계유지 수단인 유목 목축이었다. 제조업을 비롯한 다른 부문의 발전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국가 경제의 근간은 가축이었다. 신정부 수립 후 복드 황제의 칙령으로 악덕 한족 상인과 고리 대금업자들에게 진 모든 채무를 없앴으로써 축산업을 통한 수익이 증가하였으며, 그만큼 국민의 생활도 향상되었다. 몽골인이 가축과 축산물을 판매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그들 중에서 상당한 자본력을 갖춘 축산업자가 나타났다. 또한 국내외 교역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을 뿐만 아니라, 몽골인 중에서도 교역을 통하여 수익을 얻는 부유층이 생겨났다.

비공식 통계에 따르면 이 시기 몽골에는 960만 두의 가축이 있었다. 축산

분야에서도 적지않은 발전이 이루어졌다. 축사 건설, 건조 준비, 축산물을 완전 가공하여 이익의 극대화를 꾀하게 되었다. 그런가 하면 가축병 치료에 러시아 의사들이 적극 참여하였다. 이 모두는 당시 축산 부문에서 나타난 중요한 변화이다.

농업 이 시기 몽골의 중앙, 서부, 남부, 동부의 일부 지역에서는 농업이 행해졌는데, 주로 귀리, 호밀, 밀 등을 재배하였다. 신정부는 농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가 예산으로 쟁기, 낫, 가래, 삽 등 농기구와 종자를 공급해 주었다. 특히 1913년에는 농업을 증진시켜 농업 부문에서 거두어 들일 세수 규모를 늘리기 위해 내외국인에게 농지를 임대해 주고,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새로운 농지를 개간하는 사업을 적극 장려하였다. 또한 농사를 짓기 시작해서 처음 3년은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등 농업과 관련된 업무를 조정하여 농지 임대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다. 이 규정을 보면 농지를 비옥함의 정도, 강물과의 거리 등에 따라 상·중·하로 분류하였다.

수렵 그 무렵 몽골인들은 시장에 다양한 물건을 내다 팔았는데 그중 야생동물의 가죽과 털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1917년 몽골인들은 국내 시장에서 30종에 이르는 야생 동물 가죽과 털을 팔았다. 또한 정부에서 보이르 호와 할흐 골(Khalkh gol)에 5~10년 기간으로 어로권을 임대해 주었다.

광업 몽골 정부는 1913년 ‘금·은 등 광산 개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광산을 내외국인에게 임대하여 개발하도록 하였으며, 이미 개발되어 이용 중인 광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여 국가 재정을 충당하였다. 이 규정에 따르면 채굴한 백금, 다이아몬드, 기타 보석의 20~50%, 석탄의 5~10%를 국가 수익으로 한다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당시 장비와 기술 부족, 교통의 낙후 등의 이유로 그다지 큰 수익을 내지는 못하였다.

수공업 니슬렐 후레와 그밖의 도시에 거주민이 늘어나면서 수공업자도 늘어났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제품의 수요도 늘었다. 당시 몽골 수공업자들은 불교 용품, 일상 생활에 필요한 신발, 옷, 가구, 안장 등을 제조하고, 주로 금·은·동 세공업을 하였다. 또한 일부는 주문을 받아 수공업품을 만들기도 하였다.

상업 경제의 여러 분야가 발전함과 동시에 도시와 촌락은 행정, 종교, 상업, 교통의 중심지로 변하고, 인근 호쇼의 경제를 시장으로 끌어들이므로써 대내외 교역이 증진되었다. 처음에 각지에 지방 시장이 생겨났는데 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민족 시장 형성의 초석이 되었다. 1917년에 관리 체데브수렌(Tsedevsüren)과 승려 착다르자브(Tsagdarjav)를 비롯한 18명의 후레의 상인들이 공동으로 출자해서 ‘몽골상호협동조합(Mongolyn khariltсан туслах khorshoo)’을 설립하였다. 그들은 원자재 및 외국 물건을 중개상을 거치지 않고 직접 판매하여 자신과 국가에 이익을 남기고자 하였다. 이는 몽골 상인이 민족 시장에서 일정한 지위를 점하고 있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민족 의식이 고양되었음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은행과 금융 국가 재정의 주요 원천은 세수와 임대 수입이었다. 몽골 정부는 1913년 ‘몽골의 국내 상거래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규정’을 제정하였다. 이 규정에 따르면 판매한 물건 가격의 5% 정도를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하였다.

정부에서 국가 재정을 정비하고, 통합 예산 체계를 신설하고, 국가 수입의 새로운 원천을 확보하여 나라의 재무 구조를 개선하려고 취한 제반 조치는 국가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예를 들면, 1914년부터는 국가의 세입과 세출을 계획하에 운용하게 되었다. 또한 1916년에는 ‘국가자본관리청(Ulsyn khöröngiig zakhirakh gazar)’을 신설하여 운용에 관한 세부 규정을 제

정하여 공포하였다. 이 규정에 따르면 몽골의 지상과 지하에 있는 모든 자원은 국가의 재산이라고 명시하고, 거기에서 얻은 이익은 국고에 환수한다고 하였다. 적합한 지역에 국영 기업을 설립하는 것 또한 이 기관의 임무였다.

몽골 정부는 1915년 제정러시아의 지원으로 ‘몽골민족은행(Mongolyn ündesnii bank)’을 창설하였지만, 제1차 세계대전으로 큰 성과를 내지는 못하였다. 그 때문에 몽골 정부는 2년 후인 1917년에 ‘금리증식단위(Möngönii khüü ürjüülekh анги)’라는 이름의 은행 형태의 기관을 설립하였다. 이 기관의 규정을 보면, 국가 재정에 금전적인 원조를 한 사람을 표창하여 작위와 관직을 준다고 명시되어 있다.

몽골 정부는 재정 적자를 메우고, 변방을 방위하고, 민족 군대의 재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제정러시아로부터 1913년에 10만 루블을 10년 기간으로, 그 다음에는 200만 루블을 20년 기간으로, 1914년에는 300만 루블을 30년 기간으로 각각 차입하였다. 1914년 제정러시아는 빌려 준 자금의 집행을 감독하고, 몽골의 재정과 예산 체계를 정비하는 데 지원하기 위하여 재무부 관리 코진(S. A. Kozin)을 몽골에 파견하였다.

**몽골의 문화 발전** 몽골은 외부 세계로부터 단절된 고립 상태에서 벗어나 다른 나라, 특히 제정러시아와 교류함으로써 세계의 여러 문명과 대면하게 되었다. 이 시기의 문화 분야에서 일어난 변화와 개혁은 청의 식민 지배의 폐해로 생긴 생활 및 사고의 낙후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초석을 놓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개혁 조치는 선진국의 사례를 통하여 국가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다양한 지식과 학문을 습득하려는 희망에서 비롯되었다.

**학교 설립** 몽골 정부는 이 시기에 종교 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교육 기관

도 발전시키려고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외무부가 교육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1912년 해당 부서 산하에 최초로 47명 정원의 소학교를 설립하였다. 그밖에 이 무렵 각 도시 및 아이막과 호쇼에 학교를 60여 개 신설하였다. 이렇게 하여 청 지배 시기에 시행하였던 만주어-몽골어 서기 양성이라는 제한적 목표의 교육은 폐지하고, 민족의 언어, 수학, 지리, 자연 과학, 역사, 체육 등 다양한 지식과 학문의 기초를 가르치는 일반 학교가 생겨났다. 또한 러시아 어문 학교가 세워져 러시아에서 온 교원이 학생들을 가르쳤다. 특히 몽골 정부는 이르쿠츠크 등 제정러시아의 여러 도시로 학생들을 보내 유학시켰는데, 이는 근대 문화와 교육이 몽골에 전파되고 진보 사상을 가진 지식인들이 배출되는 기초가 되었다.

신문과 도서 출간 이 시기 『새 거울』(1913), 『수도 신문』(1915) 등이 출간되어 향후 신문의 시대를 열었다. 정부는 이들을 이용하여 몽골의 낙후된 현실을 비판하고, 선진국의 사례에 따라 나라를 부흥·발전시키려는 사상을 적극 홍보하였다.

현재 몽골인은 이미 국가를 세워 독립국이 된 이후 마땅히 다양한 학문을 익혀 조속히 강성해지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출판위원회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활용하고 있는 갖가지 학문을 요약하여 책자 형태로 출간해 몽골인이 학문을 배우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그밖에도 시대의 조류에 맞춰 몽골의 정치와 관련된 중요한 기사를 요약해서 실을 것이다. …… 세계의 정세, 인류가 아득한 옛날부터 현재까지 살아오고 지식을 축적해 온 역사, 몽골 및 다른 나라의 역사, 수학과 천문학, 여러 가지 기이한 전기, 생활 개선과 건강에 관련된 기사를 이는 만큼, 능력이 닿는 만큼 실을 것이다.

(『새 거울』, 창간호, 1913년)

이들 신문에는 또한 세계 및 몽골의 역사에 대한 논문도 실었다. 그리고 1918년에는 독립 국가 몽골의 역사를 복원하여 『*Zarligaar togtooson Mongol ulsyn sbastir*』라는 책을 12권으로 출판하였다. 이 무렵 지식인들은 새로운 역사를 서술하면서 이전의 종교 및 외세 침략 정책의 영향에서 벗어나 근대 역사학 지식을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이 일에 체렌덴테브(Tserendendev), 고펜체렌(Gombotseren), 갈산도노이(Galsandonoi), 담딘(Sh. Damdin), 소미야(Sum'yaa), 다시냘(Dashnyam) 등의 몽골 역사가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예술 구비 문학과 미술 등 예술 분야에서도 적지않은 발전을 이루었는데, 거기에는 민족 해방과 관련된 사상이 폭넓게 반영되었다. 이 분야에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불교를 주제로 하는 데서 벗어나 사회의 변화와 재건을 반영한 실생활에 중점을 둔 내용이 표현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우리는 서사시 구연가 파르친(Parchin), 모린 호르 연주가 룽산(Luvsan), 화가 샤라브(B. Sharav), 도르지(G. Dorj), 소놈체렌(Sonomtseren), 죽테르(Jügger) 등의 작품에서 새 시대의 문화 발전과 진보적인 사상의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 03

## 1921년 혁명

20세기 초 몽골의 역사는 민족 해방과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이자 나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한 어렵고 지난한 역사였다. 몽골인들은 1911년 민족 해방 혁명으로 이민족의 통치에서 벗어나 독립국을 세웠지만 불과 몇 년 후에 투쟁으로 되찾은 나라를 다시 잃었다. 즉, 1919년 중화민국 정부가 몽골의 자치국 지위를 박탈함으로써 몽골은 중화민국의 한 성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렇게 하여 이민족의 압제와 자유의 가치를 모두 맛본 몽골인은 나라와 민족의 이익·자유·독립을 위하여 일어나 싸울 것인가 아니면 중화민국에 편입되어 그들의 무자비한 지배를 감수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 ● 혁명의 문턱에 선 몽골

#### 혁명의 조건과 원인

1921년 혁명의 역사를 고찰할 때 우리는 이 혁명이 몽골 사회 내부에서 형성되어 전개된 실질적인 과정이었는지, 아니면 우연히 발생한 의도하지 않은 사건이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

1919년부터 1920년 사이에 몽골 사회의 대내외적 상황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귀족, 왕공, 고위 승려들은 막강한 권력과 특권을 누리는 반면, 일반 백성들은 정치적 권한을 전혀 가지지 못하였다. 몽골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던 해체와 분열의 결과로 관료 계층과 노동자 계층이 생겨났다. 또한 진보 사

상을 가진 민주 인사들이 등장하여 ‘낡고 무지한 정부의 교체’, ‘선거를 통한 정부 구성’, ‘헌법 제정’ 등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당시 몽골의 경제 사정 역시 극히 어려웠다. 1918년도 자료에 따르면 그 무렵 몽골인이 한족 상인에게 갚아야 할 채무 규모가 3000만 냥에 이르렀다고 한다. 더욱이 1919년 말에는 루블화의 가치가 1/70로 하락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조건에서 몽골이 자치국 지위를 박탈당함으로써 몽골인은 다시 주권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몽골 정부가 발의하여 시행해 온 전향적인 정책도 모두 폐기 처분되었다. 게다가 쉬수정을 비롯한 중국군 지휘관들의 오만방자한 행동과 폭압과 착취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예컨대 당시 상황을 기록한 한 문건은 “…… 공대(共戴) 9년 여름 중국의 쉬수정이라는 자가 무력으로 위협하고 협박하여 몽골의 자치를 박탈할 것을 요청하는…… 원안(原案)을 자신이 직접 작성하고 인장을 찍게 하여 정부를 와해시키고 몽골인을 마음대로 지배하고 억누르고, …… 십여 명의 몽골인을 차례로 체포하여…… 고문하는 등 몹시 괴롭히고, …… 복드 황제를 체포하고, 백성들의 재산과 가축을 강제로 빼앗고, 남녀노소 할것없이 이유 없이 때리고 상해를 입히고 총으로 쏘 죽인 고통과 신고(辛苦)를 하나하나 셀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내무부 문건, 공대 11년 정월 18일)”라고 하여 그들의 만행을 고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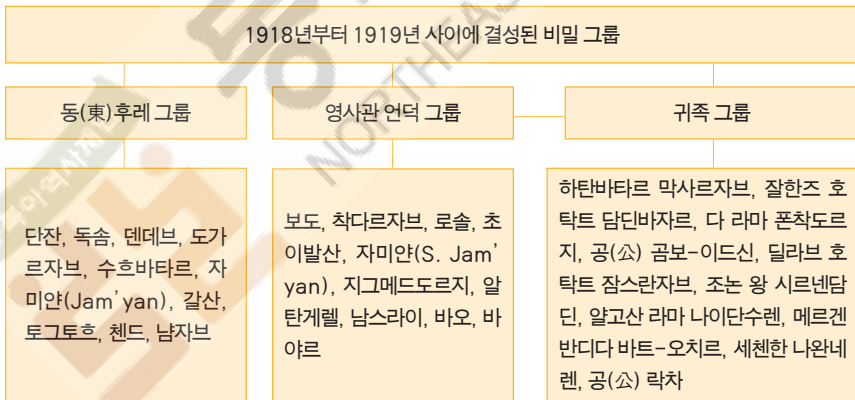
이 모든 폐단으로 정치적 불안이 가중되었고, 몽골이라는 나라와 민족은 생존과 멸망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다.

## ○혁명의 시작

### 비밀 조직의 탄생

몽골 내부에 형성된 이러한 암울한 상황은 조국과 민족, 전통 종교와 문화를 사랑하는 모든 몽골인을 분노케 하였으며, 그들 스스로 이를 돌파하기 위한 투쟁 방법을 모색하도록 만들었다. 실제로 이 무렵 몽골인은 어떤 계층에 속해 있는 상관없이 가까운 친지 동료와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은밀하게 의논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1918년 중반부터 코앞에 닥친 실질적인 위협을 감지하고 뜻을 같이 하는 동지를 규합한 비밀 혁명 조직이 탄생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으며, 곧이어 니슬렐 후레에 몇 개의 비밀 조직이 결성되었다.

각 그룹의 일부는 진보적인 사상을 가진 러시아 인사들과 교류하며 정보를 교환하였다. 또한 후레 그룹과 영사관 언덕 그룹 구성원은 처음에는 서로를 알지 못하였지만 1920년 초부터는 곧바로 협력하기 시작하였다. 1921년 혁명 관련 문건을 통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몽골 비밀 혁명 조직

이들 두 그룹은 서로의 일을 모르고 상대방을 몰래 정탐해 오다가 얼마 전에 동지를 서로 알아보고 기뻐하며 각각 자신의 임무와 과업을 서로에게 알려 더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오로지 몽골의 종교와 민족, 수많은 백성을 몰과 불의 고난으로부터 구원하고, 편안케 하는 길을 열어 달라는 기도문을 만들어 우유로 비단 천에 써서 후래의 붉은 수호신에게 바치고, 향을 피우고 이 성스런 일에 뒤돌아봄 없이 노력하자고 맹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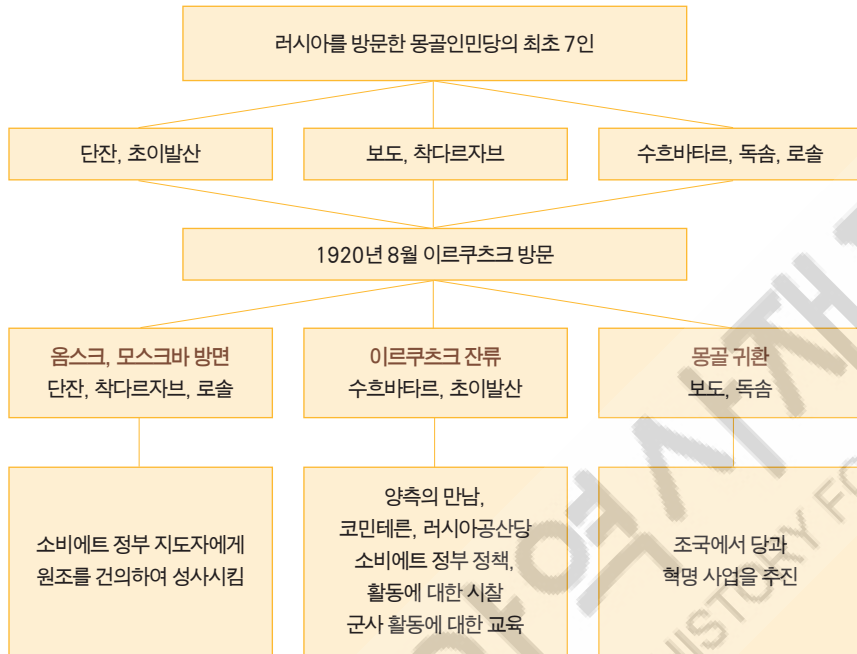
(다쉬남(G. Dashnyam) 외, 『몽골인민혁명당사와 관련된 문건들』, 2004, 39쪽)

### 러시아인과의 교류

당시 몽골 상황에서 자유를 위한 투쟁을 원활하게 전개하려면 외국의 지원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비밀 그룹 구성원들은 서로간에 의견이 달랐지만 대체로 미국, 러시아, 일본과 관계 맺기를 희망하였다. 그러나 토론 과정에서 러시아(소비에트 정부)와 관계를 맺고 그들로부터 지원을 받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그 무렵 소비에트 정부와 코민테른에서도 몽골의 정치적 상황에 대하여 예의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측은 어느 정도 공동 보조를 취할 수 있었다.

한편 후래 그룹과 영사관 언덕 그룹 구성원들은 1920년 6월 25일 단잔(S. Danzan)의 집에서 회동을 갖고 그 후 혁명 과업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몇 가지 역사적 결의를 하였다.

- 두 조직이 통합하여 몽골인민당(Mongol Ardyn Nam)을 창당한다.
- 「당원의 의무 준수 서약서」라는 9개조의 몽골인민당 행동 강령 및 규약을 비준한다.



러시아를 방문한 몽골인민 당원과 그들의 역할

- 러시아에 가서 지원을 요청하는 문제를 공식적으로 결정하고 파견할 대표자들을 임명한다.
- 몽골인민당 직인을 만들어서 승인한다.
- 혁명 동지 간에 주고받을 400개 단어의 암호를 제정한다.

이 결정에 따라 몽골인민당의 대표들은 러시아를 방문하여 소비에트 정부와 공산당 담당자와 만나 몽골인의 민족 해방과 독립 투쟁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고, 북드 황제의 인장이 찍힌 서한을 전달하였다.

단잔, 착다르자브 등은 소비에트 정부의 외무 인민 위원 치체린(G. V.



몽골인민당의 관인

Chicherin)과 부위원 카라한(L. M. Karakhan), 군총사령관 카메네프(S. S. Kamenev) 등과 만나 몽골인의 희망 사항을 전달하였다. 또한 보도(D. Badoo), 독숨(D. Dogsom) 등은 1920년 9월 2일 후레로 돌아와 당의 일부 동지와 은밀하게 만나 현재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그들은 러시아에 다녀온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복드에게 올렸다. 그때 복드는 그들에게 중국인에게 체포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상기시켰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수흐바타르와 초이발산(Kh. Choibalsan) 등은 이르쿠츠크에서 러시아공산당 시베리아 분국의 도움을 받아 『몽골의 진리(Mongolyn ünien)』라는 신문 창간호를 출간하는 일에 참여하였다. 여기에 쓰인 종이는 모스크바에서, 석판(石版)은 카잔에서 가져왔다고 한다.

## ● 혁명의 전개

### 러시아 백군(白軍)의 침입과 폭정

몽골인이 소비에트 정부로부터 원조를 받는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되어 갈 무렵인 1920년 10월 2일 운게른 남작(Baron Ungern)이 이끄는 ‘아시아 기병대’ 800명의 군사가 몽골의 오논(Onon) 강 유역 길베르(Gilver) 초소 지역을 통하여 몽골 국경을 넘어 침입해 왔다. 운게른은 ‘복드 계젠을 황제로 추대하고 자치 정부를 다시 세우겠다’, ‘몽골인들을 중화민국의 지배에서 해방시키겠다’, ‘대몽골국을 건설하겠다’ 등등 달콤한 말로 몽골인을 포섭하려고 하였다.

투시에트한 아이막 다르한 친왕(親王) 호쇼의 일등 타이지 룽산체벤

(Luvsantseveen), 메이렌 도가르자브(Meiren dugarjav), 타이지 토그토흐(Taij Togtookh), 부랴트인 잠발론(Jambalon), 바르가의 룩산(Luvsan)을 비롯한 많은 사람이 그를 따랐으며, 처음에 몽골인 200명이 그의 군대에 입대하였다. 당시 몽골인들은 그의 군대를 어떻게든 이용해서 중화민국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를 희망하였다. 운게른 남작은 1920년 10월 26일부터 니슬렐 후레를 점령하기 위하여 중국군을 수차례 공격한 끝에 1921년 2월 4일 그곳을 수중에 넣었다. 이 전투에 1,000여 명의 몽골인이 참가하였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때 운게른 군대는 중국군으로부터 각종 화기 4,000여 점, 다량의 식량과 의복, 거의 900만 달러에 이르는 중국군 금고를 노획하였다.

니슬렐 후레를 점령한 후 운게른 남작은 복드 게겐을 황제로 추대하고 5부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내각총리 겸 내무부 장관에 잘한즈 호탁트 담딘바자르, 외무부 장관에 산조드바 다시자브(Shanzudba Dashjav), 국방부 장관에 비시렐트 왕 도르지체렌(Bishrelt van Dorjtseren), 재무부 장관에 룩산체벤, 법무부 장관에 베이스 치메드도르지(Beis Chimeddorj), 몽골군 총사령관에 하탄바타르 막사르자브(Khatanbaatar Magsarjav)를 각각 임명하였다. 복드 황제는 운게른에게 '칸이라는 관등, 다른 친왕이라는 작위, 국가의 대영웅 장군이라는 칭호'를 내렸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운게른의 본색이 드러나고 몽골인들은 그를 경계하고 거리를 두기 시작하였다.

한편 러시아 백군에 패배하여 후레에서 쫓겨난 중화민국 군대는 그 무렵 카흐타에 집결하여 노략질을 일삼았다. 이렇게 하여 몽골은 두 침략 세력의 무력 통치하에 놓이고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임시 정부 수립**      외국의 침략 세력이 번갈아 가면서 몽골에 압제를 가하였던 이 어려운 시기에 몽골 혁명가들은 혁명 활동을 더욱 적

극적으로 전개해 나갔다. 그들은 혁명 투쟁을 시작할 준비를 하나하나 갖추어 나갔다. 이를 테면 북부 변경 초소를 돌아다니면서 인민의용군을 모집하고, 몽골인민당의 정책과 목표를 명확히 다듬고, 전략과 전술을 수립하고, 혁명 투쟁을 직접 이끌어 나갈 조직을 구성하고, 홍보와 선동·선전 활동을 펴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그 가운데에서 1921년 3월 1일에서 3일 사이에 러시아의 트로이츠크사브스크(Troitskosavsk)에서 개최된 공동 회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회의에서는 첫째 독립을 위하여 용감히 일어서고 투쟁을 전개하는 한편으로 이를 위하여 러시아로부터 도움을 받고, 둘째 군사 업무를 지휘할 기구(참모부)를 설립하고 군총사령관으로 수흐바타르를 임명하고, 셋째 몽골인민당 중앙위원회 위원 4명을 정하고 위원장에는 단잔, 위원에는 담바도르지, 로술, 코민테른 대표 한 명을 선출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어 1921년 3월 13일에 카흐타의 데드 시베(Deed shivee)에서 몽골인민당, 빨치산, 일부 호쇼와 샤비의 대표가 참석한 회의에서 7명으로 구성된 몽골 인민 정부의 정부를 임시로 총괄할 부서, 즉 인민 임시 정부를 수립하였다. 본 회의에서 인민 임시 정부의 목표를 중화민국 군대와 백군을 축출하고, 인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학문과 문화를 발전시키고, 국가 의회를 소집하여 헌법을 제정하고, 인접국과 우호 관계를 강화시키는 데 두기로 결정하였다. 인민 임시 정부의 설립으로 몽골에 2개의 정부가 생겨나게 됨과 동시에 혁명의 성공을 충족시키고 정치 조직이 무력 투쟁을 직접 지도할 권한을 갖게 되었다.

## ○혁명의 성공

**카흐타의 해방** 1920년부터 1921년 사이에 인민의용군을 조직하기 위한 활동이 시작되었다. 즉, 수흐바타르는 1921년 2월 인민의용군의 첫 전투 부대를 창설하고 부대장으로 폰착을 임명하였다. 이 인민의용군은 알탄(Altan), 호지르 노가(Khujir nuga), 에렌(Ereen) 등지에 배치되었다. 3월 초 인민의용군 병사 수가 400여 명에 이르자 그들을 셀렝게(Selenge) 강 서쪽에 있는 하닌 훈디(Khanin Khöndii), 샤르 하드(Shar khad), 놉트(Nomt), 바얀울(Bayan uul) 등지로 이동시켜 몇 개의 부대로 편제하였다. 4개의 부대장으로는 폰착, 체렌도르지, 하스바타르(Ts. Khasbaatar), 바자르샤드(Ch. Bazarshad)를 임명하였다. 이와 함께 병사들에게 전투 훈련을 시키고, 식량·무기·운송 수단을 제공하고, 선전 활동을 전개하고, 규율을 엄격히 제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인민의용군 앞에 놓인 가장 중요한 과제는 카흐타를 중화민국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일이었다. 1921년 3월 6일에서 7일 사이에 이 문제를 논의하고 카흐타 해방에 관한 문제를 결정하였다. 당시 카흐타에는 기관총 12정, 대포 7문으로 무장한 총 2,000명에 이르는 중화민국군 병력이 집결하여 있었다. 이에 수흐바타르 장군의 지휘하에 카흐타 해방 작전을 수립하고 3월 14일에 이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1921년 3월 17일 수흐바타르 장군은 소비에트 외무 인민 위원 막스테네크(O. M. Makstenek)를 중재자로 중화민국군 지휘부에 최후통첩을 보냈다. 중국 측에서 아무런 회답이 없었기 때문에 몽골 인민의용군은 3월 18일 동이 트는 새벽에 일제히 카흐타 해방 작전을 감행하여 그날 저녁 10시 무렵에 몽골 측의 승리로 전투가 끝났다. 이는 조국 해방을 위한 혁명 투쟁의 역사적인 첫 번째 승리였다.

## 니슬렐 후례의 해방

카흐타에서 중화민국 군대를 축출한 후 인민 임시 정부와 몽골인민당 앞에 놓인 당면 과제는 운게른 남작의 백군을 몰아내고 외국 침략자로부터 조국을 해방시키는 일이었다. 운게른 군대와외 전투는 중화민국 군대와외 그것과는 상당히 다른 어려운 과제였다. 그리하여 몽골 혁명가들은 백군과의 전투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한편,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전개하였다. 즉, 그들은 몽골 인민들에 대한 선전·선동 활동(선전물, 호소, 신문 간행)을 전개하고, 백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몽골 병사를 포섭하여 몽골 측으로 끌어들이고, 명망 있는 사람 및 귀족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인민의용군을 확대하여 무력을 증강시키고, 종교와 승려의 영향력을 활용하고, 백군의 소규모 부대를 공격하고, 소비에트 정부로부터 무기 원조를 요청함과 동시에 러시아 적군(赤軍)의 몽골 진입을 요청하고, 백군을 반대하는 투쟁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전략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인민 임시 정부는 1921년 4월부터 5월 사이에 소비에트 적군의 전투 부대를 몽골에 파병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였다. 이와 더불어 인민을 향하여 “우리 몽골의 모든 인민과 관리, 왕궁, 승려는 힘을 합쳐 운게른을 무력으로 무찌르자”고 호소하였다. 1921년 6월 16일에 러시아공산당 중앙 위원회는 운게른의 잔존 세력을 소탕하기 위하여 몽골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공식적으로 결정하였다.

첫째 백군이 몽골에 응거함으로써 러시아에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고, 둘째 백군이 몽골인에게 영향을 미쳐 새로운 병력을 충원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고, 셋째 일본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넷째 중화민국의 지배를 종식시키고, 다섯째 (원문에 비어 있음) 등을 고려하여, 여섯째 동방 인민부 대표자들은 소비에트 군대를 몽골 영토에 조속히 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다.

(「러시아 공산당 중앙 위원회 시베리아 분국 동방인민부 대표자들과 몽골-티베트과  
(課)의 긴급 공동회의 의사록」, 1920년 10월 29일, 이르쿠츠크, 26쪽)

그러나 이는 그 전해에 이미 결정된 정책이었다. 비공식 자료에 따르면 1921년 4월부터 6월 사이에 인민의용군에 370여 명의 청년이 입대하였다.

1921년 5월 22일에 기관총 12정, 대포 6~8문으로 무장한 2,700명의 운게른 군대와 레조힌(Rezukhin) 장군이 이끄는 기관총 8정, 대포 4문으로 무장한 2,100명의 병력이 소비에트 적군을 공격하기 위하여 니슬렐 후레에서 북쪽으로 이동하였다. 백군의 공격에 대항하여 수흐바타르가 이끄는 인민의용군 700여 명의 병력과 소비에트 적군 제2기병대 800명의 병력이 전투에 참가하였다. 그 해 6월 10일경 소비에트 정부는 각각 기관총 18문으로 무장한 800명의 병력을 갖춘 제307부대 및 제308부대를 트로이츠크사브스크로 보냈다.

이어 1921년 6월 28일 인민 임시 정부와 몽골인민당 중앙 위원회는 공동 회의를 개최하여 니슬렐 후레를 해방시키기로 최종 결정하고 작전 계획을 승인하였다. 이 작전 계획에 따르면 세 방향에서 니슬렐 후레로 진격하기로 되어 있었다. 수흐바타르와 네이만이 이 작전에서 몽골-소비에트 연합군을 총 지휘하였다. 니슬렐 후레 탈환 작전에는 대포 12문과 기관총 156정으로 무장한 총 1만여 명의 병력이 동원되었다. 그들은 1921년 6월 30일에 알탄불락(Altanbulag)을 출발하여 선발대는 7월 6일, 주력 부대는 7월 8일 아침에 각각 니슬렐 후레에 입성하였다. 이렇게 하여 몽골 인민의용군과 적군 연합군이 니슬렐 후레를 점령하였다.

니슬렐 후레를 접수한 후 인민 임시 정부 수반인 보도, 몽골인민당 중앙 위원회 의장 단잔, 인민의용군 장군 수흐바타르 등은 복드 황제 궁전으로 찾

아가 그를 알현하고 “시대 변화에 맞추어 인민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마땅하고 복드의 황제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고”, “각 부처의 업무를 임시 정부로 이양할 것”을 요청하자 복드 황제가 그대로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1921년 7월 9일에 열린 확대회의에서 정부의 모든 권한을 인민 임시 정부로 이양하기로 결정하였다. 다음 날, 즉 7월 10일 11~13시 사이에 정권 이양식을 거행하고 인민 임시 정부를 수립하였다. 그리고 7월 11일에는 복드 계겐을 정부 청사에 모셔 제한(制限)군주로 추대하고 연호를 이전 그대로 사용하는 ‘인민 입헌제 정부’가 수립되었음을 모든 국민에게 선포하였다. 이렇게 하여 몽골인의 민족·민주 혁명이 성공적으로 완수되었다. 이날 군민(軍民)들은 합동 집회를 개최하고 혁명의 승리를 기념하는 최초의 축제, 즉 나담(Naadam)을 거행하였다.

1921년 혁명은 내용과 특징에서 민족·민주 혁명의 성격을 띤다. 즉, 이 혁명에 몽골 사회의 모든 그룹과 계층과 대표가 참여하였으며, 혁명의 결과 인민 주권의 제한군주제가 성립되었다. 요컨대 1921년 민족·민주 혁명이 승리를 거둠으로써 몽골인의 부흥의 새 시대가 열렸다.

## 제9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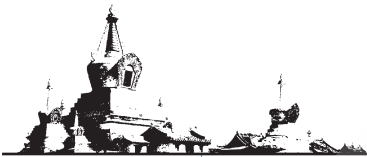
# 몽골인민공화국의 민족·민주 개혁과 실책



몽골인민공화국 국가소회의 관인

1921년 혁명의 성공으로 몽골인들은 나라를 되찾고 국기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그래서 이 시기 몽골인들은 자유와 독립을 어떻게 지키고, 향후 어떤 길로 나갈 것이며, 어떤 노선을 견지하면서 발전을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문제에 부딪혔다.

몽골인들은 어떤 식으로든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어려움이 덜한 길을 선택하여 민족·민주 개혁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다른 한편으로 몽골의 운명과 향후 발전 방향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는 소비에트 정부 및 코민테른 입장에서도 중요한 문제였다. 당시 몽골이 처한 현실과 국내외적인 열망과 관심사의 충돌로 몽골인들은 성공과 실패 및 과오 모두를 경험하는 순탄치 않은 길을 걸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바로 이 시기에 다음 시기의 역사의 길과 정책 및 노선을 규정한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어떤 역사적 사건이 전개되었으며 또 어떤 일이 벌어졌고, 과연 이들은 후손에게 어떤 교훈을 남겼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921년 3월 18일	카흐타 해방
1921년 7월	제8대 쟁준담바 호타트를 제한(制限)군주로 추대하고 인민 정권의 입헌 정부 수립을 선포
1921년 11월 1일	인민 정부의 결정으로 서사협정(誓詞協定)을 승인하고, 복드 황제와 정부의 권리와 그들의 관계에 관한 규정을 확정
1921년 11월 5일	몽골-소비에트 상호 승인과 우호 관계 수립에 관한 협정에 서명
1922년 1월 25일	함질라가(농노제) 폐지에 관한 역사적인 결정 발표
1924년 11월 26일	몽골인민공화국을 선포하고 제1차 국가대회에서 첫 번째 헌법을 승인 · 공포
1928~1932년	좌파의 실책과 혼란이 전개
1936년 3월 12일	몽골인민공화국과 소련 상호 원조에 관한 의정서 체결
1937년 9월 10일	대숙청 시작



---

# 01

---

## 입헌군주제의 몽골(1921~1924)

인민당원들은 인민당의 이름으로 소비에트 정부의 지원을 받아들이고, 몽골의 집권자와 사귀고, 그들의 무력을 이용하여 자치를 되찾고, 호탁트를 제한군주로 추대하고, 그들의 힘으로 세습 귀족제를 폐지하는 방법을 시행하고, 타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적 권리를 되찾는 동시에 외국의 여러 가지 제도, 특히 그중에서도 인민의 이익을 중시하는 사상을 전파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상황이 상당히 좋아지고, 사람들의 의식이 깨는 상황을 살펴보아 한두 해 안에 다시 바꾸어 약간의 권력자를 제거하면 내적으로 분열도 적고 외적으로 비난을 받지 않고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몽골의 대표자들이 1920년 8월 29일에 몽골-티베트과(課)에 전달한 서한 중에서)

---

### ● 독립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

#### 조국의 해방

니슬렐 후레를 해방하고 혁명 과업을 이룬 후 인민 정부는 조국을 러시아 백군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키는 일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이 일은 기본적으로 세 방면에서 진행되었다.

1. 몽골 중부 지방의 왕긴 후레(Vangiin khüree), 자얀 후레(Zayan khüree), 잘한진 후레(Jalkhanlzyn khüree), 흠스굴의 타리알란(Tarialan) 등지에서 운게른 남작, 레조힌(Rezukhin), 손도이 공(Sundui gün), 소하레프(Sukharev)의 세력을 소탕하였다.

2. 몽골 동부 지방에서 조도브자브 암반(Jodovjav amban), 나이단 왕(Naidan van), 지그미드(Jigmid) 잠발론, 오스트로프스키(Ostrovskii), 호보토프(Khovotov) 등을 몰축 엘스(Moltsog els), 시벨렌 울(Shiveelen uul), 산베이신 후레(San beisiin khüree)로 압박하여 소탕하였다.
3. 몽골 서부 지방에서 카이고로도프(Kaigorodov), 바키치(Bakich), 카잔체프(Kazantsev) 등이 이끄는 백군 병력과 삭사인 후레(Sagsain khüree), 바가 하르가이(Baga khargai), 톨보 노르(Tolbo nuur), 사룰구니 후레(Saruul günii khüree), 울란곰(Ulangom) 등지에서 전투를 벌여 괴멸시켰다.

당시 운게른이 이끄는 주력군 병력은 4,000명 정도였다. 초이발산, 셰틴킨(P. E. Shetinkin), 로코소프스키(K. K. Rokossovskii) 등이 지휘하는 1만 명으로 구성된 몽골-소비에트 연합군이 이들과 맞서 교전을 벌였다. 몽골-소비에트 연합군은 연달아 패하여 도주하던 운게른 남작을 1921년 8월 22일 현재의 흙스쿨 아이막 타리알란 슝 소재 강긴 우주르(Gangyn üzüür)라는 곳에서 함께 있던 손도이 공 및 그밖의 추종자와 함께 체포하였다. 소비에트군에 넘겨진 운게른 남작은 1921년 9월 15일 노보니콜라에프스크(Novonikolaevsk)에서 군사 재판에 회부되어 처형되었다.

한편 1921년 7월 20일에는 하탄바타르 막사르자브가 올리아스타이에서 반다노프(Vandanov) 부대를 소탕하고 자얀 게겐 후레와 잘한진 후레를 해방시켰다. 또한 몽골 인민 정부는 동부 변방을 평정하기 위하여 도가르자브(M. Dugarjav)를 임명하고, 그와 함께 봄첸드(G. Bumtsend), 곰보-이드신 공(Gombo-Idshin gün)을 파견하였다. 그들은 1921년 10월 말경 러시아 백군

의 거대 세력을 소탕하여 몽골 동부 변경을 해방시켰다. 이때 가장 격렬한 전투가 벌어진 곳은 서부 변방이었다. 그곳에는 카이고로도프, 바키치, 막사르자브의 공격을 받고 패퇴하여 함세한 카잔체프 등 약 5,000명에 달하는 대병력이 집결해 있었다. 이들에 맞서 하스바타르, 담바도르지 등이 이끄는 130여 명의 인민의용군과 바이칼로프(K.N. Baikalov)가 이끄는 300여 명의 소비에트 적군이 연합하여 싸웠다.

담바도르지와 하스바타르 등은 1921년 7월 25일 인민 대중의 염원과 권익에 부합하는 군민(軍民) 대표자 회의를 소집하고 서몽골 인민 정부를 수립하였다. 이 인민 정부는 1921년 8월 4일 백군에 대한 전면적인 소탕을 결의하였다. 가장 격렬한 전투는 알타이 오랑하이의 사를 구니 호쇼와 툴보 노르부근에서 벌어졌다. 그곳에서 카이고로도프와 바키치 등이 이끄는 1,500여 명의 백군 병력이 하스바타르와 바이칼로프가 이끄는 400여 명의 몽골-소비에트 연합군을 포위 공격하였다. 이 포위는 9월 중순부터 시작되어 장장 42일이나 계속되었는데 나중에 소비에트 적군의 지원으로 극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그 무렵 하탄바타르 막사르자브는 카잔체프와 카이고로도프의 잔여 세력을 소탕하고, 부(副)장군 폰착과 함께 호브드 방면으로 진출하였다. 그들은 1922년 1월 초순 올란곰 부근에서 바키치가 이끄는 천여 명의 병력에 게서 항복을 받아내 서부 지방을 백군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켰다.

**인민 정부의 외교 정책** 1921년 10월 14일에 인민 정부는 특별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 성명은 인민 정권의 제한군주제 몽골의 건국을 세계 여러 나라(소비에트, 미국, 영국, 일본, 독일, 중화민국)에 통보하고, 몽골의 독립을 승인해 줄 것과 상호 우호 관계 수립을 희망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 성명에 대하여 중화민국은 몽골의 독립을 강력하게 반대하



몽골 대표단을 맞이하는 레닌

고 나섰고, 그곳이 자국의 영토임을 다시 한 번 공표하였다.

중화민국의 이러한 입장은 몽골이 다른 나라와 호혜 평등 관계를 수립하는데 오랫동안 장애물로 작용하였다. 이를 테면 소비에트 정부는 비록 몽골의 요청을 인정하였지만 두 나라 사이에 완전한 의미에서의 외교 관계는 수립되지 않았다. 몽골 인민 정부는 1921년 10월 소비에트 정부와의 회담을 위하여 단찬을 비롯한 대표단을 파견하였다. 몽골 대표단에는 수흐바타르, 체렌도르지, 시르넨담딘(Shirrendamdin), 바트한(E. Batkhaan) 등이 포함되었다. 1921년 11월 5일 양측은 모스크바에서 '상호 승인과 우호 관계 수립에 관한 몽골·소비에트 협정'에 조인하였다. 양국은 이 협정을 통하여 정치와 경제 관계의 기본 원칙을 확정하였다. 즉, 상대 정부의 상호 승인, 전권 대표와 영사관의 상호 주재, 정치 및 경제상의 호혜 관계 수립, 각국 영토에 적대 세력 진입의 불용인,

그들을 위한 무기의 자국 통과 불허 등의 제반 문제가 반영되었다.

이 협정은 몽골의 대외 환경을 강화시킨 최초의 보증서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왜냐하면 남쪽의 인접국으로부터 정치 및 군사적 압력을 받고 독립을 위협받고 있던 당시 상황에서 몽골은 소비에트 정부에 의지하여 자국의 안보와 대외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길 외에 다른 방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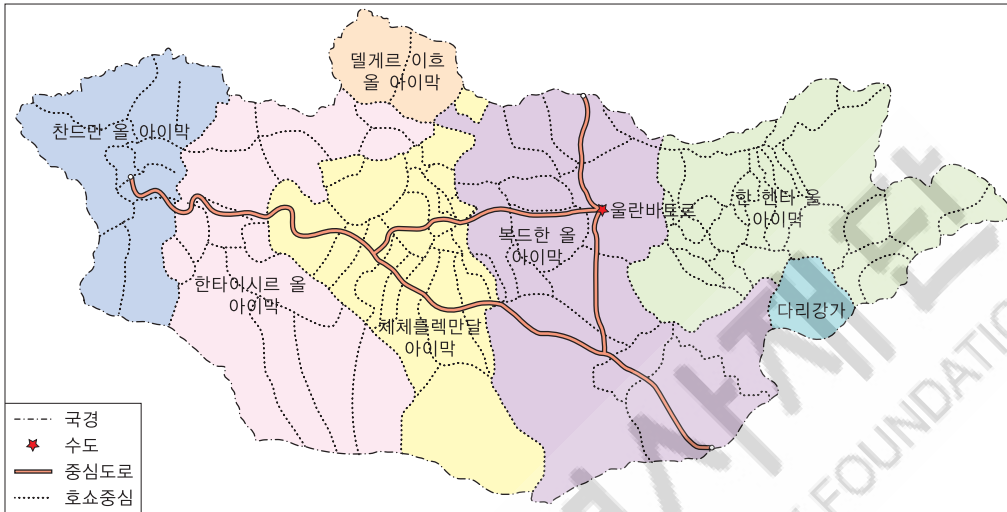
## ● 몽골 정체의 확립

몽골에서는 대표자를 선출해서 세우는 정부, 즉 공화제를 수립하는 문제가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논의되어 왔다. 그리하여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혁명이 가운데 적지않았다. 그들은 전통적인 사회 관계가 나라의 발전과 진보에 장애가 됨을 알고 그것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실 몽골에 어떤 정치 제도를 수립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혁명 초기부터 혁명가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그 때문에 이에 관한 구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를 테면 진보적인 민족·민주주의 사상가들은 처음부터 제한(입헌)군주제가 몽골의 특수한 상황에 더 적합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몽골 역사가 막사르자브는 다음과 같이 입헌군주제에 역사적 의의를 부여하였다.

몽골족의 인민 대중이 자신의 산하(山河)를 지배하고 백성의 어떤 고락(苦樂)이든 모두 함께 협의하여 결정하고, 계발(啓發)의 큰 길을 열고, 군주의 권한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인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한다는 이유로…… 선진국의



몽골국 행정 구역(1925년)

법에 따라 입헌제를 실시하자고 논의하여 결정하였다.

(막사르자브, 『몽골국의 새 역사』, 1994년, 218~219쪽)

인민 정부와 내각총리 보도는 인민 정권의 제한군주제를 새로이 구성하여 결정하고 법제화하여 비준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한 조치의 하나로 1921년 7월부터 8월 사이에 국가대회(Ulsyn Ikh Khural, 의회) 규정을 제정하고, 대회의를 소집하고자 하였으나 일이 성사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1921년 8월 31일 인민 정부는 국가대회의 소집과 헌법 제정 건을 1년 안에 마무리짓기로 결정하였다. 그 때문에 국가대회의가 소집될 때까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인민의 대표 기구인 국가임시회의(Ulsyn Tūr Tsagiin Khural)를 설립하였다. 국가임시회의는 의결권이 없고 단지 협의권만 있었지만 당시 의회를 대신하는 국가의 주요 기관이었다. 국가임시

회의는 각부의 장·차관, 담당 관리, 아이막, 샤비, 군인, 민중, 왕공 귀족, 청년 대표로 이루어졌다. 이 회의는 폐지될 때까지 60차례 가까이 소집되어 각종 문제에 대하여 확실한 결정을 내렸다.

또한 국가대회의를 소집하여 헌법을 제정할 때까지 복드 황제와 인민 정부의 관계를 법으로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1921년 11월 1일에 이른바 서사협정(Tangaragiin geree, 誓詞協定)을 승인하여 이에 따르도록 하였다. 서사협정을 제헌입헌인민국가 헌법의 주요 내용에 따라 결정하였다. 그래서 한때 사실상 헌법을 대신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인민 정부는 우선 전권을 위임받은 대표자를 임명하여 파견하고, 나아가 지방 행정을 민주주의 기초 위에서 개혁하고 조직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1923년 인민 정부에서 ‘몽골의 지방 행정 규정’, ‘이흐 샤비 행정 규정’, ‘현직 왕공과 한산(閑散) 왕공(Jasag ba Jasag bus van)의 권한에 대한 규정’, 1924년 ‘호브드 예하 지역의 행정 규정’을 제정하여 공포하였는데, 이러한 조치는 그 후 진행된 민주적 개혁의 법제적 기반이 되었다.

## ● 몽골 발전에 관한 여러 노선

1921년 혁명으로 몽골 사회 모든 계층의 대표가 참여하고, 나아가 민족의 화합과 연대를 존중하는 연합 정권의 성격을 띤 정부 조직이 구성되었다. 당시 몽골을 이끌던 정치가와 진보 민주 사상가들은 조국의 미래에 대하여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들을 하나로 묶어 살펴보면 이에 관한 주요 경향이 두 가지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일부 인사는 전통적인 관행, 즉 군주제를 유지하고 국가를 발전시키자는 생각이었고, 또 다른 인사는 어떤 것이

#### ◆ 독소민 보도(1885~1922)

이흐 사비 예하 이흐 후레의 매매성(賣買城)에서 태어난 정치인으로, 몽골인민당의 창설자이자 1921년 혁명 지도자 중 한 사람이다. 어릴 때부터 글을 배워 『새 거울』과 『수도 신문』 등 신문·잡지를 만드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산조드바 아문에서 서기를 하면서 니슬렐 후레 주재 러시아 영사관의 통·번역사 양성 학교에서 몽골어 교사로 재직하였다. 보도는 그 무렵 영사관 언덕 그룹을 결성하였다. 또한 그는 1920년 러시아에 지원을 요청하는 대표단에 포함되어 이르쿠츠크를 방문하였는데, 이때 그는 몽골인민당에서 몽골-티베트과에 보내는 글의 초안을 작성하고 독송과 함께 서명하였다. 보도는 1921년 3월부터 인민 임시 정부 외교 관리(참사), 4월부터 인민 임시 정부 수반, 1921년 8월부터 인민 정부 총리 겸 외무부 장관으로 재직하였다. 1922년에 조작된 정치 사건으로 숙청되었다가 1990년 이후 복권되었다.

든 구제도를 폐지하고 민주적 정치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대체로 후자의 노선을 따르는 사람의 수가 월등히 많았지만 그들 중에서도 의견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컨대 당과 혁명 과업의 기초를 닦은 사람 가운데 한 명인 보도의 경우는 당시 상황에서 한때 인민 제한군주제가 적합하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그는 인민의 일을 주요하게 생각하여 빈자와 부자를 차별하지 않았지만, 가난한 인민을 부자들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데 노력하고 이들이 우호 협력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현재 우리 몽골은 매우 무지하여 여러 선진국처럼 크고 작은 공산주의 국가는 적합하지 않고, 회의로 결정하는 공화국도 또한 어렵고, 옛 관습에 따라 절대군주국을 건설하면…… 정치적 분열이 일어날 것이며, 상하 계급으로 나뉘어 거대

#### ◆ 솔린 단잔(1883~1924)

사인노윤한 아이막 수직트 베이스 호쇼 예하의 농노의 아들로 태어난 단잔은 복드 황제 정부에서 재무부 임대 담당 관리를 역임하였다. 그는 후례의 비밀 그룹 창설자의 한 사람으로 몽골인민당 초대 의장을 지냈다. 또한 1921년 3월 21일 인민 임시 정부를 구성할 때 참여하였다. 혁명 승리 후에는 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 1923년 후반부터 1924년 8월 말까지는 군총사령관으로 재직하였다. 1921~1924년 몽골인민당 최고 위원을 지냈다. 그는 1920년 러시아에 지원을 요청하는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척다르자브와 함께 모스크바를 방문하였다. 혁명 후 인민 정부의 대표단을 이끌고 몽골-소비에트 회담에 참가하였다. 1924년 숙청되었다가 1990년 이후 복권되었다.

한 혁명이 일어나 고통을 맛보다가 결국에는 다시 이전의 자치 정부 같은 파멸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 가난한 인민은 건디기 힘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 군주국을 설립할 것이다. 바로 이 제한이라는 말은 국정을 장관과 각부 및 인민의 대표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것을 군주가 파기하지 않고, 종교적인 일에는 정부 기관에서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독소민 보도의 연설과 글 모음』, 2001, 72~73쪽)

반면에 또 다른 주요 인사 중 하나인 단잔은 이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단잔은 몽골에 공화제를 수립하고, 그렇게 하여 인류가 걸어온 보편적인 발전의 길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는 “세상에는 공화제와 소비에트 등 여러 가지 발전 단계가 있다. 예를 들어 말하면 계단을 오를 때에는 첫 계단부터 시작하여 올라가고, 물에 들어갈 때에

◆ 담디니 수흐바타르(1893~1923)



수흐바타르 동상

1893년 2월 2일 이흐 후레의 매매성에서 가난한 유목민 가정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후레-카흐타 사이에 있는 후이만달-보르갈다이 역참로에서 잡역을 하였다. 1912년 군에 입대하여 하사관 학교를 졸업하였고 기관총 부대의 소대장으로 일하였다. 1917년 몽골 동부 변방에서 벌어진 전투에 참전하여 제3등 공작 깃털 훈장을 받았다. 수흐바타르는 1918년부터 몽골 출판위원회에서 식자공으로 일할 때 후레의 비밀 정치조직에 가입하였다. 그는 1920년 러시아에 지원을 요청하는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가하여 이르쿠츠크에서 4개월 동안 머물렀다. 또한 그는 군총사령관으로 임명되어, 인민의용군 창설을 주도하였으며, 1921년 3월 18일 카흐타 해방 전투를 직접 지휘하였다. 혁명 성공 후 수흐바타르는 국방부 장관 겸 총사령관을 역임하고, 1921년 10월 소비에트 정부와 회담할 때 인민 정부의 일원으로 참석하였다.

는 얇은 곳에서부터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이치와 같다.”라고 하거나, “유목을 하거나 정착 생활을 하는 나라이거나 규칙과 원칙에 의지하여 살아간다. …… 강대국 또는 약소국의 사상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그것 중에서 자신의 관습에 합당한 것을 선택하여 따르기 위하여 누구든지 상대방을 이해하고 투쟁 없이 바꾸고 개혁하는 제도를 시행한다”라거나, “제한 정권(입헌제)을 개선하여 시행할 때 똑똑한 사람을 뽑아 가르치고, 세계의 제도와 사상에 통달하고, 스스로 투쟁 없이 바꿀 수 있기 전에, 학자들을 선발하여 임시로 새로운 것과 옛 것의 중간 노선을 견지하고 일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볼드바타/수흐바타르, 『바드라흐의 ‘당의 우파 회색분자들과 싸운 성공적인 투쟁의 교훈’』, 2001, 46~47쪽)

전통의 개혁과 민주주의 사상을 갖고 있던 또 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수흐바타르를 들 수 있다.

그는 “인민 제한군주제의 수립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 하여 지위가 낮은 사람을 이유 없이 압박하고, 지위가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의 위세에 짓눌려 호소할 곳 없이 고통을 당하는 등 포악스런 제도를 종식시키고, 인민에게 자유를 주어 편안하게 해주기 위함이다”라고 그 의미를 분명히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복드 황제를 옥좌에 그대로 추대하고 국정을 떠나가는 것은 불교를 숭상하고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평등하며 부강한 국가를 건설하기 위함이다. …… 그렇기 때문에 관리와 병사들은 모두 옛 제도와 현재 새 정부의 정책과 목표를 깊이 깨달아 알고 오류에서 벗어나고, 정직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나쁜 것을 버리고 좋은 것을 전하고, 각자가 맡은 일에 충심을 바쳐 열심히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바트-오치르, 『담디니 수흐바타르 ‘연설, 글 모음’』, 2003, 170쪽)

위에서 언급한 민족·민주 사상가들은 민족 고유의 특성 및 전통과 관습을 고려한 새로운 민주주의 정치 체도를 수립하고, 전체 몽골족을 통합하고, 조국의 독립을 확고하게 한다는 점에서 통일된 견해를 갖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치 체도의 내용과 형식에 대한 이해에서는 일부 다른 점도 있었다.

한편 혁명 초창기부터 코민테른과 소비에트 정부의 영향력이 커지고, 몽골을 좌파, 즉 사회주의의 방향으로 발전시키려는 정책과 노선이 동시에 나타나 그 후 점점 심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당시 몽골에서 활동하던 엘벡도르지 린치노(Elbegdorj Rinchino), 리스쿨로프(T. R. Ryskulov) 등의 대표들이 크나큰 역할을 하였다. 그들은 몽골 지도자 사이의 사상 및 입장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길을 닦고',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는 행보를 취하였다. 이를 테면 린치노는 다음과 같이 몽골인민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몽골인민당의 궁극적인 목표는 공산주의이다. 당은 자본주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그 목표에 도달하려고 진진하고 있다. 당은 이런 목적과 목표를 세우고 수행할 방안을 확정하기 위하여 과연 어떤 계급과 세력에 의지할 것인가에 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 당이 의지하고 믿는 주요 세력은 중산층과 빈민들이다. ……

(린치노(E. Rinchino), 「몽골 혁명의 미래의 모습」, 몽골인민당 제3차 회의, 1966, 45~47쪽)

보도와 단잔 등 일부 혁명 지도자가 정계에서 축출된 것 또한 이와 같은 외국 지도자들의 간섭 결과이다.



---

# 02

---

## 인민공화정부의 수립과 발전 (1924~1928)

몽골인민공화국의 목표는 “과거의 전제적이고 반동적인 질서와 사상의 찌꺼기를 뿌리째 없애고, 정치와 지배 행위를 진정한 인민의 법도에 맞추어 새로운 질서를 가진 공화국의 기초와 기둥을 강화하는 것이다.”

(제1차 헌법 2조 중에서)

---

### ● 제1차 국가대회의

#### 공화제의 수립

공화제 수립의 목표가 시행될 무렵인 1924년 5월 20일 제한(입헌)군주 복드 황제가 승하하였다. 다음 달인 1924년 6월 7일 몽골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는 공화제 수립에 관한 결정을 논의하고 승인하였다. 즉, 동 중앙위원회는 “복드 황제께서 승하하였으므로 현재 인민정권의 국가 제도에 맞추어 공화제를 실시하는 문제에 대하여 토의하고, 인민공화국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마땅하며, 대총통(大總統)이라는 국사를 총괄하는 수장을 선출하지 않고, 국가 최고 권력을 국가대회의 규정에 따라 해당 대회에 귀속토록 한다”(몽골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의 제3차 전원회의 결정

중에서)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 따르면 인민이 선출한 대표자들로 이루어진 국가대회의가 국가의 최고 권력을 장악하도록 하였다. 국가대회의 소집 준비를 끝낸 후 헌법 초안을 마련하고, 국가대회의 규정을 제정하고, 국가대회의 대표자 선거 조직 등에 관한 일을 진행하였다.

국가대회의가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헌법의 초안을 마련하는 일이었다. 이 일은 이미 ‘서사협정’을 승인할 때부터 시작되었다. 먼저 헌법 초안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다. 당시 몽골 정치 지도자들은 이 일에 큰 관심을 보이고 진지하게 접근하는 한편, 여러 각도에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논의하였다. 헌법 초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몇 차례 개편되었다.

맨 처음 1922년 5월 19일 법무부 장관 막사르자브, 체벤(Tseven), 바트-오치르를 위원으로 하는 헌법 초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그들에게 “영국과 같은 국가의 법률을 요약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배 구조에 맞추어 입안하라”는 지침을 주고, “또한 다른 학식 있는 인사를 초청하여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헌법 초안 마련의 임무를 위임하였다. 동 위원회는 영국, 스웨덴, 벨기에, 네덜란드 등 여러 국가의 헌법과 그에 준하는 자료를 번역하여 연구하였다.

동 위원회는 ‘제한인민국가 헌법(Khemjeet jasgtai Ard ulsyn Ündsen khuul)’이라는 이름의 헌법 초안을 마련하였다. 그 초안의 제1장에 ‘복드 황제에 관한 조항’이 있다. 그러나 그 후 체벤도르지(Tsevendorj), 체벤, 린치노, 브세야츠키(P. Vsevyatskii), 고편-바담자브(Gombo-Badamjav) 등이 작성한 초안이 국가대회의에 상정되었다. 헌법을 기초할 당시 몽골에 있던 코민테른 대표와 소비에트 전문가들이 그 일에 직접 참여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의 이념적 영향이 매우 컸다. 그러나 몽골의 정치 지도자들은 자

국의 특색과 국제적 기준을 고려한 헌법 초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였다. 모든 준비를 끝낸 후 1924년 11월 8일부터 28일 사이에 역사적인 제1차 국가대회의가 소집되었다.

국가대회의 주요 성과 중 하나는 제1차 헌법을 승인한 것이다. 이 헌법은 “몽골국을 향후 공화국이자 완전한 권리를 갖는 인민국가로 한다”고 하고, 국가의 수도 명칭을 니슬렐 후레에서 울란바토르로 개칭하였다. 또한 이때 제정된 헌법에 따라 몽골의 정치 제도를 법제화하였다.

이처럼 제1차 헌법을 통과시켜 인민공화제를 확립함으로써 몽골인민공화국은 의회제 국가가 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대회의 의원을 여러 단계의 회의, 즉 10호(戶), 박(Bag), 솜(Sum), 호쇼(Khoshuu), 아이

3 몽골의 행정 단위로 호소를 제외하고 현재까지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위로부터 아이막은 우리의 도(道), 솜은 군(郡), 박은 그 아래 행정 단위이다.

막(Aimag)<sup>3</sup>에서 선출하고 대의민주주의 형태로 국가대회의를 구성하여 국사를 수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는 몽골 역사상 처음으로 인민이 국정에 참여할 권리를 법제화하여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이 몽골에 민주주의 제도, 즉 인민 스스로 정치 권력을 장악하는 제도가 탄생하였다. 헌법은 또한 기타 여러 가지 문제를 법제화하여 규정하였다. 예를 들면 인민의 권리 및 자유와 관련 있는 중요한 조항도 여기에 포함되었다. 제1차 헌법은 이와 관련하여 “인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당해국 구성원 누구에게나 신앙의 자유를 주기 위하여 종교에 관한 일을 국정에서 독립시킨다. 각자의 자발적인 의사와 신앙에 따라 종교를 믿고, 국내에서 인쇄와 출판을 자유롭게 수행하고, 인민이 모여 회합을 갖고, 인민이 동맹과 조합 등을 조직하는 자유를 존중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에서 각종 지원을 하고, 인민이 학문과 문화를 익히도록 길을 열어 주고, 국가는 다양한 학문을 무상으로 교육시켜 준다”(제1차 헌법 중에서)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제1차 헌법 승인은 몽골 역사상 처음으로 군주제를 폐지하고

민족·민주 개혁을 시행할 기반을 법으로 보장하였다는 점에서, 그에 따라 공화국을 선포하였다는 점에서 20세기 몽골 역사의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대회의 몽골인민공화국 최고 권력을 갖고 있는 인민 대표 기관으로 헌법 개정, 국가의 대내외 정책 수립, 국가소회의와 의장단, 정부, 각부, 특별 기관, 아이막과 시의 업무 보고에 대한 심의, 국가 발전의 주요 문제 해결, 국가 예산 심의를 주 업무로 한다.

국가소회의 국가대회의 비(非)회기 중 최고 권력을 갖고 있는 기관으로, 법을 제정하고 국가 발전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대표자 기관이다. 국가대 회의에 업무를 보고하고, 국가소회의 의장단과 내각을 구성하고, 업무를 감시하고, 방향을 설정하고, 국가 기관의 보고를 심의한다.

국가소회의 의장단 국가소회의에서 선출하고, 그것의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의장은 국가소회의 의장이다. 국가소회의 의장은 국가대회의와 국가소회의 비회기 중 국가수반의 임무를 수행한다.



인민 공화 정부의 조직(1924-1928년)

## ○ 민족 · 민주 발전 노선의 보호와 지속

몽골의 지도자들은 민족의 기본 권리와 문화 사회의 근본인 민주주의 원칙을 지도 이념으로 만들기를 갈망하였다. 그들은 민족 · 민주 발전의 방침으로 다음과 같은 목표를 제시하였다. 첫째, 민주적 질서를 수립하여 몽골국 인민 모두가 평등한 권리와 자유를 향유하고, 교육을 받으며, 인민들이 창조한 노동을 숭상하고 국가를 발전시킨다. 둘째, 외교 정책으로 세계 여러 국가를 상호 존중하고 우호 관계를 수립하며, 정치 · 사상적 차이에 관계없이 그들과 사회 · 경제 분야에서 협력한다.

몽골의 지도자들은 민족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문제에서 확실하게 자신의 입장을 견지하였다. 이를 테면 1924년 5월 31일 베이징에서 소련과 중국 사이에 체결된 협정에서 “소련 정부는 외몽골을 중화민국 영토의 일부임을 승인하며, 외몽골에 대한 중화민국의 중주권을 존중한다”라고 한 것에 대하여 끈질기게 반대하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또한 자담바(N. Jadamba)와 아마르(A. Amar) 등은 1926년 몽골-소련의 협력 사업에서 평등과 상호 이익에 위배되는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여 시정을 이끌어냈다. 이와 함께 독일 등 유럽 국가와 교역하고 자국의 선박을 소유하여 흑해의 항구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경제 분야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몽골은 정치 분야에서도 민족 · 민주주의 사상을 확고하게 견지하였다. 이를 테면 덴데브(Dendev)는 1922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코민테른 회의석상에서 “우리 당의 사업 시행 계획 내용을 보면 위대한 공산당도, 사회주의당도 아니고, 문화 선진국에 존재하는 진보적 민주당에 가깝다”라고 하면서 코민테른의 원칙을 받아들이지기를 거부하였다. 또한 몽골의 국내 문제에 간섭하려



몽골국 행정 구획(1931년)

고 한 코민테른 대표자들의 철수를 요청하여 1925년 6월 리스콜로프와 린치노 등을 본국으로 돌려보냈고, 무소 불위의 암가예프(M. Amgaev)의 행동에 대하여 일정한 제약을 가하였다. 이런 것들은 민족·민주주의 사상을 굳건하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취한 여러 가지 조치 가운데 일부에 불과하다.

그러나 몽골 지도자들의 이와 같은 민족적 특색을 고려한 독자적인 정책 노선과 활동은 볼셰비즘을 숭상하는 코민테른 지도자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

## ● 소련과 코민테른의 영향력 심화

코민테른 집행위원회는 1928년에 라이테르(I. Raiter), 트루바체프

(Trubachev), 오치로프(Ochirov) 등을 임명하여 몽골에 코민테른 대표부를 설치하기로 결의하였다. 대표부의 지침에는 라이테르를 코민테른 대표라고 소개하고, 다른 위원은 몽골인민혁명당 업무를 지도할 때 관여하지만 코민테른 대표의 입장과 명의로 발언하지 말 것을 환기시켰다. 이에 코민테른 대표자들은 동 집행위원회의 서한을 몽골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의장 담바도르지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코민테른 대표부의 일원인 암가예프는 “우파 인사를 색출하는 일을 책임감을 갖고 서둘러 시행하시오. 여러분들은 열흘 후에 당정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이오”라고 말하며 좌파를 선동하였다. 또한 코민테른 측은 “몽골인민혁명당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협은 우파의 위협이다”라거나, “우파의 본질은 향후 혁명의 발전을 중단시키고 구제도의 봉건 관료의 타성을 아직 벗어나지 못한 관료주의의 우월한 권리를 강화하고, 또한 기업을 경영하는 무자비한 관리들이 어떠한 제한이나 통제도 받지 않고 몽골 인민을 착취하여 치부할 기회를 주는데 있다. ……” 이를 중식시키기 위하여 몽골인민혁명당은 “확실하게 좌파 사상을 견지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1928년 10월 12일 소집된 몽골인민혁명당 제7차 당대회와 몽골인민공화국 제5차 국가대회에서 좌파 인사가 코민테른의 강력한 지지에 힘입어 당정 지도부에 선출되었다. 이렇게 하여 당정 모든 결정 및 결의에 코민테른과 좌파 사상 노선이 반영되는 상황이 되었다. 즉, “우리 당은 진정한 인민혁명당이며, 우리가 속해 있는 몽골국의 정부를 진정한 인민국가의 법도에 따라 개혁하고 확고하게 하는데 빈민과 중간 계급에 의지하여 사회주의를 건설해야 한다”라거나, “현재 몽골은 사회주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당

#### ◆ 약단보긴 아마르(1886~1941)

투시에트한 아이막 다이친 왕 호쇼에서 태어났다. 몽골어와 만주어를 배워 호쇼와 아이막에서 관리로 근무하였다. 1911년 독립 이후 외무부에서 일하였다. 1922년부터 인민정부의 보조 관리, 외무부의 사관, 1923년 10월부터 외무부의 수장이 되었다. 아마르는 또한 산업부 장관, 내무부 장관, 국영은행장 등을 역임하였다. 그는 몽골의 재정 정책을 소련이 독점하지 말 것을 소련 정부에 요구하였다. 아마르는 전형적인 반(反)중국 인사였지만, 몽골 내 문제에 소련이 개입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았다. 그는 1927년에 총리로 임명되었지만, 1928년부터 봉건 귀족으로 매도되었으며, 1930년에는 '신우파'로 낙인 찍혀 당 중앙위원회 위원과 몽골인민공화국 총리직에서 해임되어 과학원 원장으로 좌천되었다. 그는 좌파 정책을 비판하고, 소련의 경험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을 비난하였다. 1932년 7월 아마르는 다시 국가소회의 의장으로 복귀하였다. 이어 1936년 3월 총리 겸 외무부 장관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몽골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최고위원회는 1939년 3월 그를 당중앙위원회 최고 위원 및 당원에서 제명하고 전격 체포하였다. 소련 대법원 군사협의회는 반혁명분자이자 민족주의 단체에 가입하였다는 죄목으로 1941년 7월 10일 그에게 사형을 언도하였다. 그러나 1956년 소련 대법원은 재심을 통하여 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1961년 1월 인민대회의 복권위원회에서 그의 명예를 회복시켰다.

의 사상 사업을 진행할 때 마르크스-레닌의 가르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몽골인민혁명당 제7차 대회의의 결정)라고 하여 초기의 민족·민주주의 발전 노선이 공식적으로 폐기되었다. 그리고 동 회의에서는 민족·민주주의 발전 노선을 견지한 사람들을 ‘우파(Baruuntan)’라고 비판하고 그들을 요직에서 배제시켰다. 담바도르지, 자담바, 아마르, 체벤, 겔렉생게(G. Gelegsenge) 등의 주요 인사가 이때 정계에서 축출되었다. 한편 코민테른이 몽골의 국정에 관여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정책이 시행되

었다. 첫째 민주주의 원칙에서 후퇴하고 불세비즘을 숭상하는 정치 제도로의 전환, 둘째 인민 모두의 권익을 중시하는 것을 버리고 오직 하층 빈민의 권익과 지배를 인정, 셋째 국내외 시장이 발전하고 여러 형태의 재산이 존재하는 경제 제도로부터 벗어나 사유 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경제 제도로 전환하는 정책을 시작하였다.

한편 몽골인민혁명당에서는 코민테른과의 교류에 대하여 “우리 인민혁명당은 사회주의로의 진입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코민테른의 열렬한 지도부에 심의권(審議權)을 맡기고, 향후 코민테른의 정회원국이 되는 것을 당 업무의 중요한 내부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하여 코민테른 정책을 옹호하였다.



---

# 03

---

## 몽골국 발전 노선의 실체

자신의 힘에 부치는 짐을 어깨에 지고, 자신의 힘과 능력에 부치는 노력을 하고, 높고 높은 곳에서 뛰어 내리면, 몽골의 노동자들을 다치게 하고, 많은 사람의 피와 심장과 핏줄을 상하게 하고, 전국가 전 민족을 극한의 피로에 이르게 할까 걱정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발전을 더디게 진행시키고, 모든 일을 느리지만 질적으로는 훌륭하게 추진하려고 한다.

(J. Tseven이 한 말 중에서)

---

### ● 성급한 사회주의 건설 시도와 실험

코민테른은 몽골에 곧바로 사회주의를 건설하려는 정책을 견지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 비록 능력이 없다고 해도 우리의 정책을 지키고 물러나지 않을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공언하였다. 그들의 지지를 받아 겐덴(P. Genden), 바드라흐(Ö. Badrakh), 엘데브-오치르(B. Eldev-Ochir), 시제(Z. Shijee), 라간(B. Laagan) 등이 몽골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에 나섬에 따라 좌파가 몽골인민혁명당 지도부를 장악하게 되었다.

코민테른 집행위원회는 1929년 12월 3일 몽골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에

“첫째 몽골국을 비(非)자본주의 노선, 즉 사회주의에 따라 발전시킬 계획을 수립하고, 둘째 몽골인민혁명당이 빠른 시일 내에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소련의 경험을 활용하는 것”에 관한 특별 지침을 보내 왔다. 코민테른 대표 쿠추모프(V. Kuchumov)가 1930년에 개최된 몽골인민혁명당 제8차 회의 결정에 이 지침의 사상을 반영하여 몽골에서 좌파의 독주가 더욱 가속화되었다.

좌파들은 사회주의 건설이야말로 당시 몽골이 가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사회주의 건설 계획에 “부자들의 재산을 압수하고, 사회주의 건설에 방해가 되는 사유 재산을 폐지하고, 국영 및 조합의 공장과 국영 상업을 지원하고, 집단 공동체를 설립하여 빈민과 중간 생산자를 지원하는 것”을 반영하였다. 한편 이 시기에 이루어진 또 하나의 커다란 변화는 행정 구역을 개편하여 새롭게 확정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현재 몽골의 행정 구역 구분의 기초가 되었다.

**사유 재산 몰수** ‘봉건 귀족’ 재산 몰수 중앙위원회가 8인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그 위원장에 국가소회의 의장단 의장인 초이발산이 임명되었다. 각 지방에도 역시 지부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이렇게 하여 시작된 재산 몰수 운동은 1929년 9월부터 1932년 초까지 계속되었다. 이 운동 결과 옛 관료, 왕공, 귀족, 고위 승려 등 1,560여 가호에서 1100만 투그릭(Tögrög)의 재산을 몰수하였다. 당시 재산을 몰수할 때 가족 수를 고려하지 않고 각 가호에 3,000투그릭만 남겨 두고 나머지를 전량 몰수하였다. 몰수한 재산은 빈민 가호와 협동 공동체에 양도되었다.

또한 일반 부유한 인민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모은 사유 재산도 몰수 대상이었다. 그러나 재산 몰수는 1921년 이후 성장하던 국가 경제를 과탄시키고



사유 재산 몰수

가축 수를 감소시키는 등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였다.

#### 집단 공동체의 설립

정부는 사유 재산을 몰수할 목적으로 “집단 사업 만세!”라는 구호를 제정하였다. 1932년 초가 되면 집단 공동체 수가 750여 개나 되고, 약 55,000호가 여기에 가입한다. 이 무렵 좌파들은 “집단 사업장들이 건전하게 발전하고 있다”라거나, “집단 운동이 전 국민의 운동이 되고 있다”는 등으로 선전하고, 그 수를 늘리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정작 이 집단화 운동이 몽골 사회에 가져다 줄 실질적인 이익과 질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또한 사유 재산과 사적 노동을 폐기할 목적으로 일반적인 거래와 운송에도 압박을 가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몽골인민혁명당 제8차 대회에서는 “악덕 상인의 힘을 약화시키는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므로

일반 거래를 18~15%까지 줄일 것”에 대한 결정이 내려졌다. 1930년 12월에는 상거래와 운송 경영에 관한 국가의 특별 권한이 결정되었다. 이는 나라 전체를 물품 부족 상태에 빠뜨리고, 특히 차(茶), 밀가루, 쌀, 포목 등의 물품이 부족하여 국민의 생활 수준을 더욱 낮추는 데 한몫하였다.

**1932년 무장 봉기** 좌파들의 정책 실패의 피해로 정부에 대한 인민의 신뢰가 무너지고 저항과 투쟁이 일어났다. 특히 1932년부터 반(反)정부 투쟁이 극에 달하여 수많은 사람이 참여하여 강력하게 전개되었기 때문에 몽골 역사에서는 이를 ‘1932년 무장 봉기’라고 한다. 흠스굴, 자브한, 알타이, 아르항가이, 우부르항가이, 도르노드 등 대부분의 아이막에서 좌파 정책과 활동에 반대하는 무장 봉기가 일어났다.

봉기에 참가한 사람들은 협동 공동체, 집단 농장, 공공 기관의 재산을 파괴하고,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살육하였다. 그들은 심지어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행정 기관을 철폐하고 당과 조합의 해체를 선동하기도 하였다. 몽골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각각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이 투쟁에 참여하였다. 그래서 일부 연구자들은 이 사건을 내전의 성격을 띤 봉기라고 생각한다.

좌파 지도자들은 이 무장 봉기의 상황을 시시각각 모스크바에 보고하였다. 그들 중 한 사람인 바드라흐는 봉기를 진압하기 위하여 소련에서 전투 비행단을 보내 줄 것을 요청하고 실제로 그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이것이 무장 봉기 진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렇게 하여 1932년 10월 무렵에 무장 봉기는 진압되었다.

당시 소련 입장에서 보면 몽골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었다. 이는 한 코민테른 관계자의 말을 통하여 알 수 있다.

### ◆ 펠지딘 겐덴(1895~1937)

사인노훈한 아이막 우이젠 왕 호소에서 태어났다. 제1차 국가대회에 참여하고, 1924~1928년 국가소회의 의장, 1927~1928년 국영은행 위원장을 겸임하였다. '시골 사람들'과 코민테른의 지지로 제2차 당대회에서 당중앙위원회 서기장으로 선출되어 1932년까지 역임하였다. 겐덴은 1929년 공산주의 국제 집행위원회에서 몽골인민혁명당과 코민테른의 관계 복원에 대하여, 1932년 시제와 공동으로 당의 정책 및 활동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는 코민테른이 몽골에서 시행하는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후 겐덴은 몽골인민공화국 제1~7차 국가대회에서 국가소회의 의원으로, 제1~19차 국가소회의에서 사회의 최고 위원으로, 1925~1936년 몽골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최고 위원으로 각각 선출되었다. 또한 그는 1932년 6월 인민 정부의 내각총리 겸 외무부 장관이 되었다.

겐덴은 '신전환 정책'을 공포하고 시행하였다. 이 시기에 당의 의무와 영도가 크게 줄어들고, 사회 전체에서 차지하는 정부의 비중이 커졌다. 그는 소련의 헤게모니에 대해 반대하며 '소련은 붉은 제국주의자들'이라고 말하며, 소련의 교관들을 철수시키는 문제로 다른 사람들과 대립하였다. 스탈린이 그에게 승려와 싸우고, 자유주의 경제를 바꾸고, 내위국을 내무부로 격상시켜 개편할 것을 조언하였지만 그는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1935년 말 스탈린은 그와 다시 만난 자리에서 사회 분야에 대한 원조 제공을 거부하고, 국방비를 예산의 50% 수준으로 끌어올리라고 경고하고, 승려와 싸울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하였다. 이 무렵 제1부총리 초이발산은 그의 입장을 비판했는데, 1936년 초 소집된 몽골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의 제2차 전원회의에서 그를 중앙위원회 위원에서 제명하고, 총리직에서 해임할 것을 의결하였다. 그리고 1936년 3월 22일 개최된 제20차 국가소회의에서 그는 총리직에서 해임되었다. 그 후 겐덴은 소련 대사직을 수락하지 않았지만, 치료를 이유로 그를 소련으로 보냈다. 소련 내무인민위원회는 1937년 7월 반혁명분자 및 일본의 스파이라는 죄목으로 그를 체포하였다. 그는 소련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1937년 11월 26일에 총살되었다. 1962년 1월 몽골인민공화국 인민대회의 복권위원회에서 그를 복권시켰다.

몽골의 독특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그곳에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엄청나게 넓고 광활한 영토가 있다. 몽골의 영토는 영국, 독일, 프랑스 국토를

합친 것보다 더 넓지만 인구는 고작 80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는 바로 이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는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고, 간교한 방법을 써서라도 최소한 몽골을 제국주의자와 반(反)혁명 세력의 영향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생각한다. 이는 몽골에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목표이다. 그들의 영토는 인구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만약 우리가 이 적은 수의 인구를 비자본주의의 길로 들어서게 하고, 몽골에서의 운동을 노동자들의 계급 투쟁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오로지 이 방법만으로도 우리는 이 땅을 우리의 영향권하에 둘 수 있다.

(코민테른 관계자의 발언 중에서)

## ● 신전환 정책

몽골에 사회주의를 건설하려는 소련 공산당과 코민테른의 실험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면서 몽골 사회는 심각한 위기였다. 그로 인하여 코민테른 지도부는 몽골에 사회주의를 건설하려던 강압 정책에서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고, 1932년 5월 이 문제에 관하여 특별 결정을 내렸다. 코민테른은 이 결정에서 모든 잘못을 몽골의 당정 지도자와 코민테른 대표자들에게 떠넘기고, 그들의 잘못으로 실책과 일탈이 야기되었다고 비판하였다. 그들의 주요 오류는 첫째 소련의 사회주의 건설 과업을 그대로 모방하고, 둘째 모든 승리를 타도 대상으로 삼아 인민의 신앙을 모욕하고, 셋째 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야만적으로 침해하고, 넷째 모든 것을 집단화하여 사유 재산과 사적 노동을 부정하고, 다섯째 일상적인 거래를 부정하고 부유한 일반인까지 타도 대상으로 몰아붙인 점 등을 적시하고 이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렸다.

따라서 당정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과 활동을 시급히 조사하여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1932년 6월 29일~30일 이틀 동안 몽골인 민혁명당 중앙위원회와 중앙감찰위원회(Khyanan baitsaakh Töv komiss) 제 3차 합동특별총회가 소집되었다. 이 총회에서는 당에서 저지른 정치상의 기본적인 과오를 밝히고 향후 설정할 목표를 공식화하였다. 이 총회에서 내린 결정을 ‘신전환 정책(Shine ergeltiin bodlogo)’이라고 한다.

제3차 합동특별총회는 사회주의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철회하고, 국가의 정치·경제·사회·정신 생활을 깊은 위기에서 구해 정상적인 발전의 도정(道程)으로 들어서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반 조치를 취하기로 결의하였다.

1. 인민 정부를 강화하고 민족·민주주의를 정책의 방향으로 삼는다.
2. 인민 경영 주체의 적극적인 발의와 부의 축적과 재산을 적극 장려한다.
3. 부유한 인민에 대한 박해를 중단한다.
4. 사유 재산과 사적 거래를 장려한다.
5. 협동 공동체를 모두 폐지하고 일반 협동 조합(Negdel)을 설립한다.
6. 국영 업체와 협동 조합(Khorshoolol)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은행 대출을 허용한다.
7. 빈민과 중산층 인민에게 조세 감면 혜택을 준다.
8.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부여한다.

신전환 정책은 물론 그때 처음 생긴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 단지 민족·민주 발전 노선을 복원하여 다시 준수한 것에 불과하다. 이 신전환 정책을 시행하는 기간에 몽골 정치 지도자들은 독자적인 정책을 다시 수립하

고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 시기 몽골 정부의 목표와 활동은 첫째, 모든 인민의 권익과 복지를 위하고, 둘째 정당하게 노력하여 부를 축적하는 새로운 형태의 자본가 민주공화제 국가를 건설하는 데 방향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 모든 것을 놓고 볼 때 신전환 정책은 1921년의 민족·민주 혁명의 목표를 진정한 의미에서 지속시키려고 한 일련의 정책이었다. 또한 몽골인민 혁명당 제7차 대회는 ‘우파’라고 비판받았던 인사들의 정책과 활동이 정당하였음을 보여 주었다.

## ● 전체주의 체제의 수립과 숙청

이 시기에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은 전쟁과 파시즘의 위협이 나타났고, 독일·이탈리아·일본 3국이 군사 동맹을 체결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주의 건설이 심화될수록 계급 투쟁도 격화된다는 스탈린의 공산주의 가르침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전체 정치를 지원하였다. 무솔리니, 히틀러, 스탈린 등은 자국에 전체주의 체제를 수립하고, 각각 자신의 영향력을 전 세계로 확대시켜 나갔다. 이와 함께 일본은 파시스트 동맹에 가담하고 극동 및 아시아 지역에서의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시켜 나갔다.

신전환 정책 시행 결과, 몽골의 사회·경제 분야에서는 진보적인 요소가 나타났지만 정치·사상적 측면에서는 외부의 영향과 압력이 끊이지 않았다. 이를 테면 소련은 몽골을 자국의 영향권에 존속시키기 위한 정책을 계속 펴 나갔으며, 반(反)승려 투쟁을 단호하게 전개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1934~1935년에는 몽골에 거주하던 부랴트인, 주로 일반인들을 반(反)혁명분자

또는 일본 스파이라는 조작 사건에 연루시켜 대대적으로 숙청하였다. 더 나아가 소련은 어떤 사람을 당과 정부 지도부로 선출해야 자신들에게 유리할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의 지침을 끝이끝대로 시행하는 것을 거부한 몽골의 아마르, 겐덴, 데미드(G. Demid) 등의 정치 지도자를 자신의 방침과 노선을 충족시킬 수 없는 인물로 보고 직책에서 축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와 동시에 몽골에 오직 한 사람만 따르는 독재 체제를 수립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1936년 초에 내위국(Dotood khamgaalakh gazar, 內衛局)을 내무부로 개편하고 부총리 초이발산을 내무부 장관으로 임명하였다. 그는 1937년 9월 2일에 국방부 장관 겸 전군 총사령관에 오름으로써 모든 권력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한편 1937년 8월 24일에 소련 내무인민위원회 부위원장 프리노프스키

(M. P. Frinovskii), 국방부 차관 스미르노프(I. N. Smirnov), 몽골 주재 소련 대사 미로노프(S. N. Mironov) 등이 울란바토르에 와서 일본의 몽골 점령 계획이라는 것을 몽골 수뇌부에 소개하였다. 또한 이른바 ‘음모(Zagovor)’ 사건에 연루된 115명의 명단도 함께 건넸다. 그 지침에 따라 1937년 9월 10일 밤부터 명단에 적힌 인사들이 소환·체포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하여 ‘인민의 적’ 혹은 ‘반혁명분자’라고 단죄되어 각부 장관 및 고위 관리에서부터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맞보고, 고아가 되는 슬픔을 겪었다. 연루된



초이발산 초상

인사들은 대부분 “일본 정보 기관의 지시로 몽골인민공화국의 영토를 정탐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국가 전복을 꾀했다”라는 거짓 죄를 뒤집어써 처형되었다. 아마르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범죄라는 것은 진실로 어떤 행위를 범한 사건에서 나오는 것이지, 결코 어떤 사람이 마음대로 사건 또는 죄를 만들어 일을 처리하는 법도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도 사람의 법도를 모르고 사람의 질이 낮고 법을 무시하는 우리나라의 일부 노동자들은 그와 같은 거짓 사건을 인위적으로 만들거나 소문으로 떠다니는 빈말 등을 지나치게 크게 만들고 치켜세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 우리 당과 정부가 어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여러 의견을 합치시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어느 한 사람이 독자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것은 어떤 경우는 적절하지 않다.

(아마르(A. Amar), 『몽골의 간략한 역사』, 1989)

초이발산은 내무부 직원 수를 늘리고 권한을 확대하였을 뿐 아니라, 내무부 장관의 지침을 위반한 사람을 즉결 처형하는 데 관한 특별 명령을 내렸다. 그 결과 몽골인민공화국 제7차 국가대회에서 선출된 국가소회의 의원 중 절반 정도가 체포되었다. 또한 정부 각료가 대부분 숙청되었는데 이는 몽골에 불법이 판치는 1인 독재 전체주의 체제가 확립되었음을 보여 준다.

대(大)숙청 기간에 2만여 명이 처형되고 5,740여 명이 장단기 복역 형에 처해졌다. 특히 몽골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51명의 위원 중에서 83.6%에 달하는 43명이 숙청되었고, 당중앙위원회 최고 위원 11명 가운데 초이발산을 제외한 10명이 숙청되었다. 초이발산은 또한 군대의 고급 장교 84.6%를 체포하여 대부분 처형하였다. 1936년에서 1940년 사이에 군 간부와 그들의



1930년대 숙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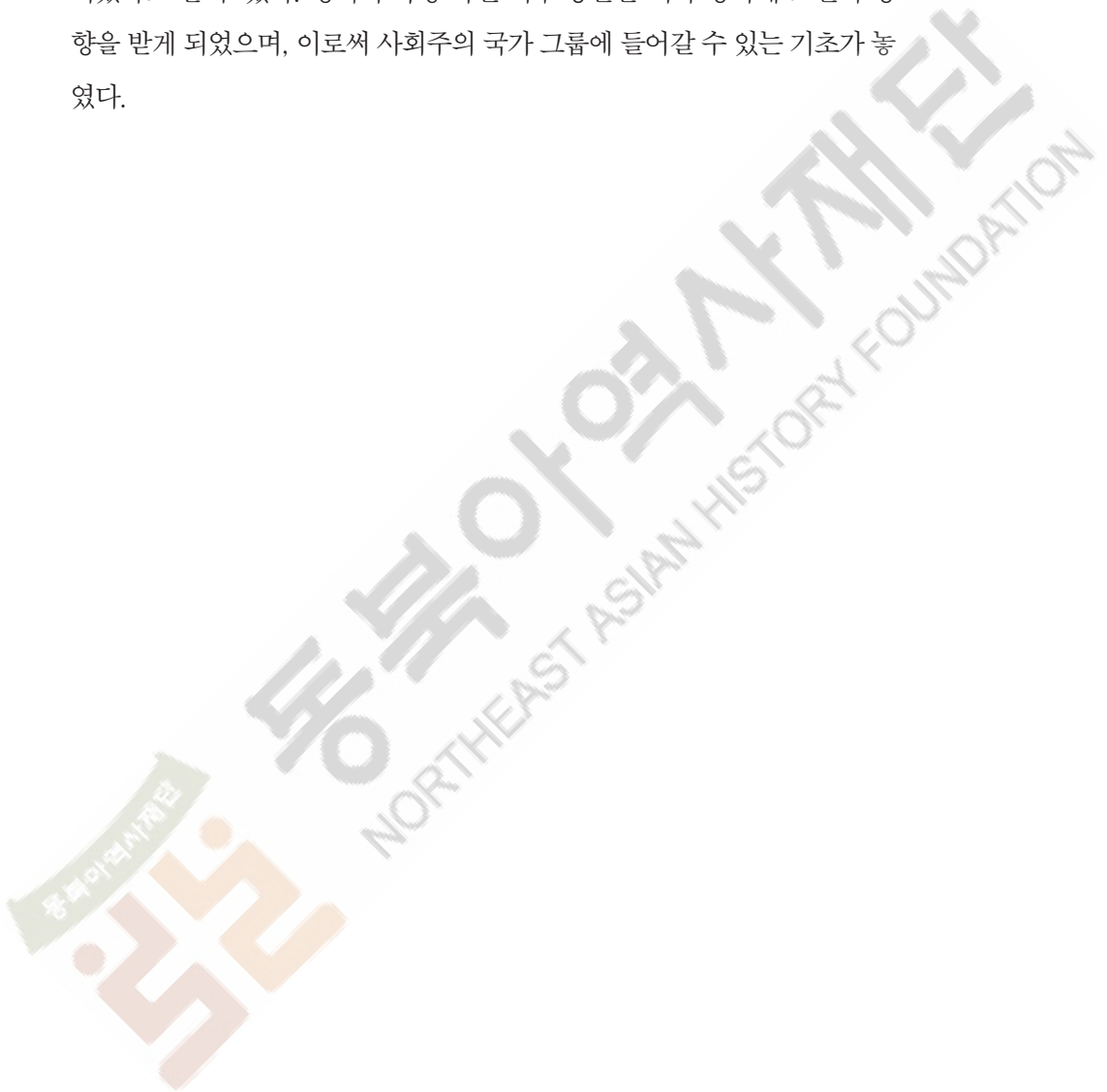
가족, 기술자, 정치인, 장교 700명 이상, 일반 사병 140여 명이 숙청되었다. 초이발산은 1937년 11월 사람들에게 죄를 뒤집어쓰워 체포하는 동시에 본인이 ‘자아 비판’을 하는 명령을 내리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그와 함께 소련과 스탈린 측에서 승려들을 숙청하라는 지시를 내리자, 승려들을 몽골 인민의 위험한 적 또는 일본이 의지하는 지주(支柱)라는 명목으로 체포하여 처형하였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1937년부터 1940년 사이에 17,000여 명의 승려를 체포하여, 그중 13,680여 명을 살해하고 나머지는 투옥하였다. 승

려의 처형과 함께 사원 700여 개를 파괴하였다. 또한 몽골의 지도자들을 소련의 법으로 처벌하고 소련으로 이송하여 감옥에 투옥하고, 고문을 가하고 살해하기까지 하였다. 이렇게 하여 몽골인민공화국 국가소회의 의장 독숨, 로술, 총리 아마르, 켄텐 등 수십 명의 정치가가 소련의 재판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목숨을 잃었다.

이와 같이 몽골에서 정치적인 숙청이 일어난 것은 국내외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그중에서도 소련이 자국의 안전을 무엇보다 중시하여 자국 세력의 확대, 근거지의 유지 및 확장, 사상의 전파 등을 목적으로 몽골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내정에 직접 개입한 것이 주된 영향을

끼쳤다. 그렇기 때문에 몽골에서 정치적 숙청이 일어난 주요 원인은 공산주의 사상과 강대국, 그중에서도 특히 소련의 지정학적 이익과 관심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치적 숙청 사건 이후 몽골은 더욱 강하게 소련의 영향을 받게 되었으며, 이로써 사회주의 국가 그룹에 들어갈 수 있는 기초가 놓였다.





---

# 04

---

## 몽골 경제와 문화의 발전

‘우파’라고 불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착취하지 말고 모두가 공평하게 부자가 되자’라는 구호를 내걸고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훗날 총리 겐덴이 다시 ‘부자가 되자’라는 구호를 제창하여 ‘신(新)우파’라는 말을 들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코민테른과 소련은 ‘종교는 인민을 바보로 만드는 아편’이라고 한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론에 의거하여 사상 및 문화적인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시행할 것을 몽골인민혁명당과 몽골 지도자들에게 요구하였다. 이 또한 무슨 이유에서일까?

---

### ● 입헌군주제 시기 경제 정책과 활동

외세로부터 자유를 찾고 인민 주권의 정치 제도가 수립됨으로써 국가의 정책에도 적지않은 변화가 일어났다. 인민 정부는 국민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가 경제를 회복·발전시키고, 국고를 충실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실행에 옮겼다. 이 무렵 몽골의 사회·경제 부문에서 이루어진 주요한 민주 개혁의 과제는 이전 시기의 사회 관계를 종식시키는 것이었다. 인민 정부는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

- 1922년 1월 25일에 농노(Khamjlaga) 해방에 관한 역사적인 결정을 내

리고, 1922년 5월 5일에 귀족과 관리에게서 농노 지배에 관한 권한을 보장하는 인장을 수거하였다.

- 1922년 3월 31일에 내린 결정에 따라 귀족과 관리도 인민들처럼 국세 및 기타 세금의 납부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였다.
- 1922년 9월 8일에 이흐 사비 소속 왕공들로부터 농노 지배 권한을 보장하는 인장을 수거하는 데 관한 결정을 내렸다.
- 1923년 이흐 사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고위 승려와 불제자(佛弟子)의 특권을 폐지하고, 그들을 일반 군민(群民)으로 만들었다.
- 1923년 3월 22일에 ‘몽골의 현직 왕공과 한산 왕공의 권한에 관한 규정’을 승인함으로써 귀족과 왕공의 세습 지배권을 회수하였다.
- 1923년 4월 20일에 각 지방에서 농노제 폐지에 관한 결정이 내려졌다.

이와 같이 인민을 귀족과 왕공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한 제반 조치는 국가의 발전과 인민들의 생활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 무렵(1921~1924) 인민 정부는 또 역참(驛站) 노역을 경감하고, 외국 상인에게 진 채무를 무효화하고, 조세 정책을 개혁하고, 새로운 경제 부문을 창안하여 발전시키고, 재정 및 금융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민족 경제의 기반이 형성되어 향후 발전의 길이 열렸다. 그에 따라 인민 정부는 1923년 7월 24일 민족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사상과 원칙인 ‘경제 기본 정책’이라는 18개 조항의 중요한 문건을 작성하여 공포하였다.

### 인민 정부의 문화 정책

몽골 인민 정부는 국가의 번영과 발전은 문화와 교육을 육성·발전시키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이 점은 ‘경제의 기본 정책’에 명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을 완벽하게 법도대로 행하기를 원한다면, 인민 모두 보통 교육을 받아야 한다. 과거와 현재를 막론하고, 어디에서건 학식이 많은 자가 반드시 앞서 간다는 것을 세계 여러 나라가 이미 깨달았고, 지식을 연마하는 것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학식이 부족하면 하는 일이 야만스럽고, 재산과 위엄이 바닥에 떨어진다. 그러나 학식이 널리 번창하면 여러 가지 세련된 방법을 사용하게 되고, 재산이 많아지고 위엄도 높아진다. 바로 이런 이유로 경제를 항구적으로 충실하게 하려면 반드시 인민에게 일상적인 쓰기와 읽기, 시(詩), 특별한 이익을 주는 학문을 가르치는 일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경제 기본 정책’ 제18조)

그리하여 인민 정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그 문제와 관련하여 학교·교육 부문, 문화·계몽·과학 부문 등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겠다.

## ● 경제와 문화 분야에 나타난 성과(1924~1928)

이 시기에는 ‘경제 기본 정책’ 문건에서 제시한 제반 목표를 실행에 옮기고, 민주 개혁을 단행한 결과 사회, 경제와 문화 방면에서 적지않은 발전을 이루었다.

무엇보다 국가 경제의 근간인 가축의 수가 끊임없이 증가하였다. 또한 1925년부터는 민족 화폐인 ‘투그릭(Tögrög)’이 시중에 유통되기 시작하였다. 순도 90%, 무게 18g의 은을 ‘1투그릭’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1929년까

학교 교육의 발전(1921~1924)						
초·중등학교 건립		특수직업 인력양성		문맹퇴치 교육		
국가부담	지방부담	국내	국외	가정	조직	임시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21년 11월 2일에 니스렐 후레에 40명 학생을 뽑아 초등학교 건립</li> <li>1923년 봄에 40명 학생을 뽑아 최초의 중등학교 개교</li> <li>1924년, 학생 수 501명, 학교 수 13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22년부터 아이막, 시, 일부 호소에 사설학교 건립</li> <li>1924년, 지방사설학교 수 23개, 학생수 419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21년 10월에 니스렐 후레에 사관학교 건립</li> <li>1923년 3월에 전화, 전신공무원 양성</li> <li>1922년에 교사양성 강좌, 1923년에 교원학교 설립</li> <li>1924년에 黨학교, 獸醫학교 건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21년 8월부터 러시아에 유학 보내는 조치를 시행해서 당, 정치, 군사인력을 양성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막, 숨에서 문자를 아는 사람에게 자발적으로 배움, 교육 통용을 활용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년, 군인에 게 조직적으로 글을 가르친 것은 교육 형태의 하나였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인들에게 글을 가르쳐 줄 목적으로 중앙, 지방에 단기간 시행함</li> </ul>

몽골 학교 교육의 발전(1921~1924년)

지 몽골의 투그릭과 중국의 은진(銀錢)이 주요 지급 수단으로 함께 사용되었다. 1929년에 들어서야 중국, 러시아, 멕시코 등 외국 지폐와 주화의 사용이 중지되었다. 투그릭의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아서 고리 대금업자들이 판을 치고 부당한 방법으로 치부하는 일이 많았다.

이와 함께 인민 정부에서는 국가의 세입을 늘리고 세출을 줄이는 데 초점을 둔 여러 조치를 취하였다. 그 일환으로 국가 감찰 기구를 설립하고 예산 편성과 지출 상황에 대한 감독 기능을 강화하였다. 1926년에 몽골인민공화국의 제3차 국가대회에서 조세에 관한 통합 세법을 승인하여 각급 경제 단위, 개별 가호, 사찰 재산, 제조 공장 등에 세금을 부과하여 국가 예산의 절반 이상을 충당하였다.

문화, 계몽, 과학의 발전(1921~1924)					
국민계몽		국민보건		과학의 탄생과 발전	
문화, 예술, 문학	정보, 홍보 선전	전통의학	현대의학	문화재 수집, 연구	연구,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22년에 연극 극단, 1924년에 수흐바타르(D. Sükhbaatar) 클럽, 암갈랑 바타르(Amgalangbaatar) 클럽 결성</li> <li>• 보안네메흐(S. Buyannemekh), 나찰도르지(D. Natsagdorji), 나산바트(Nasanbat) 등의 작품 출간</li> <li>• 보안네메흐의 “산도 총독”, “最近歷史”, “귀족소미아”, “오산다르”, “바람을 잊은 스님” 등의 연극이 공연됨</li> <li>• 여러 종류의 신음악이 탄생하여 내용적으로 풍성해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호(Uria)” (1921~1923), “수도신문(Niisleliin sonin bichig)” (1923~1924), “인밀일보(Ardyn erkh)” (1924~1925), “진리(Ünen)” (1925~) 등의 신문출간</li> <li>• 몽골통신사의 “몬타消息(Monta medeelel)”, “요약잡지(Khuraangui setgüül)” (1922~1923) 등의 잡지출간</li> <li>• 다양한 선전 홍보활동, 책출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전통의 의술이 주로 시행되고 있었음. 저명한 藏醫들이 다수 있었으며, 인민정부에서 그들의 학식과 능력을 활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21년 8월 15일에 군인병원의 기초가 놓음</li> <li>• 1922년 10월에 니슬렐 후레에 최초의 서구식 병원 설립</li> <li>• 1923년 4월에 인민정부에서 내무부 산하에 병원, 위생국을 설립</li> <li>• 1923년 7월에 샤스티나(P. N. Shastina)를 위시한 의사, 보조의사들을 초청함</li> <li>• 1923년 12월 25일에 군인병원 산하에 약국을 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21년 11월 22일에 인민정부의 결정으로 설립된 “經書院(Sudarbichigiin khüreelel)”은 몽골 최초의 과학기관·경서원은 몽골어 및 다른 언어들의 희귀한 經典 및 史書 수집, 문화유적 발굴 및 보존, 각종 책의 번역, 저술, 출판 보급, 도서관, 박물관의 건립 등의 활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22년부터 일부 성터, 사원, 비석 등의 방향으로 역사 문화 관련 학술조사 활동을 벌임</li> <li>• 1922~1923년부터 미국, 소련의 탐사단이 몽골에 와서 활동을 벌였다. [앤드류스(R. C. Andrews), 코즐로프(P. K. Kozlov) 탐사단]</li> <li>• 천연자원, 광산 등을 조사 연구하기 시작</li> </ul>

몽골 문화 분야의 발전(1921~1924년)

이 기간에는 또한 국영 공장 및 경영 단위를 설립하고 예전부터 있던 것들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1925년부터 설립되기 시작한 건설 조합, 알탄볼락의 피혁 공장, 목재, 벽돌, 철강, 각종 주류와 음료, 방적 공장 등은 새로운 산업 분야의 근간이 되었다. 또한 신발, 의복, 안장, 길마 등 국민 일상 용품을 생산하는 수공업자 조합이 결성되었다.

운송 분야에서도 상당한 발전이 있었다. 이를 테면 1925년에는 12대의 자동차로 이루어진 ‘국립운송국(Ulsyn teekh nevtrüülekh khoroo)’이 설립되었는데, 이는 향후 교통 운송 분야의 기초가 되었다. 1925년에는 또한 울란바토르와 데드 시베(Deed Shivee) 사이에 항공로가 열려 항공 운송의 기초가 되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26년에는 처음으로 오르혼(Orkhon) 강과 셀렝게 강사이에 뱃길 운송이 이루어졌다. 같은 해에는 또한 체체를렉(Tsetserleg)-올리아스타이, 올리아스타이-올란곰, 울란바토르-운드르한(Öndörkhaan) 사이에 전화선이 가설되어 통신 분야가 새로 생겨났다.

인민 정부에서는 또 상업 분야에 대한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먼저 1924년에 ‘몽골국 도량형 규정(Mongol ulsyn alivaa khemjüüriin dürem)’을 제정하여 몽골에서 중국 상인의 영향력과 착취를 줄였다. 그 후 1928년 말까지 몽골인민공화국에서 사업하던 중국 상인 가운데 80% 정도가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이와 함께 1927년에는 몽골-소련 간에 특별협정을 맺어 양국 교역이 증대되었다.

한편 1924년에는 인민교육부가 설립되어 문화 및 과학 분야에서 정부의 정책을 주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였다. 교육부는 전문 기술 인력 양성에 큰 관심을 갖고, 1925년 소련에 46명, 독일에 35명, 프랑스에 4명의 젊은이를 유학 보내고, 1926년 소련에 151명, 독일에 5명을 보냈다. 또한 1925년에는 최초로 교원 총회를 개최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교원들의 의견과 제안을 수렴하여 이를 정부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1926년에 소집된 몽골인민혁명당 제5차 당대회 및 몽골인민공화국 제3차 국가대회의에서는 문화와 교육 발전 10개년 계획을 토의하고 문화 분야에 배정하는 국가 예산을 증액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수가 증가하여 1927년에 도시와 지방의 초중등 학교 수가 100여 개에

이르렀다. 이와 함께 인민이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수의 클럽, 빨강 코너(Ulaan bulan), 빨강 게르(Ulaan ger) 등 문화 시설을 건설하여 문화 및 대중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였다. 이와 같이 민족·민주주의 발전 노선을 시행한 결과 국가 경제와 문화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이 성과는 좌파의 횡포와 실책의 폐해로 점점 퇴색해 갔다.

## ● 신전환 정책 시기의 경제와 문화 발전

신전환 정책 기간에 인민과 국가의 경제 역량 향상을 겨냥한 여러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이는 ‘부자가 되자’라는 구호로 표출되었다. 인민 경영주들에게 가축 증식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하여 여러 각도에서 조치를 취하였다. 즉, 세제 혜택을 주고, 정부가 인민 경영주와 계약을 체결하여 구매하는 가축의 가격을 25%, 축산물 가격을 19% 더해 주고, 그들에게 장기 또는 단기로 저리 대출을 해 주고, 자연 재해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 수의(獸醫) 분야의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여러 조치를 취하였다. 그 결과 1932년 1620만 두였던 가축 수가 1939년에는 2600만 두로 대폭 증가하였고, 1939년에 중간 또는 부유한 경영주가 전 인구의 57.8%를 차지하였다.

정부는 이 기간에 자유로운 일반 상거래 발전에도 관심을 기울여 1932년 11월 내각회의에서 이에 관한 특별 결정을 내렸다. 그 결정은 출신 성분과 재산의 여력에 구애받지 않고 사적 상거래를 하고 판매 회사와 단체를 건립하고, 인민 사이에서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하였다. 또한 그들에게 국영 기관이나 조합에서 도매 또는 소매 가격으로 물건을 구입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그들에게서 거두어들이는 세금은 줄여

주었다. 이 시기 몽골에서 상업은 축산업 다음으로 경제적 의미가 컸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적극 장려하였다. 1933년에 몽골-소련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도매업을 전문으로 하는 ‘몽골소브 도매(Mongolsov böönör)’라는 이름의 기관을 설립하였다. 이 기관은 국가의 모든 수출과 수입 유통 업무를 관장하였다. 이러한 제반 조치를 취한 결과 1934년에 들어와 몽골은 일상 용품 품귀 현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또한 이 시기에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실행하여 보리, 채소, 수공예 제품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시장 경제에도 큰 보탬이 되었다. 이와 함께 농·축산업에 기초 준비와 농업에 필요한 기계와 트랙터 등의 각종 장비가 도입되어 생산성이 향상되었다.

이 무렵 몽골의 경제 분야에서 일어난 가장 큰 성과는 현대식 대규모 공장이 세워진 것이다. 소련 정부의 원조를 받아 1933년에 중앙 발전소와 하트갈(Khatgal)의 양모 세척 공장, 1934년에 울란바토르에 ‘산업 단지’가 세워졌다. 이 산업 단지 내에는 피혁 및 피혁 제품 공장, 방직 공장, 펠트 신발 공장 등 여러 제조 시설이 들어섰다. 또한 이 기간에 날라이흐(Nalaikh)의 석탄 공장, 인쇄소, 통신국 등을 개보수하고, 빵, 사탕, 과자 공장과 가축 도축 시설을 건설하였다. 이와 같이 민족 산업이 생겨나자 몽골인들은 이제 가축의 가죽과 털을 현대식 공법으로 가공하여 각종 일상 용품을 제조하여 국내 수요를 충당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중앙 발전소가 건립되어 몽골인들도 전기를 일상 생활과 제조 분야에 활용하는 시대를 맞이하였다. 민족 산업은 또 국가 예산 세입을 증대시키고, 국민의 삶과 문화 생활을 향상시켜 주는 원천이 되었다.

이 시기에 전통적인 운송 수단 및 역참에 더하여 현대식 운송과 통신 수단이 도입되어 큰 발전을 이루었다. 그중에서도 운송 수단으로 자동차가 중요



1930년대 초 울란바토르

한 역할을 하기 시작하였음은 특기할 만하다.

1938년 2월에 ‘일반 운송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운송업자들의 조합 결성이 크게 증가하였다. 몽골 운송회사는 급속하게 성장하였다. 1930년에 50대였던 화물차가 1943년에 433대로 늘었다. 1935년에는 1930년에 비하여 화물차 운송이 16%나 증가하였다. 1932년과 1935년에 이르쿠츠크 수로국(水路局)으로부터 ‘수흐바타르’라는 이름의 선박 두 척을 트레일러와 함께 도입하였다. 이 선박은 알타이, 홉스굴, 자브한 아이막의 수출입 화물을 하트갈 항구를 통하여 수송하였다.

1933년부터는 민간 항공 업무가 시작되어 울란바토르에서 호브드, 알타이, 운드르한(Öndörkhaan), 탐삭불락(Tamsagbulag) 방향으로 운항이 시작되었다. 이 시기에는 또한 몽골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철도 운송이

시작되었다. 처음 울란바토르-날라이흐 사이에 협궤 철로가 놓이고, 1938년에는 기관차를 도입하고 정비소를 세웠다.

한편 1936년에 중앙통신국이 설립되어 울란바토르와 모든 아이막 사이에 통신망이 구축되었다. 중앙통신국은 처음에 우편, 전신, 전화, 라디오, 본부 5개 부서로 출발하였다. 1940년에는 거의 모든 아이막에 송신소와 라디오 방송국이 설립되었고 통신국 지부가 56개에 달하였다. 또한 1940년에 울란바토르에 최초로 자동식 전화국이 설립되었다. 이와 같이 현대 통신의 여러 분야가 발전하여 몽골에 새 시대 성과물이 들어왔다.

같은 시기의 몽골 정부는 문화 분야의 발전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몽골 정부는 신전환 정책 기간에 민족 문화를 발전시키고, 이를 인민에게 널리 알리는 조치를 취하였다. 특히 문맹 퇴치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 이를 테면 1935년에는 전체 인구의 5.8% 정도가 글을 읽을 줄 알았는데 ‘스스로 배워 남을 가르친다’는 구호 아래 문맹 퇴치 운동을 벌인 결과, 1940년에는 전체 인구 20.8%가 글을 읽게 되었다.

또한 이 기간에 초중등 학교를 증설한 결과 1939년에 100여 개의 학교에서 4,300명의 학생이 배우게 되었다. 이와 함께 기술 전문 학교가 설립되어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술자를 국내에서 양성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소련의 대학 및 기술 전문 학교에 젊은이들을 유학 보냈다. 그 결과 민족 인재, 그중에서도 민족 지식인 계층이 생겨나 향후 국가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현대 과학을 발전시키고 민족 문학과 예술과 문화를 보급하여 국민의 문화 및 교육 수준이 높아졌다. 인민 정부는 이 시기에 들어와 종교와 승려에 대한 이전 시기의 정책을 반성하고 좀 더 신중하게 시행하였다. 이와 같이 신전환 정책 시기에 좌파의 실책으로 야기된 여러 난관을 극복하고, 경제 및 문화 발전에 일정한 성과가 나타나 인민의 생활 상태가 개선되고 근로 의욕이

한층 배가되었다. 그러나 신전환 정책은 1930년대 후반부터 제약을 받고 약화되어 마침내 중단되었다.



## 제 10 장

# 몽골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 건설 시도



'대조국전쟁' 승리 축하 포스터

193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몽골인민공화국의 대내외적 상황이 크게 변화하였다. 몽골 동부 할호 골에서 전투가 벌어져 몽골-소련 연합군이 일본군의 침입을 막았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몽골인민공화국은 소련과 연합국을 지지하여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 몽골은 강대국으로부터 국가의 독립과 완전한 영토적 지배를 보장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오랫동안 몽골인민공화국이 국제 무대에 나오지 못하게 훼방을 놓았던 중국도 여쩔 수 없이 몽골의 독립을 공식으로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몽골인들의 오랜 투쟁과 염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소련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하면서 사회주의는 이제 한 국가의 울타리를 벗어나 유럽과 아시아 여러 나라를 포괄하는 사회주의 체제가 이루어졌다. 몽골인민공화국에서도 사회주의 건설 문제가 다시 대두되었다. 그리하여 몽골인민혁명당은 주요 목표로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내세워, 새로운 강령을 제안하고 이를 헌법으로 승인하였다. 1940년에서 1960년 사이에는 그 목표를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여러 가지 조치가 내려졌다. 그 결과 1959년 몽골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몽골인민공화국에서 사회주의가 승리하고 현실적 사회주의 국가가 되었다고 결론짓고 1960년 헌법으로 이를 승인하였다.

바로 이때부터 몽골인민혁명당은 몽골인민공화국에서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하여 새로운 목표를 수립하고 그 문제를 새로운 강령에 반영하여 확정짓고 실행에 옮기기 위하여 투쟁하였다. 그러나 몽골인민공화국에 사회주의를 건설하려는 시도는 결국 실패로 끝났다. 여기에서는 20세기 몽골 역사에서 '사회주의 시대'라고 부르는 시기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939년 5~9월	할호 골 전쟁
1940년 5월 30일	몽골인민공화국 헌법 승인
1945년 9월 2일	일본, 무조건 항복 문서에 서명
1945년 10월 20일	몽골인민공화국 독립에 관한 국민투표 실시
1946년 1월 5일	중국 국민당 정부 몽골인민공화국 독립을 인정
1946년 2월 27일	몽골-소련 상호 우호 협력에 관한 조약 체결
1959년 12월	인민 경영주에 대한 협동 조합화 완료
1960년 7월 6일	몽골인민공화국 헌법 승인
1961년 10월 27일	몽골인민공화국 유엔 가입
1966년 6월 11일	몽골인민혁명당 제4차 강령 승인
1981년 3월 22일	몽골 최초의 우주인 탄생



---

# 01

---

## 몽골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 건설 목표와 시행(1939~1959)

신성한 우리 혁명의 나라  
전 몽골인의 성스러운 중심지  
결코 적의 발굽에 짓밟히지 말고  
항상 평화롭고 영원하여라.  
(몽골인민공화국 「국가」 중에서, 1950)

---

### ● 대외 상황과 몽골인민공화국의 독립 강화

#### 할흐 골의 승리 : 대외 상황의 변화

1930년대부터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각국의 대립과 충돌이 격해지면서 국제 정세도 점점 어렵고 복잡해졌다. 그러던 중 이탈리아에서는 파시스트당이, 독일에서는 나치당이 정권을 잡고, 나아가 독일 · 이탈리아 · 일본이 3국 동맹을 체결함에 따라 새로운 전쟁의 불씨가 생겨났다. 먼저 독일과 이탈리아는 세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침략 전쟁을 일으켰다.

한편 일본의 지배층은 아시아 지역에서 침략 정책을 본격화하여 1932년에는 중국의 동북 지방과 내몽골 및 만주 지방을 점령하여 만주국(滿洲國)을



할흐골 전투 전승 기념탑

세웠다. 그 후 1934년 말부터 1935년 초 사이에 몽골인민공화국 동부 국경 지대에 대규모 일본군 병력이 집결하면서 일본의 침략 위협이 현실화되었다. 이러한 암울한 상황에서 몽골인민공화국은 국방력을 증대하고 강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

또한 1934년 중반부터 이미 일본과 만주국 군인들이 몽골 동부 국경을 수시로 침범하고, 국경 초소를 습격하여 경비병에게 발포하고, 국경 지대의 주민들을 약탈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그들은 계속 무력 도발을 시도하여 1935년 1월 26일에는 할힌 쉘(Khalkhyn Sum)을 무력으로 점령하고, 그해 12월에는 볼란 데르스(Bulan ders) 초소를 공격하였다. 일본의 위협이 눈앞에 닥쳐오자 몽골 정부도 이에 대비하기 시작하였다. 그 일환으로 1934

년 7월 27일 몽골과 소련은 구두협정(口頭協定)을 체결하여 만약 제3국이 몽골인민공화국과 소련을 공격하면 상호 원조하고 적군의 위협을 협력하여 몰아내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함께 몽골 정부는 군사 충돌의 확산을 막고 국경 분쟁을 회담을 통하여 조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1935년 6월 만저우리[滿洲里] 역에서 몽골, 일본, 만주국 대표자들이 만나 회담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회담은 현실적 이유 때문에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그리하여 몽골 총리 겐덴(P. Genden)과 부총리이자 군총사령관인 데그미드(G. Degmid)가 인솔하는 몽골 정부 대표단이 1935년 말 소련을 방문하여 해당 국가 지도자들에게 몽골인민공화국의 국방력 증강과 관련하여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 요청에 따라 몽골인민공화국과 소련은 1936년 3월 12일 울란바토르에서 상호 원조에 대한 의정서(議定書)를 체결하였다. 여기에는 “만약 몽골 또는 소련의 국경 지대에서 제3국의 침략 위협이 있을 경우 서로에게 각종 원조, 특히 군사 원조를 제공할 의무를 갖는다”는 규정이 있다. 1936년 3월 스탈린이 미국의 신문 기자 로이 하워드(Roy Howard)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일본이 몽골인민공화국의 독립에 어떤 위협을 가한다면 우리는 1921년에 도왔던 것처럼 몽골인민공화국을 돕겠다”고 한 말도 이와 관련이 있다. 그 후 몽골인민공화국의 요청으로 소련의 단위 부대가 몽골에 들어와 동부 국경 지대에 주둔하게 되었다.

몽골 정부는 1936년 국방비 지출을 두 배, 군인 수를 30% 늘리고, 무기를 40% 증강하였으며, 군 복무 기간도 3년으로 연장하였다. 또한 국경 수비대를 창설하고, 정규군을 국경 경비 의무에서 제외시켰으며, 대포와 기관총, 항공기, 장갑차 등 현대적 무기로 국방력을 강화하였다.

1939년에 들어서면서 일본-만주국 측에서 불법으로 월경(越境)하는 일

이 계속 발생하였으며, 같은 해 5~6월 일본 측은 몽골 영토 깊숙이 침입하여 일부 지역을 점령하였다. 이미 몽골-소련 지도부가 구성되어 있었으므로, 그들은 현재 사태에 대하여 반격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할호 골 부근에 군사력을 집중시켜 적군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입힐 만반의 태세를 갖추었다. 몽골-소련군 사령부는 일본군의 격렬한 저항을 물리친 다음, 1939년 8월 20일에 일본군을 포위 공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8월 31일에 몽골-소련 연합군이 일본 제6군 병력을 섬멸하고 적군을 몽골에서 축출하였다.

일본 정부는 할호 골 전투에서 완패하고 막대한 손실을 입은 데다 1939년 8월 23일에 동맹국 중 하나인 독일이 소련과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회담장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USSR) 외무 인민 위원 몰로토프(V. Molotov)와 모스크바 주재 일본 대사 토고 등이 1939년 9월 16일 정전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할호 골 전쟁이 끝이 났다.

할호 골 전쟁은 당시 새로 개발된 신무기와 장비를 실험하는 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양측에서 13만 명의 병력이 참전하였으며, 탱크 1,000여 대와 장갑차 800여 대가 동원되었다. 이 전쟁에서 일본-만주군 측에서 48,000명, 몽골-소련군 측에서 26,000명이 목숨을 잃었다. 할호 골 전쟁의 승리는 소련이 독일의 파시즘과 일본의 군국주의라는 강력한 상대와 마주하는 위협을 제거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주요 관심을 유럽으로 돌릴 수 있도록 군사적·정치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마련해 주었다. 1941년 4월 13일에 소련과 일본은 “소련과 일본 정부는 양국의 우호와 평화를 지키는 호혜 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은 만주국 영토의 불가침성(不可侵性)을, 일본은 몽골인민공화국 영토의 불가침성을 각각 존중하기로 하는 성명을 발표한다”(성명 중에서)고 합의하였다. 이 성명은 할호 골 전쟁에서 승리한 직접적인 성과물이며,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내내 몽골인민공화국의 독립

과 안전 보장을 지켜주었다.

### 모든 것을 전선으로 : 연합국 일원으로서의 의무 이행

파시스트 독일이 소련  
과 맺은 상호 불가침

조약을 위반하고, 1941년 6월 22일 소련에 대한 기습 공격을 감행하자 ‘대(大)조국 전쟁’이 시작되었다. 몽골인민공화국은 이러한 침략 전쟁을 결연히 반대하고, 1936년에 체결된 상호 원조에 관한 의정서의 의무에 따라 친애하는 소련 인민에게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전쟁 초기 단계에서부터 붉은 군대에 원조 선물(즉, 물자)을 보내자는 운동이 거국적으로 전개되었다. 몽골 인민의 발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여 붉은 군대에 보낼 물자를 모으고, 그 물자를 전선으로 보내는 일을 주관하는 물자중앙위원회(Belegdeliin töv kommis)가 1941년 11월에 정부 산하에 설치되었고, 각급 도·시·군에 지부가 세워졌다. 몽골인들은 “고난의 시기에 누가 진정한 친구인지 드러난다”라고 하면서 붉은 군대의 승리를 지원하는 조직적인 운동을 여러 형태로 전개하였다. 이러한 운동을 통하여 몽골 인민이 모은 첫 물자가 1941년 10월 소련에 보내졌다. 이와 함께 노동자들은 개인적으로도 선물을 준비하여 전선으로 보냈다. 붉은 군대에 보낼 물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각 공장과 사업체, 노동자들은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시간 외 근무를 하고, 휴가를 반납하고, 계획대로 생산량을 달성하고, 물자를 절약하면서 특별히 주문한 물자를 생산하는 일에 박차를 가하였다.

한편 소련에서는 몽골인민공화국 재원으로 무기를 제조하여 지원하였는데 이는 당시 대소(對蘇) 원조의 주요한 한 형태였다. 몽골 재원으로 창설된 기계화 부대와 항공 부대 병사들의 식량과 의복 구입에 드는 모든 비용을 전쟁이 끝날 때까지 몽골 측에서 부담하였다. 원조의 또 다른 중요한 형태는 붉

은 군대에 품종이 좋은 군마(軍馬)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몽골 유목민들은 전쟁 기간 동안 소련에 말 50만 두를 판매하고 32,500두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또한 적군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킨 지역을 복구하고, 붉은 군대의 가족을 돕고, 부상당한 병사들에게 선물과 따뜻한 옷을 보냈다.

전쟁 기간 동안 몽골인들은 전선으로 물자 수송단을 총 여덟 차례 보냈으며, 도합 4억 투그릭이 넘는 가축과 물자를 소련 인민에게 전달하였다. 이렇게 몽골인민공화국은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파시스트 독일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데 일조하였다.

#### 몽골인민공화국의 대일 참전

1945년 5월 9일 독일이 항복함에 따라 유럽 전역에 평화가 찾아왔다. 그러나 아시아 대륙에서는 파시스트 독일의 동맹국인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계속해서 확전을 기도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1945년 7월 26일 일본에 맞서 싸우던 미국, 영국, 중국이 일본에 무조건 항복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일본은 그 제안을 거부하였다. 소련은 알타 회담(1945년 2월)에서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려고 같은 해 8월 9일 대일(對日) 선전 포고를 하였다. 몽골인민공화국 국가소회의 의장단과 내각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물리치는 데 공헌하는 한편, 몽골의 독립과 안전 보장을 위하여 1945년 8월 10일에 역시 일본에 대하여 전쟁을 선포하였다. 몽골인민공화국은 일본에 대하여 전쟁을 선포할 때, 한 형제인 내몽골 인민을 해방시켜 외몽골에 통합하고자 하는 의지를 내외에 천명하였다.

초이발산 원수와 하과수렌(J. Lhagwasüren) 중장의 지휘 아래 구성된 몽골인민혁명군은 소련 극동군 산하 남(南)바이칼 전선군의 오른쪽을 맡아 돌론[多倫], 열하(熱河)와 장자커우[張家口] 방면으로 진격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몽골-소련의 기마·기계화 부대는 일본군의 격렬한 저항을 무력화시

키고 돌론 등 큰 도시를 점령하였다. 특히 8월 21일에 장자커우 고지에서 벌어진 치열한 전투에서는 아요시(L. Ayushi)와 단잔완칙(D. Danzanvanchig) 등 몽골인민공화국 영웅이 탄생하였다.

일본과의 전쟁에는 42,000명의 몽골인민혁명군 장교와 병사가 참전하였는데, 그들은 광활한 모래사막과 물이 없는 황무지를 지나 도합 950km의 거리를 진격하여 대승을 거두었다. 내몽골과 중국의 해방된 지역의 거주민들은 몽골-소련 연합군을 뜨거운 마음으로 환영하였다. 몽골인민공화국은 1945년 대일 참전으로 몽골인 78명이 목숨을 잃었고, 2억 투그릭 이상의 재정 손실을 입었다.

주지하듯이 1945년 9월 2일 일본은 무조건 항복하는 데 서명하였다. 국가소회의 의장단은 9월 3일을 일본 군국주의를 격퇴한 승리의 날로 정하고 이를 거국적으로 기념하도록 하였다. 대일 참전으로, 그동안 원치 않게 헤어져 살아온 내외 몽골인이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지만 강대국의 합의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아무튼 몽골인민공화국은 독일 파시스트와 일본 군국주의에 맞선 정의로운 싸움에 동참하여 연합국으로서의 의무를 명예롭게 수행하였다.

#### 몽골인민공화국의 완전한 독립과 주권의 쟁취

1945년 알타 회담에서 소련, 영국, 미국 지도자들은 외몽골의 현재 상황(Status quo)을 그대로 인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회담의 결정에 따라 1945년 8월 14일 모스크바에서 소련과 중국 국민당 정부 외무부 장관들은 “외몽골 인민이 독립하고자 하는 열의를 늘 표시해 왔기 때문에…… 외몽골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열의를 보여 준다면, 중국 정부는 외몽골의 독립을 승인하고 두 나라의 국경은 현재의 상태로 한다”는 데 합의하고 외

교 각서를 교환하였다.

몽골인민공화국 국가소회의 의장단은 1945년 9월 21일에 몽골-중국 정부의 합의에 따라 몽골의 독립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동년 10월 20일에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76호 결정을 내렸다. 당시 몽골인들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부에 수많은 편지와 축하 메시지, 소포 등을 보냈는데, 대부분 만약 무슨 변고가 생기면 몽골인민공화국의 독립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바치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1945년 10월 20일에 실시한 국민투표는 몽골인민공화국의 자유와 독립 기념일이 되었다. 국민투표에는 총 유권자의 98.4%에 해당하는 487,285 명이 참가하여 100% 몽골인민공화국의 독립에 찬성표를 던졌다. 중국 국민당 정부 대표들이 투표 과정을 지켜보았다. 몽골인민공화국 국가소회의 의장단은 1945년 11월 10일에 투표 결과를 소련과 중국 정부에 공식 통보하였다. 중국 국민당 정부는 투표 결과를 통보받고 1946년 1월 5일 몽골인민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동년 2월 5일에는 양국 사이에 외교 관계가 수립되었다.

몽골인민공화국은 두 이웃 국가와 수교를 맺음으로써 독립과 주권국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하게 보장받았으며, 국제 무대에 발을 내디딜 기초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국민당 정부 내 일부 그룹이 서남부 국경의 바이탁 복드(Baitag Bogd) 부근을 공격하고, 국경을 반복적으로 침범하여 몽골 영토의 주권과 불가침성이 훼손당할 위험에 처하기도 하였다.

**몽골인민공화국의 대외 관계 강화** 제2차 세계대전 후 소련과 미국 두 강대국의 이익이 상충됨에 따라 이른바 ‘냉전’이 시작되었다. 중부 및 동부 유럽에서 폴란드, 불가리아, 유고슬라비아,

체코슬로바키아, 알바니아, 헝가리, 루마니아 등 여러 국가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승리를 거두었다. 베트남, 조선(북한), 중국 등 아시아 국가가 사회주의의 길을 선택하여 전 세계 면적의 26%를 차지하고 10억 이상의 인구를 가진 거대한 사회주의 체제가 탄생하였다. 이들 국가들은 경제 협력 활동을 강화하고 더욱 발전시킬 목적으로 1949년에 경제상호원조회의(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를 창립하였다.

이 시기 몽골인민공화국의 대외 정책은 사회주의 체제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큰 틀이 정해졌다. 따라서 당시 몽골의 대외 정책에서 소련 및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몽골인민공화국은 먼저 소련과 맺은 우호 협력 관계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1946년 2월에 소련과 ‘우호 및 상호 원조에 관한 조약’과 ‘경제·문화 협력에 관한 협정’을 각각 체결하였으며, 1949년 양국은 무역 협정에 서명하였다. 또한 1949년에 중국에서 인민 혁명이 성공함에 따라 몽골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사이에 외교 관계를 수립하게 되었다. 양국은 1952년에 ‘경제·문화 협력에 관한 협정’을, 1960년에 ‘우호 및 상호 원조에 관한 조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한편 1948년부터 1950년 사이에 몽골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차례로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이들 국가와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방면으로 교류를 확대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 아시아·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독립 운동이 일어나 인도, 인도네시아, 알제리, 콩고 등 여러 나라가 독립을 쟁취하고 자주적인 발전의 길로 들어섰다. 특히 1945년에서 1953년 사이에만 아시아·아프리카에서 15개의 신생 독립국이 탄생하였는데, 몽골은 이들 국가와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시기 몽골의 대외 정책은 이전 시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당시 정치

제도 및 이념의 틀에 간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 몽골인민공화국의 국제연합 가입

몽골인민공화국이 파시스트 독일과 군국주의 일본을 타도하는 데 기여하고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그 의무를 명예롭게 수행한 것은 국제연합 가입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 주었다.

몽골인민공화국 정부는 국제연합 헌장에 규정된 의무를 수락하고 회원국이 되기 위하여 1946년 6월부터 모두 8차례에 걸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장제스[蔣介石] 대표(대만 대표)와 그를 지원하는 일부 서방 국가들은 세계 여러 나라들로 하여금 몽골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게 하였다. 그들은 몽골을 소련의 위성국이며 대외 정책의 경험이 부족하고 평화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명목으로 차별하였다. 이로 인하여 몽골은 가입 신청서를 처음 제출한 후 15년 동안 국제연합에서 합법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였다.

그러나 1950년대 중반부터 여러 나라에서 몽골인민공화국을 차별하고 합법적 권리를 누리는 것을 방해하려는 시도에 대한 반감이 표출되었다. 이를 테면 1955년 국제연합 총회에서 여러 나라가 몽골인민공화국의 국제연합 가입을 지지하였고, 1959년에는 아랍연맹(Arab League)이, 같은 해에 열린 카이로 회의가 위의 결정을 지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모든 진보 세력도 1959년 7월 1일을 몽골인민공화국의 국제연합 가입을 지지하는 국제적인 날로 기념하자며 호소하였다. 이와 같이 몽골인민공화국의 명예와 국제 무대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점점 높아져 갔다.

1960년 10월 25일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는 몽골과 모리셔스의 회원국 가입안을 상정하여 토론하였는데, 몽골인민공화국의 국제연합 가입에 9개국이 동의하고, 1개국이 기권하였다. 중화민국 대표자는 투표권을 행사하

지 않고 기권하였다. 이렇게 하여 15년간 줄기차게 노력한 결과 1961년 10월 27일 몽골인민공화국은 국제연합의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 몽골인민공화국의 국제연합 가입에는 아시아·아프리카의 신생 독립국 34개국과의 수교, 국제연합과 미국 내부에서 일어난 변화가 큰 영향을 미쳤다. 몽골인민공화국이 국제연합의 정식 회원국이 되자 서방 국가와 외교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 ○ 몽골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 건설 목표의 진전

**몽골인민혁명당 제10차 당대회 : 사회주의 노선 선포** 몽골인민공화국의 정치·사회·경제 생활 분야에서 일어난 변화와 대내외적인 여건은 그동안 이룩한 국가 발전의 결과를 종합하고, 향후 정책 목표와 나아갈 노선을 결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1939년 말 초이발산 원수는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당과 국가대회의 준비를 확실히 하고, 몽골인민혁명당의 새로운 강령과 규약, 헌법을 마련하는 등 제반 과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였다.

1940년 3월 몽골인민혁명당 제10차 당대회가 열려 몽골인민혁명당의 새로운 강령을 승인하였다. 당대회는 몽골인민공화국이 “비자본주의 발전의 길로 확실하게 들어섰다”고 평가하고, 당의 향후 목표를 “…… 반제(反帝)·반봉건(反封建) 혁명을 최종적으로 수행하고”, “…… 사회주의로 이행할 준비와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즉, 몽골인민혁명당 제10차 당대회는 민주주의 혁명의 목표가 이미 달성되었다고 지적하고, 나아가 사회주의 혁명의 단계로 전환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 ◆ 호를로긴 초이발산(1895~1952)

몽골의 정치·문화·군사 분야의 저명한 인물이다. 몽골인민공화국의 영웅이자 원수인 초이발산은 지금의 도르노드 아이막 초이발산 솜에서 태어났다. 그는 산베이션 후레에서 불법(佛法)을 공부하던 중 후레에 와서 외무부 산하 러시아-몽골 어문 학교, 이어 1914년부터는 이르쿠츠크의 김나지움에서 3년 동안 수학하였다. 초이발산은 러시아에 지원을 요청하는 몽골인민당 대표단의 한 사람으로 파견되어, 1921년 3월 인민 임시정부 위원, 사상 교관, 전군 부사령관직을 역임하는 등 몸소 혁명 사업에 참여하였다. 초이발산은 1924년 개최된 몽골인민혁명당 제3차 당대회부터 당중앙위원회 위원, 최고 위원으로 연달아 선출되었다. 그는 또한 1929년부터 국가소회의 최고위원회 의장, 외무부, 농축산부 장관을 지냈다. 모스크바의 입장은 그의 명성을 높여 주었는데 그 덕분에 그는 1935년 말 제부총리, 내무부 장관, 군사부 장관, 군총사령관, 1939년부터 총리에 선출되어 사망할 때까지 활동하였다. 그는 1952년 모스크바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하였다.

당대회는 또한 “축산업 발전은 몽골인민혁명당 제1급 주요 과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라고 하고, 가축 수를 2억 두까지 끌어올린다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몽골인민혁명당은 가까운 시일 내에 달성해야 할 목표로 인민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의 생활 수준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사람들의 교육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몽골인민혁명당의 새 강령은 이와 함께 당의 지도력을 단호하게 향상시키고,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당 활동의 지도 이념으로 삼는다고 규정하였다. 이 대회에서 몽골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서기장 직책을 신설하여 체덴발을 선출하였다. 몽골인민혁명당 제10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발전 방안을 시행하는 일부 사업이 시작되었지만, 소련이 제2차 세계대전에 말려드는 등 외적 요인 때문에 그 과업이 일정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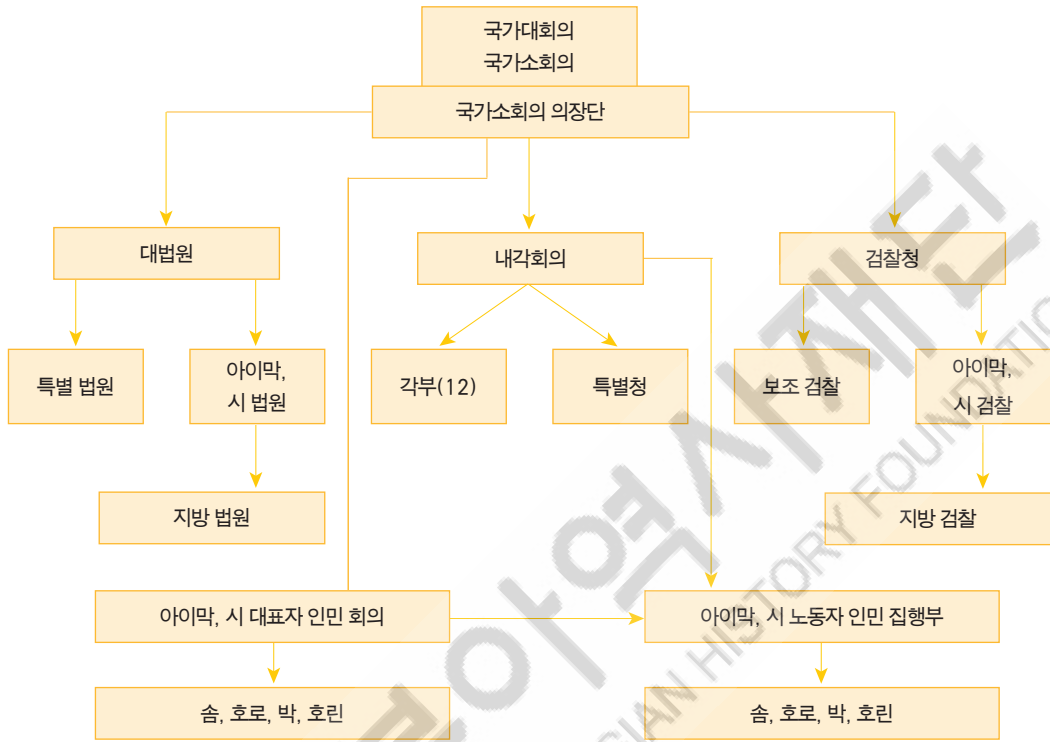
방치되었다.

**1940년 헌법** 1940년에 국가 발전의 새로운 목표가 정해졌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 몽골인민공화국 헌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리하여 몽골인민공화국 제8차 국가대회의가 1940년 6월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되었다. 이 국가대회의는 보고 기간 내 정부의 대내외 정책을 승인하고, 소련과 몽골인민공화국 사이에 체결한 우호 관계를 이 기간에 이룩한 가장 중요한 성과임을 강조하였다. 이어 1940년 6월 30일에 신헌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몽골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와 봉건제의 억압을 타도한, 향후 사회주의로 이행하기 위하여 국가를 비자본주의 노선에 따라 발전시킬 것을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유목민, 근로자, 학생) 인민의 독립 국가이다(헌법 제1조 중에서)”라고 하듯이 1924년 헌법을 이어받은 전형적인 사회주의 헌법으로 국가 발전의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한 강령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신헌법은 제10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목표와 평가를 법적으로 확인해 준 것이다. 또한 동 헌법은 몽골 사회 제도의 본질과 발전의 특징을 새롭게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신헌법은 몽골인민공화국의 정치적 기반은 “노동자 인민의 여러 회의에 있고 몽골 정치의 전권은 그러한 회의에 의하여 전달되고, 도시와 지방 노동자의 감독하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신헌법은 또한 몽골 경제의 기반은 국가와 조합의 재산이고 이 두 가지를 구분하여 각각 별도로 취급하였다. 당해 헌법에는 국가 계획하에서 경제와 사회를 발전시킨다는 방침이 제시되어 있고, “국가 사회 모든 기구를 지도하고 선도하는” 몽골인민혁명당의 의무를 법적으로 처음 확인하였다. 이는 곧 몽골인민혁명당에 무제한적 권한을 부여한 것이었다.

신헌법에는 몽골 유목민과 노동자가 목초지를 무료로 사용하고 치료와 교



몽골인민공화국의 정치구조(1940)

육과 연금 혜택을 받고, 정부의 모든 일에 평등하게 참여하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고, 신앙의 자유가 있고, 출판의 자유를 향유한다고 선포함과 동시에 헌법과 그밖의 법률을 준수하고, 조국을 지키고, 군복무의 의무를 지닌다고 명시되어 있다. 신헌법에는 이렇듯 인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지만 이 시기 전체주의 체제하에서 그 권리가 완전히 실현될 여건은 조성되어 있지 않았다.

몽골인민공화국 최고 권력 기관인 국가대회의, 국가소회의, 국가소회의 의장단의 조직 규정 및 의무와 권한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몽골인민공화

국 제8차 국가대회와는 국가소회의를 조직하고 국가소회의 의장단의 의장으로 유격대 출신 봄첸드(G. Bumtsend)를, 내각총리로 초이발산 원수를 각각 선출하였다. 또한 대표의 발의에 따라 헌법을 초이발산의 이름으로 제정하기로 하는 특별법을 상정하여 통과시켰다.

### 정치와 사회 생활의 새로운 경향

1950년대에 들어와 몽골의 정치와 사회 생활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특히 1952년과 1953년에 초이발산과 스탈린이 연달아 죽자 정치적으로 새로운 국면을 조성하였다. 소련 내부에서 일어난 변화와 사회주의 체제의 성립은 몽골의 사회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이를 테면 이 시기 몽골에서는 새로운 민족 지식 계층이 생겨나, 그 가운데서 배출된 제1세대 학자들이 국가의 발전 방향과 사회주의 건설의 이론과 실무 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1954년 11월 몽골인민혁명당 제12차 당대회가 소집되었다. 이 당대회는 몽골인민공화국 역사 발전의 단계와 그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즉, 몽골인민공화국 역사는 두 단계에 걸쳐 발전하고 있는데, 1940년대부터 혁명의 민주적 목표가 사회주의 성격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몽골은 비자본주의적 발전의 길로 들어서고, 나아가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역사적인 전환기에 있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이 당대회는 노동자와 유목민 계급의 연대가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데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이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대회는 또한 당이 펼쳐 나가고 있는 사회·경제 정책의 방향을 명시하고, “인민 경제를 광범위하게 협동 조합화하는 여건이 현재 몽골에 마련되지 않았음을 고려하여…… 규모가 큰 공동 경제의 장점을 인민에게 실질적으로 믿게 하여 수입이 큰 업체를 만드는 일이다”(몽골인민혁명당 제12차 당대회 결정 중에서)라고 하여 개인 경제 주체를 점진적으

#### ◆ 다시인 담바(1908~1990)

몽골의 정치가이자 몽골인민혁명당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 지금의 볼간 아이막의 테식 숨에서 태어났다. 그는 호쇼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1927년부터 호쇼, 아이막, 군부대에서 근무하였으며, 1937년 몽골인민혁명군 정치국장, 1938년부터 우문고비 아이막 당 위원회 제1서기로 일하였다. 담바는 1939년 7월부터 당중앙위원회 서기, 울란바토르 당위원회 제1서기, 1943년부터 정치국 부국장 및 정위원, 1947~1954년 당중앙위원회 제2서기, 1954년부터 몽골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제1서기로 선출되어 근무하다가 해임되어 흡스굴 아이막과 농축산업대학 부학장으로 26년간 근무하였다. 1990년 몽골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그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다.

로 조합 공동체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지시하였다. 이와 함께 농·목축업의 기술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모든 분야의 중공업을 발전시키지 않고도 소련 및 기타 사회주의 국가의 지원으로 사회주의적 물질 토대를 확고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경공업 분야를 우선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선언하였다. 이와 같이 1950년대부터 전면적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것이 곧 국가 발전의 경향이 되었다. 이 대회에서 담바(D. Damba)가 당중앙위원회 서기장으로 선출되었다.

한편 이 시기 몽골의 정치 및 사회 생활에서도 새로운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를 테면 1954년에 이른바 ‘뤼순항 사건’ 조사위원회가 발족되어 조사 활동을 벌였는데, 그 결과 이 사건으로 재판에 회부되어 억울하게 형을 받은 사람들을 석방하고, 내무부 직원들이 범죄자에게 신체적인 고통을 주는 것을 허용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을 효력 정지시키고, 범죄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사람을 강제로 체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1956년 소련공산당 제20차 전당대회에서 흐루시초프가 발표한 「개인숭배와 그 결과에 대하여」라는 논문과 전당대회의 결정은 몽골인민혁명당 지도부에 적지않은 영향을 끼쳤다. 이 전당대회의 성과와 당의 목표에 대하여 토론하기 위하여 소집된 1956년 당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초이발산에 대한 숭배와 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무고한 사람을 숙청한 과거사에 대한 비판이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이 전원 회의는 또한 개인 숭배 결과로 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례에 대한 조사를 정치국에 위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렇게 하여 인민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 ● 몽골인민공화국의 사회와 정치 제도 발전

### 지도부의 중앙집권화와 이념 투쟁

1940년부터 1953년 사이에 개인 숭배의 기초를 이루고 이념화된 전체주의 정치 제도가 더욱 공고해졌다. 이런 현상은 초이발산 원수의 50세 생일(1945)과 소련의 지도자 스탈린의 70세 생일(1949)을 축하하는 시기에 최고조에 달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국가대회의와 몽골인민혁명당 당대회를 7~9년 동안 소집하지 않았는데, 이 기간에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국가소회의의 장단과 내각회의에서 모든 문제를 심의하고 결정하였기 때문에 국가 권력이 소수 몇 사람의 손에 집중되는 지도력의 집중화 현상이 심화되었다. 그 결과 당 지도부가 정부 및 산하 기관 일상 업무에까지 직접 관여하고 모든 것을 지시하는 상황이 되었다.

또한 몽골인민혁명당 제10차 당대회에서 규정한 ‘사람들의 인식 속에 남아 있는 봉건적 잔재와의 전쟁’이라는 명목으로 사상 및 선전·선동 활동을 강화하였다. 사상 과업은 계급 투쟁이라는 스탈린주의 노선의 숭배로 민족적 자부심에 상처를 주고 인민의 자유로운 사고를 망치로 내리쳤다. 1949년 당중앙위원회에서 내린 ‘몽골인민공화국 역사와 문학 교육 현황에 대하여’, ‘인민의 읽기 교재에 대하여’라는 결정문에서 계급주의와 당파적 원칙을 선포하고, “편협한 민족주의를 가르치고”, “칭기스 칸을 칭송하고 그의 침략·약탈 전쟁에 대하여 비(非)마르크스주의 평가를 내렸다”는 명목으로 페를레(Kh. Perlee), 린친(B. Rinchin), 나착도르지(Sh. Natsagdorj), 소드놈(B. Sodnom) 등 많은 지식인들을 비판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1947년에는 문학과 문화·예술 작품, 즉 출판물에 대한 사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출판 및 문학 검열청(Khevllel utga zokhiolyg khyanakh gazar)’이라는 기관을 설립하였다.

한편 1947년 국가소회의에서는 ‘국가 및 공공 기관, 협동 조합 소유의 재산 보호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결정을 내려, 국가 및 공공 재산을 횡령한 사람들을 형사법에 의거하여 처벌하도록 하였다. 비록 법을 공정하지 않게 적용하거나 사건을 조작하여 기소하는 일이 줄었지만, 위의 결정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형을 받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부에서 인민을 정치에 참여시키기 위한 일부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이를 테면 1944년 9월 국가소회의는 선거권을 박탈당한 사람들을 복권시키고, 그동안 폐쇄되었던 간단텍칠렌(Gandantegchilen) 사원을 공개하였다. 또한 국가대회의는 1949년 선거 제도를 민주화하는 결정을 내리고, 향후 선거를 평등 선거, 비밀 선거, 직접 선거, 보통 선거의 원칙에 따라 치르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헌법을 개정하여 국가소회의를 폐지함으로써 인민

대회(Ardyn Ikh Khural)가 국가의 최고 권력 기관이 되었다. 1951년에는 국가대회의 선거를 새로운 선거 제도에 의거하여 실시하여 295명의 대표를 선출하였다. 그러나 이들 대표는 전원 당중앙위원회에서 지명하고 경쟁자 없이 선출된 사람들이다. 그런가 하면 1952년 10월에는 지방 행정 기구에서도 선거가 실시되어 지방의회에 49,641명의 대표가 선출되었다. 또한 국가대회의 결정을 법령, 국가대회의 의장단 결정을 명령(Zarlig)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로 하였다.

1952년 초이발산 원수가 죽은 후 국가대회의 의장단은 1952년 5월 27일자 명령으로 몽골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서기장 체덴발을 총리에 임명하였다.

#### 사회 내부의 비판적 사상에 대한 탄압 : 지식인의 미혹

1950년대 후반에 들어 몽골 사회에서는 내부적 비판과 제안이 폭넓게 표출되었다. 1956년 말 정치국 회의에서 국가 발전 문제와 관련하여 지식인들의 견해를 듣고, 이를 실무에 반영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그리하여 1956년 11월 당정 지도자들이 참가한 소그룹들이 몽골국립대학, 몽골사범대학, 당 대학, 과학원, 당사 연구소, 몽골혁명청년연맹(Mongolyn khuv' sgalt zaluuchuudyn evlel) 중앙위원회 등 여러 기관을 방문하여 만남과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토론 과정에서 지식인들은 국가의 현황 및 발전 문제와 관련하여 인민의 생활 수준을 개선하고, 농·축산업과 공업 및 경제 활동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사회를 민주화하며 개인 숭배의 폐해를 시정하고, 민족주의를 고양시키고 민족의 자부심을 훼손하는 데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는 등 여러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런 견해 가운데에는 상당수 지식인들이 몽골의 역사와 발전 단계를 규

정하는 문제를 놓고 원칙적 측면에서 입장이 다름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모임과 토론 직후부터 지식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방해하는 일련의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를 테면 몽골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1956년 12월 ‘당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이나 연설과 논문의 등장에 대하여’라는 결정을 발하였다. 이 결정은 “일부 지식인들이 사상적으로 미혹되어 당의 정책에 반하는 연설을 하고 논문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는 그들의 정치와 이론에 대한 지식이 천박하고, 정치 및 이념적으로 강건함을 지니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라고 결론지었다. 당과 정부는 지식인들의 비판적인 견해를 통틀어 ‘지식인의 미혹’이라고 규정지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담딘수렌, 수흐바타르, 당가수렌, 투므르바타르, 바트-오치르, 소드놈체렌 등 지식인들을 싸잡아 몽골과 소련의 우호 관계를 불신하고, 그동안 몽골 인민이 이룩한 성과를 부정하는 반동분자라고 비판하였다. 당 산하 모든 기관은 비공개회의를 통하여 이 결정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이처럼 정치국에 의하여 조직된 제반 조치는 지식인들의 비판적 사고와 생산적 의견을 탄압하는 일로 변질되었다.

1957년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위의 결정을 옳고 합당하다고 치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몽골인민혁명당 제13차 당대회 문건에서는 “지식인들의 위와 같은 생각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기본 원칙에 반하고, 우리의 바른 정책을 통제하는 데 목적을 둔 수정주의 사상”이라고 결론지었다.

사회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통제하는 활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오히려 사상적인 측면에서 탄압이 빈번해졌다. 예컨대 정치국은 1956년 6월 「인민의 땅」이라는 영화에 특별 결정을 내려 예술인들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였다. 이듬해 정치국은 ‘린친 박사의 최근 작품에 나타난 반동적 사상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결정에서 “린친은…… 옛것을 찬양하고 새것을 부정하는

등 국제주의에 반하는 민족주의를 최근 더욱 힘차게 전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하고, 그가 고어(古語)를 사용하여 인민을 모욕하고 있다는 이유로 비판하였다. 이렇듯 계급과 당파적 원칙 및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등으로 협박하여 지식인들의 비판적 사고와 생산적 의견을 말살하려는 책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정쟁(政爭)** 몽골인민혁명당에서 사유 재산을 부정하는 대신 재산의 사회화를 강화하고, 하나의 사상만 선포하게 함에 따라 정치와 사회·경제 및 사상 등 여러 방면에서 중앙집권화가 심화되면서 권위주의 체제 형성 여건이 조성되었다.

1950년대 중반 소련과 기타 사회주의 국가에서 집권 공산당과 노동당의 지도 의무를 법제화함에 따라 당수의 위상이 확고해져 그가 국가의 ‘수반’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하여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 몽골인민공화국의 당정 지도부에서도 권력과 지위 및 명예와 영향력을 차지하려는 정쟁과 투쟁이 전개되었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의 예에 따라 1958년 12월 소집된 당중앙위원회의 제2차 전원회의에서 체덴발의 발의에 따라 지도력을 집중화하기 위하여 당의 선임자가 내각 총리를 맡아야 한다고 결정하고, 담바를 당중앙위원회 제2서기로 강등시켰다. 그로부터 4개월 후 당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체덴발은 책임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여 담바를 모든 직책에서 해임하였다. 그밖에도 사상 및 정치 수준, 업무, 성격 등을 문제 삼아 담딘(B. Damdin), 람친(D. Lamchin), 발간(S. Balgan), 삼단(D. Samdan), 수렌자브(Ch. Sürenjav), 두게르자브(A. Dürgerjav) 등을 당 지도부에서 축출하였다.

체덴발은 또한 1962년에 당중앙위원회 제1서기 투므르-오치르(D.

#### ◆ 육자긴 체덴발(1916~1991)

몽골의 저명한 정치 및 사회 지도자이자 몽골인민공화국 영웅 및 노동 영웅이다. 몽골인민공화국 원수를 역임한 체덴발은 지금의 오브스 아이막 다브스트 숲에서 태어났다. 그는 초등학교와 이르쿠츠크의 노동자 예비 과정, 시베리아의 재정·경제전문대학에서 수학하였으며, 1939년부터 재정전문학교 교원, 교무처장, 재무부 차관으로 근무하였다. 체덴발은 몽골인민혁명당 제10차 당대회에서 당중앙위원회 서기장으로 선출되었으며, 그 후 1940~1954년과 1959~1984년 사이에 당수로 재임하였다.



그는 1941년 9월 몽골군 부사령관, 1946년 부총리, 1952~1974년까지 내각총리, 1974년부터 인민대회의 최고회의 의장으로 재직하다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사임하였다. 그는 인생의 말년을 모스크바에서 보냈으며, 1991년에 사망하였다.

Tömör-Ochir)를, 1963년에 당중앙위원회 제2등 서기 첸드(L. Tsend)를, 1964년에 당중앙위원회 위원 로호즈(Ts. Loohuuz), 남보(B. Nymbuu), 수렌자브 등을 민족주의를 지지하고, 국가의 역사적 성과를 무시하고, 1930년대 벌어졌던 정치적 혼란을 끄집어 내어 그 폐해에 대하여 과장하고, 권력과 직책을 탐하고, 나라의 인재를 박해하고, 당을 분열시키려고 하였다고 비판하고 당 지도부에서 축출하였다. 이렇게 하여 체덴발이 당과 정부의 권력을 장악하고, 권력이 대부분 그에게 집중됨에 따라 사회 전체에 상부의 지시를 무조건 따르는 관료주의가 자리를 잡았다.

## ○ 몽골인민공화국 경제 분야에 일어난 변화

### 경제 생활에 일어난 변화

전쟁 시기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주요 경제 자원은 축산업이었다. 전쟁 시기의 제반 상황과 관련하여 가축 수를 늘리고 축산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가 취해졌다. 인민 경영주들은 1941년부터 양모를, 1944년부터 육류를 국가에 조달(調達) 형식으로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1940년대에 유가공 공장이 세워졌고, 유목민들은 1947년부터 국가에 우유를 조달 형식으로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축산 전문가와 가축 병원 및 관련 서비스가 크게 늘어났다. 1941년부터 인민 경제 주체가 일반 짐수레로 국가의 화물을 운송하게 되었다.

정부는 1941년부터 1개년 개발 계획에 따라, 1948년부터 5개년 개발 계획에 따라 국가 경제를 발전시켰다. 전쟁 기간 동안 목축업은 국내 수요를 충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련에 공급한 가축은 2배 이상, 양모도 거의 2배나 증가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과 원숭이 해(1944)의 재해로 1940년에서 1945년 사이에 가축 수는 2750만 두에서 2000만 두로 감소하였다. 당시 축산업은 20만 명에 달하는 인민 경제 주체(유목민)의 재산이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가축 수를 늘리는 여러 조치를 취하였다.

- 가축 병원과 수의사 수를 늘리는 한편 무료 진료를 지원하였다.
- 나이 든 군인을 제대시켜 목축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 일반 짐수레를 국가의 운송에 징발하는 것을 중지시켰다.
- 1949년부터 인민 경제 주체를 역참 업무에서 제외하였다. 이렇게 해서 인민은 매년 18,000명의 인력과 37만 여 두의 말을 사용하고, 15만 두

정도의 작은 가축과 1000만 투그릭 이상 비용이 들어가는 무거운 노역에서 풀려났다.

- 국세 및 국가 조달 정책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다. 1940년에서 1941년 사이에 국세에 관한 법률로 가축 수를 늘리고, 축산물의 이익을 잘 활용한 경제 주체들에게 국세를 면제 또는 감면해 주었다. 1944년부터는 조세를 평등하게 부과하였다.

유목민들의 창의성과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그들의 경험을 공유할 목적으로 1943년에서 1955년 사이에 4차례에 걸쳐 전국 유목민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국가의 저명한 우수 유목민(Ulsyn aldart sain malchin)’이라는 칭호를 만들어 1,000두, 500두 이상의 가축을 소유하고 있는 97명의 유목민에게 그 칭호를 주었다.

그러나 축산업자의 조세와 축산물을 준비하여 국가에 조달 형식으로 공급하던 전쟁 시기의 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1949년부터는 인민 경영주들에게 가축 수를 50% 늘리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가축 수 증감에 상관없이 계획에 명시된 가축 수에서 육류와 양모, 우유 등을 규정에 따라 받아갔다. 이와 같이 개인 경영주들이 생산한 제품을 국가가 법을 이용하여 싼 값에 강제 구매하는 것은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가축 수를 늘리려는 의욕을 상실시켰다. 그 결과 제1차 5개년 계획(1948~1952) 기간 동안에 가축이 없는 가호 수가 두 배나 늘었다. 또한 200두 미만의 가축을 소유한 가호 수도 7.8%나 감소하였다. 당연히 많은 경영주들이 국가의 조달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1954년 기준 그들은 총 2000만 투그릭의 부채를 갖고 있었다. 납세 및 국가의 조달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지게 한 것이다.

이 모든 것 때문에 인민들은 언제 어떻게 처벌받을지 몰라 축산업을 꺼리고, 가축을 사회 소유로 이전하거나, 원하는 사람에게 떠넘겨 일신의 안위를 도모하는 경향이 생겨났다. 제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가축은 겨우 180만 두는 데 그쳐 도합 2270만 두가 되었다. 이런 현상에 대하여 당시 지도자들은 “인민 경영주들의 가축 증산 능력이 소진되었거나, 가축이 개인 소유자의 관리하에 있기 때문에 증가하지 않는다거나, 협동 조합(Negdel)에 사회화함으로써 가축을 증산할 수 있다” 등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

한편 공업은 1940년대에 국내총생산(GDP)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전쟁 기간 동안 소련의 원조로 양모 세척 공장, 가죽 가공 공장, 기와 공장, 날라이흐와 준볼락(Züünbulag)의 석탄 광산, 성냥 공장 등이 신설되었다. 또한 1946년에는 육류 가공 공장을 준공하였으며, 내적 자원을 활용하여 울란바토르에 제분 공장, 여러 아이막에 식품 공장과 제분기, 여러 솜에 유가공 공장을 건립하였다. 1940년에서 1945년 사이에 식품 공장 수는 17.6배, 생산품은 28배 증가하였으며, 총 공업 생산의 41.2%를 생산하는 기초 분야 중 하나가 되었다. 협동 조합 생산품의 종류가 크게 늘어났고, 규모는 1940년에서 1945년 사이에 45%나 신장하였다.

국영 및 협동 조합 공장은 국내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차(茶), 담배, 성냥, 비누 등 일상 용품과 마차, 부속품, 농기구, 기계 부품 등 60여 종의 제품을 새롭게 생산하였다.

몽골의 공업을 발전시키는 데 소련 외에도 불가리아, 체코슬로바키아, 동독 등 사회주의 국가들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1949년에는 몽골-소련 합작 ‘소브몽골금속(Sovmongol metall)’ 협회가 설립되었는데 이는 몽골의 공업 및 기간 산업 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이와 함께 수십 개의 공장이 새로 건립되었다. 그중에서 화력발전소, 60만 톤의 석탄을 채굴하는 날라이

호 광산, 부렌축트·투멘축트·첵헤르만달의 비철(非鐵) 금속 광산, 준비안의 정유 공장, 벽돌 공장, 널판·석고 공장 등으로 이루어진 중공업 분야가 탄생하였다.

몽골 정부는 1942년 도로운송부 산하에 ‘마차 수송 트러스트’를 설립하였다. 또한 울란바토르-수흐바타르 사이에 12개 역을 지나는 마차 수송 노선을 설립하여 국가 화물을 운송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1949년부터 말로 수송하는 역을 폐지하고 수도에서 각 아이막 소재지 사이를, 각 아이막 소재지에서 각 솜 소재지 사이를 자동차를 이용하여 우편과 승객을 운송하였다. 그리고 1950년대 초반에 들어와 모든 아이막에 자동차 운송 기지가 만들어졌다.

한편 이 시기 몽골에서는 소련의 원조를 받아 철도를 건설하였다. 즉, 1949년에는 나우시키(Naushki)-울란바토르 구간(400km)이, 1956년에는 울란바토르와 자민 우드(Zamyn Üüd) 구간(700km)이 개통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 몽골에서도 민간 항공 시대가 열렸다. 1954년 소련은 자국의 관할하에 있던 울란바토르와 사인산드(Sainshand) 비행장과 각종 장비 및 도구, ‘IL-14’ 항공기 5대를 무상으로 양도하였다. 1956년부터는 울란바토르와 지방의 아이막 및 도시 사이에 항공 노선이 생겨 우편과 승객을 수송하였다.

전쟁 기간에 울란바토르에 최초로 자동식 전화국이 세워졌다. 1950년대에는 몽골의 모든 아이막에 전화·전신국이 세워졌으며, 전국의 모든 솜 가운데 1/3이 당해 아이막과 전화로 통화할 수 있었다. 1957년에 울란바토르에 1,000개의 전화 번호를 갖춘 자동식 전화가 개통되어 시내 통화가 자동화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1950년대에는 각 아이막 소재지에 라디오 중계소가, 각 솜에는 라디오 수신소가 설치되었다. 1957년에는 몽골통신사(MONTsAME)가 설립되어 국내외 정보를 알렸다.

전쟁 기간 중 교역과 서비스 분야에서도 변화가 일어나 수입이 1/2로 줄고, 일상 용품과 식료품 부족을 겪었다. 이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물자를 골고루 나눠 주고 가격 인상을 막을 목적으로 배급제를 실시하였다. 전쟁 이후 물자 공급이 크게 개선되었다. 정부는 1946년부터 물가를 25~53% 낮췄다. 또한 1950년 5월 1일부터 상품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판매하고 양모는 반드시 제품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규정을 폐지하고, 모든 종류의 물건을 자유롭게 판매하도록 하였다.

몽골의 민족 교역은 최초로 상업 조합(몽골소비자조합) 교역 형태로 시작되었다. 몽골소비자조합(Mongolyn ed kheregchdiin khorshoo)은 존속 기간 동안 유목민들에게 일상 용품을 공급하고, 원자재를 구매하는 활동을 하였다. 상업 조합 교역은 1943년에 수입의 73%, 수출의 91.4%를 담당하였으며, 국가 예산의 46.5%를 충당하였다. 그러나 1958년 몽골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교역 구조와 조직을 개편하여 이를 국가 관리하에 집중시킨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리하여 1959년 1월에는 몽골소비자조합을 해산시켰다. 결국 소매 상품 유통에 국영 판매가 주류를 차지하는 상황이 되었다. 국영 판매가 1957년에 전체 판매 유통의 47%를 차지하였던 것이 97%까지 증가하였다. 이 시기 몽골의 대외 교역 역시 증가하여 8개국과 교역을 하였다.

**인민 경영주의 협동 조합화** 1950년대 몽골에서는 인민 경영주의 5%, 전체 가축 수의 약 1.2%가 인민생산협동조합(Ardyn üildverleliin negdel)에 소속되어 있었다. 이 시기 인민생산협동조합에 가축을 사회화하거나 노동하는 것 등은 유목민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 1954년에 열린 몽골인민혁명당 제12차 당대회에서 인민생산협동조합

을 강화하고, 이들을 대규모 협동 경영 주체로 전환하는 방침을 정하였다. 1955년 3월에는 제1차 인민생산협동조합 최고 일꾼 대회가 개최되어 농축산협동조합(Khödöö aj akhuyn negdel)의 시범 규칙을 확정지었다.

1958년 몽골인민혁명당 제13차 당대회가 개최되었는데 이 당대회에서는 “향후 3년 내에 대부분의 자영 유목민을 자발적인 의사의 원칙에 입각하여 협동 조합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되었다. 이렇게 하여 자영 유목민들을 협동 조합화하려는 대중적 성격의 운동이 전개되었다. 유목민 가운데 일부는 조합의 우월성을 믿고 가입하고, 일부 가난한 사람들은 조합에 의지하여 조합이 주는 이익을 얻고 빈곤에서 벗어나려는 목적으로 가입하였다. 그밖의 유목민들은 당과 정부에서 세금, 국가 조달, 가입 시기를 정하여 압력을 가하는 등의 강제 조치를 취하여 어쩔 수 없이 가입하였다.

자영 유목민의 협동 조합 가입 현황

연도 항 목	1957년	1958년	1959년	
			상반기	하반기
자영 유목민의 협동 조합 가입 현황	34.1%	75.0%	97.3%	99.7%

1959년 상반기가 되면 자영 유목민의 97.3%가 조합에 가입하여 국가 전체 가축 수의 48%가 농축산협동조합의 재산이 된다. 그리하여 1959년 당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자영 유목민의 협동 조합화는 이제 거의 완료되었다”고 결론지었다. 즉, 자영 유목민들을 협동 조합화함으로써 사유 재산이 없어지고,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풍조가 사라지고, 공공 또는 사회주의적 재산만 존재하는 등 몽골인민공화국에 사회주의가 실현되었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몽골 정부는 조합원들이 개인적 용도로 남겨 둔 가축을 사회화하고, 소규모 조합을 통합하여 대형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1959년 5월 당중앙위원회와 내각회의는 농축산협동조합의 새로운 시범 규칙에 대하여 토의하고, 개인적 용도로 남겨 둔 조합원들의 가축을 목초가 풍부한 산림 지대에서는 50두, 사막 지대에서는 75두까지 허용하기로 하는 새로운 결정을 내렸다. 조합원들이 개인적 용도로 남겨 둔 가축에 대한 재(再)사회화 조치가 1959년 7월에서 8월 사이에 진행되었다. 이렇게 하여 전체 가축의 73.8%가 조합 재산이 되었다. 또한 1959년 초에 767개에 달하던 조합 수를 통합하여 389개로 만들었다. 대형화 이후 한 조합은 평균 4만 3000두의 가축을 가지게 되었다. 조합의 시범 규칙에 추가 개정 조항을 삽입하여, 조합원들은 “능력대로 일하고 일한 만큼 받아간다”는 사회주의적 원칙을 일관되게 준수하게 되었다.

자영 유목민들을 협동 조합화함으로써 협동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당연히 가난한 사람들은 협동조합에 의지하여 생활 형편이 나아졌다. 그러나 축산품을 국가가 싼 값에 구매하고, 조합의 시장 경제를 봉쇄함으로써 수익은 크게 감소하였다. 한마디로 조합원들은 자신들이 생산한 제품이 주는 이익을 나눠 갖지 못하였다. 또한 가축을 사회화함으로써 가축이 주인에게서 멀어지고, 전통적인 조직과 목축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다. 그 결과 가축 수와 축산 수익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농업 정책과 농지 개간** 1959년 당중앙위원회와 내각회의는 1959년에서 1969년 사이에 농업 생산을 크게 증대시킨다는 결정을 내렸다. 특히 목축업과 농업을 함께 발전시켜 밀과 기타 곡물 수요를 국내에서 자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리하여 1959년에 개최된 당중앙위원회



초원의 농장

제3차 전원회의는 농업 발전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1961년에는 국내 밀가루 수요를 자급자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리하여 농업에서 전국적인 일종의 붐이 일어났다. 청년들은 황무지 개간에 적극 참여하였다. 헤를렌(Kherlen), 다르한(Darkhan), 켈테르(Zelter), 엑-우르(Eg-Üür) 등지의 농장 신설에 1차로 청년 300명이 동참하였다. 정부는 농지 개간 사업에 4000만 투그릭을 지출하였다. 소련은 이 시기 농지 개간 사업에 기술 제공, 재정 보조, 기술자 파견 등 다방면에 걸쳐 도움을 주었다. 즉, 1958년에서 1960년 사이에 자동차 3,000대, 트랙터 2,500대, 콤파인 500대, 그밖에 각종 농업 장비와 농기구, 장기 차관을 제공하였다. 또한 고르노-알타이(Gorno-Altai), 시베리아, 카자흐스탄 등지에서 농지 개간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 300명을 몽골에 파견하였다. 그들은 토양을 조사하여 농사에 적합한 170만 헥타르의 땅을 찾아내 활용할 농지와 남겨 둘 농지를 구분하였다. 그밖에도 토양을 개량하고, 농업 기술을 향상시키고, 농업 기술자를 양성하는 데도 큰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주로 경지 면적을 확장시켜 소출을 증대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집약적 방법을 이용하여 소규모 농지에서 대량 수확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또한 토양 파괴를 막는 조치도 사실상 방치되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가축을 키우는 목초지가 줄어들어 큰 영향을 끼쳤다. 그리하여 개간한 토지의 50%는 토양이 파괴되어 수확이 감소하기에 이르렀다.

## ● 몽골인민공화국의 문화 발전

1940년대에 들어서 교육과 문화 방면에서도 큰 발전을 이루어 인구의 20%가 민족 문자를 깨쳤다. 또한 몽골인민혁명당 제10차 당대회 결의에 따라 1941년부터는 모든 교육을 러시아 키릴 문자로 실시하였다. 각 숨과 박에 문자 동호회 및 단체 등을 만들고, 국가에서 교원을 파견하여 글을 가르쳤다. 이와 함께 각급 공장과 관공서에는 노동자들에게 글을 가르칠 것을 의무로 부과하였다. 글을 깨친 한 사람이 세 명에게 글을 가르치자는 운동이 전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준비를 거쳐 1946년부터 공문서에 키릴 문자를 사용하게 되었다. 새로운 문자를 가르치는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된 결과, 1956년 기준 13~45세 인구 중 90.5%가 글을 읽게 되었다. 또한 1950년대 중반부터

는 반문해자(半文解者)에게 반복해서 가르치고, 새로 가르치는 일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1957년에는 취학 연령 아동 전체에게 초등 교육을 받게 한다는 목표가 달성되었다(97.7%). 그리고 1958년부터는 이 목표가 중등 교육으로 확대되었다.

보통 교육 기관의 추이

항목	1940년	1960년
보통 교육 기관(초·중등 교육)	331개	468개
학생 수	24,300명	115,300명
졸업생 수	2,100명	21,400명

한편 1940년 기준 전문 학교가 7개 운영되어 초등 학교 교원, 보조 의사, 보조 수의사, 법률가, 경제 전문가, 회계사 등 각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였다. 또한 국가 경제 발전 과정의 필요성 때문에 수자원, 산림, 문화 예술, 판매, 경공업 식품, 건설, 철도, 기타 여러 방면의 기술자 및 전문가를 양성하는 전문 학교를 신설하였다. 대학이 없던 시절에는 소련에 유학 보내 인재를 양성하였다. 그러나 1942년 몽골국립대학교가 설립되어 교원, 전문의, 전문 수의사, 축산 전문가 등을 양성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잇달아 국립사범대학, 농축산대학 등이 설립되어 몽골에 현대적인 교육 제도가 형성되었다.

고등 교육 기관의 추이

항목	1940년	1960년
전문 대학	7개	15개
대학교	-	7개

1940년대부터 대학교와 전문 대학이 설립되면서 학술 연구 기관이 늘어났다. 그 결과 몽골인 학자들이 배출되었으며, 그들은 외국의 연구자 및 학술 기관과 공동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였다. 1956년 소련 두브나(Dubna)에 있는 핵물리학연구소에 몽골 학자들이 근무하면서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또한 몽골 전 시대를 포괄하는 역사를 연구하여 1954년에 『몽골인민공화국사』라는 단행본을 출간하였다. 이와 함께 고고학과 민속학 등 역사 분야의 학문이 독자적으로 발전하였다. 그런가 하면 1946년에서 1949년 사이에는 고생물학 학술 조사단이 형태가 거의 완벽한 공룡뼈 화석을 발견하였다.

축산 분야에서는 아요르자나(T. Ayurzana)의 실험 및 연구 성과가 결실을 맺어 육류와 양모의 질을 높인 ‘오르혼(Orkhon)’이라는 품종의 우수한 양이 탄생하였다. 농업 분야에서는 재배 식물의 씨앗을 몽골 풍토에 토착화시키고, 몽골의 자연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 일을 계속 진행하였다. 삭다르(Ch. Shagdar)의 지도하에 진행된 실험 연구 결과 몽골의 자연과 기후에 맞는 사과와 산앵두(*Ribes nigrum*)의 신품종을 개발하여 재배하게 되었다. 또한 몽골-소련 지질학자들은 몰리브덴, 텅스텐, 알루미늄, 석탄, 철광석 광산과 유전을 찾아냈다. 이들 광산 개발에 의해 몽골 광공업의 기초가 놓였다.

한편 체벡미드(D. Tsevegmid)의 「무덤 위에서」, 쎅게(D. Sengge)의 「비둘기」, 체덴자브(Ts. Tsendenjav)의 「나의 고향」, 치미드(Ch. Chimid)의 「나는 몽골인」, 페를레(Kh. Perlee)의 「연인의 노래」 등의 시(詩)와 쎅게의 『아요시』, 로도이담바(Ch. Lodoidamba)의 『우리 학교 학생들』 등의 중편 소설을 통하여 1940년대부터 1950년대 몽골 문학 발전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 1950년대에 장편 소설이 나와 몽골 문학 발전 정도를 보여 주었다. 특히 1955년 린친은 『새벽빛』을 저술하여 몽골 현대 장편 소설의 기초를 놓았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에는 「만도하이 황후」, 「아마르사나」 등 역사를 주

문화 관련 기관의 성장

항 목	1940년	1960년	1986년
빨간 코너	19	545	1350
클럽, 문화 궁전	14	87	435
극장, 예술 전문 기관	3	9	30
영화관	1	5	27
고정 극장	17	37	38
이동 극장	19	329	489
도서관	1	33	728
박물관	1	3	32
중앙 및 지방 신문	5	29	40
잡지	7	16	34

제로 한 연극이 무대에 올랐다. 또한 오이도브(Ch. Oidov)의 「새빨간 거짓말쟁이」, 「길」, 오윤(E. Oyun)의 「새 건물에서」, 치메드(Ch. Chimed)의 「굴뚝에서 나는 소리」, 왕간(L. Vangan)의 「운전수 토조」 등 초기 국가 건설 및 노동자의 삶을 그린 새로운 연극이 나왔다. 이와 함께 담딘수렌과 스미르노프(B. Smirnov)가 연출한 「세 산에 얽힌 사연」, 곤칙숨라(G. Gonchigsuulaa)의 「사실」 등 가극이 공연되었다.

그런가 하면 담딘수렌의 바이올린 독주곡 「헨티의 높은 산에서」, 남스라이자브(Ts. Namsraijav)의 교향곡 「혁명의 영웅적 행진」, 무르도르지(L. Mördorj)의 「나의 조국」 등이 발표되어 몽골 음악의 장르가 풍부해졌다. 1957년에는 몽골 작곡가들이 하나로 통합하여 독자적인 협회를 조직하였다.

한편 소련의 영화 기술자와 공동으로 제작한 「수호바타르」, 「축트 타이지」 등의 영화를 통하여 이 시기 몽골 영화 예술 발전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다. 첵미드(Ts. Tsegmid), 첵미드(N. Tsegmid), 이친호를로(D. Ichinkhorloo), 곶

보수렌(G. Gombosüren), 샤라브도(Yo. Sharavdoo), 체렌돌람(D. Tserendulam), 체렌덴테브(L. Tserendendev) 등은 연극 예술 민족 학교의 발전 과정에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1950년대부터는 장편 영화가 나왔는데 지그지드(B. Jigjid) 감독의 「인민의 대사(大使)」(1959)는 당시 예술 영화의 높은 수준을 보여 주는 작품이다.

1941년 3월 인민혁명 20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국립 서커스 극장이 문을 열고 역사적인 첫 공연이 열렸다. 몽골 서커스 예술 분야에서는 라드나바자르(J. Radnaabazar)가 크니큰 공헌을 하였다.

1940년대부터 수도 울란바토르에는 주로 고전적 형태의 건축물이 지어졌다. 그러한 건축물 목록에는 정부종합청사, 외무부, 국립 오페라 극장, 몽골국립대학교 본관, 몽골 소년단 궁전, 국립중앙도서관, 중앙박물관 등 여러 건물이 들어 있다. 이 건물들은 지금도 울란바토르 도시 경관을 아름답게 장식하며 우뚝 서 있다.

이 무렵에는 많은 미술가들이 유럽 고전 미술 기법으로 현실을 반영하는 그림을 그렸다. 반면에 야담수렌(Ü. Yadamsüren) 등 일부 화가들은 유화에 몽골 그림 전통과 그것을 개량한 화법을 적절히 조화시켜 발전시켰다. 그는 「마두금 연주하는 노인」, 「삼현금(三絃琴) 타는 소녀」 등 그림과 몽골 샤먼 의상, 청나라 지배 시기의 몽골 귀족과 평민 의상, 오이라트 및 여러 부족 의상에 관한 그림책(일종의 앨범)을 만들면서 몽골 그림 전통을 반영하여 그렸다. 그러나 당시에는 문학과 예술 작품을 사회주의 리얼리즘 기법에 의거하여 창작함으로써 현실을 아름답게 미화하고 왜곡시키는 경향이 많았다. 이는 예술 작품을 예술적인 기준이 아니라 당의 사상과 부합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평가하는 것으로, 창작하는 사람의 재능과 자유로운 사고를 억누르고 작품의 질을 떨어뜨리는 데 한몫하였다.

이 시기에는 또한 몽골 역사-문학의 기념비적 작품인 『몽골비사』를 현대 몽골어로 옮겨 1947년도에 출판하였다. 그러나 이때부터 민족 문화의 소중한 자산들을 평가절하하고 이것들을 ‘구식의’ 또는 ‘시대에 뒤떨어진’ 등의 표현을 써가며 비난하는 풍조가 생겼다. 그 결과 민족의 문화 유산을 높이 평가하거나 복원하려는 시도에 대하여 ‘편협한 민족주의’라고 비판하였다.

한편 이 시기 몽골 정부는 현대 보건 체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950년대에 들어와 각 아이막 소재지에 병원을 개설하여 노동자들에게 전문 의료 서비스를 받게 하였다. 이와 함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료 검진이 수시로 시행되었다. 전염병을 막기 위하여 예방 주사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예방 조치 성과에 힘입어 당시 유행하던 과라티푸스, 천연두, 장티푸스, 눈병 등이 퇴치되었고, 결핵 환자가 크게 줄었으며, 종종 선(腺)페스트가 발생하였지만 즉시 조치를 취하여 확산을 막았다.

1940년대에는 체육 및 스포츠 분야에서도 새로운 조직이 형성되었다. 1947년 내각회의 산하에 체육 및 스포츠 업무 실행위원회가 설립되었다. 또한 1958년에는 스포츠 중앙 궁전(실내 체육관), 1959년에는 중앙 운동장(스타디움)이 건립되었다.

1952년 몽골 정부는 국가 신기록과 챔피언 칭호를 제정하고, 일부 종목의 국가 대표팀을 구성하여 국제대회에 참가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4년에 한 번씩 전체 몽골 인민의 경기 대회, 즉 전국 체전을 개최하고 매년 10여 종목에서 국가 챔피언을 선발하였다. 그 결과 젊은이들은 대부분 체력 검사 기준을 통과하고, 몽골 전통 스포츠뿐 아니라 근대 20여 종의 스포츠 종목을 성공적으로 발전시켰다. 이는 체육이 대중화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 02

### 사회주의 건설 완료 목표와 시행 (1960~1989)

소비에트 나라와 운명을 같이하고  
진보적인 대중과 마음을 같이하고  
나아갈 방향을 즐겁게 붙들고  
공산주의를 향해 힘차게 나간  
(몽골 「국가」 중에서, 1961년)

#### ● 몽골의 사회주의 건설 완료 계획

##### 1960년 헌법

몽골인민혁명당은 협동 조합화 운동으로 사유 재산이 없어지고 오로지 사회적 재산에 의거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가 형성되어, 몽골인민공화국이 현실적 사회주의 국가로 변모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1960년 7월 6일 몽골인민공화국 제4기 인민대회(Ardyn Ikh Khural) 제1차 정례회의에서 몽골인민공화국 세 번째 헌법안을 상정하여 통과시켰다. 이 헌법은 목표와 사상적인 측면에서 전형적인 사회주의 헌법이다.

신헌법은 국가 발전의 역정을 종합하여 결론짓고 “몽골인민공화국의 과

제는 사회주의를 실현하고, 향후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몽골인민공화국의 정치·사회를 이끄는 원동력은 불패의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론을 활동의 지도 이념으로 삼은 몽골인민혁명당이다”라고 하여 당 중심의 정치 제도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였다. 신헌법은 또한 당해 국가의 특징과 계급 구성에 대하여 “몽골인민공화국은 노동자와 협동 조합으로 집단화한 인민과 노동자 지식 계급의 사회주의 국가이고, 그 기반은 노동자 계급과 협동 조합으로 집단화한 인민의 동맹이다”라고 명시하였다. 이렇게 하여 노동자 계급의 선도적 역할을 과장하여 선전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몽골인민공화국의 경제 기반은 “생산 수단을 공유하는 사회주의적 소유이다”라고 선포하였는데 이는 사유 재산을 부정한 것이었다.

신헌법은 인민의 권리를 명시함과 동시에, 그들에게 자신의 역량을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데 바치고,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개인의 이익보다 우선시하고, 사회주의적 소유를 확고하게 지키고, 사회주의 제도의 우호 관계를 파괴하는 어떠한 일에도 물러섬 없이 싸우고, 국가 기밀을 누설하지 않고, 국민의 모든 의무를 확고하게 준수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한다는 의무를 부과하였다. 몽골인민공화국 최고 권력 기관은 인민대회이고, 비(非)회기 중에는 인민대회의 의장단이라고 법제화하였으며, 인민대회의에서 인민대회의 의장단 의장으로 삼보(J. Sambuu)를, 내각회의 의장으로 체덴발을 각각 선출하였다. 한마디로 1960년 신헌법은 당해 국가에 사회주의 건설을 완료하였음을 선포한 증거 자료라고 할 수 있다.

#### 몽골인민혁명당의 제4차 강령

몽골인민혁명당 제14차 당대회에서 몽골은 이제 새로운 시점, 즉 사회주의 사회 건설이 완료된 시점에 와 있다고 결론짓고, 이 시기의 기본 과제는 사회주의의 물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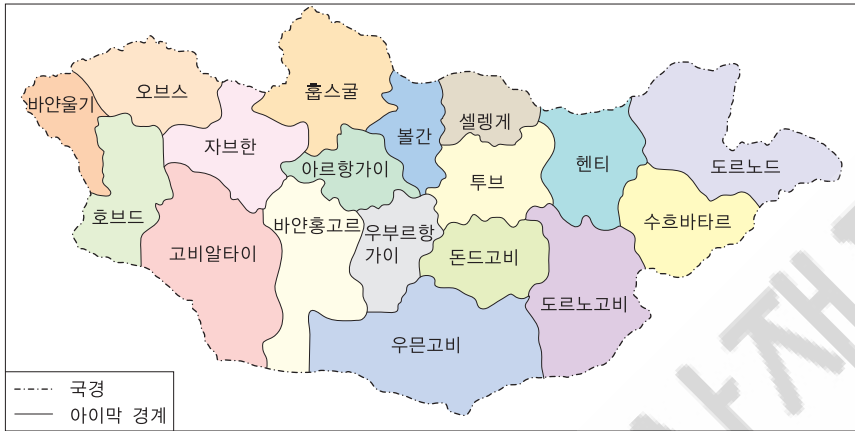


하게 보여 주었다”고 하였다. 또한 강령은 몽골인민공화국이 사회주의 건설을 완료한 시기의 주요 과제는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 관계를 발전시키고, 새로운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먼저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물질적 생산의 모든 분야, 즉 공업, 농축산업, 기반 시설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고, 가까운 시일에 몽골인민공화국을 농축산-공업 국가에서 공업-농축산 국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선언하였다. 또한 사회 관계를 발전시키려면 인민 정부의 지도력을 개선하고, 소유 관계를 명확히 하고, 노동자에게 공산주의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 ○ 상명하복의 관료주의 체제 강화

**정치 제도의 발전** 1960년대 중반 몽골에는 권위주의 체제에 맞는 정치 제도가 정착되었다. 몽골 정치 제도의 중심은 몽골인민혁명당이였다. 몽골인민혁명당은 이념과 활동의 기초를 마르크스-레닌주의라고 규정하고, 사회의 모든 분야에 이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하였다. 당은 조직의 구조와 실무 등 여러 방면에서 전형적인 공산주의 정당으로 변모하였다. 몽골인민혁명당은 그 후에도 노동자 계급의 정당이 되고자 노력하여 1990년 기준 당원 수가 94,000명에 달하였다.

그 때문에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최고 기관인 당대회는 항상 요란하고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1960년에서 1990년 사이에 몽골인민혁명당 당대회는 모두 6차례 개최되었다. 당대회는 당중앙위원회의 활동을 찬양·치하하고, 논문이나 보고서에서 제안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국가와 사회 및 공공 기관



사회주의 시기 몽골인민공화국 행정 구역

이 활동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하는 등 비슷한 의견을 담은 결정을 내리고는 하였다. 당의 조직 형태는 공동 지도 체제라고 선언하였지만, 사실상 최고 지도자의 명령을 따르고 실행하는 데 방향이 맞춰져 있었다.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정부 기구들은 몽골인민혁명당의 수족(手足), 즉 도구로 변모하였다. 1960년에서 1990년 사이에 인민대회(인민대회)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는 모두 9차례 실시되었으며, 실제 인민대회의는 40여 차례 소집되었다. 인민대회의 비(非)회기 중에는 거기서 선출된 인민대회의 의장단이 국가 권력을 갖고 있는 상임 최고 기관의 전권을 행사하였다. 인민대회의는 하급 단계의 인민대표자회의의 체계를 관리·지도하고, 정부의 중앙 및 최고 기관을 구성하고, 그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헌법과 그밖의 법률을 제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 인민 대표자를 선출할 때에는 유권자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위에서 각 기관의 장(長)들을 일방적으로 배정하여 선출하고, 모든 단계의 회의는 임명된 대표와 기관장을 겸직하는 이른바 ‘기관장 대표’로

가득 차 있었다.

몽골인민공화국 정부 기관의 조직은 최고·중앙·지방 등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내각회의는 정부의 최고 집행 기관이고, 정부 부서 및 국가위원회, 특별청은 중앙 기관이다. 반면에 아이막(도), 슴(군), 시, 라이온(구), 호로(동)의 인민대표자회의는 지방 권력 기관이었다.

1960년에서 1990년 사이의 법률 체계는 몽골인민공화국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완료하는 과제를 실행하는 시기의 '사회주의적 내용'을 가진 제반 법규정으로 이루어졌다. 이 시기의 법은 사회주의적 사회 관계를 조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몽골인민혁명당이 정부 및 각급 공공 기관의 내부 업무에 직접 관여하고 법 위에 군림하게 됨에 따라 관료주의와 상부에서 하달하는 방식에 따른 거대한 체제가 형성되었다. 이 체제는 외적으로 견고해 보였지만 점차 이완되고 쇠락해 갔다.

**대외 정책 및 활동** 냉전 시기 몽골인민공화국의 대외 정책은 소련 및 사회주의 국가와 우호·협력을 증진시키고, 사회 제도가 다른 나라와는 평화·공존의 기초 위에서 통상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고, 국제기구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몽골 정부는 무엇보다 소련과의 우호·협력을 모든 분야에서 증진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 1966년 두 나라 사이에 '우호·협력 및 상호 원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소련의 지도자 브레즈네프(L. I. Brezhnev)는 두 차례에 걸쳐 몽골을 방문하였는데 이는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 아무튼 이 시기에 몽골인민공화국은 정치·경제·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사실상 소련의 속국(屬國)이 되어 갔다. 이와 함께 몽골은 1962년 경제상호원조회의에 가입함으로써 사회주의 우방국과의 협력을 강

화하는 한편, 동 회의의 특별 프로그램에 따라 차관도 공여받았다.

한편 1965년부터 몽골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관계가 얼어붙기 시작하였다. 이는 중국 내부의 정치 상황 및 대외 정책과 관련이 있었다. 1966년 소련은 몽골의 안전 보장을 명분 삼아 몽골인민공화국에 군대를 주둔시켰다. 그러나 1962년 몽골-중국 간 국경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것은 중요한 일이었다. 1980년대에 들어 몽골과 중국 양측이 공동으로 국경 조사를 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그 후 몽골-중국 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기초가 되었다.

몽골 정부는 이와 함께 1965년부터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프랑스, 서독, 스페인, 일본, 미국 등 30여 선진국과 무역, 경제, 문화 방면에서 교류하고, 더 나아가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다. 그밖에도 몽골인민공화국은 국제연합 및 기타 국제 기구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특히 1970년에서 1980년 사이에는 60여 회에 걸쳐 국제 회의에 참가하여 세계의 긴장 완화 및 핵무기 감축에 관한 구체적인 제안을 하였으며, 1984년 제29차 유엔 총회에서는 몽골의 제안으로 '인민의 평화 공존 권리에 관한 성명'을 통과시켰다.

### 이념화된 사회와 그 폐해

이 시기 몽골 사회의 정신 생활 기반은 모든 것을 이기는 유일한 진리이자 가르침인 마르크스-레닌주의라고 선언하고, 모든 문제를 계급성과 당파성의 입장에 의거하여 접근하도록 가르쳤다. 또한 몽골인민혁명당은 사회의 정신 생활을 전면적으로 통제하고 감시하는 제도를 만들어 사상 방면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였다. 특히 예술, 문학, 과학 분야의 학자 및 연구자, 작가들에게 계급주의와 당파성 원칙을 강요하고, 이를 어긴 사람은 엄중하게 처벌하였다. 일례를 들면 1988년 몽골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와 정치국은 수흐바타르(G.

Sukhbaatar), 잠스란(L. Jamsran) 등이 저술한 『몽골인민공화국사 사료 선집』과 『몽골인민공화국 역사 교과서』를 몰수하여 폐기하고 저자들을 직장에서 해고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사회주의식 사회의 사고는 몽골인민공화국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완료하는 역사적 과제 및 향후 계획을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론에 기초하여 입안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국가 발전의 독특한 역사적 경험과 몽골인민혁명당의 성격 및 특징을 하나로 묶은 수백 권의 책을 출간하였다. 그중에서 특히 체덴발의 책에서 제시한 일부 견해를 찬양·선동하고, “…… 체덴발이 지은 이론서는 몽골인민혁명당이 마르크스-레닌주의 과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이자 몽골인민혁명당의 이념 이론의 크나큰 성과라는 점에서, 당해 국가 사회의 과학 발전 과정에서 이론과 방법론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결론짓고, 그를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론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한편 전 국민의 정치 교육을 강화하려고 마르크스주의 철학, 몽골인민혁명당사 및 소련공산당사, 과학적 공산주의 이론, 정치경제학을 가르쳤다. 이와 함께 울란바토르, 다르한, 에르테네트 등 주요 도시에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강의하는 야간 대학을 개설하였으며, 유목민 사이에 선전 활동을 강화하여 일일 회합, 공식 선전 등의 형태로 선전 활동을 전개하였다. 국민과 노동자에게 ‘최상의 공산주의 교육 제공’은 이 시기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였다. 몽골인민혁명당 제17차 당대회(1976)에서 사회주의적 생활 관습 교육을 확정하고, 거기에 몽골인민혁명당에 충성하고 공산주의자가 된다는 방침을 넣어 공표하였다.

1970년대 중반에는 자본주의의 형식주의를 배격하는 운동이 일어나 젊은이들의 장발을 금지하여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고, 바지통 넓이가 28cm를 넘지 않도록 각 사업장에 지침을 내렸다. 1977년 12월에 개최된 당중앙

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는 공공 재산을 기꺼이 보호하고, 사회주의적 소유에 저항하는 자들에 대하여 결연하게 싸우는 것은 당과 모든 공공 기관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심지어 체첸발이 교시한 사회주의 식 인간 평가 구호를 모든 사람들에게 강제적으로 외우게 하였다.

## ● 사회주의의 물질적 · 기술적 기반 건설 시도와 문제점

**국가의 공업화 정책과 그 결과** 몽골인민혁명당은 사회주의의 물질적 · 기술적 기반을 조성하는 문제를 국가를 공업화시키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인식하였다. 그리하여 몽골인민혁명당은 당대회와 중앙위원회 정기 전원회의를 통하여 공업 생산의 이익을 향상시키고, 공업 생산의 기술적 기반을 확대 · 강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토론하고 그 방안을 결정하였는데 이것이 국가를 공업화하는 기본 방향이 되었다. 이에 따라 1960년대 초부터 공업을 다른 분야보다 더욱 신속하게 발전시켜 ‘사회주의’의 기반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중에서 무엇보다도 연료 · 에너지 분야의 생산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 정책을 세우고, 1966년에서 1982년 사이에 중앙 집중식 에너지 시스템을 발족하고, 1976년에는 이를 소련의 동부 시베리아 에너지 시스템과 연결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는 울란바토르에 제4발전소를 신설하고, 기존의 제1발전소 및 제3발전소를 확장하고 전선을 가설하였다. 이와 함께 날라이호와 샨린 골 광산을 새롭게 정비하고 바가노르, 아돈출론(Aduunchuluun), 타반톨고이(Tavan tolgoi)의 석탄광을 새로 개발하여 채굴을 시작하였다. 1976년부터 국제 지질 탐사단이 몽골인민공화국에서 탐사 활동을 벌여 새로운 광

산을 발견하였으며 다르한, 에르데네트, 바가노르, 보르-운두르(Bor-Öndör), 후톨(Khötöl) 등 새로운 공업 중심지가 생겨 생산 구조와 분포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새로운 공업 도시를 건설하는 과제는 건설업 발전에 크나큰 영향을 끼쳤다. 소련의 원조로 울란바토르에 콘크리트 블록 공장, 건축 콤비나트, 다르한의 시멘트 벽돌 공장을 가동시켰다. 그 결과 1990년 기준 전체 건축 및 대규모 건축 사업의 65%를 국내 건설업체에서 시행하였다. 건축 작업의 70%는 기계화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 사회주의 우방국이 몽골의 경공업 발전에 큰 도움을 주었다.

이 시기에는 모든 종류의 운송 수단이 발전하여 화물 운송이 증가하였다. 특히 살히트(Salkhit), 에르데네트, 마니트(Maan't), 바가노르의 철도와 철도 건물이 완성되어 철도 총길이가 연장되었다. 또한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전국 200여 도시 및 촌락 사이에 항공망이 연결되어 승객과 우편을 정기적으로 운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응급 수송기도 다녔다. 전국을 아우르는 통신 체계도 갖추었다. 1967년 9월 17일에는 수도 울란바토르에 국영 텔레비전 방송이 시작되었다. 이와 함께 1970년부터는 총길이 3,400km의 송전선이 가설되어 11개 아이막과 많은 촌과 마을에서 송전선을 따라 들어오는 국영 텔레비전 방송을 시청할 수 있었다.

한편 1968년부터는 일부 공업 및 농업 관련 기관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시험하였다. 이러한 기관들이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자 국가의 생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꿀 가능성이 생겼다. 이 시기에는 또한 사회주의적 노동을 위한 운동이 전개되어 다와자브(Ts. Davaajav), 체렌-오치르(Ts. Tseren-Ochir) 등 많은 사람들이 몽골인민공화국 노동 영웅 칭호를 받았다.

한편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 사이에 수출이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에르테네트의 구리 공장, 형석 공장, 양모·양탄자·직물 공장이 가동된 것과 관련이 있다. 반면에 1970년부터 수입 총액이 증가한 것은 소련에서 수입하는 기계, 장비, 부품 재료 가격이 인상되었기 때문이다. 1980년대를 기준으로 몽골은 20여 개국의 100여 개 조합 및 회사에 제품을 수출하고, 30여 개국의 300여 조합 및 회사에서 상품을 수입하였다. 수출의 96%는 사회주의 우방국, 그중에서도 84%가 소련에 집중되었다.

1980년대를 기준으로 공업이 사회 총생산의 48%, 국가 총수입의 35%, 농축산업-공업 생산물의 75%를 점하였다. 공업 총생산에서 경제상호원조회의, 특히 소련의 원조로 세워진 공장이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몽골인민혁명당은 국가를 공업, 농축산업 국가로 만드는 문제를 규정하면서 공업화의 수준을 설명하는 기준을 적절하게 선정하지 못하였으며, 국가 수입의 50% 이상을 공업이 감당하면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생상품 수출 또는 사회주의 국제 분업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국가를 발전시킨다고 선언하고, 몽골인민공화국에 중공업을 육성할 필요가 없다는 원칙을 견지하였다. 이러한 잘못된 정책의 폐해로 1980년대 몽골은 공업 규모가 작고, 경공업 분야가 주종을 이루었으며, 공업 분야의 구조가 취약하였다.

### 농축산업 발전 계획 및 활동

협동 조합 운동이 성공을 거두고 사유 재산이었던 가축이 대부분 사회 소유가 되었다. 몽골인민혁명당은 축산업 분야에서 시행할 정책을 정하고, 농축산업 생산을 증대시키고, 농축산업 원자재 공급을 안정적으로 충족시키고, 도시와 시골의 물질 및 문화 생활 여건의 격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따라 농축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투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축산업을 안정적으로 성장시키고, 목초지에 물을 공급하고, 축사를 짓고, 수의학 분야를 발전시키고, 새로운 경영 주체를 설립하고, 농축산협동조합을 강화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 1986년 기준 한 농축산협동조합당 평균 43만 2000헥타르의 땅이 배당되었다. 1960년대에서 1970년대 들어와 목초지에 물을 공급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관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수자원을 탐사하고, 대규모 물 공급 시설을 설립하고, 수많은 관정(管井)을 굴착하여 1980년대 말 기준 전체 목초지의 60% 이상에 물을 공급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수의학 분야를 발전시켜 약 제조, 치료 및 사료 공급, 인력, 물질적 기반이 강화되었다. 농축산협동조합마다 동물 및 가축 병원을 갖추고, 가축 전염병 예방 주사 및 치료를 매년 1~2차례 실시하였다. 국가는 가축 사료를 준비하는 일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전국 규모로 사료를 준비하고, 생산하고, 보관하고, 운송하는 모든 시스템을 갖추었으며, 1987년 기준 건조 1,236톤과 사료 1,146톤을 준비하였다.

국가는 가축 번식 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여 품종이 우수한 가축을 선발하여 번식시켰다. 또한 인공 수정이나 자연 수태를 통하여 가축을 교배시켜 새로운 우량 품종을 만들어 냈다. 이와 함께 외국에서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축을 들여와 번식시키기도 하였다. 양 사육은 가는 양모, 다소 가는 양모, 육류·양모, 카라쿨 양가죽(곱슬곱슬한 고급 양피) 등으로 세분하고, 소 사육은 우유, 우유·육류, 육류 등 용도를 세분화하여 무리를 만들어 사육하였다. 이 시기에 나이람달(Nairamdal) 및 오르혼톨(Orkhontuul) 협동 목장, 투멘축트(Tümentsogt), 할흐 골 육류용 소 사육 협동 목장, 쉘베르(Sumber)의 카라쿨 양가죽용 양 사육 협동 목장 등 전문화된 목장과 기계화된 목장 등 새로운 경영 주체가 탄생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협동 목장에 싼 이자로 대출해 주고, 가축을 보험으로 보장해 주고, 포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기를 진작시키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 그러나 상세한 계산과 등록 및 정책의 부재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생산량도 안정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 그 결과 가축 수에는 사실상 거의 변화가 없었다. 즉, 1960년대 국가의 총 가축 수가 2300만 두였는데, 1988년에는 2310만 두였다. 이것은 외국으로 육류를 대량 수출하고, 조합원 개인의 가축 수를 엄격히 제한하고, 목축 방법과 기술을 잃어버린 것과 관련이 있다. 당에서 취한 여러 조치는 가축 수를 늘리려는 의욕을 북돋워 주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유목민들의 독자적인 활동을 제한하고, 그들을 국가에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는 체제에 익숙하게 만들었다.

이 시기에 농업 및 과일, 과일 생산에서도 커다란 발전을 이루었다.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경지 면적을 확장시켜 농산물 생산을 늘리는 정책을 시행하고, 황무지 개간이 매년 증가하여 1975년에는 510,000헥타르에 달하였다. 1976년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황무지를 개간하고 농산물 생산을 증대시키는 것에 대하여’ 토론하고 두 번째 황무지 개간 운동을 전개하였다.

우량 품종의 가축

가축의 종류	품종이 우수한 가축
양	바야드, 다르하드, 바트가, 우젬친, 사르톨, 오찬 솔트(꼬리가 큰), 일루 노갈람트(등뼈가 하나 더 많은), 알타이 양
소	할호 골 초원의 붉은 소
말	갈 샤르, 테스 골의 말
낙타	갈빈 고비의 붉은색 낙타, 하닌 헤츠의 밤색 낙타
염소	젓이 큰 염소

농산물은 농축산업 생산의 총 30%를 차지하여 시골 노동자들의 생활 상태와 문화 수준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황무지 개간 사업을 아무런 계산 없이 무분별하게 진행하여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그런데 1980년대 말에는 국가 발전의 속도가 줄고, 외채가 늘어나고, 발전의 균형이 상실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즉, 재정 적자가 20%에 달하게 되고, 생산 분야의 연관성 및 상호 보완 능력이 떨어져 경제적 측면에서 몽골은 소련의 명실상부한 중속국이 되었다.

## ○ 사회주의 시기의 사회 관계 발전

### 사회 구조와 사회 보장

이 시기에는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노동자, 협동 조합에 편제된 인민, 노동자 지식인’이라는 구조를 갖춘 사회가 형성되었다.

노동자 계급은 그 수나 사회적 지위라는 측면에서 그 위치가 확고하였으며, 공장 노동자들이 그 근간을 이루었다. 1960년대부터 기술 전문 학교가 설립되었으며, 1980년부터 매년 1만 명 이상의 전문 기술 인력이 배출되었다. 협동 조합에 편제된 인민의 수는 줄었지만 여전히 농축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인구가 가장 많았다. 1980년대 기준 그들은 사회적 부(富)의 1/5을 생산하였다. 협동 조합에 편제된 인민 구조에 큰 변화가 일어나 전문성과 교육 방면에서 큰 성장을 이루었다. 한편 각 단계 교육 기관의 교원들이 이 시기 몽골 지식인 계급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교육 분야 종사자 수는 계속 늘어났는데, 1969년에 비하여 1989년에는 3배나 늘어나 그 수가

69,400명에 이르렀다. 수만 놓고 보면 교원 다음으로 의사가 가장 많았다.

사회주의 시절 몽골의 사회 구조에서 청년층은 특별한 지위를 점하고 있었다. 인구는 대부분 이 층에 속하였는데, 몽골혁명청년동맹은 몽골의 젊은이를 통합하고, 공산주의 사상과 이념을 동맹의 목표와 활동 모델로 설정하였다. 또한 여성이 인구의 50.1%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여성 문제는 당연히 사회의 관심 대상이었다. 그래서 당과 정부는 여성의 노동 조건 개선에 대하여 항상 관심을 갖고, 출산 전후 45일과 56일 동안 유급 휴가를 주었고, 본인의 사회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정부에서 매달 120~140투그릭의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나아가 당중앙위원회는 여성이 당과 정부, 공공 기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특별 결정을 내렸다. 이 시기 몽골의 인구 분포를 보면 주요 집단인 할하가 대다수를 점하고 있었는데, 1989년 기준 카자흐족은 전체 인구의 6.1%를 차지하였다.

몽골인민혁명당과 정부의 사회 정책 기초는 사회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초점을 두었다. 종합 계획의 기초 위에서 모든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동 임금을 공평하게 분배하고, 무상으로 교육과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지원을 사회가 제공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여러 가지 조치를 시행하였다.

이 시기 몽골 노동자 수입의 기초는 임금이었다. 그래서 1963년 당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는 임금을 적게 받는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을 올리기로 결의하였다. 5개년 개발 계획에 임금 인상 방침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부분적이고 평준화된 경향을 보였다. 일례로 1958년 내각회의와 당중앙위원회의 결정으로 고비알타이 아이막, 도르노고비 아미막, 돈드고비 아이막, 우른고비 아이막의 모든 솜과 바양홍고르 아이막의 사막 지역에 있는 솜에서 근무하는 교원, 의사, 수의사, 보조 의사, 보조 수의사, 축산 전문

가들에게 ‘지방 근무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월급의 15%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1978년에 들어와 여기에 변경 사항을 더 집어넣었다. 또한 정부는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조세 감면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를 테면 1971년에는 300투그릭, 1976년에는 500투그릭 이하의 저임금 공무원들에게 소득세를 전액 면제해 주었다. 그 결과 노동자와 공무원의 60% 이상이 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았다. 이와 함께 501투그릭 이상의 월급을 받는 공무원에게는 납부해야 할 세금을 30% 감해 주었다.

국민들의 실소득을 증가시켜 주는 또 하나의 방법은 일상 용품 가격을 안정시키고, 나아가 가격을 인하하고, 농축산품의 국가 수매 가격을 인상해 주는 일이었다. 그래서 정부는 1976년부터 슝, 종이, 면직물, 의약품 등 일부 품목의 소매가를 평균 32% 인하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국민의 실질 소득이 3600만 투그릭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1960년대부터 계획을 초과 달성한 농축산협동조합 회원과 유목민들에게 보너스를 50%까지 주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국가는 예산의 40%를 사회적 소비 부문으로 책정하였다. 몽골 국민들은 전체 소비의 30%를 사회 소비 기금에서 받았다. 전체 국민에 대한 무상 교육 및 기술 획득, 치료, 각종 보조금과 연금 제공, 어린이 탁아소, 유치원, 여름 휴양소 전체 비용, 휴가비와 요양비의 일부를 제공하고, 대학생 생활 보조금, 출산 유급 휴가 및 휴가, 0~1세 사이의 영아 약제비, 4세 이상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 지급하는 보조금 등 여러 가지 사회 복지 비용을 이 기금에서 제공하였다. 1980년대 말 사회 소비 기금에서 제공하는 비용은 한 사람당 평균 3,700투그릭이었다. 1980년부터는 농축산협동조합 회원의 연금을 국가에서 지급하였다.

보건 분야는 구조적으로 국가 재산 낭비가 심한 체계가 형성되었다. 즉, 의료 진찰을 무상으로 하고, 각 슝마다 병원 지부를 갖추고, 전문 인력을 배

치하고, 병원 지부의 물질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그 결과 출산이 늘어 순수 인구 증가율이 신장되었다.

한편 당과 정부는 국민과 노동자들의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기울였다. 그 결과 수도 울란바토르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수천 가구의 주거 환경이 향상되었다. 1981년에서 1985년 사이에 87만 m<sup>2</sup>의 아파트가 준공되었다. 국민에 대한 사회적 편의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이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971년에 공공 사업·서비스부를 신설하였다. 이와 함께 시골로 보내는 이동식 서비스를 확대하였다.

## ● 사회주의 시기의 문화 발전

이 시기 문화 부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보통 학교(Erönkhii bolovs-rolyn surguul')의 통합 시스템이 형성·발전하여 국민의 보통 교육 수준이 향상되었다는 점이다. 정부는 '학교와 실생활의 연계를 강화하고, 향후 인민 교육 제도를 강화하는 법'을 제정하고, 1960년부터 보통 학교를 실생활과 연계하는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즉, 1966년에 모든 수업 계획을 개혁하여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학제를 3년+5년+2년으로 개정하여 1972년부터 8년 동안 불완전 중등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이때부터 취학 연령의 아이들에게 불완전 중등 수준의 교육을 받게 한다는 과제를 실현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는 모든 인민이 문자 해독 능력을 갖게 하자는 운동이 성과를 거두어 1970년 기준 전체 인구의 89.3%가 글자를 깨쳤다. 유네스코는 이를 높이 평가하여 몽골에 크루프스카야(N. Krupskaya) 기념 금메달을 수여하였다. 또한 1976년 기준 취학 연

령 아동의 96%가 학교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1982년에는 몽골인민공화국 교육법이 제정되었다. 일부 학교에서는 심화 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상급반의 경우 선택 과목을 배울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 결과 1990년 기준 634개의 보통 학교에서 440,900명의 학생이 배우고 있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성인 및 유목민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야간, 임시, 계절 학교를 신설하였다.

이 시기에 전문 기술 교육 제도도 정착되어 발전하였다. 1970년대에는 기술전문 학교가 많이 설립되었으며 1980년대 말경에는 40여 개의 기술 전문 학교에서 116개 직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배출하였다. 또한 1962년부터는 소련에, 1970년부터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의 기술 전문 학교에 학생들을 유학 보내기 시작하였으며, 소련에 유학하고 졸업한 학생 수가 총 2만 명을 넘었다. 이처럼 기술 및 전문 교육이 발전함에 따라 경제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문화 수준과 기술 교육 수준이 크게 높아졌다. 이와 함께 당과 정부는 고등 교육을 받은 인재를 양성하는 데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1960년에는 대학 및 전문대학생 수가 6,900명이었는데 1985년에는 24,600명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학술 분야에서는 1961년 5월 17일에 국가과학고등교육위원회(Shinjlekh ukhaany deed bolovsrolyn ulsyn khoroo)를 과학 아카데미로 개칭하였다. 과학 아카데미 산하 여러 연구소에서는 자연 과학 및 사회 과학의 기초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고, 몽골의 일부 학자들은 뛰어난 연구서를 출간하여 국가로부터 상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각 학문 분야마다 연구소와 실험실 및 시험장을 갖추게 되었다. 각 분야 학술 기관의 연구 성과는 학문과 생산 활동을 연결해 주는 고리 역할을 하였다. 그 결과 1989년 기준 43개의 학술 기관에서 2,000여 명의 연구원과 학자가 연구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70%가 학위 소지자였다.

정부는 또한 가축의 품종을 개량하고 각종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 향가이(Khangai), 바이드락(Baidrag), 토르고드(Torguud), 유리(Eröö) 등 품종이 우수한 양, 고르반사이한(Gurvansaikhan) 품종의 염소, 셀렝게 품종의 소, 할리온(Khalion) 품종의 꿀벌 등 큰 이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우량종이 생겨났다. 이와 함께 품종이 우수한 지역의 가축을 선발하여 번식시켰다. 많은 종류의 약과 생약을 제조하여 질병 치료와 예방, 번식력을 강화하는 데 활용하였다. 또한 곡물과 야채의 우수한 종자를 새로이 만들어 냈다. 그 가운데 하나가 1963년에 품종을 개량하여 만들어 낸 가물에 강하고 많은 수확을 내는 ‘오르혼(Orkhon)’ 품종의 밀이다. 곡물의 품종 개량 결과, 전체 종자의 60~80%를 각 지역 우수종으로 공급하였다.

몽골 지역에 서식하는 동식물 종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동물과 식물, 국토의 면적과 생태학적 균형을 유지시키고, 몽골의 『천연기념물(Red book)』을 출간하고, 식물의 병충해를 퇴치하는 일을 진행하였다. 그와 함께 지리학적 연구를 진행하여 몽골의 지질학적 구조와 광물 자원 분포도를 만들었다. 이러한 유용 광물에 기대어 광산 개발과 공업이 발전하였다. 또한 경제 지구와 부(副)지구를 확정하고 발전 방향을 결정하였다. 이 시기에는 세계 여러 나라의 학자와 90여 가지 주제로 공동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그중 대부분은 우주 과학, 원자, 생명 공학, 전자, 바이오메스, 태양열, 풍력 발전 등 자연과 기술 분야의 연구였다.

몽골 학자들은 우주 과학의 ‘인터코스모스 위성’ 계획의 실행에 직접 참가하여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1981년 몽골인 구르락차(J. Gürragcha)는 소련의 우주비행사 자니베코프(V. Janibekov)와 함께 우주 비행을 하여 몽골 최초의 우주인이 되었다.

또한 이 시기 사회 과학 분야에서도 역사, 언어, 문학, 철학, 경제학 문제를 우선적으로 연구하여 수십 편의 저작물이 나왔다. 그중에서 몽골사(3권), 몽골 철학 사상의 발전, 몽골어 문법, 어휘론, 방언, 몽골 문학사, 구비 문학을 연구하여 저술한 작품이 특기할 만하다.

미술과 문학은 새로운 장르가 도입되어 풍부해졌는데, 특히 희곡과 시나리오 발전이 괄목할 만하다. 푸레브도르지(D. Pürevdorj), 다시도르브(S. Dashdorov), 초이놈(R. Choinom), 야보홀란(B. Yavuukhuulan), 하과수렌, 다시발바르(O. Dashbalbar), 올랑하이(D. Ulankhai) 등의 시(詩), 남닥(D. Namdag), 치미드의 희곡, 로도이담바(Ch. Lodoidamba), 오드발(S. Udval), 맘(D. Maam), 나착도르지의 장편 소설, 에르테네(S. Erdene), 독미드(B. Dogmid), 노로브(D. Norov)의 중·단편 소설이 이 시기 문학 발전에서 일어난 성과라 할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몽골 영화 제작소에서는 매년 평균적으로 예술 영화 7~8편, 영화 소식 24편을 포함하여 기록 영화 100여 편을 제작하였다. 이와 함께 외국 영화를 40여 편 번역하여 상영하였다. 「버림받은 여자」, 「후허의 결혼 임박」, 「이들이 여자인가?」, 「사람의 자취」, 「군인의 아들」, 「홍수」, 「결말」, 「존경받는 어머니」, 「맑은 타미르 강」, 「일식(日蝕)의 세월」, 「사위」, 「엔진 소리」, 「다섯 손가락」, 「당신에게 가고 있어요」 등 여러 주제의 단편 또는 시리즈 영화가 제작되었다. 1972년부터는 매년 40여 회 분량의 텔레비전 드라마를 제작하였다. 영화 예술 발전에 지그미드, 쉘후(B. Sumkhüü), 본타르(J. Buntar), 직지드수렌(J. Jigjidsüren), 나완(Ts. Navaan), 오르트나산(O. Urtnasan), 샤라브도르지(L. Sharavdorj) 등 여러 작가가 큰 공헌을 하였다. 1986년에 상영된 「만도하이 황후」는 몽골의 영화 예술 발전사에 획을 그을 만한 작품이었다.

또한 이 시기에는 무르도르지(L. Mördorj)의 「빠꾸기 남질」, 룽산샤라브(D.

Luvsansharav)의 「시베 카흐타」 등의 가극과 담딘수렌의 발레 「폭풍」 등 여러 작품이 보여 주듯이 음악 분야에서도 커다란 발전을 이루었다. 당연히 일반 음악 작품과 아울러 전통에 기초한 민족 및 고전 악기 연주 작품이 다수 나왔다.

발레는 민족 및 고전의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세브지드(Ts. Sevjid)는 「몽골 무용 중에서」, 「처녀들」, 「왕비들」이라는 작품을 통하여 민속 무용에 새로운 변화를 주었다. 특히 국립 오페라 무용 극장이 설립된 이래 민족 및 세계 고전 발레 30여 편을 공연하였다. 그중에서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 곤척숨라(S. Gonchigsumlaa)의 「강호약」, 「호쇼 나담」, 초이독(E. Choidog)의 「다북쑉 사이에서 핀 꽃」, 담딘수렌의 「호수에 관한 전설」, 잔찬노로브(N. Jantsannorov)의 「업보(業報)의 세 산」 등을 수작으로 꼽을 수 있다. 발레 무용수 자민다와(B. Jamindagva)는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 고전 무용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미술은 점점 권위주의적 외형과 형식주의에서 벗어나 조국과 평범한 인민의 생활을 서정적으로 묘사하기 시작하였다. 체벡자브(O. Tsevegjav)의 「종마(種馬)의 싸움」, 「수소의 충돌」, 「암말의 젓 짜기」, 오돈(G. Odon)의 「방과 후」, 출템(N. Tsültem)의 「초원의 집」, 가와(L. Gavaa)의 「알타이의 산맥」 등 많은 작품이 그런 내용과 특징을 띠고 있다. 회화는 초상화, 몽골 그림, 유화, 소묘, 포스터, 무대 장식, 판화 등 여러 가지 기법이 발전하였다. 조각가들은 조각, 비석, 기념 열주(列柱), 조각 복합체 등을 창작해 왔다. 초임볼(D. Choimbol)의 「수흐바타르 동상」, 자이산 톨고이(Zaisan tolgoi)에 있는 몽골-소련 병사 기념탑 등을 통하여 조각의 발전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1960년대부터는 장식 예술 중에서 조명 장식이 발전하였다.

정부는 문화-예술 관련 기관을 확장하고, 그들의 물질적 기반을 강화할

목적으로 많은 사업을 시행하였다. 이를 테면 1967년에 국영 텔레비전 방송을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국내외 방송을 볼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다. 이와 함께 1960년대부터 전국 대다수 아이막 소재지에서 극장이 문을 열고 민속 무용단이 생겼다. 또한 1990년을 기준으로 몽골에는 도서관이 1,100개, 소장서는 총 1,400만 권에 달하였다. 또한 정부는 1960년 이후 900여 기념물과 유적을 국가 보호 문화 유산으로 지정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조상들이 이룩한 문화적 성과를 공공에게 전달하는 활동을 활발히 추진하였다.

아무튼 문화 발전에서 이룬 이러한 성과들로 몽골인들의 문화 교육 수준은 세계의 평균에 이르렀다.

이 시기에 들어서 몽골의 각 도시와 지방에 병원 지부가 늘어나 각 솜마다 의사를, 협동 조합 내 각 브리가드(Brigad, 생산 단위)마다 보조 의사를 두었다. 이런 추세에 맞추어 1978년에는 보건 의료 관련법이 제정되었다. 이와 더불어 정밀한 전문 기술을 요하는 안과 계통의 극미소 수술실, 중환자실, 병리학 실험실, 각종 검사소가 생겨났다. 1962년 몽골인민공화국은 세계보건 기구에 가입하였다. 1989년 기준 몽골에는 병원 489개에 의사 6,200명과 보조 의사 및 전문 인력 20,000여 명이 이 분야에 종사하였다.

1960년 당과 정부는 체육과 스포츠를 발전시키고, 스포츠 클럽 및 협회의 물질적 기반을 튼튼히 하고, 보통 교육 학교의 교과 과정에 체육을 포함시키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1962년 몽골 체육 스포츠 연맹(Mongolyn biein tamir sportyn evlel)이 국제 올림픽위원회에 가입하여 도쿄에서 열린 제18회 하계 올림픽과 제9회 인스부르크 동계 올림픽에 참가하였다. 몽골은 1968년 멕시코 올림픽에서 처음으로 메달을 땀다. 이때 몽흐바트(J. Mönkhbat)가 은메달, 담딘샤라브(Ch. Damdinsharav), 세레테르(D. Sereter), 아르탁(T. Artag) 등이 동메달을 땀다.

## 제11 장

# 현재의 몽골



울란바토르 전경

널리 알려진 것처럼 1990년을 전후로 사회주의 체제는 정치, 이념, 경제, 사회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전면적 위기에 봉착하여 단기간에 붕괴되었다.

이 시기에 몽골에서도 민주화 운동과 개혁 운동이 광범위하게 전개되어 사회 생활의 모든 범위에 걸쳐 옛 것을 바꾸는 운동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사회주의에서 민주화와 시장 경제 체제로의 전환이 혁명에 의한 폭력이 아니라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은 몽골인들의 소중한 경험과 교훈으로 남아 있다.

여기에서는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이유, 정치 개혁 분야에서 헌법 개정에 관한 문제, 1992년 헌법의 역할, 1990년의 선거 결과, 의회 제도의 형성, 공유 재산의 사유화, 가격의 자유화, 은행 제도, 여러 가지 형태의 자본의 형성, 자유로운 사고, 대외 정책의 다극화(多極化) 등 새로운 역사의 주요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1988년 12월 28일	몽골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
1989년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에 몽골민주연맹 조직
1990년 3월 7일	민주화 운동 세력 단식 선언
1990년 5월 10일	몽골인민공화국 헌법 개정
1990년 7월 29일	최초의 자유 선거 실시
1990년 9월 3일	국가의 최고 권력 기구를 조직하고 해당 인원 선출
1992년 1월 13일	몽골국 헌법 승인
1992년, 1996년, 2000년, 2004년	국가대회의 의원 선거
2006년	몽골 제국 성립 800주년 기념



---

# 01

---

## 민주화 운동

현대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서 낙오되거나 그 변화를 거역하는 것은 모두 몽골의 국가 이해에 반한다. 그래서 몽골인들은 세계 문화의 보편적인 발전의 길을 따르기 위하여 국가와 사회·경제 부문의 새로운 조직을 갖추어 21세기를 맞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오치르바트(P. Ochirbat), 『천시(天時)』, 377쪽)

---

### ○ 민주화 운동의 전제 조건

전 세계적으로 볼 때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에 걸쳐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체제 경쟁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이것은 소련을 위시한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에서 발생한 심각한 정치, 경제, 사회적 위기에 기인한다. 사회주의 체제 위기는 그 중심에 있던 소련의 사회 생활 전 분야에 걸친 내부 모순과 사회주의 그 자체의 본질에서 비롯되었다.

먼저 정치적인 측면에서 소련은 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하여 자신의 정책을 따르도록 강요하여 양측 사이에 분열과 갈등을 야기시켰다. 즉, 1956년 헝가리,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 1970년 폴란드에서 사회 개혁 운동이

일어났지만, 소련이 개입하여 폭력적으로 진압하였기 때문에 공산주의 지배에 반대하는 심리적 여건이 조성되었다.

한편 사회주의의 위기를 극복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소련에서는 1980년대 중반부터 개혁 운동, 즉 ‘페레스트로이카’가 일어났다. 이 운동의 창안자는 당시 소련의 지도자였던 고르바초프였다. 원래 소련은 개혁을 사회주의 범위 내에서 서서히 시행하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었는데, 이것이 유럽 사회주의 국가에서 사회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개혁 운동으로 발전하여 사회주의가 무너지게 되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건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1990년 화해 불가능한 두 체제를 대표하던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어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 1989년 폴란드, 헝가리, 불가리아, 체코슬로바키아에서 공산당이 집권 능력을 상실하고 패배하였다.
- 1989년 12월 말부터 루마니아의 상황이 악화되어 인민과 정부 사이에 무력 충돌이 벌어져 국가 지도자인 니콜라이 차우세스쿠와 그의 부인이 처형당하는 등 유혈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회주의 체제 위기와 소련에서 일어난 개혁 운동은 1990년 몽골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의 외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사회주의 발전 기간 동안 몽골 사회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와 변화가 있었음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변화가 사회의 진보와 발전, 인민의 생활과 지적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성과를 가져왔다는 데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몽골 사회나 경제 주요 지표가 세계에서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특정 국가의 실질적인 중속국 상태

였다.

무엇보다 당시 몽골인민공화국 산업 발전에 소련의 원조가 주요 역할을 하였다. 이 시기에 소련으로부터 받아 사용한 차관이 1990년 1월 1일 기준 100억 루블에 달하였다. 그중에서 1975년부터 받은 차관이 전체 차관의 80% 이상을 차지하였는데, 그 가운데에서 1/3은 무역 거래에 사용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 몽골 전체 무역 거래의 84%가 소련과 이루어졌다. 소련은 자동차와 기계를 세계 시장 가격보다 30~40% 정도 높은 가격으로 몽골에 공급한 반면에 몽골에서 구입하는 원자재의 가격은 인상되지 않았다. 또한 국영 공장들의 기술이 낙후되어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주의 국가 사이의 우호·협력이 붕괴되자 몽골인민공화국과의 경제적 관계가 악화되고 원조도 중단되었다. 따라서 몽골은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민족의 이익과 지위를 지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난관을 독자적으로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하였다. 몽골인민공화국이 견지해 온 사회주의 이념의 실패와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발전의 정체는 개혁의 내적 조건이었다. 그리고 소련과 유럽 사회주의 국가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태는 몽골 인민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쳐 몽골인들의 시민 의식을 일깨웠다.

## ○ 민주화 운동의 시작

1980년대 중반부터 몽골에 페레스트로이카 사상이 강력하게 전파되자 당시 권력자들은 이에 대하여 심사숙고하고 여러 가지 관련 문제에 대하여 진지하게 논의하였다. 그리하여 1988년 12월 개최된 몽골인민혁명당 중앙

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그동안 몽골이 걸어온 길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반성하고, 사회 생활의 모든 부문을 포괄하는 개혁을 시행하기 위하여 몇 가지 조치를 취하였다. 특히 이 전원회의에서 사회를 민주화하고, 정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인재 양성 정책에 변화를 가져오고, 나아가 몽골인민혁명당의 강령과 몽골인민공화국 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고, 숙청당한 사람들을 복권시키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구체적인 문제가 상정되었다. 하지만 사회 생활 전반을 포괄하는 문제 해결 방법을 찾지는 못하였다. 이는 결국 인민의 마음에 다가서고, 그들의 염원을 수용한 결정이 아니었다.

그 후 1989년부터 광장과 거리에는 종종 당시 국가 정책에 반하는 생각을 담은 전단지(플라카트)가 붙여졌는데, 그 내용은 몽골인들이 정치 및 사상적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보다 나은 삶과 정의를 위하여 싸움에 나서자는 선동이었다. 이와 함께 이 시기에는 젊은이 사이에 ‘신(新)시대(Shine üe)’, ‘세계(Orchlon)’, ‘세상(Ertönts)’ 등의 조직이 결성되어 활동하였다. 이러한 조직은 훗날 새로운 정당의 기초가 되었다.

이 시기 한 운동 단체가 거리와 광장에 붙인 「청년들에게 알리는 글」이라는 제하의 한 벽보에서 그들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펴고 있다.

● 변화와 개혁의 운명은 민주화, 정보 공개, 인민의 사상과 자유로운 사고와 특별한 관련이 있다.

1. 몽골인민공화국 인민대회(인민대회)의 의장을 모든 인민이 직접 비밀 투표로 선출하는 체제로 이행해야 한다.
2. 사상의 다원성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민주화와 정보 공개를 보장하는 법을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하여 모든 인민에게 논의하게 하고 승인한다.

3.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에서 제정한 '세계인권선언'을 국민에게 홍보하고, 이를 전면적으로 시행할 것을 우리 청년들은 당과 정부 지도자에게 요구한다.

(‘신시대’ 운동 단체가 1989년 1월 2~3일 새벽에 수도의 거리와 광장에 붙인 벽보에서)

정치 투쟁의 다음 단계는 1989년 12월 초 몽골혁명청년연맹 중앙위원회에서 조직한 제2차 청년작가회의에서 이루어졌는데, 그들은 사회 생활을 전면적으로 변화시키고, 이를 위하여 인민을 조직에 참가시키고, 하나로 묶어 내기로 회의에 참가한 일부 청년들이 뜻을 모았다. 그러나 이 시기에 몽골인민혁명당 지도부는 변화와 개혁을 시행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였지만 급격한 개혁을 수용할 수는 없었다. 또한 정치·경제적으로 소련의 전면적인 종속 상태에서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몽골인민혁명당은 소련의 상황을 지켜보고 기다리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 ○ 몽골민주연맹의 창설과 그 활동

1989년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에 청년문화궁전(Zaluuchuudyn soyolyntöv) 정문 앞에서 소수의 젊은이들이 참가한 조용한 집회가 열렸다. 이 집회에서 몽골 사회를 민주화하고, 옛 체제를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는 몽골민주연맹(Mongolyn ardchilsan kholboo) 결성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몽골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와 몽골인민공화국 인민대회회에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이는 당시 민주화 세력이 당정 지도부에게 보낸 최초의 공식 요구였다. 청원서의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A) 몽골인민공화국 헌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다당제 기초 위에서 정치 생활을 조정하는 원칙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인민대회회에서 정당법을 제정한다.
- 세계인권선언에서 명시한 인간과 시민의 신성한 권리를 정부 및 당의 활동에서 존중한다.
- 몽골인민공화국 인민대회의를 상시 열리는 의회 제도로 전환한다.

(B) 변화와 개혁을 실천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신속하게 취한다.

- 몽골인민혁명당 선거 제도를 개혁하여 인민대회회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를 1990년 상반기 안에 실시한다.
- 출판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한다.
- 특별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는 당과 정부가 장악하고 있던 출판물에 게재되지 못하고, 권력자들이 받아들여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적인 압력과 요구가 점점 강하게 진행되었다. 또한 당시 인민들은 이 기구의 장래 목표, 방향, 향후 시행하려는 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부족하였다.



---

# 02

---

## 정치개혁과 민주적 정치제도의 형성

헌법은 정치 제도, 인권, 자유,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몽골 정부의 이념과 노선의 기초가 되는 문건이다. 1992년 1월 13일은 몽골국의 역사에 길이 남을 뜻 깊은 날이다.

오치르바트(P. Ochirbat)

---

### ○ 다당제의 성립

1990년이 되면서 민주사회주의운동(Ardchilsan sotsialist khödölgöön), 신진보연맹(Sine devshilt kholboo) 등 각종 연맹체가 잇달아 결성되었고, 그들이 주도하는 집회와 시위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였다. 그들은 계속하여 몽골인민혁명당의 지배를 종식시키고 다당제를 정착시키고 인권을 존중하는 문제에 대하여 요구하였다.

1990년 2월 18일 개최된 제1차 몽골민주연맹 대회회는 몽골민주당(Mongolyn ardchilsan nam) 창당을 선언하였다. 이는 몽골 역사상 두 번째 정당이다. 몽골민주연맹 대회회는 이와 함께 몽골인민공화국 인민대회회의와

몽골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에 청원서를 보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집권당 중앙위원회에서 직접 임명한 내각회의는 총사퇴시키고 인민대회의를 해산한다.
- 혁신적 개혁을 가로막는 현 집권당 중앙위원회의 무소불위 권력을 박탈한다.
- 잘못이 있는 자들의 사건을 전체 인민의 특별회의에서 조사하여 처벌한다.
- 몽골의 유용 자원을 강탈하는 정책과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광산을 폐쇄하고 지하 자원 활용에 관한 문제를 전체 인민 대중이 함께 토론하도록 하여 결정하는 규정을 마련한다.

1990년 3월 4일 새로 결성된 조직이 다섯 번째 집회를 갖고 몽골민주연맹, 민주사회주의운동, 신진보연맹, 몽골대학생연맹이 합동으로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 성명은 1990년 3월 몽골인민혁명당 비상 당대회를 소집하고, 몽골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의 구성원을 교체하고, 당 활동을 인민 정부로부터 분리하고, 3월 중에 모든 정치 세력이 평등하게 참가하는 인민비상회의(Ardyn tür khural)를 소집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정해진 기간 내에 회답을 받지 못하였다.

그 때문에 투쟁은 다른 형태로 전환되고, 3월 7일 14시 몽골민주연맹의 조정회의 위원 10명이 정치적 단식을 선언하였다. 당연히 나라의 상황이 더욱 복잡하고 긴박해졌다. 그날밤 민주 세력들은 또다시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들은 “우리는 몽골 역사상 가장 중차대한 책임을 가져야 할 이때에 몽골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동지들은 현명한 정치적 결단을 내릴 능력이 없음을 분명히 보여 주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몽골인민혁명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원들의 퇴진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다”고 하면서 재차 당과 정부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하였다.

이틀 후인 1990년 3월 9일 19시 집권당과 고위 정치 지도자, 새로운 세력의 지도자들이 참가하는 ‘원탁회의’가 열렸고, 그 회의에서 다음의 문제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 몽골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원 퇴진 문제를 얼마 후 개최될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상정하여 결정한다.
- 다음번 인민대회에서 정당법을 토론한다.
- 몽골인민혁명당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포기하는 데 대한 문제를 인민대회에 상정한다.

이와 같이 양측이 서로 한 발씩 양보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 3월 9일 밤 단식을 끝냈다. 이는 몽골의 정치 세력이 어떠한 어려운 시기에도, 어떠한 복잡한 문제라도 합의를 통해 해결하고 변화와 개혁을 할 수 있음을 보여 줌으로써 엄중한 상황이 평온을 찾았다. 또한 이는 몽골국의 장래 이익과 발전을 위하여 내린 역사적 결단이었다. 아무튼 당시 몽골의 여러 정치 세력은 몽골인



민주화를 외치던 단식 농성

들이 화합을 이룬 시기에 강력하였던 과거 역사의 교훈을 새로운 상황에도 다시 보여 주는 데 성공하였다.

### 합의를 실행하기 위한 여러 조치

1990년 3월 12일에 개최된 당중앙위원회 의 제8차 전원회의에서 정치국 위원, 부위원, 서기 모두를 해임하였다. 동 회의는 이어 몽골인민혁명당에 특별한 권리를 부여한 몽골인민공화국 헌법 조항을 폐지하는 안건을 인민대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하였다. 또한 1990년 3월 21일에 개최된 제11기 인민대회의 제8차 회의에서 “몽골인민공화국의 정치와 사회를 영도하는 주체는 몽골인민혁명당이다”라는 헌법 규정을 폐지하였다. 이렇게 하여 일당 지배는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되었고 다당제가 탄생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 그 후 1990년 5월 10일 개최된 제11기 인민대회의 제9차 회의에서 ‘몽골인민공화국 정당에 관한 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의거하여 정당들이 공식적으로 등록하고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이 법에 따라 당원이 801명 이상이면 당을 국가에 등록할 수 있고, 당은 재정적 자립 원칙을 갖고 활동하는 등 제반 문제를 반영하고, 당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활동하게 된 것은 몽골 역사상 새로운 현상이었다. 이는 일당의 권한을 제약하고,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고, 자신의 사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어떤 문제를 여러 방면에서 심도 있게 토론하고, 민주화를 강화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결정이 되었으며, 실제 정치 생활에서 실현되었다.

그리하여 정치 세력의 수와 범위가 증가하고 활동 강도가 더해지고, 각 정파는 민주 원칙에 의한 자유 선거에 대비하기 시작하였다. 즉, 그들은 민주 원칙에 따라 전 국민이 자유 투표에 참가하여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는 일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그들은 국가가 처한 현실과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자신의 정책과 목표를 선전하고, 당시 당과 국가 기관 및 대중을 향하여 각종 성명과 선전을 하고, 청원서와 요청서를 보내는 등 여러 가지 형태로 활동을 전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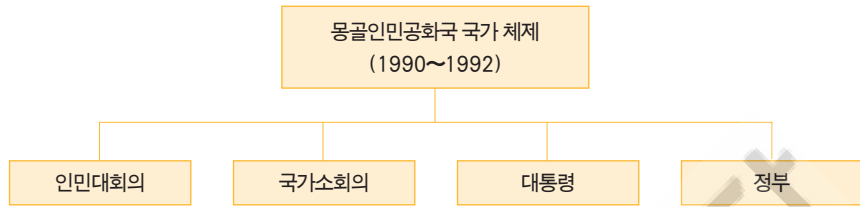
## ○ 민주적 국가 체제의 법적 근거 마련

민주화 개혁의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새로운 정치 체제를 만드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1990년 5월 10일 개최된 제11기 인민대회의 제9차 대회에서 비준한 ‘몽골인민공화국 헌법의 추가 사항에 대하여’라는 법에서 새로운 정치 체제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였다. 이 법은 몽골인민공화국 인민대회의 선거를 통하여 신헌법이 제정될 때까지 준수해야 할 임시 헌법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 법에 의거하여 국가 최고 권력 기구의 구조와 전권을 새로이 검토하여 균형 잡힌 새로운 국가 체제를 명시하였다.

인민대회의 몽골 인민의 국가 권력을 갖고 있는 대표자들의 최고 기관이며, 전체 인민의 민주적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된다. 몽골인민공화국 인민대회의는 자신들이 전권을 갖고 결정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내외 정책에 관한 어떠한 문제라도 토의하여 결정한다.

국가소회의 법을 제정하고, 감사와 조직에 관한 전권을 가진 국가 권력 기관이다. 국가소회의의 의장은 몽골인민공화국 부통령이다.

대통령 국가의 수반이며, 몽골인민공화국의 독립, 몽골 인민의 연대 보증인이다. 몽골인민공화국 인민대회의 모든 대표자로부터 다수표를 획득한



몽골인민공화국의 국가 체제

출마자가 몽골인민공화국 대통령으로 선출된다.

정부 국가 정책을 집행하는 권력 기관이다. 몽골인민공화국 정부는 총리, 수석 부총리, 부총리, 장관, 국가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구성된다.

## ○ 1990년 자유 선거와 그 결과

제11기 인민대회의 제8차 대회에서 '몽골인민공화국 인민대회의 대표자 선거법'을 개정하여 통과시킴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따른 자유 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1990년 선거법에는 국가에 등록된 정당에서 출마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정당들이 선거를 감시하고, 대중의 의견으로 인민대회의 대의원을 탄핵할 수 있고, 대의원 출마자에 대한 검증 조항이 들어갔다.

이렇게 하여 1990년 7월 29일 몽골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적 절차에 의한 자유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 선거는 다당제가 현실화되고, 몽골인민공화국 대법원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정당(몽골인민혁명당, 몽골민족진보당, 몽골자유노동당, 몽골민주당, 몽골사회민주당, 몽골통일당)이 선거에 독자적으로 참가하고, 모든 단계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1990년 9월

3일 소집된 제12기 인민대회의 제1차 대회에서 선거 결과를 승인하고 국가 조직을 새롭게 구성하였다.

모든 단계의 인민회의 선거에서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투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각 정당의 득표율을 보면 각각 몽골인민혁명당이 61.7%, 몽골 민족진보당이 5.9%, 몽골자유노동당이 1.2%, 몽골민주당이 24.3%, 몽골 사회민주당이 5.5%, 몽골통일당이 1.2%를 얻었다. 또한 몽골인민혁명당의 오치르바트가 몽골인민공화국 대통령, 몽골사회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곤칙 도르지(R. Gonchigdorz)가 국가소회의 의장, 몽골인민혁명당의 밤바수렌(D. Byambasüren)이 총리로 선출되었다. 전체적으로 몽골인민혁명당은 61.7%, 민주 세력이 38.3%를 득표하여 몽골인민혁명당이 단독으로 정부를 구성할 수 있었지만, 밤바수렌 총리는 새로운 정치 세력에게 협력을 제안하였다. 이는 국제 정치 무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 아니지만, 당시 몽골이 처한 암울한 상황과 의회 제도 형성과 관련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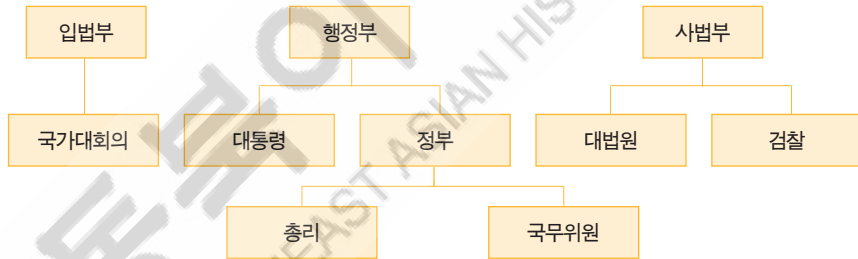
이와 같이 협력을 통하여 국가소회의와 정부를 구성한 경험은 합의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델이 되었다. 이렇게 하여 여러 당이 참여하는 다당제에 입각한 의회 제도가 몽골에 구체적으로 정착하기 시작하였다. 새로운 형태의 국가 조직이 구성된 것은 1990년 민주화 운동의 결과이며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 몽골에 정착되었던 권위주의 지배가 붕괴되고, 민주적 국가 체제가 형성될 수 있는 정치 및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 몽골에 자리 잡고 있던 일당의 이념을 버리고, 향후 다원적 이념을 형성하는 조건을 마련하고 대중의 창조적인 사고를 열어 주었다.
- 몽골에서 일당 지배 체제를 종식시키고 다당제 정착의 시발점이 되었다.

- 몽골이 사회주의 중앙집권적 계획 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고 자유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 민주화, 인권, 자유를 확실하게 보장하고 인간을 사회 생활의 진정한 중심에 두는 법적 환경을 마련하였다.

## ○ 1992년 헌법과 의회 제도의 형성

현재 몽골의 국가 조직 구조는 1992년 몽골국 헌법에 따라 정해졌다. 대체적인 상황은 아래와 같다.



몽골 국가 체제

국가대회의는 국가 권력의 최고 기관이며 당연히 입법의 권한을 갖고 있다. 이는 몽골이 의회제 공화국임을 보여 준다. 의회, 즉 국가대회의는 단원(單院)으로 구성되며 상시적으로 활동한다. 이 형태를 선택한 것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의 공통 추세이기도 하고, 몽골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결과이기도 하다.

몽골국 대통령은 국가 수반이며 몽골 인민의 화합의 보증인이다. 그리고 몽골 정부는 국가 최고 집행 기관이다. 정부는 총리와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총리는 정부의 구조와 구성원 및 그에 대한 개정안 등을 대통령과 협의하여 국가대회회의에 상정한다. 사법권을 진정한 의미에서 민주적 원칙에 따라 정하고, 어떠한 영향에도 간섭받지 않으며, 어디에도 종속되지 않고, 오직 법에만 지배받는 것을 근간으로 삼았다. 또한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고, 그것들의 침해와 싸우고, 침해당한 인권을 복권하는 의무를 국가에 부과하고, “범죄 사실이 법에 의해 입증되기 전까지 어떤 사람도 죄인 취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것은 법의 왜곡과 남용을 막는 안전 장치가 되었다.

각 지방은 지방과 국가의 연합 지도 체계를 갖추게 하고 권한을 확장시켜 주었다. 아이막, 수도, 섬의 자치 기관은 해당 지방의 시민대표자회의와 그 지도부로 구성된다. 시민대표자회의는 해당 지방 내의 문제를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박, 호로의 지방 자치 형태는 전체주민회의이며, 주민들이 당면 문제를 직접 결정하도록 하였다. 기관장 선출은 당해 단계의 회의에서 추천하고 위에서 승인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는 정부를 대표하여 관할 구역의 행정을 집행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전체주민회의와 주민대표자회의, 기관장의 권한은 ‘몽골국 지방 행정 단위와 그 지도부에 관한 법’에 명시되어 있다. 시민 민주주의적 사회 지도의 독특한 형태는 시민이 직접 자발적으로 설립한 비정부 기관이다.

1990년 이래 4차례의 의원 선거와 세 차례의 대통령 선거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다. 1990년, 1992년, 2000년에 실시된 의원



몽골 문장



지방권력기구

국가대회의 의원 선거(1990년 이후)

일시	몽골인민 혁명당	기타 정당, 무소속	총리
1990. 7.29	62%	몽골민주당, 몽골민족진보당, 몽골사회민주당, 몽골 통일당, 몽골자유노동당이 합쳐 38%의 득표를 하였다. 국가소회의 의석 수는 몽골인민혁명당 31석, 몽골민주당 13석, 몽골민족진보당과 몽골사회민주당 각각 3석을 얻었다.	밤비수렌
1992. 6.28	71%	몽골민주당 · 몽골사회민주당 · 몽골통일당 연합 4석, 몽골사회민주당 1석.	자스라이
1996. 6.30	25%	몽골민족민주당 · 몽골사회민주당 연합 50석, 몽골 전통통일당 1석	앵흐사이 한, 엘벡도르지, 나란차츠랄트, 아마르자르갈
2000. 6.30	72%	몽골민족민주당 1석, 시민용기당 1석, 몽골민주사회당 1석, 무소속 1석	앵흐바이르
2004. 6.27	38%	민주당 · 몽골민주사회당의 '조국 · 민주연합' 34석, 공화당 1석, 무소속 3석	엘벡도르지 앵흐볼드

선거에서 몽골인민혁명당이 다수의 표를 획득하여 집권당이 되었다. 그러나 1996년 선거에서 민주 연합이 국가대회의 다수당이 되어 정부를 구성하고, 2004년 선거 결과에 따라 양측이 연립 정부를 구성하였다.





---

# 03

---

## 시장경제로의 전환

몽골은 세계 경제 발전의 일반적인 경향과 자신의 고유한 특징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경제 체제를 갖추고 있다. 국가는 공공 및 사유 재산 등 모든 형태의 재산을 인정하고 소유자의 권리를 법으로 보호한다.

(몽골국 헌법 제5조)

---

### ○ 경제 분야의 변화와 사유화

민주적 변화와 개혁의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국유 재산만 존재하던 상황을 사적 소유 형태로 바꾸어 다양한 형태의 재산에 기초한 경제를 형성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중 하나였다. 국유 재산의 사유화는 가격의 자유화, 은행 및 금융 제도 혁신, 개방적이고 상호 이익을 주는 자유로운 대외 무역 발전 등 서로 긴밀한 관계에 있는 몇 가지 변화가 요구되었다.

가장 먼저 경제 발전 원칙을 정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데, 몽골은 사회성을 지향하고 국가가 조정하는 형태의 시장 경제 체도를 선택하였다. 시장 경제로의 이행 과정에서 국유 재산을 해체, 즉 사유화하는 방식으로 국

민에게 재산을 갖게 하는 일이 중요하였다. 이 방면에서 경험이 부족하고 사회적 심리도 아직 준비가 덜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려움이 공존하는 가운데 국가는 재산의 사유화를 위한 순차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국가소회의는 1990년 12월 민법의 재산권 부분을 인정하여 사유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어 정부는 1991년 제30호 정부 결정에 따라 사유화 규정을 확정하였다. 이렇게 하여 국유 재산을 해체하고 사적 소유를 형성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이어 국가소회의는 1991년부터 사유화법, 회사법, 은행법, 조세법, 관세법, 회사 폐업에 관한 법을 통과시켜 시장경제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마련하였다. 또한 정부 및 각 아이막, 수도의 사유화 위원회가 그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국가 경제 발전의 특성과 당시 시대적 상황에 맞춰 국유 재산을 기본적으로 투자 권리 증서 형식으로 사유화하였다. 1991~1996년, 즉 사유화의 초기 단계에는 투자 권리 증서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는 10,000투그릭의 액면 가치를 갖고 있고, 분홍색 바우처와 청색 바우처 등 두 종류가 있었다. 1991년 5월 31일 사유화에 관한 법이 비준되고, 그때까지 태어난 몽골국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투자 권리 증서를 부여하였다. 이렇게 하여 총 220억 투그릭을 보장하는 투자 증서가 발부되었다.

사유화의 첫 단계에는 시골에서는 가축을, 도시에서는 규모가 작은 제조업과 서비스 업체를 사유화 범주에 포함시켰다. 아무튼 1990년에 유목민에게 가축을 나눠 주면서부터 가축 수가 늘어나고 혈통과 품종도 좋아졌다.

소규모 사유화 시기에 액면 가격 3,000투그릭의 분홍색 바우처로 규모가 작은 제조업 및 서비스 업체를 사유화하였다. 그 결과 50억 투그릭 상당의 1,593개의 가게, 식당, 각종 서비스 업체가 사유화되어 3,300개 이상의 개인 자본 사업체가 새로 설립되었다. 가축은 분홍색 바우처로 유목민들에게

무상으로 사유화되었다. 그 결과 전체 가족의 90% 이상이 개인에게 양도되었다.

대규모 사유화는 액면 가격 7,000투그릭의 청색 바우처로 공장 및 사업체의 주식을 구입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대규모 사유화 과정에서 1992년 설립된 몽골 증권거래소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최초로 주식 시장이 열리고, 241개 국영 공장 전체와 234개 국영 공장 일부를 주식 형태로 사유화하였다. 또한 대규모 사유화를 통해서 협동 조합 재산을 포함하여 총 자본 규모가 140억 투그릭에 달하는 1,200개 정도의 큰 공장과 사업체들이 사유화되었다. 1996년 가을에 주택 사유화에 관한 법이 통과되어 국가 소유 주택이 무상으로 거주자에게 사유화하였다. 그 결과 주택의 80% 이상이 실제 거주자에게 돌아갔다.

사유화의 다음 단계는 1997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주로 국유 재산의 경매와 가치가 크고 규모가 큰 사업체를 사유화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850여개의 공장과 국유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체를 경매를 통하여 사유화할 것을 명시하였다. 그 결과 'APU', 'Gobi', 'NIK' 와 상업발전은행(Khuldaldaq khögiliin bank)과 농축산은행(Khödöö aj akhuyn bank)이 사유화되었다. 그러나 '에르테네트', '철금속(ferrous metal) 공장', 철도, 대규모 발전소, 석탄 광산 등은 사유화할 수 없는 국유 재산 목록에 포함시켰다.

1989년 기준 국가 총수입의 90%를 국영 공장이 담당하였다면, 2005년 기준 국내총생산의 80%를 개인 사업체가 담당하였다. 이러한 통계 수치는 국유 재산 사유화의 결과를 잘 보여 주고 있다. 또한 2002년 6월 28일에는 '몽골국 국민의 토지 소유에 관한 법'이 통과되었으며, 이 법으로 가족 용도로 아래와 같은 규모의 땅 소유를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 토지의 사유화 기준

소유 지역	규모(단위: 헥타르)
수도	0.07
아이막 소재지	0.35
숨 소재지와 마을	0.50

사유화 과정은 결코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치기도 하고 부작용을 낳기도 하였다. 재산의 사유화에 앞서 국유 재산에 관한 법이 제정되지 않았으며, 국가는 사유화 권한을 완전히 행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유화 과정에서 감독 및 조정 능력이 부족하여 재산을 낭비하고, 직책을 남용하여 국유 재산을 싼 가격에 사거나 가로 채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국유 재산을 임대 계약으로 소유한 사람들이 우선권을 이용하여 재산을 대부분 양도받았지만,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재산을 낭비하는 등 부작용이 뒤따랐다. 울란바토르에서만도 사업체 10개 중 7개는 임차인의 우선권에 따라 사유화되었다. 또한 국유 재산 사유화 과정에서 화폐 가치의 하락을 계산하지 못하며 권리 증서(바우처)가 종잇조각이 되고, 주식회사들의 생산이 감소하여 주주들의 배당금이 적어지거나 아예 없어지기도 하였다. 이는 전환기에 실업과 빈곤과 사회 불평등 상황을 만들어 내는 데 영향을 미쳤다.

## ○ 가격 자유화

중앙집권적 계획 경제 시대에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국가에서 엄

격하게 정한 가격에 맞춰 조정하였다. 그래서 가격을 자유화하여 수요와 공급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돌려놓는 것은 시장 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중요한 조건이었다. 가격 자유화는 또한 국가에서 당시 실정에 맞추어 몇 단계에 걸쳐 시행하였다.

1991년 1월 밤바수렌 정부의 제20호 결정에 의하여 가격 자유화에 관한 최초의 결정적인 조치가 취해졌다. 그 결정은 유통되고 있는 화폐의 가치를 1/2로 평가절하하고, 이와 관련하여 임금을 2배로 인상하고, 소매가를 자유화한 최초의 중요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하여 50여 품목의 일상 용품 가격의 상한선을 정하고, 70여 품목의 상품과 제조품 및 서비스의 도소매가를 정하였다. 이러한 가격 변동으로 각급 경제 단위와 사업체의 자립성이 보장되고, 가격은 시장의 원칙에 따른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하여 자유롭게 변화하였다.

또한 이 조치는 화폐, 가격, 임금, 금리 제도를 새롭게 바꾸려는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 자유 가격 제도로 이행하기 시작하고, 무역 분야에서 세계 시장 가격을 사용하게 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투그릭의 구매력을 안정적으로 만들고, 교환 능력을 갖게 하는 조치를 동시에 취하지 않았다. 또한 제20호 결정의 비밀이 누설되고 그 후 가게와 창고에 있던 상품들이 소

4 일정한 품목의 식품을 한 사람이 한 달 사용할 최저 규모를 정하여 1993년까지 국가에서 엄격하게 정한 가격으로 분배하였던 정책

수의 손에 들어감으로써 물자 부족으로 이어져 카드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빵, 고기, 밀가루, 설탕, 식용유, 버터, 쌀, 술 등 8가지 품목의 물건을 카드를 통하여 공급받았다. 당연히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하고, 투그릭의 구매력은 그만큼 떨어졌다.

자스라이(P. Jasrai) 정부는 가격 자유화의 다음 조치를 취하여 1993년 5월 외국인 시세를 자유화하는 결정을 내렸다. 또한 1993년 가을부터 카드제

를 폐지하고 소매 분야에서 자유 가격제를 실시하였다. 기본 가격을 자유화하는 과정에서 투그릭의 대(對)외국환 환율을 자유화하여 교환 능력을 갖게 만들었다. 이와 함께 투그릭 시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엄격한 금융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조치를 취한 후에 전기, 난방, 석유 제품 가격만 국가 통제하에 남아 있었다. 1996년 가을 엔흐사이한(M. Enkhsaikhan) 정부는 이들 품목과 서비스 가격의 마지막 자유화 조치를 이행함으로써 몽골 경제는 완전히 자유 가격제로 이행하였다. 정부는 가격을 자유화하고, 이와 관련하여 인민의 생활 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잇단 조치를 취하였지만, 사회 보장 문제가 방기됨으로써 실질적인 삶의 질이 떨어졌다.

## ○ 은행 개혁

시장 제 체제하에서는 당면한 경제 문제를 이전처럼 하나의 국영은행 체제로는 해결하기가 곤란해졌다. 그리하여 국가사회회의는 1991년 4월 몽골인민공화국 은행에 관한 법을 통과시켜 은행을 정부 관할에서 독립시키고 중앙은행과 상업은행 등 두 단계로 나누기로 법제화하고, 그들의 권한과 의무를 확정하였다. 또한 상업은행은 국가 및 개인 재산에 기초하여 세울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그 결과 1990년에 들어와 국영은행으로부터 인민은행(Ard bank), 투자은행(Khöröngöö oruult bank), 기술혁신은행(Tekhnologishinechilel bank), 상업발전은행(Khudaldaq khögiliin bank) 등 상업은행이 독립하였는데 그 수가 1992년에는 11개, 1996년에는 16개에 이르렀다. 그러나 은행들의 활동에 적잖은 결함과 부족한 점이 나타났다. 이를 테면 은행들

은 제조업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시민들에게 많은 금액을 대출해 주고, 현금 유동성을 감시하지 않고, 물가 상승을 유발하여 1992년에는 인플레이가 최고 325%에 이르렀다. 이와 함께 대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로비에 의한 대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일부 은행이 파산하였고, 공장과 사업체의 상당수가 재정적 어려움으로 영업을 중단하여 노동자들이 실직하여 빈곤이 확산되었다.

한편 몽골국의 재정 구조에서 국가 예산이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 세입과 세출 부문에서도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조세 구조에 일어난 변화와 관련이 있다. 1992년 일련의 조세법을 제정한 것은 조세 개혁의 시발점이었다. 여기에 국세 기본법, 매출 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일련의 조세법이 시행되어 세금의 사회적 기반이 확장되고, 개인과 경제 단위는 '법으로 정한 국세를 납부하는' 기본 의무를 이행할 조건이 마련되었다.

## ○ 대외 개방 경제 정책

몽골 정부는 개혁 기간 동안 첨단 기술을 도입하고, 경제 인프라를 확충하고, 일부 주요 제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대외 개방 경제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 하나인 1990년과 1993년에 제정된 외국인투자법은 당해국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이다.

특히 1990년부터 소련의 차관 및 원조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원조 국가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차관과 원조를 널리 활용하게 되었다. 즉, 1991년부터 1997년에 걸쳐 외국에서 4억 7800만 달

러의 차관을 들여오고, 100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였다. 또한 1990년부터 1997년에는 세계 60여 개국에서 약 1,200개의 합작 또는 단독 회사가 몽골에서 영업을 하였다. 개방 초기에는 중국과 러시아 투자자들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시간이 가면서 미국, 일본, 독일, 한국, 캐나다 등 첨단 기술을 갖춘 나라들이 투자하게 되었다.

또한 몇 차례에 걸친 원조국들의 협의에 따라 몽골에서 이루어진 대규모 투자는 당해국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 결론적으로 최근 10여 년 동안 시행된 경제 개혁 결과 몽골 경제는 시장경제의 일반적 추세에 발맞춰 발전할 가능성이 형성되었다.



---

# 04

---

## 정신과 사회 부문의 변화

관습, 역사, 문화 전통을 소중히 보전하고  
인류 문화의 성과를 존중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몽골국 헌법 전문 중에서)

---

### ○ 역사와 문화에 대한 존중과 자긍심

이 시기에는 자유로운 사상과 다원적 견해를 인정함에 따라 지적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재능을 장려하고 문화 부문의 대외 교류를 확대하는 등 정신적인 영역에서도 개혁이 이루어졌다. 우선 몽골 역사를 사실에 입각하여 복원하고 이전 시기의 잘못을 시정하고 구체제의 사상적 속박을 해체하기 위하여 많은 일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역사·문화의 소중한 유산과 전통과 민족의 이익을 존중하고, 자긍심을 갖는 생각과 자각이 일어났다.

일례로 이 시기에 들어와 몽골족을 통합하여 대몽골국, 즉 몽골 제국을 세워 전 세계에 평화를 가져오고, 동·서양의 무역과 교류를 복원한 칭기스 칸

의 역사적 업적이 올바르게 평가받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그 결과 몽골인들은 칭기스 칸이 단지 몽골족의 영웅일 뿐만 아니라 천년의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에 대하여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또한 계급주의, 당파주의 등 이념에 따라 제대로 업적을 평가받지 못하였던 많은 애국 지사와 역사적 인물의 전기와 활동이 복원되었다. 그런가 하면 몽골인민혁명당 이념에 맞지 않고 자본주의적이며 구시대의 또는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이유로 비판받아 온 수많은 작품이 출간되었다. 특히 몽골국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몽골의 저명한 역사학자들이 공동으로 저술한 『몽골 역사』(전 5권)의 출간은 이 시기 역사 연구와 교육 및 홍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조국의 역사뿐만 아니라 가정과 친족 단위로 자기 조상의 역사에 관심을 갖고 새로운 자료를 찾아내 책으로 출간하고, 이에 대하여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또한 1990년 『몽골비사』 성서(成書) 750주년, 2002년 칭기스 칸 탄생 840주년, 2006년 대몽골국 성립 800주년을 맞이한 것은 몽골족의 자부심을 제고하고 민족 의식 각성에 큰 역할을 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몽골비사』, 모린 호르, 국가, 국기를 관공서와 집집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모시라는 결정을 내리고, 문화와 전통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데 큰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오르틴 도[長歌], 모린 호르를 세계 문화 유산으로 등록한 것은 몽골인의 자랑일 뿐 아니라 세계화 시대 민족의 특질을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주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편 이 시기에는 아무런 죄 없이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사면과 명예 회복 작업이 진행되었다. 즉, 1990년부터 국가소회의 산하에, 1992년부터 국가대회의 산하에 해당 업무를 추진할 사면위원회가 구성되고 수천 명의 희생자들에 대하여 조사하여 사면하거나 명예를 회복시키고, 그들에게 경제적 지원 사업을 해왔다. 몽골 정부는 1996년 정치적 희생자의 후손에게 공식 사



전통축제 '나담'

과하고, 9월 10일을 '희생자 기념일'로 정하였다. 또한 1997년에는 정치적 희생자에 대한 금전적 배상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아내, 남편, 자식, 손자들에게 소정의 배상금을 지불하였다. 2005년 말 기준 16,600명이 배상금을 받았다.

또 이 시기에는 문화 유산 복원 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그 일환으로 1991년부터 전통 몽골 문자(Mongol bichig)를 복구하여 온 국민이 두 종류의 문자, 전통 문자와 현대 문자를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전개하였다. 또한 국가, 종교, 문화 방면의 저명한 인사의 탄생 기념 행사를 거행하고 그들에게서 배울 점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다.

자신의 사상에 따라 사회의 어두운 측면을 비판하였다는 이유로 삶과 명예를 한꺼번에 빼앗긴 작가의 작품에 대해서도 사실적인 평가를 내리게 되었다.



전통 음악

이를 테면 초이놈의 작품을 출간하고, 1991년에는 그에게 '정부 훈장'을 추서하였다. 이와 함께 문학과 예술을 특정 사상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예술가들이 자유로운 사고와 표현의 다양성을 활용하여 창작 활동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만도하이 황후」, 「영원한 하늘의 힘에 기대어」 등 역사적 사실을 주제로 한 작품은 민족적 자부심의 표현이 되었다.

이와 아울러 국민의 신앙의 권리를 헌법과 종교법으로 보장하여 누구나 종교의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또한 불교 사원을 복구하고 종교와 전통 문화를 되살리는 운동이 전개되었다. 그 결과 사원과 승려의 수가 늘어났는데, 1997년 기준 불교 사원 수가 162개, 승려는 2,500여 명에 달하였다.

출판과 정보 분야에서도 자유로운 제도가 생겨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특정 문제를 여러 방면에서 다룰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1998년

기준 신문과 잡지 808개가 간행되었다. 텔레비전과 라디오의 채널 수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는 텔레비전과 라디오가 어느 한 정당의 통제하에 있었던 이전의 상황에 변화가 생겼음을 말해 준다.

## ○ 교육, 과학, 보건 분야의 변화

몽골국이 존속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초는 몽골인의 끊임없는 발전과 정신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이다. 교육 분야에서의 개혁 목표는 국민의 정신적 요구를 채워 주고, 국제적 수준에 맞추어 교육을 발전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1995년에는 국가의 교육 정책과 교육법을 제정하였다. 여기에는 국민에게 보통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반드시 기초 교육을 받게 하고, 교육 방법과 형태를 다양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으로 하고, 학교의 형태(국공립과 사립)에 관계없이 국가에서 지원하고 동일한 요구 조건을 제시하는 등 원칙의 문제가 반영되어 있다.

교육 분야에서 생긴 커다란 변화 중 하나는 사립 학교가 생겨나고 그것이 관할하는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보면 2005년부터 2006년 기준 총 171개의 대학 및 전문대학 중 49개는 국립이고 122개는 사립이다. 여기에서 공부하는 학생 수는 총 132,000명에 달한다. 또한 2005년부터 2006년도 학기부터 보통 교육의 학제를 11년으로 하는 교육 표준을 준수하게 되었는데, 이는 교육을 세계적인 기준에 맞추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전문 교육은 기본적으로 등록금을 지불하도록 하였지만 공무원 자녀 중 한 사람의 학비 및 빈곤층과 고아 등 생활이 궁핍한 학생들의 학비를 국가에서 지급하거나 국가 기금에서 융자해 주는 등

교육 사업 지원을 위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적 정비에도 불구하고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적지않게 일어나고 있다.

한편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한 이후 의료 분야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다. 이 분야에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국가에서 책임지던 보건 서비스를 제도를 바꾸어 개인 병원이 설립되고, 국민 건강 보험 제도가 새로 생겨 어린이와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보험 수수료를 국가가 책임지게 된 것이다. 출산과 관련된 국민의 지식 수준이 높아진 것은 커다란 성과이다.

아무튼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서 응급 처치, 예방, 임신부와 산모, 전염병, 자연 재해로 인한 질병 외의 치료는 유료화되고 국민의 건강을 본인이 책임지게 되었다. 1994년부터 국민 건강 보험법이 발효되고, 국영 병원과 개인 병원이 함께 일하게 되었는데, 병원 운영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보험료로 재정을 충당하게 되었다.

이 시기 과학과 기술 분야는 사회의 정신 생활 방면에서 일어난 변화 중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 먼저 '과학과 기술 분야에서 정부가 견지하는 정책', '과학과 기술에 관한 법' 등 몇몇 중요한 법이 제정되었다. 이는 과학과 기술의 진보가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시키고 정신적 풍요를 가져오게 하는 근원이요 경제적 안정의 기초가 된다는 판단에서 취해진 조치였다. 특히 이 분야에서는 민영 기관을 지원하고, 경쟁을 유발하고, 수출을 겨냥한 상품을 생산하고, 학자들의 능력을 활용하는 등 몇 가지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현재 과학 아카데미 산하 30여 개 연구소 및 연구와 실험 제조 기관에서 8,000여 명의 학자와 연구원이 일하고 있다.

## ○ 사회와 인간 생활의 변화

정치 체제의 변화와 더불어 1990년대부터 몽골 사회 구조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다. 구체적으로 과거 사회주의 시절과 달리 권력, 명예, 부, 수입, 직업, 업무 등에 따라 서로 구분되는 여러 가지 새로운 사회 계층이 생겨났다.

몽골의 사회 생활에서 나타난 커다란 성과 중 하나는 “고령, 노동 능력 상실, 출산 및 육아, 그밖의 법에 규정된 경우에 재정적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헌법 조항에 따라 새로운 사회 보장 제도가 형성된 것이다. 이는 사회 보험과 사회 복지라는 두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다.

1994년부터 사회 보장(보험과 복지)에 관한 일련의 법이 제정되어 시장경제의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에게 제공되고 국가가 조정하는 사회 보장 정책이 시행되었다. 예컨대 사회 보험법에 따라 1960년 이후에 태어난 국민은 보험 기금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게 되었는데, 이는 본인의 책임감을 높이고, 미래를 위하여 스스로 책임지는 여건을 만들었다.

한편 1990년대부터 시행된 가격과 관세의 인상, 화폐 가치와 생산의 폭락 등은 국민의 생활 수준에 큰 영향을 미쳤다. 즉, 체제 전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실업과 빈곤으로부터 큰 피해를 입었는데 이 시기 전체 인구의 절반이 저소득층이었다. 구체적으로 1997년에 등록된 실업자 수는 95,000명이었지만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그보다 훨씬 더 많았다. 1995년 세계은행에서 행한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36.3%가 낮은 생활 수준보다 수입이 더 적었다. 빈민 수는 해마다 늘고 있는데 이는 사유화에서 나타난 불법 행위, 화폐 가치의 폭락, 국민의 경영 능력 부족 등 여러 가지 요인에서 기인하였다. 정부는 2005년 기준 787,200명에게 사회 복지 수당, 보조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 05

---

## 몽골국 외교 정책의 변화

몽골국은 1990년까지 소련의 외교 정책을 추종하여 전 세계 국가를 '사회주의 국가', '자본주의 국가', '개발도상국'으로 구분하여 거기에 맞는 대외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1990년 이후 몽골국은 민족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다원적인 대외 개방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

### ○ 몽골국 외교 정책의 기초

1990년대부터 서로 대립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양극 체제가 무너지고 국제 관계에서 전혀 새로운 조건이 마련되었다. 그 결과 몽골국 외교 정책 및 그 기초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민주화와 변혁의 시기에 몽골 외교 정책의 기초와 목표 및 방향은 '몽골국 헌법', '외교 정책의 기초', '민족의 안보 기초' 등 여러 자료에 명시되어 있다.

몽골국은 오직 소련과 사회주의 체제 범위 내에서만 개방적이고, 세계의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폐쇄적이었던 대외 관계의 고립성을 벗어나 국제 관계의 적극적인 주체가 되었다. 현재 몽골국 외교 정책의 기본 목표

는 세계 여러 나라와 평화 우호 관계를 강화하고, 몽골국 발전에 긍정적인 대외 여건을 조성하여 나라의 독립과 주권을 보장하는 데 있다. 국제 외교의 일반적인 기준을 준수하여 평등과 호혜 협력으로의 전환은 몽골국 외교 정책의 주요 목표가 되었다.

몽골국은 민족의 이익을 존중하고 국제법적 표준을 준수·이행하고, 평화를 숭상하는 나라와 부딪치지 않고, 어떠한 군사 동맹에도 가입하지 않으며, 외국 군대의 국내 주둔을 허용하지 않는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

## ○ 몽골국 외교 정책의 방향

몽골국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본 방향에 따라 적극적이고 다원적인 외교 정책을 추진해 왔다.

첫 번째 방향은 전통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두 이웃 나라, 즉 러시아연합과 중화인민공화국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외교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데, 이때 어느 한 나라를 일방적으로 따르지 않고 균형 있는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역사적 환경에 발맞춰 관계의 법적 기초를 개혁·강화하고,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러시아연합 및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우호 관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로 양국에 닥친 과도기의 어려움 때문에 몽골과 러시아연합의 경제와 문화 방면의 협력은 이전 시기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하되었다. 그러나 2005년 말 기준 러시아연합은 몽골국 수입의 34.8%를 차지할 정도로 아직도 중요한 나라로 남아 있다. 또한 2004년 말 몽골이 러시아연합에 상환해야 할 대규모 부채 문제가 몽골 측에 유리하게 해결된 것은 양국

관계에서 생긴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만하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수립한 전통적인 우호 관계 및 협력이 증진되고 투자도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5년 말 기준 중국은 몽골국 수출품의 48.1%, 수입의 27.7%를 차지하고 있다.

두 번째 방향은 미국, 일본, 독일 등 동서양 선진국과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1987년 미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협력을 시작하였으며, 미국은 처음부터 몽골국의 개혁을 전적으로 지지하였다. 특히 2005년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는 몽골을 방문하여 양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 몽골과 일본 관계가 증진되기 시작하였으며, 호혜 평등에 입각한 양국 협력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제안으로 몽골에 원조하는 국가와 국제 기구 그룹이 탄생하였는데 그동안 원조국들은 6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하여 몽골국이 당면한 과도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차관 및 무상 원조를 제공해 왔다.

세 번째 방향은 아시아 지역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이 지역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것이다. 몽골국은 아시아·태평양 연안 국가(ASEAN) 그중에서도 동북아시아와 중앙아시아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다. 또한 몽골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에 가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고 하는 국가와 관계를 맺고, 이들 국가의 경험을 연구하여 실패한 것은 돌아가고 성공한 것은 그 과정을 단축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는 몽골의 안전 보장과 안정적인 발전을 이룩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또한 최근에는 한국과의 관계와 협력이 더욱 증진되고 있다.

네 번째 방향은 유엔과 그 산하 기구, 즉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아시아 개발은행 등 금융·경제 기구와 협력하는 것이다. 몽골국은 1991년부터 국

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회원국이 되어 과도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 구조를 개혁하는 데 필요한 수백만 달러의 자금을 장단기 차관 및 무상 원조로 제공받아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몽골국은 또한 1997년 세계 무역기구에 가입하여 국제 무역 협정을 준수하고 대외 교역에서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와 함께 몽골국은 유엔과 세계 경제·문화 및 기타 공공 기구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현재 세계 139개 국가와 외교 관계를 맺고 있다. 특히 몽골국은 1994년 아시아개발은행 회원국이 되었는데, 그들은 인프라 발전, 예를 들면 울란바토르 공항 확장, 서부 지역의 에너지, 초이발산과 에르데네트의 중앙 난방 시설, 예긴 골(Eggin gol)의 수력 발전소 건립에 자본을 투자하고 있다.

다섯 번째 방향은 옛 사회주의 국가인 동유럽 국가와의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다. 즉, 양측은 전통적인 관계에 기초하여 상호 인적 교류, 합작 기업 설립, 단기적인 업무 및 기술 연수, 공직자의 상호 방문을 실현하여 전통적인 관계를 복원하고 새롭게 하는 등 교류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여섯 번째 방향은 개발도상국과 협력하고, 강대국의 무역 및 경제적 압력을 함께 극복하고, 상호 이해와 지지를 아끼지 않고, 국제 사회에서 서로를 지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몽골국은 비동맹국회의 103 번째 가입국이 되었다. 몽골은 이 회의의 주요 국가인 인도와 우호 조약을 체결하고 문화 및 경제 방면의 협력을 증진시키고 있다. 또한 몽골국은 변화와 개혁 기간 중에 취한 대외 정책 결과로 이웃 나라와 선린 우호 관계를 맺고, 동·서양 새로운 동반자 국가와 국제 기구의 신뢰를 얻었다.

끝으로 몽골국은 자국의 안보를 정치적인 방법으로 보장받겠다는 목표하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는 변화와 개혁의 시기 초기에 10만에 달하는 소련 군대를 본국으로 철수하게 하였으며, 제47차 유엔 총회에서 오치르바

트 대통령이 자국의 비핵화를 선언하여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와 핵무기 보유국으로부터 지지를 얻는 것을 통하여 확인된다. 이상에서 언급한 몽골국 외교 정책은 국제 관계에서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표준을 존중하고 지키는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 주고 있다.



## | 용어 설명 |

- 감국(監國) : 대(大)쿠릴타이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칸을 추대하지 못하였을 때 임시로 정치를 관장하는 제한된 권한을 맡기는 것을 말한다. 토라키나(투레게네) 카툰은 5년간 감국으로 있었다.
- 공대(共戴) : 1911년 12월부터 1924년 11월까지 몽골에서 사용한 연호.
- 공대 몽골국 : 신해년 겨울 중간 달 초아흐레, 양력으로 환산하면 1911년 11월 29일에 선포된 국호. 모든 몽골족의 염원으로 탄생한 국가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불렀다.
- 구백지공(九白之貢) : 흰 말 8마리, 흰 낙타 1마리, 하닥(khadag) 등으로 이루어진 고대 몽골 예물의 형태. 1639년에 만주 칸은 할하의 칸들에게 '구백지공'을 바치라는 칙령을 내렸다.
- 궁(güng, 公) : 타이지와 고관의 관직. 보국공(輔國公)과 보좌공(輔佐公)이 있으며 보국공이 지휘한다.
- 다싱후(Daashingkhüü, 大盛魁) 상점 : 외몽골에서 200여 년 동안 활동하였던 한족의 교역과 고리 대금업을 하였던 큰 상점 중 하나인 대성괴. 이 점포는 매년 평균 200만 달러를 유통시켰으며, 몽골에서 매년 50만 마리의 양, 7만 마리의 말을 반출하여 몽골 인민을 착취하고 억압하였다.
- 다리강가(Dariganga) 목기(牧旗) : 만주 황제 소유의 가축은 대부분 몽골 다리강가 지방에서 길렀다. 만주인들이 몽골인을 정복할 때 포획한 가축이나 고관 귀족들로부터 만주 칸에게 바친 가축 무리. 다리강가 목장은 말 74무리, 낙타 44무리, 양 80무리 등 모두 198무리의 가축군이 있었다. 그 가축들은 다리강가 사람들이 공납역(役)으로 대가 없이 길렀으며 역역(力役)을 담당하였다.
- 단식(Danshig) : 쩌준담바 호탁트의 만수 무강을 축원하는 행사. 이때 그에게 공물을 바치고 남성 삼종(三種) 경기를 하던 관습이 있었다.

- 돌론 노르(Dolon nuur) 회맹 : 1691년에 강희제는 할하를 완전하게 지배하고서 의식을 치르기 위해 돌론 노르에서 회맹을 개최하였다. 이 회맹에는 투시에트한 차 쿤도르지, 쟈준담바 호탁트, 세첸한 움헤이(Ömkhei), 내몽골의 영향력이 있는 고관이 모두 참석하였다.
- 메이렝(meireng, 梅倫) : 만주어로 호쇼의 재정 회계를 담당하는 문서를 관장하는 관리
- 몽골-티베트과 : 몽골인민당 대표단이 원조를 요청하기 위해 이르쿠츠크에 머물고 있을 무렵 러시아 공산당 중앙위원회 시베리아 분국 동방인민부 산하에 설치되고, 그 후 1921년 1월 중순 코민테른 극동 지역 비서국 산하로 이관되었다.
- 몽골민주연맹(Mongolyn Ardchilsan Kholboo) : 1989년 12월 10일 세계인권 의 날에 설립되었다. 이 단체는 몽골에 민주주의 정치 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조릭(S. Zorig)이 초대 의장을 맡았다.
- 박(bag) : 행정 조직의 최하부 단위. 만주 시기부터 몽골에 시행되었다.
- 베이스(beis, 貝子) : 만주 시기 고관의 세 번째 관직
- 베일(beil, 貝勒) : 만주 시기 고관의 두 번째 관직
- 보올(Bool) : 유목민 사회에서 포로로 잡혀 온 사람과 복속된 부족을 '게린 보올(geriin bool)', '우투구 보올(ötögü bool)', '웅구 보올(ongu bool)'이라고 불렀다. 조상 대대로 노예인 자를 '우투구 보올'이라고 한다. '웅구 보올'은 원래 노예였다가 노예 신분에서 해방된 자를 말한다. '게린 보올'은 유목민 사회에서 노예 노동을 이용하였던 형태를 말한다.
- 보탁(Bogtag) : 중세 몽골 카툰(khatun)과 귀족 부인들이 쓰던 모자
- 산도[三多] 압반 : 1910년 초 후례의 관사대신이 되었다. 그의 주 임무는 북(외)몽골에 청나라의 신정(新政)을 시행하는 것이었다. 그는 1911년 11월 30일 몽골인들의 귀국 통보를 받고 러시아 영사관에 잠시 머물다 1911년 12월 4일 중국으로 돌아갔다.
- 새 거울(Shine tol') : 1913년 3월 6일부터 1914년 8월 21일까지 총 20호를 발간한 잡지. 이 잡지는 몽골 최초의 자유 출판물로 니슬렐 후례에서 발간되었다. 저명한 학자 체벤(J. Tseven)이 편집장을 맡았다.

- 샤비(shav') : 고승과 활불에게 예속된 자. 사찰과 승려, 활불에게 공납을 바치며 공양할 때나 독경할 때 차(茶)와 경비 등을 바친다.
- 산조드바 아문(Shanzudbyn yamun) : 직인(職印)이 부여된 호탁트(掌印活佛)의 승속 불제자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 불제자 수가 700명에 이르면 그들을 관장하는 직인을 수여하는데, 이들을 장인 활불이라 부른다. 인민 혁명 이전 활하(외몽골)에 장인 활불이 모두 13명이나 있었다. 복드의 불제자, 즉 이호 샤비를 관장하는 산조드바 아문을 다른 고위 승려의 산조드바 아문과 구분하기 위하여 특별히 에르테네(Erdene) 산조드바 아문 또는 이호 샤비 아문(Ikh shaviin yamun)이라 불렀다. 호탁트의 재산과 불제자의 업무를 관장하는 산조드바 아문의 수장을 산조드바라고 한다. 에르테네 산조드바 아문은 1723년에 창설되었다.
- 소욤보(Soyombo) 문자 : 1686년에 운두르 게겐 자나바자르가 제작한 문자. 소욤보 문자는 몽골, 티베트, 산스크리트어를 적는 데 적합한 아흔 개의 문자로 이루어져 있다.
- 소유르갈(soyurᠶal, 賜典) : 대칸이 사여한 은사품, 토지, 관작, 칭호 등을 말한다.
- 숨(sum) : 만주인들이 몽골인을 정복해서 통치하기 위해 행정 조직을 쇠신하여 숨이라는 행정 단위를 만들었다. 18~60세의 군사(가호) 150명으로 하나의 숨이 형성된다. 오늘날에는 몽골의 행정 제도의 기본 단위가 되었다.
- 쉬수정(徐樹錚, 1880~1925) : 1919년 8월 19일 서북주변사(西北籌邊使)로 임명되었다. 1919년 11월 무력으로 몽골을 점령하고 자치권을 철폐한 후 무자비한 군사 지배체제를 구축하였다. 1920년 6월 후레에서 소환되어 베이징으로 돌아가 일본 공사관에 피신하였다. 그는 1925년 반대파에 의해 살해되었다.
- 술랭게(shüü lengge, 主事審判) : 오tok의 장 아래 하급 관리. 술랭게에는 승려가 아닌 평민을 임명한다.
- 시골 사람들(Khödööniikhön) : 몽골인민혁명당에서 좌파 노선을 견지하던 사람들을 이렇게 불렀다. 이들은 코민테른의 지지를 등에 업고 몽골 우파의 위협에 대해 이야기하고, 나아가 1928년 소집된 몽골인민혁명당 제7차 당대회에서 코민테른 대표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정권을 잡았다. '시골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로 도르릭자브(Dorligjav), 바드라흐(Ö. Badrakh) 등이 있다.

- 아브라가(Avraga) 궁정 : 전 몽골국 시기 칸의 궁정. 헨티 아이막의 델게르한(Delgerkhaan) 솜 지역에 있는 아브라가 토손(Avraga toson)이라는 곳의 뒤쪽 언덕에 유적이 있다. 이 유적을 발굴 조사한 결과 40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진 궁정 터와 흙벽으로 만든 사당, 수공업과 상업 지구 등 열한 개 지구가 있었음이 밝혀졌다.
- 아이막(aimag—ayimaʻ) : 고대 시기부터 계통이 같은 씨족의 연합체. 각 아이막은 정해진 명칭과 영토를 가지고 있었다. 17세기부터 아이막은 행정 조직의 큰 단위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다.
- 아이막의 자사(jasaa) : 만주 지배 시기 주(駐)울리아스타이 장군, 후레[庫倫] 판사대신 곁에 아이막의 대표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각 아이막에 공납액을 할당하며 아이막 소속 군대 통제권과 의무를 수행하였던 기관이다.
- 아이막의 출간(會盟) : 만주 시기에 행정 통치권을 지녔던 기관. 만주인들은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아이막의 출간을 조직하였다. 출간의 수장에는 만주인에 충성스러운 호쇼의 귀족을 앉혔다.
- 알바(alba, 貢納) : 17세기부터 황제(칸)에게 바치는 공적 공납을 ‘알바(alba)’라고 하고, 귀족이나 왕공들에게 바치는 것은 ‘굽추르(gubchuur)’라고 구별하여 불렀다. 공납은 역역(力役)과 물품, 화폐, 가축 등으로 납부하는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 알바트 [솜] 아르드(albat [sum] ard, 箭丁) : 만주 칸에게 공적 공납을 바치는 백성
- 암반(amban, 總督) : 만주 칸을 대표하는 대신. 만주 지배기에 이호 후레, 호브드, 울리아스타이에 만주 대신이 주재하였다.
- 에푸(efü, 額駙) : 만주 황제(칸)의 사위
- 오르톡(ortoʻ, 鞑脫) : 몽골 제국 시기에 이슬람교도 상인들을 불렀던 명칭
- 오톡(otog) : ‘화로’, ‘가족’이라는 뜻을 가진 몽골어. 나중에는 사비들을 다스리는 행정 기구의 한 단위가 되었다.
- 운두르 게겐(Öndör gegeen) 자나바자르(Zanabazar) : 할하의 초대 복드 쥘준 담바인 운두르 게겐 자나바자르는 칭기스 칸 황금 가문의 귀족인 투시에트 칸 고포

도르지(Gombodorj)의 아들로 1635년(바투몽흐 다얀 칸의 6대손)에 태어났다. 세살 때 책을 읽고 티베트어를 배워 어려서부터 학문에 눈을 떴다. 공예가, 화가, 언어학자, 건축가, 철학자인 자나바자르는 몽골 문화 예술의 부흥에 비할 데 없는 큰 공헌을 하였다. 운두르 게젠 자나바자르는 조형 예술 작품으로 서양의 유명한 이들과 동등한 평가를 받는다.

- 이번원(理藩院) : 만주 시기에 외몽골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최상급 기관. 이 기관은 북경에 있었으며 외몽골에 있는 주(駐)올리아스타이 장군을 통제하였다.
- 인지나시(Injinashi, 1837~1892) : 인지나시는 내몽골의 투메트 우기(右旗)의 보좌 타이지로 칭기스 칸의 27대 후손인 보르지긴 반칭발라(Vanchinbala)의 여섯번째 아들. 어려서부터 경전을 좋아하고 몽골어, 중국어, 만주어, 티베트어 등의 언어를 배웠으며 문학 작품과 역사에 흥미를 느끼고 공부를 하였다. 그의 작품으로는 『후호 소다르(Khökb sudar, 靑史演義), 『네겐 답하르 아사르(Negen dawkbhar asar, 一層樓), 『올라나 오힐라흐 탕힘(Ulanaa ukbilakh tankhim, 紅樓亭)』 등이 중요하다. 인지나시가 세운 중요한 공적은 몽골 대하 소설의 기초를 닦은 것이다.
- 자삭(zasag) : 호쇼의 통치자. 1691년에 돌론 노르 회맹에서 만주 칸이 할하의 왕공 귀족을 자삭으로 임명하였다. 할하의 자삭 고관들은 대를 이어 호쇼를 통치하는 칭기스 칸 혈통의 고관과 타이지 등이다. 솜의 장기는 박(bag)과 십호(arvan)의 장을 임면하고 공납 의무를 지닌 백성(箭丁)과 함질가(khamjilga, 隨丁)를 총체적으로 다스리는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 자이상(zaisang, 宰桑) : 1. 준가르 칸국 시대 행정 조직의 중요한 관직. 2. 샤비(shav') 등을 통치하는 행정 사무를 주관하는 산조드바(Shanzudba)의 관직
- 작 바이드라긴(Zag baidragyn) 후렝 벨치르(Khüren belchir) 회맹 : 오늘날 바안홍고르(Bayankhonggor) 아이막에 있는 이곳에서 1686년에 할하의 칸과 왕공귀족들이 회맹을 하였다. 이 회맹에서 쟁준담바 호탁트 등 투시에트, 세첸, 자삭트한 아이막의 칸들과 오이라트의 갈단 보식트 등이 참석하여 할하 우익과 좌익의 통합을 토의하였지만 성공하지 못하였다. 여기에는 만주의 분열 정책이 영향을 끼쳤다.
- 잘란(zalan, 扎蘭) : 메이렝(meireng, 梅倫)의 보좌관. 호쇼의 자삭 노얀(zasag

noyan)의 명에 의거하여 아이막의 회맹을 비준한다.

- 장기(zangi, 章京) : 솜의 행정 지도자
- 장인(掌印) 활불(活佛) : 만주의 법률에 활불의 사비가 700명에 달하면 사비 행정 기구를 세우고 인장(印章)을 수여하도록 규정하였다. 20세기 초에는 외몽골에만 13명의 장인 활불이 있었다.
- 주(駐)올리아스타이 만주 장군 : 만주 청에서 외몽골에 설치한 최고 군사 통치 기관. 주(駐)올리아스타이 장군직은 1733년에 설치하여 ‘정변좌부장군(定邊左副將軍)’이라는 인장을 수여하였다.
- 지농(jinong, 晉王) : 몽골 귀족의 고대 칭호. 원(元) 왕조에서 다음 칸이 될 자제들 중 한 명에게 지농이라는 칭호를 주어 칸에 버금가는 권력을 행사하게 하고 정치 업무를 수행하였다.
- 천이(陳毅) 중화민국 몽장원(蒙藏院) 참사(參事)로 근무하던 중 1914년 카흐타에서 열린 3국협상에서 중국 측 고문으로 참석하였다. 1915년 협정이 체결된 후에 이호 후레 주재 도호사(都護使)로 임명되었다. 그는 북(외몽골)의 자치권을 폐지하기 위해서 ‘북(외)몽골의 미래발전 규정’을 기안하여 승인받으려고 노력하였지만 쉰수정이 몽골에 들어오에 따라 1919년 11월 중국으로 돌아갔다. 1920년 9월 천이가 다시 돌아와 후레, 올리아스타이, 호브드, 타그나 오랑하이를 통치하였다. 그는 몽골과 러시아 백군의 연합 세력에 패배하여 1921년 초 몽골을 떠났다.
- 축트 타이지(Tsogt taiji, 1581~1637) : 칭기스 칸의 15대 후손인 바트몽흐 다얀 칸의 혈통. 어려서부터 학문에 뛰어났으며 종교와 철학 책을 많이 보고 불교를 몽골에 확산시키는 데 공헌하였다. 어머니와 함께 많은 책을 번역하였으며 사찰을 세운 17세기 몽골의 시인이자 계몽가였다. 1634년에 축트 타이지는 자신의 백성을 이끌고 릭텐 칸과 협력하기 위해 할하에서 후호 노르 지방까지 이동하던 도중에 릭텐 칸이 사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 카흐타(Kyakhta) : 몽골 북쪽 국경에 있는 도시. 오늘날의 알탄 볼락(Altan bulag). 혁명 이전에 카흐타라고 불렸다.
- 토드(Tod) 문자 : 오이라트(서) 몽골의 자야 반디다 남하이잡츠가 몽골 문자(Mongol bichig)에 근거해 1648년에 제작한 문자

- 함질가(khamjilaga, 隨丁) : 몽골 평민 중 한 부분. 함질가는 자식 노양, 행정 관리가 아닌 타이지 등에게 직접 예속되며 그들에게 공납을 바친다. 타이지의 관직 고하에 따라 예속된 함질가 수가 다르다.
- 호쇼(khoshuu, 旗) : 16세기 중반부터 할하 몽골에서 군사와 행정을 겸한 기본 단위. 청은 몽골인들의 전투력을 약화시킬 목적으로 호쇼를 작게 나누어 백여 개로 만들었다.
- 훈드(khünd) : 만주어. ‘숨의 장기(佐領)’의 보조 관리

| 찾아보기 |

ㄱ

가르마(Garmaa) 186  
 가비능(軻比能) 57, 76  
 가와(L. Gavaa) 389  
 가톨릭 107  
 간단텍칠렌(Gandantegchilen) 350  
 간주르(Ganjuur) 198  
 갈단(Galdan) 204, 206, 209, 221  
 갈단 보식트(Galdan Boshigt) 204, 206~208  
 갈단체렝 칸 209  
 갈릭(Galig) 문자 190  
 갈산도노이(Galsandonoi) 272  
 갈상도르지(Galsandorj) 211  
 갈샤르(Galshar) 228  
 감국(監國) 133, 137, 138  
 강가인 오르스갈(Ganga-yin urs-gal, 恒河之流) 233  
 강궁(強弓) 64  
 강긴 우주르(Gangyn üzüür) 288  
 강희제(康熙帝, engke amuᠣ-langtu qaᠣan) 204, 207, 208  
 개평부(開平府) 147  
 거란 59~61, 96, 98, 102  
 거란 부족 연합체 60  
 거란 소자 73, 90  
 거란 시대 70  
 거란인 61, 69, 73  
 건륭제(乾隆帝, tngri-yin tetgegsen qaᠣan) 209~211, 225

검은 땅 195  
 게르(ger) 48  
 게르 마차 101  
 게르(가정)학교 190, 230  
 게세르(Geser) 171, 234  
 겐덴(P. Genden) 308, 316, 318, 335  
 겐렉생게(G. Gelegsenge) 306  
 경기병 64  
 경제 기본 정책 321  
 경제·문화 협력에 관한 협정 341  
 경제상호원조회의 341, 374  
 경제의 기본 정책 321  
 고관(noyan) 62  
 고르노-알타이(Gorno-Altai) 362  
 고르바초프 394  
 고르만 골 89  
 고르만 골 유역 92  
 고르만 골 유역의 몽골인 96  
 고르만 골(헤를렌, 오논, 토을) 88  
 고르만 첩헤르(Gurvan tsenkher) 30  
 고르 반사이 환(Gurvansaikhan) 387  
 고를록(예니세이) 59  
 고리 대금업(자) 222, 244, 246, 267, 323  
 고비 125, 135, 196  
 고비 사막 55, 56, 196  
 고비알타이 아이막 383  
 고아 마탈 88  
 고차(高車) 55  
 곤칙도르지(R. Gonchigdorj) 405  
 곤칙 슝 라(G. Gonchigsulmaa) 366, 389  
 곤칙수렌(Gonchigsüren) 254

골(gol) 34  
 고펜도르지 201  
 고펜-바담자브(Gombo-Badamjav) 300  
 고펜수렌(G. Gombosüren) 366  
 고펜-이드신 공(Gombo-Idshin gün) 288  
 고펜체렌(Gombotseren) 272  
 공(公) 260  
 공납(alba) 216, 217  
 공대(公戴) 263, 274  
 공마군(公馬群) 219  
 공산당 303, 353, 394  
 공산주의 298, 315, 370, 372  
 공산주의 지배 394  
 공생 관계 223  
 공화제 291, 295  
 과학 아카데미 386, 423  
 과학원 351  
 관료주의 354, 372, 374  
 관세법 411  
 광녕성(廣寧城) 198  
 교권 252  
 구르 칸(Gür Khan) 110  
 구르락차(J. Gürragcha) 387  
 구백지공(九白之貢) 202, 216  
 구석기 33, 38  
 구성 타타르 90, 96  
 구시 룽상단잔(Güüsh Luvsandan-zan) 113  
 구시 초르지(Güüsh tsorj) 190  
 구육 135, 136, 137  
 구전 문학 234  
 구준(九駿) 117  
 국가과학고등교육위원회 386  
 국가대회 349  
 국가대회의(Ulsyn Ikh Khural)

292, 302, 346, 350, 406, 419  
 국가소회의 302, 339, 346, 347,  
 350, 403, 411, 419  
 국가소회의 의장 302  
 국가소회의 의장단 302, 346  
 국가위원회의 위원장 404  
 국가의 저명한 우수 유목민(Ulsyn  
 aldart sain malchin) 356  
 국가입시회의(Ulsyn TÜR Tsagiin  
 Khural) 292  
 국가자본관리청(Ulsyn khöröngiiᄒ  
 zakhirakh gazar) 269  
 국립 서커스 극장 367  
 국립 오페라 극장 367, 389  
 국립사범대학 364  
 국립운송국(Ulsyn teekh  
 nevrüülekh khoroo) 325  
 국립중앙도서관 367  
 국사 172  
 국영 공장 324  
 국영 업체 314  
 국영은행 체제 415  
 국왕 벨라 4세 136  
 국자(國字) 169  
 국제 올림픽위원회 390  
 국제 지질 탐사단 377  
 국제연합 342, 343  
 국제통화기금(IMF) 416, 427  
 군국주의 336  
 군국주의 일본 342  
 군목소(群牧所) 162  
 군사 민주제 44  
 군사 지도자 44  
 군사 행정의 십진법 체계 62  
 군역 64  
 군적(軍籍) 216  
 군주제 293

궁 고편잡(Güng Gombojav) 233  
 궁가잔찬(Gunggajantsan) 170  
 궁수들의 나라 역사 171  
 귀(鬼) 42, 44, 85  
 귀족회의(대회의) 63  
 그루지아 126, 136, 145  
 그리스 76, 153  
 극동 195, 315  
 극동군 338  
 근시(近侍, 호위병) 118  
 근왕(shadar van) 212  
 근위군 211, 260  
 금(金) 61, 98, 99, 107, 109,  
 120, 122, 123, 126, 131, 135  
 금 왕조 102  
 금·은 등 광산 개발에 관한 규정  
 268  
 금강경 170  
 금리증식단위(Möngönii khüü  
 ürjüülekh angi) 270  
 금자 대장경(Altan Ganjuur) 232  
 금편 역참(buukhia örtöö) 217  
 기독교 130, 151, 153, 154, 157  
 기술혁신은행(Tekhnologi  
 shinechilel bank) 415  
 기욤 부시예 167  
 길구데이 바야타르(Gilgüdei baatar)  
 172  
 길베르(Gilver) 초소 278

**L**  
 나가추(Nagachu) 179  
 나담(Naadam) 284  
 나라(ulus) 144  
 나린 골 17B 주거 유적 34  
 나린(Nariin) 34

나야 118  
 나얀 장군 148  
 나완(Ts. Navaan) 388  
 나우시키(Naushki)-올란바토르  
 구간 358  
 나이단 왕(Naidan van) 288  
 나이람달(Nairamdal) 380  
 나이만[奈曼] 96, 103, 110, 111,  
 169, 199  
 나이만 소칸국 96  
 나이만부 111  
 나착도르지(Sh. Natsagdorj) 350,  
 388  
 나침당 333  
 나침반 156  
 날라이흐 광산 357  
 날라이흐(Nalaikh) 327, 357, 377  
 남(南)바이칼 전선군 338  
 남5오톡 176  
 남난수렌 총리 262  
 남닥(D. Namdag) 388  
 남성 3종 경기(naadam) 73, 103,  
 164  
 남송(南宋) 138, 147  
 남송 원정 147  
 남스라이자브(Ts. Namsraijav)  
 366  
 남시르(Namshir) 226  
 남중국 152, 159  
 남카프카스 136  
 남하이잠츠(Namkhajamts) 187  
 남홍노 선우 57  
 내(남)몽골 176  
 내각총리 남난수렌 256  
 내각회의 368  
 내기(內旗) 215  
 내몽골 176, 182, 197~200, 204,

207, 209, 210, 215, 217, 220, 224~226, 243, 249, 253~257, 265, 333, 339  
 내몽골 통합 운동 256  
 내몽골 해방 전쟁 254  
 내몽골인 196  
 내외몽골 263, 264  
 내위 국 (Dotood khamgaalakh gazar, 內衛局) 316  
 냉전 340  
 남(Nyam) 211  
 남보(B. Nymbuu) 354  
 네덜란드 242, 256, 300  
 네모 문자(콰스콰 문자) 169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景教] 172  
 네안데르탈(Neandertal) 35, 36  
 네이만 283  
 네이스 게겐(Neis gegen) 265  
 노가이 칸국 160  
 노동당 353  
 노란 중국(러시아) 203  
 노로브(D. Norov) 203, 388  
 노르블링(Noroblin) 39, 49  
 노보니콜라에프스크(Novonikola evsk) 288  
 노얀 204  
 노얀 호탁트(Noyan Khutagt) 234  
 노용 울(노인 올라) 72  
 놚트(Nomt) 281  
 농노(Khamjlaga) 해방 320  
 농노제 폐지 321  
 농축산대학 364  
 농축산은행(Khödöö aj akhuyn bank) 412  
 농축산협동조합(Khödöö aj akhuyn negdel) 360, 361, 384  
 누르하치 198, 199

누쿠르(nökör, 동지) 44, 131  
 누쿠즈(nüküz) 부족 87  
 눈병 368  
 니룬 92  
 니룬 몽골 92  
 니룬(유연) 몽골 97  
 니슬렐 후레(Niislel khüree) 255, 261, 266, 269, 275, 279, 282, 283, 287, 301  
 니콜라이 차우세스쿠 394

## ㄷ

다 라마 체렌치메드 249, 251  
 다뉴브 강 79  
 다다르트 울(Dadart uul) 166  
 다루가치(daruyaci, 達魯花赤) 145  
 다르다이 옷치긴 111  
 다르카드(darqad) 117  
 다르칸 117  
 다르한 친왕(親王) 호쇼 278  
 다르한(Darkhan) 362, 376, 378  
 다를리긴 92  
 다를리긴 몽골 88, 92, 97  
 다를리긴 몽골족 89  
 다를리긴(Darligin, 두를레킨) 몽골 87  
 다리강가(Dar'ganga) 219, 253, 254, 260  
 다미란 궁(Damiran güng) 212  
 다시남(Dashnyam) 272  
 다시도로브(S. Dashdorov) 388  
 다시발바르(O. Dashbalbar) 388  
 다신칠렌(Dashinchilen) 숨 191  
 다싱 후(Daashinkhüü, 大盛魁) 222, 246  
 다얀(Dayan, 達延) 칸 181, 182

다와자브(Ts. Davaajav) 378  
 다와치(Davaach) 209  
 다우리아(Dauria) 265  
 다창(Datsan) 231  
 단석괴(檀石槐) 55~57  
 단잔 랍자(Danzan Ravjaa) 234  
 단잔(Danzan) 202, 276, 277, 280, 283, 290, 295  
 단잔왕칙(D. Danzanvanchig) 339  
 단주르(Danjuur) 232  
 달단(鞏鞞, 타타르) 89  
 달라이 라마(Dalai Lama) 186  
 달란 발주트(Dalan Baljut) 109  
 담디니 수흐바타르 297  
 담딘(B. Damdin) 353  
 담딘(Sh. Damdin) 272  
 담딘샤라브(Ch. Damdinsharav) 390  
 담딘수렌(Ts. Damdinsüren) 254, 260, 352, 366, 389  
 담바(D. Damba) 348, 353  
 담바도르지 280, 289, 305, 306  
 담필(Dampil) 226  
 당(唐) 60, 208  
 당가수렌 352  
 당 대학 351  
 당사 연구소 351  
 당중앙위원회 317, 349  
 당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 360, 361, 383  
 당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 349  
 대(大) 숙청 317  
 대(大) 쿠릴타이 112  
 대거란국(大契丹國) 60  
 대금법 117, 118, 120, 169  
 대단사관(yeke jarYuči) 169  
 대도(大都) 148

대리 공사 250  
 대몽고(大蒙古) 97  
 대몽골 제국 210  
 대몽골국 109, 111, 112, 115, 117,  
 118, 122, 134, 161, 167, 170,  
 172, 278, 418  
 대몽골국 성립 800주년 419  
 대몽골국 시대 84  
 대법전 204, 206  
 대신 202  
 대오명(大五明) 231  
 대위렵(aba qomurʻa) 163  
 대장경 198  
 대총통(大總統) 299  
 대칸 112, 116, 117, 134, 136~  
 138, 149, 154, 156, 158, 178,  
 185, 197  
 대통령 403  
 대형 게르(örgöö) 89  
 대홍안령 산맥 98  
 데그미드(G. Degmid) 335  
 데드 시베(Deed shivee) 280, 325  
 데미드(G. Demid) 316  
 덴데브(Dendev) 275, 303  
 덴마크 136, 256  
 델(deel) 166, 229  
 델리운 볼닥 108  
 도가르자브(M. Dugarjav) 288  
 도고일랑(duguilan, 多歸輪, 獨貴  
 龍) 226  
 도르노고비 아이막(Dornogov'  
 aimag) 255, 383  
 도르노드 아이막(Dornod aimag)  
 167, 311, 254  
 도르노드 평원 55  
 도르지(G. Dorj) 272  
 도부 메르겐 89, 92

도자기 156  
 도호사(都護使) 265  
 독미드(B. Dogmid) 388  
 독소민 보도 295  
 독숨(D. Dogsom) 278, 318  
 독일 108, 224, 241, 242, 289,  
 312, 325, 333, 336~338, 417  
 독일 파시스트 339  
 독재 전체주의 체제 317  
 돈드고비 아이막 383  
 돌노르(Dolnuur) 204, 210  
 돌론[多倫] 338  
 돌부적(ongon) 39, 49  
 동(東) 투르크스탄 56, 61, 134,  
 143, 196  
 동(劄)몽골 176  
 동독 357, 394  
 동몽골 175, 176, 179, 182  
 동방 인민부 대표자 282  
 동부 시베리아 에너지 시스템 377  
 동북 지방 333  
 동북아시아 427  
 동서 위(魏) 57  
 동서 투르크 61  
 동유럽 79, 428  
 동투르크인 61  
 동호 55  
 동호 계통 59  
 두게르자브(A. Dügerjav) 353  
 두르베드(Dörbed) 205, 234  
 두르벤 오이라트 출간(Dörben  
 Oirat chuulgan, 사(四)오이라  
 트 연맹) 197  
 두르부드 254  
 두브나(Dubna) 365  
 드네프르 강 79, 143

## 르

라간(B. Laagan) 308  
 라드나바자르 367  
 라마교 246, 247  
 라시드 앳 딘 112, 132, 146, 157,  
 170, 171  
 라시민주르(Rashminjüür) 254  
 라시폰착(Rashpuntsag) 233  
 라이테르(I. Raiter) 304  
 락차 275  
 람인 게겐 톱산단잔찰란 232  
 람친(D. Lamchin) 353  
 락오허[遼河] 55  
 랴잔 136  
 러시아 84, 124, 144, 154, 171,  
 196, 211, 213, 217, 223, 224,  
 241, 247, 250, 251, 255, 264,  
 271, 275~277, 280, 323, 363,  
 417  
 러시아 백군 279, 287, 288  
 러시아 어문 학교 271  
 러시아 영사관 224, 250  
 러시아 왕궁 126  
 러시아 외무부 250  
 러시아 적군(赤軍) 282  
 러시아 황제 249  
 러시아공산당 시베리아 분국 278  
 러시아공산당 중앙 위원회 282  
 러시아-몽골 우호 협정 256  
 러시아연합 426  
 러시아인 195  
 레조힌(Rezukhin) 장군 283, 287  
 로도이담바(Ch. Lodoidamba)  
 365, 388  
 로마 교황 107, 154, 167  
 로마 제국 76, 79, 107  
 로술 280, 318

- 로이 하워드(Roy Howard) 335  
 로코소프스키 288  
 로호즈(Ts. Loohuuz) 354  
 룩산(Luvsan) 272, 279  
 룩산단잔(Luvsandanzan) 191  
 룩산샤라브(D. Luvsansharav) 388  
 룩산체렌 279  
 루마니아 341, 394  
 루브룩 154, 167  
 룬 문자(투르크 문자) 73, 79  
 룬덴(Lünden) 249  
 룽(Lüing, 籠城) 56  
 뤼순항 사건 348  
 리스쿨로프(T. R. Ryskulov) 298, 304  
 릉덴(Ligden, 林丹) 칸 197, 198, 199, 200  
 린치노 300  
 린친(B. Rinchin) 350, 352, 365  
 린친도르지(Rinchindorj) 212
- 
- 마가키 171  
 마니교(摩尼教) 172  
 마니트(Maan't) 378  
 마르코 폴로 157  
 마르크스-레닌(주의) 306, 344, 352, 370, 371, 372, 375, 376  
 마수드 벡 137, 157  
 마와라 알나호르[河中] 지역 138, 143  
 마이다르 불상 192  
 마이다르발(Maidarbal) 179  
 마차 그림 46  
 마차 수송 트러스트 358  
 마차바퀴 46
- 마하무드(Makhamud) 179, 180  
 마하칼라 막탈(頌) 169  
 마흐무드 알라바치 137, 157  
 막사르자브 궁(Magsarjav gün) 254, 262, 289, 291, 300  
 막스테네크(O. M. Makstenek) 281  
 막탈(magtaal, 찬가) 234  
 만도울(Manduul) 칸 181  
 만도하이 세첸 카툰 181  
 만도하이 세첸 카툰의 설화 192  
 만도하이(Mandukhai) 카툰 181  
 만라이바타르 담딘수렌 254  
 만리장성(萬里長城) 42, 55, 56, 61, 75, 93, 112, 175  
 만저우리[滿洲里] 335  
 만주 78, 201, 204, 217, 230  
 만주 암반(amban, 總督) 214  
 만주 장군 217  
 만주 제국 210  
 만주 지방 197, 333  
 만주 청 201, 204, 205  
 만주 칸 202, 203, 206, 207, 211, 212, 219  
 만주국(滿洲國) 333, 335  
 만주어 232  
 만주인 196, 198, 203, 216  
 만주-중국어 학교 246  
 만호 176  
 만호장 63, 71  
 맘(D. Maam) 388  
 맘루크 138  
 맹고(萌古) 86  
 맹장(chuulgan-u darga) 215  
 망가드(Myangad)부 230, 254  
 메구진 숄트 109  
 메르겐(mergen, 善射者) 164
- 메르키트 110, 111  
 메르키트 소칸국 96, 163  
 메이렌 도가르자브(Meiren dugarjav) 279  
 메이렝(meiren, 梅倫) 216  
 멕시코 323  
 멕시코 올림픽 390  
 명(明) 159, 179, 182, 197, 198  
 모권제 사회 37  
 모리셔스 342  
 모린 호르(morin khuur) 73, 77, 172, 419  
 모스크바 278, 290, 311, 336, 339, 343, 389  
 모용부(慕容部) 57  
 모요츠크르(磨延曠) 카간 60, 95  
 모일스 102  
 모일틴 암(Moilтын ам) 34  
 모전 천막에 사는 사람들(유목민) 112, 129  
 모조(Mojoo) 46  
 모피 216  
 목곽묘 69  
 목판 인쇄 190, 219  
 몰로토프(V. Molotov) 336  
 몰리브덴 365  
 몰촉 엘스(Moltsog els) 288  
 몽(Mong) 85  
 몽고율례(蒙古律例) 214  
 몽골 61, 85, 91, 94, 196~198, 242, 261, 335, 342, 358, 417  
 몽골 계통(민족) 61, 72, 73, 84, 93  
 몽골 고대 예술 46  
 몽골 고원 148  
 몽골 고지(故地) 143, 175  
 몽골 니룬[유연] 89  
 몽골 대간 121, 150, 153, 154, 156,

- 169
- 몽골 문자(위구르식 몽골 문자)  
73, 168, 230, 231
- 몽골 문학 작품 234
- 몽골 민족의 명칭 86
- 몽골 부족 90, 92, 93, 97, 100
- 몽골 소년단 공전 367
- 몽골 소칸국 102
- 몽골 신정부 267
- 몽골 역사(전 5권) 419
- 몽골 원 제국 149, 158, 159
- 몽골 유연[니룬] 85
- 몽골 유연국 89
- 몽골 인민정부 280, 288, 290, 321
- 몽골 인민의용군 281, 283
- 몽골 인종 48
- 몽골 자치 정부 265
- 몽골 제국 126, 134, 137, 147~  
149, 150, 153, 154, 156, 159,  
164, 175
- 몽골 제국 시대 100, 171
- 몽골 증권거래소 412
- 몽골 체육 스포츠 연맹 390
- 몽골 초원 126
- 몽골 혁명 282
- 몽골·오이라트 법전 201, 206, 233
- 몽골계 소칸국 95
- 몽골과 캄 지방 229
- 몽골국 118, 250, 255, 401, 422,  
425, 427, 429
- 몽골국 도량형 규정 325
- 몽골국 헌법 425
- 몽골국립대학 351, 364
- 몽골국립대학교 본관 367
- 몽골대학생연맹 400
- 몽골로이드 84
- 몽골민족은행 270
- 몽골민족진보당 404, 405
- 몽골민주당 399, 404, 405
- 몽골민주연맹 회의의 399
- 몽골 민주 연맹 (Mongolyn ard-  
chilsan kholboo) 397, 400
- 몽골부족 지원사 171
- 몽골비사 88, 96, 102, 112, 117,  
120, 134, 153, 163, 164, 166,  
167, 170, 171, 172, 368, 419
- 『몽골비사』 성서(成書) 750주년  
419
- 몽골비사학 170
- 몽골사회민주당 404, 405
- 몽골상호협동조합 269
- 몽골-소련 303, 325
- 몽골-소련 병사 기념탑 389
- 몽골-소련 연합군 339
- 몽골-소련 합작 357
- 몽골-소련군 사령부 336
- 몽골소브 도매 327
- 몽골-소비에트 연합군 283, 288,  
289
- 몽골소비자조합 359
- 몽골어 219
- 몽골어 고(Mongol ügiin bodrol)  
246
- 몽골의 국내 상거래에서 세금을 징  
수하는 규정 269
- 몽골의 대칸 151
- 몽골의 지방 행정 규정 293
- 몽골의 진리(Mongolyn ünen)  
278
- 몽골인 61, 79, 83, 87, 102, 150,  
170, 212, 216
- 몽골인민공화국 301, 302, 305,  
317, 325, 333~343, 345~347,  
349, 353, 360, 363, 369, 370,  
374~377, 379, 386, 390, 395,  
396, 402, 403, 405
- 몽골인민공화국 국가소회의 318,  
338, 340
- 몽골인민공화국 노동 영웅 378
- 몽골인민공화국 대법원 404
- 몽골인민공화국 대통령 404
- 몽골인민공화국 은행에 관한 법  
415
- 몽골인민공화국 인민대회 396,  
397, 399, 403, 404
- 몽골인민공화국 정부 404
- 몽골인민공화국 제3차 국가대회의  
325
- 몽골인민공화국 제4기 인민대회의  
(Ardyn Ikh Khural) 제1차 정례  
회의 369
- 몽골인민공화국 제7차 국가대회  
317
- 몽골인민공화국 제8차 국가대회의  
345
- 몽골인민공화국사 365
- 몽골인민공화국사 사료 선집 376
- 몽골인민공화국의 제3차 국가대회  
의 323
- 몽골인민당 276, 277, 280, 282,  
298
- 몽골인민당 중앙 위원회 280, 283
- 몽골인민혁명군 338
- 몽골인민혁명당 305, 307, 309,  
353, 369, 370, 372, 375~377,  
379, 383, 396, 397, 401, 402,  
404, 405, 409, 419
- 몽골인민혁명당 당대회 349, 372
- 몽골인민혁명당 비상 당대회 400
- 몽골인민혁명당 제10차 당대회  
343, 344, 350, 363

- 몽골인민혁명당 제12차 당대회 347, 359
- 몽골인민혁명당 제13차 당대회 352, 360
- 몽골인민혁명당 제14차 당대회 370
- 몽골인민혁명당 제15차 당대회 371
- 몽골인민혁명당 제17차 당대회 (1976) 376
- 몽골인민혁명당 제5차 당대회 325
- 몽골인민혁명당 제7차 315
- 몽골인민혁명당 제8차 대회 310
- 몽골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299, 305, 308, 314, 317, 344, 351, 359, 400, 401
- 몽골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 395
- 몽골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 397
- 몽골인의 역사 101, 135
- 몽골자유노동당 404, 405
- 몽골족의 부흥 252
- 몽골-중국 236
- 몽골-중국-러시아 삼국 회담 257
- 몽골통신사(MONTsAME) 358
- 몽골통일당 404, 405
- 몽골-티베트 236
- 몽골-티베트과(課) 283
- 몽골혁명청년동맹 383
- 몽골혁명청년연맹 중앙위원회 351, 397
- 몽골화된 투르크인 94
- 몽달비록(蒙鞑備錄) 124
- 몽울실위(蒙兀室韋) 91
- 무갈 제국 196
- 무교(巫敎) 172
- 무르도르지(L. Mördorj) 366, 388
- 무술리니 315
- 무슬림 상인 156
- 무칼리(Muqali) 108, 116, 118, 123, 124, 126, 129
- 무함마드 샤 126
- 묵넨(瀋陽) 200
- 묵철(默蹶) 카간 60
- 묵특 선우 55, 62, 75
- 문화층 35
- 몰자중앙위원회(Belegdeliin töv kommis) 337
- 몽군 모리트(Möngön morit) 슴 68
- 몽케 138, 144, 147, 157, 166
- 몽흐바트(J. Mönkhbat) 390
- 미국 224, 241, 243, 256, 289, 339, 375, 417
- 미누신스크 분지 59
- 미로노프(S. N. Mironov) 316
- 민생산협동조합 359
- 민족 해방 혁명 과정 260
- 민족·민주 발전 노선 314
- 민족·민주주의 314
- 민족의 안보 기초 425
- 민주 연합 409
- 민주공화제 국가 315
- 민주사회주의운동 399, 400
- 민주주의 303, 307
- 민주주의 국가 429
- 민주화 402, 425
- 민주화 개혁 403
- 민주화 운동 394, 395
- 바가노르 378
- 바그다드 138
- 바담도르지 266
- 바드라흐(Ö. Badrakh) 297, 308, 311
- 바론 우르구(Baruun örgöö) 89
- 바르가[巴爾虎] 253, 260, 279
- 바르가족 255, 256, 265
- 바르칸(barkhan) 191
- 바아린(Baarin) 아이막 199
- 바이아드(Bayad) 234
- 바이아우드 87
- 바안 울(Bayan uul) 281
- 바얀(Bayan, 伯顏) 150
- 바얀릭(Bayanlig) 34, 46
- 바얀작(Bayanzag) 39
- 바얀작의 주거 유적 39
- 바얀홍고르(Bayankhonggor) 33
- 바얀홍고르 아이막 383
- 바이 발리크 78
- 바이드락(Baidrag) 387
- 바이링가(Bailingga) 226
- 바이바가스(Baibagas) 바아타르 206
- 바이싱(Bayishing, 板升) 182
- 바이칼 호 55, 56, 61, 93, 112, 195, 265
- 바이칼로프(K.N. Baikalov) 289
- 바이타그 북드(Baitag Bogd) 61, 340
- 바자르샤드(Ch. Bazarshad) 281
- 바키치(Bakich) 288, 289
- 바타치 칸 88, 89
- 바투 136, 137, 144, 154, 165
- 바트몽흐 다얀(Batmönkh Dayan) 칸 175, 181, 182
- 바트몽흐 칸 175
- 바트소리(J. Batsuur') 84

- 바트-오치르(Bat-Ochir) 262, 300, 352  
 바트첵겔(Battsengel) 슴 69  
 바트한(E. Batkhaan) 290  
 박(bag) 216, 301  
 반(半)식민지 241  
 반(反)혁명 세력 313  
 반(反)혁명분자 315, 316  
 반다노프(Vandanov) 288  
 반디(Bandi) 장군 209  
 반제국주의 투쟁 242  
 발간(S. Balgan) 353  
 발주나 호수 120  
 발흐 143  
 밤바수렌(D. Byambasüren) 405, 414  
 백군 280, 282, 288, 289  
 백호장 65  
 백화수피 법률 문서 233  
 버마 152  
 범(汎)몽골국(Narmai Mongol uls) 265  
 베르케 137  
 베이스 치메드도르지(Beis Chimeddorj) 279  
 베이징 148, 219, 255, 266, 303  
 베이징 주재 러시아 공사 250  
 베이징성명 256, 262  
 베일(veil) 98, 260  
 베트남 152, 341  
 벨구테이 130, 164, 164  
 벨기에 256, 300  
 벨라 4세 136, 165  
 변발(辮髮) 229  
 보도(D. Bodo) 278, 283, 294  
 보돈차르(Bodonchar) 85, 92, 93  
 보디차리아 아바타라 (Bodhichariya avatara) 170  
 보르-운두르(Bor-Öndör) 378  
 보얀시리(Buyanshiri) 칸 179  
 보오르추 108, 117, 118, 125, 129  
 보이르 호수 90, 269  
 보좌관(tuslakh tüshmel) 216  
 보통 학교(Erönkhii bolovsrolyn surguul') 385  
 복드 게젠 279, 284  
 복드 쟈준담바 216  
 복드 한 울 164  
 복드 황제 252, 260, 262, 266, 274, 277, 283, 293, 297, 299  
 복탁(bogtag) 모자 166  
 본타르(J. Buntar) 388  
 불가강 134, 136  
 불가(Булган) 아이막 191  
 볼란 데르스(Bulan ders) 334  
 볼로르 에리흐(Bolor erikh, 水晶念珠) 233  
 볼로르 톨리(Bolor toli, 水晶鑑) 233  
 볼세비즘 304, 307  
 뽀첸드(G. Bumtsend) 288, 347  
 봉건 귀족 309  
 봉지(qubi) 144  
 부(副)맹장(ded chuulgan-u darga) 215  
 부구티 살지 92  
 부권제 사회 40  
 부랴트 265, 279  
 부랴트인 315  
 부렉항가이(Büregkhangai) 70  
 부렌스키(Bürensky) 조약 217  
 부렌축트 358  
 부르칸 칼둔 88, 92, 164  
 부르테 치노아 88, 89  
 부리 부케 164  
 부민(Bumin, 土門) 카간 60, 89  
 부장군(副將軍, tuslagch jangjin) 215  
 부족 43, 44, 55, 99  
 부족 연합(체) 43, 44, 55, 93, 99, 102  
 부족 연합체의 지도자 44  
 부총리 404  
 부카 소치가이 169  
 부쿠 하타기 92  
 부하라 126, 196  
 북 카프카스 산맥 126  
 북(北)카프카스 144  
 북7오륙 176  
 북경 211, 213, 217  
 북두칠성경 170  
 북로풍속(北虜風俗) 189  
 북중국 134, 138, 147  
 북홍호 57  
 분홍색 바우처 411  
 불가르 136, 143, 144  
 불가리아 340, 357, 394  
 불교 130, 151, 157, 172, 192, 219  
 불제자(佛弟子) 247  
 붉은 광물 물감(zos, 赭石) 45, 46  
 붉은 군대 337  
 브레즈네프(L. I. Brezhnev) 374  
 브리가드(Brigad) 390  
 브세바트스키(P. Vsevyatskii) 300  
 블라디미르 공국 136  
 블라 디 미 르 초 프 (B. Ya. Vladimirtsov) 100  
 비(非)마르크스주의 350  
 비(非)자본주의 노선 309  
 비단길 70, 76, 121, 132, 156, 159  
 비몽맹국회의 428

- 비시렐트 왕 도르지체렌(Bishrelt van Dorjtseren) 279
- 비이스크(Biisk) 224
- 비자본주의 313
- 비자본주의적 발전 347
- 비잔틴 제국 79
- 비체치(bicheech) 216
- 비칙틴 암(Bichigtiin am) 46
- 빌게 카간 90
- 빌렉투 178
- 빨강 게르(Ulaan ger) 326
- 빨강 코너(Ulaan bulan) 326
- 빨치산 280
- ㅅ**
- 사강 세첸(Sagan Setsen) 191, 192
- 사라이 143
- 사룰 구니 호쇼 289
- 사룰 구니 후레(Saruul günii khüree) 288
- 사룬카간[社崙可汗] 55, 73
- 사르타굴(Sartagul, 호레즘) 126
- 사르탁 120
- 사리닥인 히드(Saridagyn khiid) 192
- 사리산(Sarisan) 234
- 사립 학교 422
- 사마르칸드 126
- 4만 오이라트 175, 202
- 사슴돌(bugan khöshöö) 42, 47~49, 72
- 49호쇼 204
- 사유화법 411
- 사인노얀 아이막 202, 226
- 사인노얀(Sain noyan)한 아이막 215, 226
- 사인산드(Sainshand) 358
- 사차 베키 109
- 사체합벽(四體合璧) 232
- 사회 보장 정책 424
- 사회 보험법 424
- 사회주의 305, 308, 309, 313~315, 341, 343, 360, 369, 370, 377, 393, 394, 425, 428
- 사회주의 건설 309, 374
- 사회주의 사회 건설 370
- 사회주의 이념 395
- 사회주의 체제 426
- 사회주의 체제 위기 394
- 사회주의 헌법 345
- 사회주의당 303
- 삭사인 후레(Sagsain khüree) 288
- 산도(Sando, 三多) 247, 251, 252
- 산베이신 후레(San beisiin khüree) 288
- 산스크리트어 170, 190, 231, 232
- 살히트(Salkhit) 378
- 삼단(D. Samdan) 353
- 삼랍 민(Khoyn irgen) 89, 96, 100, 102
- 삼보(J. Sambuu) 370
- 삼성 메르키트 96
- 삼십성 타타르 90, 96
- 삼십성(三十姓) 89
- 상·하 양원(兩院) 259
- 상긴 호트(Sangiin khot) 226
- 상업 조합 359
- 상업발전은행 412, 415
- 상점(püüs) 222
- 상호 불가침 조약 336, 337
- 상호 원조에 대한 의정서 335
- 새 거울 271
- 색목인(色目人) 150
- 샤라브 생게(Sharab sengge) 170
- 샤라브(B. Sharav) 272
- 샤라브도(Yo. Sharavdoo) 367
- 샤라브도르지(L. Sharavdorj) 388
- 샤르 부스 오르두 192
- 샤르 부스(Shar bös) 궁정 187
- 샤르 탈(Shar tal) 199
- 샤르 투지(Shar tuuj) 181, 191, 233
- 샤르 하드(Shar khad) 281
- 샤르벨(Sharbel) 211
- 샤머니즘(무교) 117, 130
- 샤비 216, 220, 280
- 샤다르(Ch. Shagdar) 365
- 산조드바 다사자브(Shanzudba Dashjav) 279
- 산조드바(Shanzudba) 관청 216
- 삼바(Shamba, Jambal) 자삭 192
- 서 투르크스탄 124
- 서독 375, 394
- 서량부 127
- 서로마 제국 79
- 서몽골 175, 176, 182, 217
- 서몽골 인민 정부 289
- 서북 인도 79
- 서사협정(Tangaragiin geree, 誓詞協定) 293, 300
- 서위(西魏) 57
- 서하(西夏) 107
- 석인상 69, 72, 74, 167
- 석탄 156, 365
- 선(腺)페스트 368
- 선비 55~57, 64, 73~76, 85, 91
- 선비 계통 91
- 선비 부족 85
- 선비의 수복(須卜) 씨 55

- 선우 56  
설해(雪害) 71  
성무친정록(聖武親征錄) 171  
성전(聖戰) 107  
세계(Orchlon) 396  
세계무역기구 428  
세계보건기구 390  
세계은행 416, 424, 427, 428  
세계인권선언 397  
세계정복자사 146, 171  
세레테르(D. Sereter) 390  
세미레치에(七河 유역) 126  
세미하 126  
세브지드(Ts. Sevjid) 389  
세상(Ertönts) 396  
세첸 흥타이지(Setsen Khungtaiji) 183  
세첸(Setsen) 칸 182  
세첸한 마니바다르(Manibadar) 212  
세첸한 솔로이(Sholoi) 200, 203  
세첸한 아트체드(Artsed) 228  
세첸한 아이막 231  
세첸한(Setsen khan) 225, 266  
셀렝게 강 325  
셀렝게(Selenge) 163, 189, 281, 387  
셀주크 투르크 153  
셉텐발지르(Sevdenbaljir) 210, 211  
셴게(D. Sengge) 365  
셴굴 111  
셰틴킨(P. E. Shetinkin) 288  
소(小)칸의 시대 175  
소그드(Sogd, 粟特) 76, 79  
소눔가라(Sonomgara) 170  
소눔체렌(Sonomtseren) 272  
소대형(蕭大亨) 189  
소드놈(B. Sodnom) 350  
소드놈체렌 352  
소련 303, 309, 311, 315, 318, 325, 329, 335~339, 344, 345, 353, 355, 357, 358, 364, 386, 393~395, 397, 416, 425  
소련 군대 428  
소련 내무인민위원회 316  
소련공산당 제20차 전당대회 349  
소련에서 일어난 개혁 운동 394  
소르카타니 베키 카툰 138  
소르칸 시라 117  
소만 우르투(suman örtöö) 217  
소미야(Sum'yaa) 272  
소브몽골금속(Sovmongol metall) 357  
소비에트 281, 289, 295, 300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USSR) 336  
소비에트 적군 282, 283, 289  
소비에트 정부 276~278, 282, 283, 290, 291, 298  
소비에트군 288  
소아시아 153  
소오명(小五明) 231  
소요보(Soyombo) 문자 190  
소유르갈(soyurgal, 賜興) 150  
소간국(qanlig ulus) 95, 96  
소하레프(Sukharev) 287  
손도이 궁(Sundui gün) 287  
솔린헤르쑤(Sulinkheer sum) 255  
쑤(sum) 34, 216, 301  
쑤의 장기(sumiin zangi, 佐領) 216  
쑤후(B. Sumkhüü) 388  
쑤드 에리흐(Suvd erikh, 珊瑚念珠) 233  
송(宋) 61, 98, 99, 107, 208  
송가르 강[松花江] 91  
송긴 하이르한(Songin khairkhan) 166  
쇠똥(부스러기 쇠) 167  
수니드(Sönid) 172, 219  
수닥(술다이야) 126  
수도 신문 271  
수렌자브(Ch. Sürenjav) 353, 354  
수렵(狩獵, qaidag aba) 163  
수릭 바드롤라흐(Süriig badruulakh) 166  
수바시드(Subashid) 170  
수베에데이 125, 126, 136  
수석 부총리 404  
수흐바타르 278, 280, 281, 283, 290, 297, 328, 352, 358, 366  
수흐바타르 장군 281  
수흐바타르(D. Sükhbaatar) 261  
수흐바타르(G. Sukhbaatar) 375  
수흐바타르(Sükhbaatar) 40  
순경부(巡警部) 245  
순방영(巡防營) 245  
순치제(順治帝) 202  
술테스 87  
술타니아(Sultaniya) 145  
쑤메 함바(Sümbe khamba) 233  
쑤메르(Sümer) 380  
숭덕(崇德, degedü erdemtü) 200  
숭덕제 202  
쉬수정(徐樹錚) 266, 274  
술레지엔 136  
스미르노프(B. Smirnov) 366  
스미르노프(I. N. Smirnov) 316  
스웨덴 300  
스탈린 315, 318, 347

- 스탈린주의 350  
 스트레이트 243  
 스페인 242, 375  
 스포츠 중앙 궁전 368  
 슬로바키아 136  
 승려 247  
 승상 150  
 시기 쿠투쿠(Sigi qutuqu) 116, 125, 169  
 시라 오르두(Sira ordu) 137  
 시라무렌 강 55, 59  
 시레 차간 노르(Shiree tsagaan nuur) 187, 201  
 시레문 137  
 시르넨담딘(Shirnendamdin) 290  
 시르다리아 강 144  
 시리아 153  
 시링허(헤를렌 강) 98  
 시베리아 195, 362  
 시베리아 동부 195  
 시베리아 서부 195  
 시벨렌 울(Shiveelen uul) 288  
 시비르 칸국 160  
 시시게드 골(Shishiged gol) 213  
 시장 경제 제도 410  
 시장 제 체제 415  
 시제(Z. Shijee) 308  
 시학 156  
 식민주의 242  
 식민지 241, 242  
 신(新)시대(Shine üe) 396  
 신강(新疆) 254  
 신석기 시대 38, 39, 46  
 신시대 397  
 신전환 정책(Shine ergeltiin bodlogo) 313, 314, 315, 326, 329, 330
- 신경 245, 246, 248, 250  
 신정부(新政府) 252, 254  
 신진보연맹(Sine devshilt khol-boo) 399, 400  
 신해혁명(辛亥革命) 245  
 실린 골(Shilin gol) 254, 255  
 실위 91  
 실크로드 56  
 십삼익(十三翼)의 전투 109  
 12간지 73, 77  
 12오독(otog) 176  
 십자군 전쟁 153  
 십진법 체계 98  
 10호(戶) 301  
 십호장 65  
 쑨 윈[孫文] 255
- 아구(Agu) 90  
 아드리아 해 136  
 아라산 하드(Rashaan khad) 34, 46  
 아라산 하드의 주거 유적 35  
 아랍 문자 79  
 아랍 171  
 아랍연맹(Arab League) 342  
 아랍인 170  
 아룩타이(Arugtai) 칸 179, 180  
 아르 엘스테이(Ar elstei) 204  
 아르구산 호르치(Argusan khu-urch) 172  
 아르구산 호르치의 설화 172  
 아르군 강 55  
 아르메니아(어) 136, 145, 171  
 아르반(arvan, 十戶) 216  
 아르츠 북드(Arts bogd) 34
- 아르탁(T. Artag) 390  
 아르항가이 311  
 아르항가이(Arkhangai) 아이막 69, 85  
 아르히(arkhi, 증류주) 164  
 아를루트 87  
 아릭 부케 138, 147  
 아마르(A. Amar) 303, 306, 316 ~318  
 아마르사나(Amarsanaa) 210~213  
 아메리카 241  
 아무다리아 강 124, 143  
 아무르 강[黑龍江] 91  
 아바하이 200  
 아바하이 칸 199  
 아바하이(홍타이지[皇太極]) 199  
 아브가(Avga) 219  
 아브가 하르 울(Avga khar uul) 198  
 아브라가 골(Avraga gol) 98  
 아브라가 궁정 166  
 아브라가(avraga) 궁정 101  
 아브타이 사인(Avtai sain) 칸 186, 189  
 아브타이(Avtai) 칸 182  
 아사나(阿史那) 씨 59, 60  
 아산 120  
 아수드(Asud) 199  
 아스락치 네르틴 투흐(Asragči nertiin tüükh) 192  
 아스트라칸 칸국 160  
 아시아 241, 315, 341  
 아시아 개발은행 427  
 아시아 기병대 278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427  
 아시아·태평양 연안 국가(ASEAN) 427

- 아시아개발은행(ADB) 416, 427, 428
- 아시아의 네 마리 용 427
- 아요르자나(T. Ayurzana) 365
- 아요시(L. Ayushi) 226, 339
- 아우룩(aurug, 奧魯) 궁정 98
- 아유시 구시(Ayush guush) 190
- 아이락(airag, 馬乳酒) 164
- 아이 막(aimag) 33, 197, 217, 220, 244, 260, 301
- 아일(ayil, 家戶) 188
- 아제르바이잔 126, 136, 145
- 아츠 암테이(Ats Amttai) 208
- 아타 말릭 주베이니(Ata Malik Juvayni) 146, 171
- 아틸라(Attila) 79
- 아프가니스탄 143
- 아프리카 241, 341
- 아흐마드 칸 160
- 악대말[去勢馬] 162
- 안다(anda, 맹우) 96, 109, 108
- 안다(anda, 의형제) 44
- 안서(安西) 76
- 안전보장이사회 429
- 알라샤(Alshaa) 216, 254
- 알라코시 디기드 코리 120
- 알락 베키 공주 125
- 알란 고아(Alan Goa) 37, 92, 93
- 알렉산드르 네프스키(Alexandr Nevsky) 154
- 알루미눔 365
- 알리-갈리(Ali-gali) 문자 190
- 알바니아 341
- 알바투(albatu[屬民]) 225
- 알제리 341
- 알타이(Altai) 30, 164, 195, 196, 311, 328
- 알타이 산맥 55, 59, 60, 61, 84, 93, 112, 118, 164, 196, 211
- 알타이 오랑하이 254, 289
- 알탄(Altan) 109, 111, 130, 281
- 알탄 칸 182, 183, 186
- 알탄 칸 법전 191
- 알탄 톱치(Altan tobči, 黃金史) 113, 163, 181, 191, 233
- 알탄 후르텐 망간 히게스트 비직 [金輪千輻] 233
- 알탄불락(Altanbulag) 283, 324
- 암가예프(M. Amgaev) 304, 305
- 암가이(Amgai) 칸 57
- 암각화 45
- 암바가이 노얀 99
- 암바가이 칸 99
- 야담수렌(Ü. Yadam Süren) 367
- 야르가이(Yargai, 寧夏) 127
- 야르칸드 196
- 야르힌 울(Yarkhyn uul) 34, 35
- 야보홀란(B. Yavuukhuulan) 388
- 야율(耶律) 씨 60
- 야율초재(耶律楚材) 157
- 알타 회담 338, 339
- 에긴 골(Egiin gol) 428
- 에렌(Ereen) 281
- 에르구네 강(아르군 강) 91, 120
- 에르구네 쿤 83, 87, 88, 89
- 에르구네 쿤의 몽골인 87, 92
- 에르데네(S. Erdene) 388
- 에르데네 산조드바 아문 248, 260
- 에르데네 산조드바(Erdene Shanzudba) 220, 245
- 에르데네트 376, 378, 379, 412, 428
- 에르데니 조(Erdeni zuu) 사원 186
- 에르데니 주 사원 192
- 에르데니바아타르(Erdenibaatar, 1635~1654) 홍타이지 206
- 에르데닌 에리흐(Erdeniin erikh, 寶貝念珠) 204, 233
- 에르데닌 톱치 181, 191, 192
- 에밀 137
- 에센(Esen, 也先) 180
- 에센 칸 181
- 에센 타이시 180
- 에즈네(Eznee) 216
- 엑-우르(Eg-Üür) 362
- 엘데브-오치르(B. Eldev-Ochir) 308
- 엘벡도르지 린치노(Elbegdorj Rinchino) 298
- 앵흐사이한(M. Enkhsaikhan) 415
- 앵흐타이왕(Enkhtaivan) 226
- 여진 60
- 여진 계통 196
- 여진인 61, 163
- 여진족 96, 102, 197
- 역사 서술 156
- 역참(驛站) 134, 135, 138, 145, 156, 212, 216, 217, 255, 321
- 역참역(驛站役) 217
- 연경(燕京) 107
- 연운16주(燕雲十六州) 60
- 열하(熱河) 338
- 염철론(鹽鐵論) 71
- 영국 108, 224, 241, 242, 256, 289, 300, 312, 339, 375
- 영국 리버풀 박물관 191
- 영락제(永樂帝, 成祖) 179
- 영북행성(嶺北行省) 148
- 영사관 언덕 그룹 275, 276
- 영종(英宗) 180
- 에니세이 강 175

- 예수게이 바아타르 96, 99, 108  
 예케 자르쿠치(yeke jarγuči, 大斷  
 事官) 116  
 오논(Onon) 강 61, 88, 108, 112,  
 113, 179, 278  
 오늘트(Onolt) 226  
 오다이(Udai) 254  
 오돈(G. Odon) 389  
 오드발(S. Udval) 388  
 오르도스(Ordos) 55, 99, 183, 199  
 오르도스 지방 176  
 오르도스 호쇼 225  
 오르두 발릭(Ordu balig) 61  
 오르톡(ortog, 鞏脫) 121  
 오르트나산(O. Urtnasan) 388  
 오르틴 도[長歌] 59, 73, 77, 419  
 오르혼(Orkhon) 163, 189, 365,  
 387  
 오르혼 강 56, 61, 63, 163, 325  
 오르혼 분지 61  
 오르혼톨(Orkhontuul) 380  
 오세아니아 241  
 오손(烏孫) 76  
 오스트레일리아 375  
 오스트로프스키(Ostrovskii) 288  
 오스트리아 빈 136  
 오윤(E. Oyun) 366  
 오이고린 하트(Oigoryn khad) 46  
 오이도브(Ch. Oidov) 366  
 오이라트 179, 180~182, 187,  
 201~204, 210, 211, 232, 367  
 오이라트 몽골(준가르 칸국) 205  
 오이라트 몽골인 197, 205, 211  
 오이라트 자삭 220  
 오이라트 회맹 206  
 오이라트(서부) 몽골인 196  
 오종 가축 30, 120, 161  
 오체청문감(五體清文鑑) 232  
 오치로프(Ochirov) 305  
 오치르 차간(Ochir tsagaan) 호트  
 (khot, 市) 198  
 오치르다라(Ochirdara) 불상 192  
 오치르바트 405, 428  
 오코나(Ukhuna) 124  
 오톡(otog) 197, 216  
 오토공 탕게르 164  
 오토라르(Otrar) 125, 126  
 오한(敖漢) 199  
 오환(烏桓) 56  
 옥토르구인 달라이 랍잡바(Ogtorgüin  
 dalai rabjamba) 187  
 울란 보라(Ulaan buraa) 201  
 울란 보탕(Ulaan butan) 207  
 울란곰(Ulangom) 289  
 울랑하이(D. Ulankhai) 388  
 울론 슴(Olon süm, 내몽고) 191  
 울리르스 102  
 울리아스타이(Uliastai) 214, 226,  
 248, 254, 265, 288  
 울리아스타이 장군 218  
 울리아스타이-울란곰 325  
 울자 강 109  
 울쿠누드[烏洛侯] 101  
 옷치긴 125, 133, 163  
 옷치긴 노얀 163  
 옹곤(부적 인형) 186  
 옹곤(Ongon) 슴 40  
 옹구트 96  
 옹구트족 120  
 옹기(Ongi) 32, 61  
 옹니구드(Ongnigud) 200  
 옹칸[王汗] 110, 111  
 왕간(L. Vangan) 366  
 왕궁 71  
 왕긴 후레(Vangiin khüree) 287  
 외(gadaad) 215  
 외교 정책의 기초 425  
 외국인투자법 416  
 외기(外旗) 216  
 외몽골 214, 215, 217, 220, 221,  
 224, 230, 243, 244, 252~256,  
 264, 266, 303, 338, 339  
 외몽골 통치기관[理藩院] 214  
 외무 인민 위원 281  
 외무부 249, 367  
 우3만호 176  
 우구데이 133, 137, 138, 143, 166  
 우구데이 칸 133~137, 164, 166  
 우랑하이 234  
 우랑하이드 87  
 우랑하이부 179  
 우롱구(Öröngö) 211  
 우르젠치 126  
 우문고비 아이막 383  
 우부르항가이 311  
 우순(Usun) 노인 117  
 우파(Baruuntan) 306, 315  
 우호·협력 및 상호 원조에 관한 조  
 약 374  
 옥구려(郁久闐) 55, 56, 85  
 운게른 282, 288  
 운게른 군대 283  
 운게른 남작(Baron Ungern) 278,  
 279, 282, 287, 288  
 운두르 게젠 자나바자르(Öndör  
 geegen Zanabazar) 190, 192,  
 206  
 운드르한(Öndörkhaan) 328  
 울드(Ööld) 230, 254  
 울드 몽골인 212  
 울란바토르 166, 187, 201, 301,

- 316, 325, 327~329, 335, 345, 357, 358, 367, 376~378, 413, 428
- 울란바토르-날라이흐 329
- 울란바토르-자민우드(Zamyn Üüd) 358
- 울란바토르-운드르한(Öndörkhaan) 325
- 울로후[烏洛候, 울쿠누드] 91
- 올지트(Ölziit) 33
- 원(元) 148, 150, 159, 162
- 원 몽골 부족 89, 93
- 원 몽골어 48, 55, 94
- 원 제국 151
- 원 제국의 칸 150
- 원(原) 몽골 부족 연합체 97
- 원로회의 116
- 원사(元史) 171
- 원센다(Arshaan) 222
- 원탁회의 401
- 월지(月氏) 55
- 위구르 59~61, 73, 76, 95, 169
- 위구르 문자 73, 79
- 위구르 부족 61
- 위구르 시대 73
- 위구르 제국 61
- 위구르어 170
- 위구르인 73, 79
- 위대한 기원의 칸(övög yazguur khaan) 98
- 위렵(圍獵) 68, 120
- 위안 스카이[袁世凱] 255
- 유고슬라비아 340
- 유네스코 385
- 유행(yüüden, 비바람막이 모자) 166
- 유라시아의 초원 시대 47
- 유러(Eröö) 163, 387
- 유렐(erööl, 축가) 234
- 유럽 340
- 유럽 사회주의 국가 393
- 유럽인 78
- 유목(이동 목축) 43, 100
- 유목민 67
- 유목민 자문회의 356
- 유목민의 나라[行國] 68
- 유연(柔然) 55~57, 59, 64, 72, 73, 76, 83
- 유연 국가 89
- 유연 시대 73
- 60갑자 달력 73, 103
- 윙시에부(Yüingsheebü) 199
- 은(銀)나무 167
- 은전(銀錢) 323
- 은행법 411
- 응창부(應昌府) 178
- 의학 156
- 이교도(異教徒) 107
- 이날축(Inalchuk) 125, 126
- 이라크 145
- 이란 134
- 이르쿠츠크 271, 278
- 이르쿠츠크 수로국(水路局) 328
- 이르티시 강 134, 143, 144, 175
- 이번부(理藩部) 245
- 이번원칙례(理藩院則例) 214, 220
- 이슈테이 131
- 이승계 164, 169
- 이슬람 제국 138
- 이슬람교 107, 130, 151, 157
- 이슬람교 사원 167
- 이시겐 톨고이(Ishgen tolgoi) 46
- 이시발라[沙鉢略] 카간 61
- 이시발지르(Ishbaljir) 233
- 21 다라모볼 192
- 21 다라불상 235
- 이제이(以夷制夷) 196
- 이질(불가) 강 143, 144, 201, 205
- 이집트 153
- 이친호를로(D. Ichinkhorloo) 366
- 이케레스 87
- 이탈리아 107, 241, 333
- 이흐 샤티비(Ikh shavi) 220, 248, 260, 321
- 이흐 자삭(대금법) 112
- 이흐 후레(Ikh Khüree, 庫倫) 187, 201, 223, 231, 245, 248~252, 265
- 인금지국(引弓之國) 56
- 인도 76, 124, 143, 172, 187, 190, 236, 341, 428
- 인도네시아 341
- 인민 임시 정부 280, 282, 283
- 인민 입헌제 정부 284
- 인민 정권의 제한군주제 몽골 289
- 인민 정부 287, 289, 293, 314, 321, 323
- 인민 제한군주제 294, 297
- 인민 주권의 제한군주제 284
- 인민공화제 301
- 인민대회 370, 373
- 인민대회의 401, 403, 404
- 인민대회의 의장단 370, 373
- 인민대회의(Ardyn Ikh Khural) 350
- 인민비상회의(Ardyn tür khural) 400
- 인민은행(Ard bank) 415
- 인민의 땅 352
- 인민의용군 280, 281, 283, 289

인민혁명 20주년 기념 367  
 인민혁명당 307  
 인지나시(Injinash) 233  
 인터넷 135  
 인터코스모스 위성 387  
 일 칸국 138, 145, 149, 159  
 일두치(ildučī) 118  
 일등 타이지 룽산체벤  
 (Luvsantseveen) 278  
 일리 강 144  
 일리(ili) 56, 216, 219  
 일리·타르바가타이 56, 61  
 일본 152, 224, 241~243, 255, 256,  
 265, 276, 282, 289, 315~318,  
 333, 335, 336, 375, 417  
 일본 군국주의 339  
 일본 스파이 316  
 일본-만주국 335  
 일지겐 87  
 임시 정부 251

ㄷ

자나가라브(Zanagarav) 211  
 자나바자르(Zanabazar) 187, 201,  
 204, 235  
 자니베코프(V. Janibekov) 387  
 자다란 108  
 자담바(N. Jadamba) 303, 306  
 자루드(Jaruud) 199  
 자무카 108~111  
 자미얀(S. Jam'yan) 262  
 자민다와(B. Jamindagva) 389  
 자본주의 298, 393  
 자브한 311, 328  
 자삭 노얀 토포호투르(Togtokhtör)  
 228

자삭 호쇼(zasag khoshuu, 札薩  
 克旗) 215, 220  
 자삭(호쇼의 장) 260  
 자삭트(Zasagt) 한 182, 183  
 자삭트한 203, 226  
 자삭트한 발디르(Baldir) 212  
 자삭트한 수바다이(Subadai) 200  
 자삭트한 아이막 225  
 자스(jas) 221, 229  
 자스라이(P. Jasrai) 414  
 자야 반디다 남하이잠츠(Zaya  
 bandida Namkhajamts) 187,  
 190, 232  
 자야 반 디 다 룽 산 페 렌 레 이  
 (Luvsanperenlei) 233  
 자얀 계겐 후레 288  
 자얀 후레(Zayan khüree) 287  
 자영민 102  
 자우트 쿠리(Ja'ut quri) 110  
 자이산 톨고이(Zaisan tolgoi) 389  
 자작나무 191  
 자치 외몽골 264  
 자치국 지위 철폐령 266  
 자흐친 254  
 작 바이드라긴 후렌 벨치르 203  
 잔찬 노 로 브 (N. Jantsannorov)  
 389  
 잘라이르 97  
 잘라퐁가(Jalafungaa) 211  
 잘란(zalan, 扎蘭) 216  
 잘한즈 호탁트 담딘바자르 266,  
 279  
 잘한진 후레(Jalkhanlzyn khüree)  
 287, 288  
 잠발론(Jambalon) 279  
 잠스란(L. Jamsran) 376  
 장가르(Janggar) 171, 234

장건(張騫) 76  
 장관 404  
 장궁(長弓) 64  
 장자커우[張家口] 338  
 장제스[蔣介石] 342  
 장티푸스 368  
 저복(阻卜) 90  
 적군 연합군 283  
 전(全) 몽골 94, 96~99  
 전 몽골 소칸국(Qamug mong-  
 gol-un qanlig ulus) 97  
 전(全) 몽골국 84, 89, 98, 99,  
 108, 109  
 전세(轉世) 220  
 전체주의 체제 315  
 전통 몽골 문자(Mongol bichig)  
 420  
 정부 훈장 420  
 정부종합청사 367  
 정치 고문 베키(beki) 117  
 제11기 인민대회의 제8차 대회 402,  
 404  
 제11기 인민대회의 제9차 대회 403  
 제12기 인민대회의 제1차 대회 405  
 제18회 하계 올림픽 390  
 제1차 5개년 계획(1948~1952)  
 356  
 제1차 세계대전 264, 270  
 제1차 인민생산협동조합 360  
 제2차 세계대전 349, 336, 344,  
 355, 365  
 제2차 청년작가회의 397  
 제3대 복드 쩌준담바 호탁트 220  
 제8차 회의 309  
 제9회 인스부르크 동계 올림픽  
 390  
 제국주의자 313

- 제베(Jebe) 123, 125, 126, 129  
 제정러시아 242, 243, 249, 250, 255~257, 260~265, 270, 271  
 제한(입헌)군주 291, 299  
 제한(制限)군주 284, 295  
 제한인민국가 헌법(Khemjeet jasagtai Ard ulsyn Ündsen khuul') 300  
 제한입헌인민국가 293  
 켈메 108, 117  
 켈테르(Zelter) 362  
 켈준담바 204, 240, 247~249, 251~253, 265, 286  
 켈준담바 호탁트(Jevzündamba khutagt) 212, 251, 258  
 조공(趙珙) 124  
 조도브자브 암반(Jodovjav amban) 288  
 조라긴 올란 하트(Zuraagyn ulaan khad) 46  
 조르가다이 129  
 조사국(調查局) 245  
 조선(북한) 341  
 조세법 411  
 조지 부시 427  
 조힌 소린(Zuukhyn suurin) 39  
 존 모드 208  
 중주권하의 자치국 262, 264  
 좌3만호 176  
 좌익(左翼, züüngar ← jegün Yar) 206  
 좌과 309~311  
 주(駐)올리아스타이 장군 213  
 주르호니 툴리트(Jirüken-ü tolitu) 169, 190  
 주인(신령) 40  
 주치 136, 137, 143, 144  
 주치 울루스(Jochi ulus, 킵차크 칸국) 144  
 죽테르(Jügger) 272  
 준가르 210, 212  
 준가르(Züüngar) 칸국 205~207, 209, 210  
 준불락(Züünbulag) 357  
 중개 무역 70  
 중국 70, 79, 84, 98, 124, 303, 323, 341, 417  
 중국 국민당 339, 340  
 중국(만주) 203  
 중국인 61  
 중국-티베트 236  
 중국화 정책 57  
 중도(中都) 124  
 중부 아시아 144  
 중서성(中書省) 149  
 중석기 시대 38, 46  
 중앙 운동장 368  
 중앙감찰위원회(Khyanan bait-saakh Töv komiss) 314  
 중앙박물관 367  
 중앙아시아 46, 55, 70, 75, 76, 79, 98, 120, 121, 134, 144, 150, 161, 169, 172, 196, 206, 209, 427  
 중앙아시아 고원 30, 67  
 중앙아시아 유목민 79  
 중앙아시아인 78  
 중앙은행 415  
 중앙통신국 329  
 중통(中統) 162  
 중화민국 257, 262~266, 278~282, 289  
 중화민국 대총통 266  
 중화민국 정부 254~256  
 중화민국군 281  
 중화민국의 중주권 264, 303  
 중화인민공화국 375, 426, 427  
 지그 275  
 지그미드 388  
 지그미드(Jigmid) 잠발론 288  
 지그지드(B. Jigjid) 367  
 중화인민공화국 176, 204  
 지농 148, 176, 182  
 지식인의 미혹 352  
 지원(至元) 148  
 지중해 124  
 지폐[鈔, 交子] 150  
 지혜보명(智慧寶明) 232  
 지휘관(daru'a) 62  
 직지드수렌(J. Jigjidsüren) 388  
 진보적 민주당 303  
 진왕(晉王) 148  
 질헤르(Jilkher) 234  
 집단화 운동 310  
 집사(集史) 90, 112, 132, 167, 170, 171
- ㄷ
- 차가타이 133, 137, 143  
 차가타이 칸국 137, 144~146, 149, 159, 160  
 차간 사르(Tsagaan sar) 74, 164  
 차간 아고이(Tsagaan agui) 34, 35  
 차간 투흐(Tsagaan tüükh, 白史) 171  
 차강 살라(Tsagaan salaa) 46  
 차이코프스키 389  
 차쿤도르지(Chakhundorj) 203  
 차하르 198, 199, 254, 260  
 차하르(Chakhar) 만호 197, 198

- 차히 오르틴 훈디(Tsakhiurtyn khöndii) 34
- 차다르자브(Chagdarjav) 251, 277
- 작다르자브(Tsagdarjav) 269
- 찬드만(Chandman') 42
- 찬드만 하르 우주르(Chandman' khar üzüür) 46
- 채옹(蔡邕) 56
- 1921년 민족·민주 혁명 284, 315
- 1932년 무장 봉기 311
- 1990년 민주화 운동 405
- 천문학 156
- 천연기념물(Red book) 387
- 천연두 368
- 천이[陳毅] 265
- 천호장 63, 65, 71, 135
- 천호제 118
- 철광산 88
- 철광석 365
- 철금속(ferrous metal) 공장 412
- 철령(鐵嶺) 198
- 청 197, 200, 221, 224, 242
- 청 황제 246
- 청년문화궁전 397
- 청동기 시대 41, 43, 46~48, 84
- 청색 바우처 411, 412
- 체데브수렌(Tsedevsüren) 269
- 체덴발 344, 351, 353, 354, 370, 376, 377
- 체덴자브(Ts. Tsendenjav) 365
- 체덴도르지(Tsedevdorj) 225
- 체렌덴테브(L. Tserendendev) 272, 367
- 체렌도르지 281, 290
- 체렌돌람(D. Tserendulam) 367
- 체렌-오치르 378
- 체렌치메드 245, 248
- 체렝(Galdantseren) 209
- 체벡미드(D. Tsevegmid) 365
- 체벡자브(O. Tsevegjav) 389
- 체벤(J. Tseven) 262, 300, 306
- 체벤도르지(Tsevendorj) 300
- 체웁랍단(Tseveenrabdan) 209
- 체체를렉(Tsetserleg)-올리아스 타이 325
- 체책 노르(Tsetseg nuur) 226
- 체코 136
- 체코슬로바키아 341, 357, 393, 394
- 첵미드(Ts. Tsegmid) 366
- 첸드(L. Tsend) 354
- 첸군잡(Tsengünjav) 211
- 첸헤르만달 358
- 초기 철기 시대 41, 46
- 초대 복드칸(Bogd Khan) 187, 192
- 초로스 206
- 초로스(Choros)부 205, 206
- 초병 212, 216
- 초병역(哨兵役) 217
- 초원 유목 67, 68, 100, 102
- 초원길 70
- 초이놈(R. Choinom) 388, 420
- 초이독(E. Choidog) 389
- 초이발산(Kh. Choibalsan) 278, 288, 309, 316, 317, 338, 343, 347, 349, 351, 428
- 초이지-오드세르(Choiji-odser) 169, 232
- 초임볼(D. Choimbol) 389
- 축달라이(Tsogdalai) 226
- 축트 타이지(Tsogt taiji) 200, 366
- 출간(chuulgan, 盟) 214, 218, 220
- 총리 404
- 총카과(Tsongkapa) 185
- 총카과교 185
- 축제(naadam) 120, 229
- 출템(N. Tsültem) 389
- 치메드(Ch. Chimed) 366
- 치미드(Ch. Chimid) 365, 388
- 치체린(G. V. Chicherin) 277
- 치타(Chita) 166, 265
- 칙령(룬넨) 258
- 친왕 나얀트(Chin van Nayant) 255
- 친왕 한드도르지 251
- 친왕(親王) 첩군잡 213
- 친왕(親王) 한드도르지 249
- 칠게르 164
- 칭가이 성 166
- 칭가이 승상 137, 163
- 칭가이(Cinggai, 鎮海) 칭상[丞相] 169
- 칭군잡 211~213
- 칭기스 109, 112, 113
- 칭기스 칸(Chinggis Khan) 88, 93, 109~111, 113~133, 135, 137, 144, 163, 164, 166, 170, 171, 198, 212, 231, 350, 418, 419
- 칭기스 칸 비문(이승계 공격비) 169
- 칭기스 칸 비석(Chinggis stone) 169
- 칭기스 칸의 구준(九駿)과 고아(孤兒)의 논쟁 172
- 칭기스 칸의 사당 199
- 칭기스 칸의 위령 199
- 칭기스 칸 탄생 840주년 419

ㄱ

- 카닥(Qadaq) 169
- 카단 99

- 카라 지루켄(Qara jirüken) 109  
 카라 툼 궁정 166  
 카라코룸 134, 137, 147, 148, 157, 163, 166, 167, 172, 179  
 카라한(L. M. Karakhan) 278  
 카르피니(Plano de Carpini) 154, 167  
 카메네프(S. S. Kamenev) 278  
 카불 칸 98, 99, 108  
 카사르 164, 169  
 카이고로도프(Kaigorodov) 288, 289  
 카이두의 반란 148  
 카이로 회의 342  
 카자흐 143, 196  
 카자흐스탄 362  
 카자흐족 254, 383  
 카잔 278  
 카잔 칸국 160  
 카잔체프(Kazantsev) 288, 289  
 카프카스 14, 134  
 칸 63  
 칸 발릭(Qan baliq, 帝都) 148  
 칸위 쟁탈전 137, 147  
 칸의 후예(Khan udam) 228  
 칼간(Khalgan, 張家口) 243  
 칼리프 138  
 캄보디아 152  
 캐나다 417  
 카흐타(Kyakhta) 224, 257, 265, 279~282  
 카흐타 삼국 협정 262, 264, 265  
 카흐타 해방 작전 281  
 카흐타 회담 262~264  
 케레이트 96, 108, 109, 111, 163, 169  
 케레이트부 111  
 코로스토크베츠 256  
 코리 투메트부 89  
 코민테른 276, 280, 298, 300, 303~309, 311, 313  
 코민테른 대표 305  
 코민테른 지도부 313  
 코민테른 집행위원회 304, 308  
 코즐로프(P. K. Kozlov) 229  
 코진(S. A. Kozin) 270  
 콩고 341  
 콩기라드 87  
 쿠데에 아랄(Ködege aral) 133  
 쿠릴타이(quriltai) 98, 109, 115~117, 125, 130, 133~138, 147, 169  
 쿠빌라이 138, 147, 148, 158, 169  
 쿠빌라이 칸[世祖] 147, 148, 150, 152, 171, 198  
 쿠이텐(Khüiten) 110  
 쿠추 137  
 쿠추모프(V. Kuchumov) 309  
 쿠케 노르(Köke na'ur) 109  
 쿠케추(Kökeçü) 117  
 쿠들라 칸 99  
 쿨란 125  
 쿨 테긴 비문 60  
 크루프스카야(N. Krupskaya) 기념 금메달 385  
 크리스토프 107  
 크림 144  
 크림 반도 126, 143  
 크림 칸국 160  
 키르기스 59~61, 95, 196  
 키릴 문자 363  
 키얀(kiyan) 87  
 키에프 136  
 킵차크 초원 144  
 킵차크 칸국(Altan ordu) 143~146, 149, 154, 160, 165, 166  
 킵차크 칸국의 백화수피(白樺樹皮) 문서 172  
  
**E**  
 타그나 토바(Tagna tuba) 254  
 타르바가타이(Tarbagatai) 56, 143, 201, 254  
 타르바가타이 산맥 143  
 타리알란(Tarialan) 287  
 타리알란 숲 288  
 타반 톨고이(Tavan tolgoi) 377  
 타브가치[拓跋] 56  
 타브리즈(Tabriz) 145  
 타이순(Taisun) 칸 180  
 타이시 99, 180, 204  
 타이지(Taij, 臺吉) 244  
 타이지 막사르자브 260  
 타이지 토그토흐(Taij Togtookh) 279  
 타이추 109  
 타이치우드 97, 99, 108  
 타지크 164  
 타타르 61, 89, 90, 94~96, 99, 110, 111, 136  
 타타르 부족 90, 109, 111  
 타타르 소칸국 83, 89, 90, 96  
 타타르인 109  
 타하르(takhar) 216  
 탁발 위[北魏] 57, 76  
 탁발부(拓跋部) 57  
 탄누(Tannu) 산맥 61  
 단이테(Nast) 222  
 탐사불락(Tamsagbulag) 39, 328  
 탐파(塔婆) 236

- 당구트[黨項] 107, 122, 123, 126, 127  
 당구트 정복 126  
 태부감(太府監) 162  
 태평양 61  
 텅스텐 365  
 테렐지 208  
 테무르 올제이투(Temür Öljeitü) 칸[成宗] 148  
 테무진 108, 109, 113, 129  
 테브톤 154  
 테스(Tes) 228  
 텔렝게드(Telenged) 부족 211  
 텡 텡게리(Teb tenggeri) 117  
 텡게르 울[天山山脈] 61, 111, 175  
 토고 336  
 토곤 타이시(Togoön taishi) 180  
 토곤테무르 158  
 토곤테무르 칸 150, 158, 159, 178, 179  
 토곤테무르의 슬픈 노래 192  
 토그릴 칸 96, 108~110, 163  
 토그토호 275  
 토드(Tod) 문자 190  
 토르구드(Torguud) 201, 254, 387  
 토목보(土木堡)의 변(變) 180  
 토울(Tuul) 강 69, 189  
 토왕(Demchüdongrov) 234  
 토홈(Tokhom) 226  
 톡토흐(Togtokh) 226  
 툴루이 133, 134, 137, 138, 143, 144  
 툴리치(tuulich, 서사시 구연가) 234  
 툴보 노르(Tolbo nuur) 288, 289  
 통치 규범 64  
 투구스테무르 178  
 투구스테무르 칸 179  
 투그릭(Tögrög) 322, 323, 415  
 투레게네 카툰 137  
 투렝기(Türemgii) 127  
 투르크 59~61, 73, 78, 79, 94~96  
 투르크 계통 59, 61, 79, 83, 91, 94  
 투르크 부족 57, 59, 60, 87  
 투르크 비문 90  
 투르크 시대 72, 167  
 투르크 제국 60, 61  
 투르크·만주(통구스 계통) 56  
 투르크·위구르 계통 56  
 투르크인 69, 70, 74, 92, 102  
 투르크화된 몽골인 94  
 투르크스탄 143, 145  
 투르판 196  
 투메드(Tümed) 183, 199  
 투메드부 182  
 투메트 186  
 투멘 자삭트(Tümen zasagt) 칸 181, 182, 186  
 투멘(tümen, 만호) 197  
 투멘족트 358  
 투르크바타르 352  
 투무르-오치르(D. Tömör-Ochir) 353  
 투브(Töv) 아이막 68  
 투석기 125  
 투시에 궁(Tüshee gün) 251  
 투시에트 201  
 투시에트(Tüsheet) 한 182  
 투시에트한 203  
 투시에트한 고편도르지 200, 203  
 투시에트한 아이막 231, 278  
 투시에트한 얀필도르지 (Yampildorj) 212  
 투시에트한 차쿰도르지 206  
 툽 테무르 159  
 통구스 78  
 통구스(함니간) 계통 91  
 트로이츠코사브스크 280, 283  
 트루바체프(Trubachev) 304  
 특별 역참역(tusgai örtöö) 219  
 티무르(Timur, Tamerlane) 160  
 티베트 76, 84, 151, 172, 184, 186, 187, 190, 205, 206, 209, 219, 236  
 티베트 티베트 코원 127  
 티베트 불교 186, 187  
 티베트 승려 172  
 티베트 홍모과 198  
 티베트어 170, 190, 191, 231~233  
 티베트인 196, 220  
 티사장 136
- ㄷ**  
 파라티푸스 368  
 파르친(Parchin) 234, 272  
 파발꾼[差役] 135  
 파스파[八思巴] 151, 169, 172  
 파시스트 337, 338, 342  
 파시스트 동맹 315  
 파시스트당 333  
 파시즘 315, 336  
 관사대신 산도 251  
 관석묘(dörvöljin bulsh, 板石墓) 41, 42, 48, 49, 55, 84  
 패자(牌子) 137  
 페레스트로이카 394, 395  
 페르시아 78, 79, 111, 145, 159,

160, 170~172  
 페를레(Kh. Perlee) 350  
 페테르부르크 249, 250, 256  
 편찬국(編纂局) 245  
 포르투갈 242  
 포즈드네에프(A. M. Pozdneev)  
 189  
 폰착(Putsag) 245, 281, 289  
 폴란드 136, 340, 393, 394  
 플로보치(플로베츠) 144  
 푸레브도르지(D. Pürevdorj) 388  
 푸레브자브 궁(Pürevjav gūn) 262  
 푸렙잡(Pürevjav) 228  
 푸른 책(Köke debter) 116  
 풀무(khyasa) 167  
 프랑스 108, 224, 241, 242, 256,  
 312, 325, 375  
 프랑스 세공사 167  
 프랑스 왕 루이 9세 167  
 프랑스의 왕 154  
 프롤레타리아 353  
 프리노프스키(M. P. Frinovskii)  
 316  
 플라노 드 카르피니 101, 135  
 필라(Fila) 1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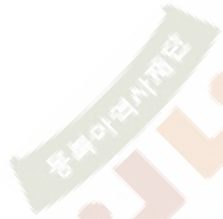
**ㅎ**

하과수렌(J. Lhagwasüren) 338,  
 388  
 하늘의 아들(tngri-yin kübegūn)  
 65, 77  
 하닌 훈디(Khanin Khöndii) 281  
 하드 우주르(Khad üziür) 46  
 하라 163  
 하르 보힌 발가스(Khar bukhyn  
 balgas) 191

하르 사이르(Khar sair) 56  
 하르달 베이스(Khardal beis) 228  
 하르친(Kharchin) 자삭 노얀 궁센  
 노로브(Güngsenorov) 231  
 하미 209  
 하미 왕국 208  
 하스바타르(Ts. Khasbaatar) 281,  
 289  
 하신 노르(Khashin nuur) 209  
 하이산(Khaisan) 249, 254  
 하탄바타르 막사르자브  
 (Khatanbaatar Magsarjav)  
 279, 288, 289  
 하트갈(Khatgal) 327  
 한 무제 76  
 한 왕조 57  
 한 하탕 골(Khan Khatan gol) 211  
 한 후히 164  
 한(漢) 왕조 55, 73, 75, 208  
 한국 417  
 한국어(한문) 171, 232  
 한드도르지(Khanddorj) 248  
 한반도 56  
 한인(漢人) 150  
 한족 상인 221, 244, 246, 274  
 한족 상인들 267  
 한해(旱害) 71  
 할리온(Khalion) 387  
 할하 176, 182, 186, 200, 201,  
 204, 205, 209, 210, 215, 233  
 할하 4아이막 249  
 할하 강변 126  
 할하 만호 182  
 할하 몽골 176, 197, 200~202,  
 204  
 할하 자삭 220  
 할하 지름(할하 법령) 233

할하(호트고이드)의 칭군잡  
 (Chingünjab) 210  
 할하(Khalkh, 외몽골) 4아이막  
 248  
 할하의 4아이막 264  
 할하의 왕궁 201, 206  
 할흐골(Khalkh gol) 268, 333, 336  
 할흐골 전쟁 336  
 할힌쑤름(Khalkhyn Sum) 334  
 함니간(Kharnigan) 91  
 향가이(Khangai) 30, 164, 387  
 향가이 산맥 55, 196  
 행정 관료(zasag noyon) 216  
 행정 자삭(zasag) 204  
 헝가리 136, 165, 341, 393, 394  
 헤를렌(Kherlen) 59, 362  
 헤를렌 강 61, 98, 110, 133, 180  
 헤를렌 분지 61  
 헨티(Khentii) 30, 164  
 헬 호르(khel khuur) 73, 77  
 협동 조합(Khorshoolol) 314,  
 361, 382  
 협동 조합(Negdel) 357  
 협동 조합 운동 379  
 호(胡) 42, 85  
 호구(戶口) 64  
 호구 조사 138  
 호드긴 톨고이(khudgyn tolgoi)  
 69  
 호라산 138, 164  
 호랑고이 알탄 톱치(Khuraangui  
 Altan tobči) 191  
 호레즘 12, 122, 124, 126, 131,  
 143, 144  
 호레즘 샤(Khorezm Shah) 123,  
 125  
 호레즘 제국 107

- 호레즘국 125  
 호르친 199  
 호르친(Khorchin) 아이막 199  
 호모 사피엔스 35, 36  
 호모 에렉투스 35  
 호보토프(Khovotov) 288  
 호브드(Khovd) 214, 216, 219, 230, 254, 265, 328  
 호브드 변경 지역 226, 264  
 호브드 예하 지역의 행정 규정 293  
 호쇼(khoshuu) 197, 217, 244, 260, 280, 301  
 호쇼 차이담(Khōshö tsaidam) 56, 61  
 호쇼드 205, 206  
 흡스골(Khövsgöl) 28, 30, 311, 328  
 흡스골 아이막 288  
 호스틴 볼락(Khustyn bulag) 68  
 호연(呼衍) 씨 55  
 호이드 첵헤르(Khoid tsenkher) 30  
 호이드 첵헤르 아고이 36  
 호지르 노가(Khujir nuga) 281  
 호지르볼란 군사학교 261  
 호지르볼란(Khujirbulan) 261  
 호탁타이 세첸 흥타이지 191  
 호탁트 216, 220, 247  
 호통 노르(Khoton nuur) 209  
 호트고이드 212  
 호한야(呼韓邪) 선우 57  
 혼도고 슴(khondogo sum) 216  
 혼두이(Khondui) 166  
 홍건적(紅巾賊)의 난(亂) 159  
 홍교 186, 196  
 홍모파(紅帽派) 184, 186  
 화림행성(和林行省) 148  
 화약 156  
 환관(桓寬) 71  
 황교(黃敎) 184, 186, 187, 196, 201  
 황금 가문(altan uruγ) 93, 109, 116, 130, 133, 137, 147, 148, 150, 163, 165, 180  
 황금서책(Altan debter) 171  
 황모파(黃帽派) 184, 186  
 황허[黃河] 60, 125  
 회맹(會盟, chuulgan) 205, 215  
 회사법 411  
 후금 197, 198  
 후당 60  
 후레(Khüree, 庫倫) 214, 223, 265, 266, 278, 279  
 후레 그룹 275, 276  
 후레 사원 229  
 후렘트(Khüremt) 209  
 후엘룬(Hüelün) 37, 108  
 후엘룬 우진 102  
 후엘룬 카툰 108  
 후차르 109, 111, 130  
 후톨(Khötöl) 378  
 후흐 노르(Khökh nuur, 青海) 182, 200, 201, 205, 208, 209, 216  
 후흐 노르[青海] 254  
 후흐 호트(Khökh khot) 18, 246  
 훈 85  
 훈육(獮鬻) 42, 44  
 훈족 79  
 훌레구 138, 144  
 훌레구 울루스(일 칸국) 159  
 훌룬 보이르 호수 90, 260  
 흉노 31, 42, 55~57, 62, 64, 74, 75, 78, 85  
 흉노강(Khünüi gol) 85  
 흉노 고지(故地) 55  
 흉노 무덤 69, 70, 72~74  
 흉노 부족 연합 44  
 흉노 시대 68, 72, 84  
 흉노 제국 73, 76  
 흉노의 군주 66  
 흉노의 선우 68  
 흉노인 70, 73, 74, 76, 78, 79  
 흐루시초프 349  
 흥정몽골국칙례 262  
 흥정몽골면년사 272  
 흥안령 산맥 55, 59, 61, 93, 96, 112, 118, 175  
 히르기수르(khircgisüür) 47  
 히틀러 315
- 기타  
 APU 412  
 Gobi 412  
 NIK 41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몽골의 역사

초판 1쇄 인쇄 2009년 6월 19일  
초판 1쇄 발행 2009년 6월 2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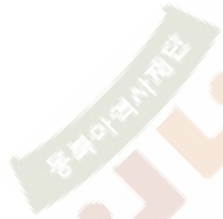
지음 강톨가 외  
옮김 김장구·이평래  
펴낸이 김용덕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77 임광빌딩  
전화 02-2012-6065  
팩스 02-2012-6187  
e-mail book@historyfoundation.or.kr

© 동북아역사재단, 2009

ISBN 978-89-6187-123-5-03910

\* 책값은 뒤표지에 있습니다. 잘못된 책은 바꿔드립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